

**부영공원 지하시설 콘텐츠  
발굴프로젝트 기초조사 보고서**  
- 구술자료집 -

2020. 12.

이 상 의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이 보고서를 부영공원 지하시설 콘텐츠 발굴프로젝트  
기초조사의 최종연구결과물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이상의 (인)**

**부영공원 지하시설 콘텐츠 발굴프로젝트  
기초조사 보고서**

**부영공원 지하시설 관련 구술**

**연구책임자 : 이상의**

**인천문화재단**

## 목 차

1. 구술 수집 결과보고 .....	1
2. 정허섭 구술녹취록 .....	15
3. 이한수 구술녹취록 .....	57
4. 박의양 구술녹취록 .....	84
5. 이종웅 구술녹취록 .....	119
부록 : 인천육군조병창 지하시설 관련 구술 .....	156

**부영공원 지하시설 콘텐츠 발굴프로젝트  
기초조사 보고서**

**부영공원 지하시설 관련 구술**

**1. 구술 수집 결과 보고**

## 1) 구술자료 수집 사업 목표

2020년 올해 10월 14일 부평 미군기지의 일부가 인천 시민의 품으로 반환되었고, 미반환 지역도 조만간 반환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부영공원 내의 일제강점기 흔적으로 보이는 지하시설이 최근 지역사회에서 크게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영공원 지하시설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조사된 적이 없었으므로, 지하시설이 만들어진 시기, 규모, 이용 목적 등이 확인된 바가 없다. 이에 본 구술자료 수집사업에서는 부영공원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부평공원이나 캠프마켓에 한국군이거나 미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하시설 내부로 들어간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찾아 지하시설에 관한 구술을 채록하였고,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에서 해방 이후 애스컴시티로, 그리고 캠프마켓과 부영공원으로 이어지는 이 지역 일대의 시간적, 공간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영공원 내부의 지하시설을 향후 지속가능한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타진하는 한편, 주변의 다른 지하시설에 대한 연구를 확산하는 계기로 삼아 인천지역 내에서의 문화자원의 범주를 확대하고자 한다.

## 2) 구술자료 수집 사업 추진 과정

본 구술자료 수집사업에서의 구술은 부영공원 주변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부영공원 지하시설 혹은 미군부대 내 지하시설에 들어간 경험이 있는 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구술자별로 구술 일정과 장소, 동석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술자별 구술 일정과 장소, 동석자>

정허섭, 2020년 11월 6일, 부평문화원 다목적실, 김규혁팀장

이한수, 2020년 10월 16일, 부영공원 구술자 사무실, 김규혁팀장

박의양, 2020년 10월 15일, 부평문화원 다목적실, 김규혁팀장. 박명식이사

이종웅, 2020년 9월 24일, 부평문화원 다목적실, 김규혁팀장, 박명식이사, 허광무연  
구위원

각 구술자별로 인적사항과 부영공원 주변에서의 근무 내역, 특이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정허섭

출생연도 : 1957년

거주지역 : 인천시 부평구

근무부서와 담당업무 : 3군수 지원사령부 600수송대대에서 기동장비 정비

근무기간 : 1983.8.1.~2017.7.31. 34년간 근무 / 퇴직 후 2018.1~현재 근무 중

특이사항 : 600수송대대 소속으로 현재 부영공원 자리에서 근무하였고, 그 당시 지하시설 내부에 서너차례 들어간 경험이 있음.

### ○ 이한수

출생연도 : 1957년

거주지역 : 인천시 부평구

근무부서와 담당업무 : 88 정비대대(이후 90정비대대)에서 기계공작업무와 자동차정비업무 담당 / 부평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부영공원 관리

근무기간 : 1983.8.1.~2017.7.31. 34년간 근무 / 2018.3.22.~현재 근무 중

특이사항 : 육군 88 정비대대에서 근무하면서 600 경자동차대대로 이동정비를 나갔다가 부영공원 지하시설에 들어간 경험이 있음. 88정비대대(현재 부영공원 자리)의 구조를 매우 상세히 설명하였고 대대본부 건물의 지하시설에도 들어간 경험이 있음.

### ○ 박의양

출생연도 : 1946년

거주지역 :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

근무부서와 담당업무 : 에스컴과 캠프마켓 통신대. 1981년부터 통신대 현장소장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전국 미군부대와 캠프마켓 내부의 통신 수리 담당

근무기간 : 1969.11부터 2000년대까지 31년간 근무

특이사항 : 31년간 미군부대 통신대에서 근무하면서 캠프마켓 내부 지하시설에 들어간 경험이 있고, 각 지하시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

### ○ 이종용

출생연도 : 1942년

거주지역 : 인천시 부평구

근무부서와 담당업무 : 캠프마켓 인쇄소

근무기간 : 1959년부터 인쇄소에서 일함. 1976.4부터 2003년 캠프마켓 인쇄소가 철수될 때까지 근무

특이사항 : 27년간 미군부대 인쇄소에서 근무하면서 캠프마켓 내부 지하시설에 들어간 경험이 있고, 캠프마켓 내부 구조를 자세히 설명함.

### 3) 사업 수행 결과 : 부영공원 지하시설 관련 구술자별 구술 내용<sup>1)</sup>

#### (1) 정허섭

##### ○ 부영공원 지하시설에 들어간 경험과 내부 모습

3군수 지원사령부 600수송대대에서 근무하면서 부영공원 터에서만 1983년부터 근무하였고, 그 시기 땅굴에 서너 차례 드나들었음.

땅굴 입구는 가로가 넓은 직사각형이고, 위쪽에 콘크리트로 된 통풍구가 있음. 입구 콘크리트에 총탄 자국처럼 파인 곳이 많이 있고, 한쪽이 부서져 철근이 드러났음. 철근이 피아노줄처럼 가늘고 매끈하여 마디가 없는 것이 독특해 보였음.

웬만한 차량이 드나들 정도의 일정한 너비의 평평한 굴로 내부 벽이 깔끔했음. 내부 중간에 작은 네모 대여섯줄로 된 유리블록 채광창이 있어 흐릿하게 빛이 들어왔음. 좌측에 콘크리트로 된 작은 방이 있고 그 위에 빨간색으로 한글로 의무실이라고 영성하게 써 있었음. 안으로 들어가면 어두워서 랜턴 필요했으며, 영성한 철조망이 쳐 있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함. 철조망 안으로는 흙더미 비슷하게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져 쌓여 있었음. 굴 입구는 깨끗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부가 지저분해졌고, 안쪽에는 발이 자박자박 잠길 정도로 물이 차 있었음. 땅굴 중간에 작은 쪽문 같은 철문이 있었는지, 부대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짓으면 굴 속에서 울려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군인들이 무서워했음.

##### ○ 지하시설에 대한 소문과 금피 찾기 소동

어딘가로 연결되는 통로처럼 보였음. 대피하기 위한 공간이라면 그렇게 깨끗하고 길게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 소문에 땅굴이 인천 화수부두까지 연결되었는데,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중간중간 폭파했다고 들음. 아파트를 짓다가 연결된 땅굴이 발견되었다 해도 발표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듦.

부대 입구에 초소가 있었고, 그곳에 들어서면 바로 앞에 개방된 땅굴이 보였으므로 당시 부대에 다니던 사람들은 대부분 땅굴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고, 내부가 좁고 어두워서 잘 들어가지 않았음. 1990년 부대가 시흥으로 이사할 때에도 입구를 막지 않았음.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위에 흙을 덮은 듯함.

1) 본 사업에서는 부평 일대의 지하시설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지하시설'이라고 명명하였다. 아울러 보다 정확한 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구술자가 사용한 '땅굴' '병커' 등의 호칭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한다.

86~87년경 전경환의 새마을본부 사람들이 금괴를 찾으려고 수백 장비와 포크레인을 동원해 보름 정도 땅굴 주변을 굴착하다 철수하였음. 보안사 사람들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음. 일제 말기 징용되었던 사람 몇 명이 동행했는데, 그들이 '일제하에 눈을 가리고 승강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었다'고 말했음.

포크레인으로 파보니 입구 바로 앞쪽 밑에 계단으로 내려가면 콘크리트 박스 형식으로 된 곳이 있었는데 발전실이라고 했음. 땅굴 옆면을 파면서 방벽호 쪽에서 용광로 굴뚝으로 연결되는 콘크리트 연도 발견. 배수로처럼 주욱 연결되어 있었음.

이들이 부영공원 자리 외에도 부평공원이나 80정비중대, 산곡동 자리 등을 찾아 탐사를 계속했던 것을 보면 원하는 물건을 찾지 못한 것 같음.

옛날 포병대대 자리인 우성아파트 자리에서 중국 돈과 우리 엽전을 찾은 적이 있음. 중국 돈은 크기가 더 컸음. 신문에도 우성아파트 자리에서 엽전이 많이 나왔다는 기사가 나왔음.

## (2) 이한수

### ○ 부평공원 지하시설에 들어간 경험과 부평공원 터의 과거 구조

현 부평공원 자리에 있던 88정비대대에서 근무했음. 1988~89년 경 근무하던 중 일제시기에 만들어진 대대본부의 2층 건물 지하 병커에 들어갔었음. 콘크리트 사각 건물의 1층에 본부 행정과가 있었고, 2층이 대대장실이었음.

본부 건물 1층 행정과 옆으로 커튼이 계단이 있었는데, 2층만이 아니라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도 연결되어 있어 궁금해서 내려가 봄. 지하는 벽 두께가 40센티 정도로 두껍고 철문이 있었던 틈도 두껍게 남아 있었음. 병커는 폭 2미터, 높이 2미터 정도였고, 조명시설이 없어 캄캄해서 5~10미터 정도 들어갔다가 그냥 나옴. 지하시설은 그곳이 유일했음. 부대가 이사한 후 그 공간에서 영화 '쉬리'를 촬영함. 병커가 부평삼거리 은광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었음.

대대 내에 본부 외에는 전형적인 창고건물이 여러 동 있었음. 출입문이 커서 차가 드나들 수 있었고, 창문이 있는 건물이었음. 지금은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고 부평공원이 들어섬.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병커 안에서 일본도 등이 나왔다는 소문을 들었음.

### ○ 부영공원 지하시설에 들어간 경험과 내부 모습

부영공원이 있는 600 경자동차대대로 이동정비를 나갔다가 부영공원 내에 있는 병커에 들어가 봤음. 여름에 시원한 곳을 찾아 지휘관들을 피해서 들어가서 쉬었음. 입구가

막혀있지 않았고, 그때는 바닥에 물이 고여있지 않았음. 병커가 두돈 반차도 충분히 들어갈 만큼 컸음. 높이 3미터, 폭 5미터는 되어 보이게 넓었음. 88정비대대 굴은 좁았으므로 그것과 비교하면 통로보다는 대피소 같은 느낌을 받았음. 조명시설을 설치한 흔적이 있었고,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었으며, 안에 의무실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던 것 같음. 100미터 정도 들어가니 막혀있다고 해서 그냥 나옴. 완만하게 경사졌던 느낌.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말을 얼핏 들었지만 가보지 않았음. 밖으로 나가는 계단이 두세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음.

1993,4년 경 600 경자동차대대가 시흥 무지리로 이사간 후 안전 문제 때문인지 병커를 흙으로 덮었고 이후 개방을 하지 않았음. 2020년 올 봄 인천시청에서 와서 포크레인으로 입구를 뚫다가 다시 덮는 장면을 보았음.

### (3) 박의양

#### ○ 캠프마켓 지하시설에 들어간 경험과 땅굴 관련 소문

에스컴시티 시절부터 캠프마켓 부지 내에서 31년간 근무하면서 통신대 현장소장으로 내부를 돌아다녔으므로 내부 구조에 밝음. 통신장비를 옮기려고 다니다 보면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지은 일본식 건물 주변에는 항상 땅굴이 있었음. 자물쇠를 잠갔으나 녹이 슬어 발로 툭툭 건드리면 쉽게 열렸고, 그 안은 계단으로 내려가는 형식이 똑같음. 땅굴마다 곁으로 탐을 썬아서 표시가 났음. 모퉁이 같은 곳에 1미터 50센티 정도 크기로 벽돌로 쌓아 양회를 발라놓은 곳이 땅굴 입구. 당시 땅굴은 건물처럼 취급도 안 했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음.

땅굴로 내려가서 보니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콘크리트를 천장까지 맨질맨질하게 잘 해놓았음. 보기에 다른 곳과 연결되어서 통하는 것 같았음. 소문에 땅굴이 인천항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했음. 또 일본이 패망하면서 금붙이 몇백 톤을 연못에 집어넣고 갔다는 소문이 있어서 금을 찾으려고 90년대 4년간 민간업자 세 명이 매일같이 들어와서 톨러로 땅을 파고 돌아다녔음.

#### ○ 캠프마켓 부지 6개 지하시설의 위치 비정

현재 캠프마켓 부지 내 6개와 부영공원에 1개, 총 7개의 지하시설이 있었다고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함.

첫 번째 땅굴은 동아아파트 쪽 정문 앞 우측 주차장 밑에 있는데, 지금은 땅굴을 표시하는 윗부분을 부수고 아스팔트로 덮었음. 동료 중 한 명이 자주 땅굴 속 계단에 내려가 앉아서 기도를 해서 찾으려 갔음. 조용하고 물이 차 있었으며, 굉장히 넓은 공간

이 사방으로 막혀 있고, 콘크리트로 맨질맨질하게 되어 있었으며, 가에 계단을 만들어 드나들 수 있게 해두었음. 녹슨 철문이 있었고 자물쇠를 채워 두었는데 열기 쉬웠음.

두 번째는 굴뚝 있는 쪽, 미군 콘테이너 막사 있는 곳 옆에 있음. 맞은 편에 벽돌로 지은 일본식 건물이 있는 것을 보면 대피용으로 만든 것 같음.

세 번째는 미군들 식재료를 넣었던 창고 맥스홀이 있던 뒤편 큰 은행나무 있는 곳에 있었음. 서전트 숙소, 지금 사병 막사라고 부르는 곳임.

네 번째는 인쇄소 앞 배구하던 마당에 있었는데, 운동하기에 거추장스럽다고 메꾸고 아스팔트를 깔았음. 물이 자꾸 내려가서 아스팔트에 구멍이 났는데, 그 곳이 땅굴임.

다섯 번째는 빨간 벽돌로 된 가구 창고 뒤의 카추샤 스넥바 주변에 있었음.

여섯 번째는 DRMO 가는 길에 꺾어지고, 탄약고가 있고, 올라온 것이 있는데 거기가 땅굴 들어가는 곳임.

2013년 인천시청에서 연락해서 이종용 구술자와 함께 지하시설 위치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빨간 페인트로 지하시설 위치 여섯 군데에 동그라미 칠을 해준 적이 있음.(이종용 구술)

#### (4) 이종용

##### ○ 캠프마켓 지하시설에 들어간 경험과 여러 땅굴 부지

1976년부터 2003년까지 27년간 캠프마켓 인쇄소에서 근무했음. 인쇄소는 일제하에 만든 빨간 벽돌로 된 2층 건물이었음. 벽이 두껍고 철문이 두꺼워서 혼자 닫지 못함.

인쇄소로 가는 길에 구조물이 위로 튀어나와 있고 문이 닫혀있는 곳에 지하로 들어가는 곳이 있었음. 본래 못 들어가게 막아두었지만, 열려 있어서 몇 명이 호기심에 같이 들어가 보았음. 입구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바로 계단이 있었고 그리 깊지 않았음. 시멘트로 된 견고한 곳이었고 높이는 사람 한배 반 정도, 폭은 4~5미터 정도 되었음. 평소 사용하지 않는 어두컴컴한 곳이었음.

정문 옆과 미군기지 본부 건물 옆, 통신대 창고 뒤쪽 등 서너 군데 여기저기에 땅굴이 있었음. 보통은 땅굴이 있는 걸 알아도 관심이 없었고, 미군들은 비밀유지에 신경을 많이 썼으므로 눈치가 보이고 문제 삼을까봐 서로 말을 조심했음. 소문에 캠프마켓에서 인천 연안부두까지 땅굴이 연결되었다고 들었음. 캠프마켓 내부의 하수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아무리 장마가 저도 물이 고이는 일이 없이 다 빠져나갔음.

##### ○ 캠프마켓 지하시설에 대한 소문과 한미 합동 조사단

통신대 창고 뒤에서 금을 찾느니 하면서 땅을 파는 것을 인쇄소에 있어서 바로 볼

수 있었는데, 땅을 파다가 지하 벙커가 나왔다고 했음. 구술자도 하루 나가서 일을 맡아서 땅을 뚫은 일이 있었는데, 당국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곳에 무언가를 묻어놓았다고 하면서 몇 군대를 다니면서 뚫고 다녔음. 지하벙커가 건물 아래에도 있고 건물 바깥에도 있었음.

캠프마켓 뒤쪽 건물 중 하나가 도로 아래로 부평공원으로 통했으나 나중에 막았다는 소문이 있었음. 미군들은 옛날 건물들은 허물지 않고 웬만하면 수리하면서 그대로 썼으며, 지상에는 건물을 짓기도 하고 헐기도 했지만 지하는 건드리지 않았으므로 땅굴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함.

20년 전 경, 퇴직(2003년)하기 이전에 한미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서 지하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음. 2013년 인천시청에서 연락해서 박의양 구술자와 함께 지하시설 위치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한 적이 있음.

## 4) 향후 과제 및 추가 구술 작업의 필요성

### ○ 추가 구술 작업의 필요성

본 구술자료 수집사업의 연구 대상인 부영공원 지하시설은 일제지배 말기 일본이 인천 부평에 설치했던 대규모 무기제조공장인 인천육군조병창 시설 중 일부 시설이었다.<sup>2)</sup> 본 결과보고의 부록으로 첨부하는 <인천육군조병창 지하시설 관련 구술>에 의하면, 당시의 조병창의 지하시설은 지하 무기 검사계, 방공호, 무기 보관 창고, 조병창 일부 시설 이전을 위한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구술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구술자 모두 목격할 당시 사용하지 않고 용도 폐기된 상태의 지하시설에 들어가 보았고, 지하시설의 용도나 형태에 대해서도 소문에 의해 전해들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후 1939~1945년간 인천육군조병창에 동원되어 지하시설을 직접 만드는 데 참여했거나 지하시설 내부에서 일을 했던 당사자를 만나 추가로 구술을 채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하시설의 용도와 형태, 길이, 방향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 ○ 향후 과제

본 구술채록 과정에서 수집한 내용 중에는 지하시설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구술자 정허섭은 부영공원의 지하시설 입구에는 총탄 자국처럼 중간중간 콘크리트가 파인 곳이 많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지하시설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중간 좌측에 작은 공간이 있고 그곳 위에 의무실이라고 낙서처럼 적힌 글자를 보았다고 하는 복수의 구술도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곳이 6·25전쟁과 관련된 장소는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하게 한다. 부평은 6·25전쟁이 치열하게 치러진 지역이고, 전쟁 과정에서 과거 조병창이었던 이곳은 중요한 확보의 대상이었음을 참고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내용을 비롯하여 본 구술자료 수집사업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내용이 이후 더욱 깊이 연구되고 진실이 파악되어, 부영공원의 지하시설을 비롯한 부평 일대의 지하시설이 가지는 장소성과 역사성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2) 인천육군조병창에 관해서는 이상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인천학연구』 25, 인천학연구원, 2016 ; 이상의 면담·해제, 국사편찬위원회 편,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 육군조병창 사람들』, 역사비평사, 2019 참조.



부영공원 지하시설 사진 (2020.4)



부영공원 지하시설 내부모습



부영공원 지하시설 입구

## 5) 질문지

### 1. 구술자 인적사항

고향, 부평 거주 기간  
가족관계  
학력, 학창시절  
직장, 지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출퇴근시, 근무시 행동 반경  
동행자 일행

### 2. 부영공원 내 지하시설 관련

분포 정도, 분포 위치  
직접 목격했나, 들어가 보았나, 몇 차례  
왜 들어갔나, 동행자는  
규모 : 모양, 너비, 길이  
모양 : 무늬, 시설, 밝기, 마감재, 경사, 계단, 층수 등  
용도 : 목격 당시 용도, 관리 상태, 부르던 이름(일본군 땅굴, 벙커)  
현재 지하시설의 모습, 상태, 접근 가능 여부

주변에서 들은 지하시설에 대한 소문 - 규모, 용도  
소문의 주체

### 3. 지하시설 콘텐츠 관련 관심 여부

올해 10월 14일 캠프마켓 일부 구역이 반환된 사실을 아는가, 가보았나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영공원 지하시설이나 캠프마켓 관련하여 바라는 점  
: 인천시 등 관공서에, 보존 혹은 활용 방안

이전 인터뷰 참여 여부  
2013년 미군부대 시민참여협의회 기자회견 참여시 발언 회고

## 6) 면담자 신상카드 1

면담자 인적사항	성명	이 상 의	
	소속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주소	*****	
	전화번호	*****	
	e-mail	doraji-fr@hanmail.net	
주요 경력 (연구, 구술채록)	연도	내 용	
		논문 및 저서명, 구술자료 수집 성과	게재지, 출판사, 발주기관
	2020.12-2021.03	구술) <202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0.08-12	구술) <부영공영 지하시설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인천문화재단
	2019.12	구술집 간행)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 육군조병창 사람들』	국사편찬위원회
	2019.09	논문) 「구술로 보는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조병창」	동방학지 188
	2019.03-10	구술)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강제동원과 동양방적 사람들>	국사편찬위원회
	2017.08	편저)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통감부, 조선총독부 편』	민족문제연구소
	2017.03-09	구술)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강제동원과 인천조병창 사람들>	국사편찬위원회
	2017.03	논문) 「태평양전쟁기 조선인 ‘징용학도’의 동원과 노무관리 - 계훈제의 회고록 <植民地 野話>를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0
	2017.03	논문) 「태평양전쟁기 조선인 전문학생·대학생의 학도지원병 동원 거부와 ‘학도징용」	역사교육 141
	2016.08	논문)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인천학연구 25
	2015.12	저서) 『강제동원을 말한다 - 일제강점기 조선인 피징용 노무자 미수금 문제』(공저)	도서출판선인
	2015.09~2017.08	구술) <월남민 생애사 조사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08	해제) 『한국 근대 민속·인류학 자료대계 37 : 조선의 농촌위생/토막민의 생활위생』	민속원
	2015.07	저서) 『강제동원 Q&A 1』(공저)	도서출판선인
2015.06	저서) 『제국의 권력과 식민의 지식』(공저)	도서출판선인	

## 면담자 신상카드 2

면담자 인적 사항	성명	김 규 혁																			
	생년월일	1984 년 8 월 26 일																			
	연락처	*****																			
	현주소	*****																			
	소 속	부평문화원																			
주요 경력	<table border="1"> <thead> <tr> <th>연 도</th> <th>구 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2014~2015</td> <td>부평愛샘길따라</td> <td>부평의 역사, 향토사, 자연 등을 알리는 해설사양성과정 기획진행</td> </tr> <tr> <td>2016</td> <td>부평자염</td> <td>부평소금밭일놀이 조사사업 기획진행</td> </tr> <tr> <td>2016~현재</td> <td>부평지하호</td> <td>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연계 지하시설인 부평지하호 조사 및 문화사업 연계 기획진행</td> </tr> <tr> <td>2017~2018</td> <td>부평은광</td> <td>인천가족공원 아래에 있는 영풍광업의 부평광산 조사사업 기획진행</td> </tr> <tr> <td>2020~</td> <td>부영공원 지하시설</td> <td>부영공원 지하시설</td> </tr> </tbody> </table>			연 도	구 분	내 용	2014~2015	부평愛샘길따라	부평의 역사, 향토사, 자연 등을 알리는 해설사양성과정 기획진행	2016	부평자염	부평소금밭일놀이 조사사업 기획진행	2016~현재	부평지하호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연계 지하시설인 부평지하호 조사 및 문화사업 연계 기획진행	2017~2018	부평은광	인천가족공원 아래에 있는 영풍광업의 부평광산 조사사업 기획진행	2020~	부영공원 지하시설	부영공원 지하시설
	연 도	구 분	내 용																		
	2014~2015	부평愛샘길따라	부평의 역사, 향토사, 자연 등을 알리는 해설사양성과정 기획진행																		
	2016	부평자염	부평소금밭일놀이 조사사업 기획진행																		
	2016~현재	부평지하호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연계 지하시설인 부평지하호 조사 및 문화사업 연계 기획진행																		
	2017~2018	부평은광	인천가족공원 아래에 있는 영풍광업의 부평광산 조사사업 기획진행																		
	2020~	부영공원 지하시설	부영공원 지하시설																		
	<table border="1"> <thead> <tr> <th>연 도</th> <th>수 상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2019</td> <td>인천광역시 문화원연합회장상 수상</td> </tr> <tr> <td>2017</td> <td>향토문화공모전(지방문화원 향토문화연구실적부분) 문화체육부장관상 수상</td> </tr> <tr> <td>2017</td> <td>대한민국 문화원상 인재분야(창의활동가부문) 수상</td> </tr> <tr> <td>2014</td> <td>인천광역시 문화원연합회장상 수상</td> </tr> <tr> <td>2013</td> <td>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경영과정 최우수 수료</td> </tr> </tbody> </table>			연 도	수 상 내 용	2019	인천광역시 문화원연합회장상 수상	2017	향토문화공모전(지방문화원 향토문화연구실적부분) 문화체육부장관상 수상	2017	대한민국 문화원상 인재분야(창의활동가부문) 수상	2014	인천광역시 문화원연합회장상 수상	2013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경영과정 최우수 수료						
	연 도	수 상 내 용																			
	2019	인천광역시 문화원연합회장상 수상																			
	2017	향토문화공모전(지방문화원 향토문화연구실적부분) 문화체육부장관상 수상																			
	2017	대한민국 문화원상 인재분야(창의활동가부문) 수상																			
2014	인천광역시 문화원연합회장상 수상																				
2013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경영과정 최우수 수료																				

**부영공원 지하시설 콘텐츠 발굴프로젝트  
기초조사 보고서**

**부영공원 지하시설 관련 구술**

**2. 정허섭 구술녹취록**

## 구술 녹취록 개요

- 면담주제 : 부영공원 지하시설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부영공원 지하시설 관련 구술)
- 구술자 : 정허섭(600 수송대대에서 34년간 근무)
- 면담자 1 : 이상익(인천대학교 초빙교수)
- 면담자 2 : 김규혁(부평문화원 기획팀장)
- 면담 일시 : 2020년 11월 6일 오후 6시 20분
- 면담 장소 : 부평문화원 다목적실
- 주요 용어 : 부영공원, 600 수송대대, 지하시설, 땅굴, 금괴 찾기 소동
- 특기 사항 : 600 수송대대 소속으로 현재 부영공원 자리에서 장기간 근무. 그 당시 지하시설 내부에 서너차례 들어간 경험이 있어서 유리채광창, 작은 방과 낙서, 철망과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바닥의 물 등 내부시설에 대해 잘 기억함.
- 구술자 녹취록 검토 여부 : 검토 완료

# 구술자 동의서 1

## 개인정보로 삭제함

## 구술자 동의서 2

### 개인정보로 삭제함

## 구술자 사진



**구술자 신상카드**

**개인정보로 삭제함**

# 정허섭 구술 녹취록

## [1차 1번 녹취록]

면담자1 :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술자 : 아 네.

면담자1 : 저희가 부영공원에 있는 지하시설에 대해서 조사하느라구요. 선생님 모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먼저 전체적인 내용 좀 읽고 시작할게요. 이 인터뷰는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부평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부영공원 지하시설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에 관한 구술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정허섭 선생님의 1회차 구술 채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시는 2020년 11월 6일 오후 6시 20분이고 장소는 부평구 부평문화원 다목적실입니다. 구술면담은 인천대 기초교육원 교수 이상의와 부평문화원의 김규혁 팀장이 진행하고, 촬영은 김규혁 선생이 담당합니다.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태어나셨는지부터 여쭙볼까요? 생신이 언제인지.

구술자 : 저는 1957년 5월 25일생입니다.

면담자1 : 57년 5월 25일이요? 예. 닭띠.

구술자 : 네네.

면담자1 : 그럼 지금 우리 나이로 예순넷 되셨네요?

구술자 : 네네.

면담자1 : 부평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술자 : 아닙니다. 저 서구.. 인천 서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면담자1 : 인천 서구 네에. 그럼 언제부터 부평에 사셨어요?

구술자 :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면담자1 : 여기로 이사 오신 거예요?

구술자 : 네네

면담자1 :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부평에서 다니셨네요.

구술자 : 네네

면담자1 : 어느 학교에 다니셨나요?

구술자 : 산곡초등학교 다녔습니다.

면담자1 : 아 산곡초등학교요. 그럼 그 다음에는.

구술자 : 부평동중

면담자1 : 부평 동중 네 그리고.

구술자 : 그 답에 인천 기계공고

면담자1 : 아 인천 기계공고 다니셨어요? 네 그리고 계속 부평에 거주하신 거예요?

구술자 : 네네 그렇습니다.

면담자1 : 그러면은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 부평에 거주하신 거네요?

구술자 : 네네.

면담자1 : 네에. 가족들이 다 부평에 계세요?

구술자 : 네 그렇습니다.

면담자1 : 지금 직장이 어디신지?

구술자 : 3군수 지원사령부 용역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면담자1 : 예. 거긴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구술자 : 18년 1월부터 다녔습니다.

면담자1 : 아 2018년이요?

구술자 : 네.

면담자1 : 다시 여쭙 봐야 되겠네요. 예 그 인천 기계공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는

구술자 : 그 답에 군대 갔다 오고

면담자1 : 예

구술자 : 그 답에 인제 현대건설에 한 1년 있다가 그 다음 군무원 시험 봐갖고 3군수 지원사령부에 취업을 했죠.

면담자1 :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죠?

구술자 : 그게 83년입니다. 8월

면담자1 : 83년 8월이요?

구술자 : 네.

면담자1 :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술자 : 83년 8월 1일부로 임용이 돼서 이제 그 당시에 부영공원 자리가 육백 수송대 대 자리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입을 온 거죠. 거기서부터 근무 시작한 겁니다.

면담자1 : 예 그럼 거기서 퇴임하시고?

구술자 : 아니 거기서 아니고 딴 데 정비대에 가서 퇴임을 하고 2017년 7월

면담자1 : 퇴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다시 오시고요.

구술자 : 네네 다시 들어온 거죠.

면담자1 : 그러면은 수송대에서 하신 일이 어떤 거였어요?

구술자 : 기동장비 정비했습니다.

면담자1 : 기동장비 정비요? 그게 어떤 거죠?

구술자 : 기동장비, 차량, 차량 바퀴 달린 장비

면담자1 : 큰 차량이요?

구술자 : 네네 전부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바퀴 달린 건 다 기동장비라고 부르니까

면담자1 : 그 자리가 지금의 부영공원

구술자 : 그렇죠. 네.

면담자1 : 그러면은 거기에서 총 계셨던 기간이 34년?

구술자 : 보자.. 거기에 근무하다가 부대가 시흥으로 이사했습니다.

면담자1 : 예예

구술자 : 19년.

면담자2 : 정비대대 말씀하시는 거죠?

구술자 : 고 정비대대도... 부평공원에 있던 정비대대도 시흥으로 갔고. 여기 수송대대도 시흥으로 갔고.

면담자1 : 예. 그럼 이사가기 전까지 계속 거기에 계셨네요?

구술자 : 네. 그렇습니다.

면담자1 : 차량 정비하시면 주로 고정된 자리에 계신가요?

구술자 : 그렇죠. 네.

면담자1 : 그럼 날마다 부평에서 거기로 출근하신 거고요?

구술자 : 네.

면담자1 : 부대 안에서 그러면 활동은 꽤 자유로우셨죠?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저희가 지금 궁금한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영공원 안의 지하 시설이 있잖아요? 그것에 관해서 듣고 싶은데 지금도 가면 그 지하시설의 흔적이 좀 보이잖아요?

구술자 : 네.

면담자1 : 그런데 거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밖에 없어서 이전에 부대에 계실 때 수송대에 계실 때 그러면은 그곳에 들어가 보셨는지

구술자 : 네 들어가 봤습니다.

면담자1 : 아 들어가 보셨어요?

구술자 : 네.

면담자1 : 몇 차례나 들어가 보셨어요?

구술자 : 한 서너차례 들어가 봤는데.

면담자1 : 서너차례요?

구술자 : 네. 그 안쪽이 너무 음침하고 그래서 자주 들어가진 않았습시다.

면담자1 : 아아 음침해요?

구술자 : 그렇죠. 축고 음침하고 차고. 공기가 차잖아요. 거긴 여름에 들어가도.

면담자1 : 지하니까.

구술자 : 네.

면담자1 : 서너차례는 왜 들어가신 거예요?

구술자 : 처음에는 궁급해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86,7년 그때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전경환씨가 새마을 본부장 할 때 그 사람들이 시켰다고 그래서 장비를 끌고 들어오더라구요. 그 탐사를 한다고

면담자1 : 무슨 탐사를 해요?

구술자 : 거기에 그 당시에 조병창이 있었고? 그 어떤 분이 조폐공사도 같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면담자1 : 조폐공사요?

구술자 : 네 근데 그 당시에 끌려왔던 분도 같이 왔었어요.

면담자1 : 아아

구술자 : 같이 와서

면담자1 : 옛날에 조병창에서 일했던?

구술자 : 예예.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눈 가리고 트럭타고 들어와서 그 본인 말로는 승강기 타고 1, 2층을 내려갔다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면담자1 : 아, 지하로.

구술자 : 네 지하로 내려갔다고.

면담자1 : 지하 2층으로 내려갔다고?

구술자 : 네 1,2층 뭐 지하로 몇 층인지는 모르겠는데 눈을 가리고 내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면담자1 : 아 그러면 부영공원에 있던 지하시설에서?

구술자 : 고 시설인지 그 미군부대 쪽인지는 그 사람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건. 좌우지간

면담자1 : 그 분을 만나보셨어요?

구술자 : 네 잠깐 봤죠.

면담자1 : 아 같이 계셨어요?

구술자 : 잠깐 봤죠. 네.

면담자1 : 그러면 그 분 말씀이 그 터널 지하시설에 눈을 가리고

구술자 : 네. 트럭으로. 눈을 가리고 들어와서 뭐 끌고 들어가서 승강기를 타고 내려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면담자1 : 언제 그랬는지 혹시.

구술자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면담자1 : 아아 그게 뭐 옛날에 일제하에 그랬다 아니면 해방 후에 그랬다.

구술자 : 아니, 일제하에 아 일제하에서 징용 끌려 가서 그랬다고.

면담자1 : 아 일제하에 징용됐을 때. 눈을 가리고 트럭을 타고 와서 승강기를 타고 지

하로 내려갔다.

구술자 : 네네.

면담자1 : 지하에서 뭘 봤다 그런 말씀은.

구술자 :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못들어서.

면담자1 : 그런데

면담자2 : 왜 내려가셨는지

구술자 : 그거를 자세히 기억이 안나서 제가

면담자1 : 그런 분의 말씀을 듣고 왜 전경환씨가

구술자 : 그러니까 그 전경환씨 그때 그 사람들 얘기는 금괴를 찾으러 왔다고 그러더라  
구요

면담자1 : 금괴를 찾으러, 아 그러니까 거기에 금괴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나 보  
네요.

구술자 : 네 그렇습니다. 네.

면담자1 : 그냥 뭐 동전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구술자 : 아 아니고

면담자1 : 금괴가 있다

구술자 : 근데 동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비를.. 그 당시에 포크레인도 그렇게  
많지 않았잖습니까 한 86년도?

면담자1 : 87년도? 86년도요?

구술자 : 고 당시 한 80년대 후반인데. 그 당시에 포크레인.

면담자1 : 새마을본부장 할 때

구술자 : 그렇지. 맞아요. 새마을 본부장 할 때

면담자1 : 예

구술자 :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통제도 심했고 자기네들이 맘대로 들어와서  
땅을 파보고

면담자1 : 땅을 어디를 파요?

구술자 : 입구쪽, 입구쪽 옆에도 파보고 지금 고 막아논 데 있죠? 막아논 데

면담자1 : 지하시설

구술자 : 지하시설 막아 놓은 데 옆부분 파고, 그 담에 입구 쪽 파고

면담자1 : 지하시설 입구요.

구술자 : 네네. 입구쪽을 파니까 사각형의 박스식으로 이렇게 공간이 나오더라고

면담자1 : 그러면 그때 그게 덮여있었나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아 처음에 그 시설이 있는지 모르셨네요?

구술자 : 그게 콘크리트로 박스로 되어 있더라구요. 밑에 다시.

면담자1 : 흠이 덮여 있었어요?

구술자 : 그 입구니까 입구

면담자1 : 맨 처음에는 그러면은 그 전경환씨 일행이 오기 전에는

구술자 : 근데 전경환씨가 직접 온 게 아니고 그 새마을 본부에서 그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여를 못하게 했으니까 아예

면담자1 : 접근을 못하게요.

구술자 : 그렇죠 접근을 못하게 했으니까.

면담자1 : 그러면은 그분들께 건너 건너 소문으로 들어셨네요?

구술자 : 그렇죠. 네.

면담자1 : 그러면 그 지하시설이요, 지금은 입구가 조금 보이잖아요?

구술자 : 네네.

면담자1 : 예전에 처음에..

구술자 : 처음에 다 입구가 막혀있지 않았어요.

면담자1 : 아 그때 외관이 보였어요?

구술자 : 그렇죠. 그러니까 모서리 부분이 미군부대하고 기억자로 꾸여져 있지 않습니  
까. 거기가 입구인데 거기에 이제 88보충대라고 부대...중대가 거기 시설이  
있었거든요. 중대 정비 시설이 거 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입구쪽에 운동장  
쪽으로 입구 말고 그 앞쪽으로는 이제 옹벽이 쳐져있었고 콘크리트로. 옹벽  
이 쳐져있죠? 네네. 비스듬하게 쳐져 있었고 그 입구를 파니까 그 네모난 박  
스가 나오는데 자기들 말로는 뭐 발전실이다 어쩌다 자기네들끼리 그러더라  
구요. 그 다음에..

면담자1 : 그걸 그 장비를 가지고 판 사람들이

구술자 : 그렇지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 옆면..그 옆면을 또 봤는데 뭐 기름밖에 안나오  
고

면담자1 : 아 기름이요?

구술자 : 네 기름 그런 게 좀 나왔어요.

면담자1 : 그때 장비는 어떤 게 들어갔나요?

구술자 : 포클레인. 포클레인이 주로 작업을 했죠. 맨처음엔 뭐 포클레인데다 크레인  
에 다 뭐 여러 가지 장비 갖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거는 포클레인 밖에  
없습니다.

면담자1 : 사람들은 어느 정도 왔어요?

구술자 :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장비하고 많진 않았어요?

면담자1 : 예. 그러면은 그 전에도 그 터널 안에 지하시설 안에 들어가셨어요?

구술자 : 네 들어가봤죠. 그 전에.

면담자1 : 그런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구술자 : 막힌 부분 까지 들어가봤는데 거기 인제 철조망식으로 쳐져 있었고.

면담자1 : 어 안에 철조망이 쳐있어요?

구술자 : 철조망 비슷하게 그러니까 무너져가지고 사람 접근하지 말라고 쳐 놓은 거 같은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들리는 얘기는 일본군들이 철수하면서 중간중간은 폭파했다 그런 식으로 들었걸랑요. 제가.

면담자1 : 그러면은 본래는 긴 구간인데.

구술자 : 긴 구간이라고 그러더라구요.

면담자1 : 예에 어디까지 연결됐다 뭐..

구술자 : 그러니까 말로는 화수부두 쪽까지 연결됐다는 소리를 들었걸랑요?

면담자1 : 아 인천에 화수부두 까지요?

구술자 : 네네

면담자1 : 그러면은 부영공원에서 조병창에서부터 인천의 화수부두까지 연결됐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구술자 :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면담자1 : 중간 중간에 폭파한 거 같다 그런 게 다 소문이죠?

구술자 : 그렇죠 소문이죠.

면담자1 : 그래서 중간에 철망이 쳐졌는데 철망은 누가 친 건가요?

구술자 :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83년도에 들어갔는데, 84년쯤 들어갔나 좌우지간 그 당시에 쳐져 있더라구요

면담자1 : 철망이 어떻게 생겼어요?

구술자 : 철근하고 철조망으로 열기설기했는데 네.

면담자2 : 우리가 보는 그런 펜스는 아니고

구술자 : 그렇죠. 펜스는 아니고 가시 철조망 비슷한 거 그런 걸로 이렇게.

면담자1 : 출입하지 말라는

구술자 : 네네. 그건 누가 쳤는지 모르겠어요.

면담자1 : 그러면은 거기 그 안에 내부에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술자 : 내부에 글루 쭉욱 들어가다보면 그 당시 위쪽으로 채광창 비슷하게 유리블록으로 된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구요?

면담자1 : 위쪽예요?

구술자 : 예에 중간에.

면담자1 : 중간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

구술자 : 그게 한 30메타?

면담자1 : 30메타 정도 들어가면?

구술자 : 네 정확하진 않은데 위쪽으로 유리블록식으로 이렇게.

면담자1 : 유리블록?

구술자 : 네네. 채광..

면담자1 : 아 그래서 거기서 빛이 들어왔구요?

구술자 : 그 당시에도 덮여가지고 잘 채광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저기 했걸랑요. 희미하게

면담자1 : 아 약간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는 걸 느끼셨어요?

구술자 : 네네

면담자1 : 그게 하나였나요?

구술자 : 전 하나 봤습니다. 길게. 저기가 굴이 땅굴이 이렇게 있으면은 끝까지 길게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면담자1 : 아아 위쪽에 계속 길게

구술자 : 가로로. 세로로가 아니라 가로로.

면담자1 : 30미터쯤 들어가면 안에서 계속 길게 이어서

구술자 : 가로로 가로로

면담자1 : 아아 가로로 30미터쯤 들어가면요

구술자 : 네네 그 안쪽이 몇 미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고기 채광창을 봤어요. 그리고 좁 들어가다보면 좌측으로 조그만 방이 하나 나오더라구요.

면담자1 : 방이요?

구술자 : 네. 콘크리트로 그냥 옆으로 이렇게 문하나 있고 비슷하게 방 하나

면담자1 : 예 그러면 주욱 일자로 가다가 좌측에

구술자 : 좌측으로 네.

면담자1 : 공간이 하나 있다는 말씀이죠?

구술자 : 네, 작은 공간

면담자1 : 몇 미터 정도

구술자 : 글세요 한 2,3미터?

면담자1 : 2,3미터. 가로 세로 2,3미터 정도 되는.

구술자 : 네.

면담자1 : 그럼 입구는 몇 미터 몇 미터 정도였어요?

구술자 : 글세 정확히...

면담자1 : 좀 감을 잡으시면

구술자 : 글세. 웬만한 차... 높이는 안되는데.. 웬만한 차 한 대는 들어갈 정도인데

면담자1 : 아 차량이 드나들 정도

구술자 : 네.

면담자1 : 옆면에는 다 콘크리트로.

구술자 : 콘크리트로 돼 있고, 희한한 게 그때 철근을 이렇게 쓴 걸 봤는데 요즘 우리가 쓰는 철근은 울퉁불퉁해서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디가 없고 그냥

피아노선처럼 가느.. 피아노선처럼 일자로 된 철근을 썼더라고요

면담자1 : 그 속에 철근이 드러난 걸

구술자 : 네네 철근이 드러난 걸 보니까.

면담자1 : 철근 드러난 데는 입구 쪽이죠?

구술자 : 입구 쪽이죠

면담자1 : 그래서 그 채광 있는 데 하고 방 공간 있는데 하고는요 위치가 어디쯤

구술자 : 글썄 그걸 자세히 제가 몇 미터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억이.

면담자1 : 그러면은 약간 기울기가 있나요? 아니면

구술자 : 기울기 거의 없는 저기였습니다. 평평하다고 봐야죠

면담자1 : 그럼 안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게 여러가지 있었겠네요?

구술자 : 처음에는 뭐 나중에 지저분...갖다 버렸는지 지저분해졌더라고요

면담자1 :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구술자 : 네

면담자1 : 거기 사람들이 많이 드나 들었나 보네요?

구술자 : 잘 드나들진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면담자1 : 그 선생님이 서너차례 다니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가실 때는 무슨 용도로.

구술자 : 아 그니까 랜턴 가지고 궁금하니까 그리고 여름에.

면담자1 : 아 랜턴 들고, 어두웠던 거죠?

구술자 : 그렇죠. 깜깜하니까

면담자1 : 혼자 가셨어요?

구술자 : 네 혼자도 가고 둘이도 가고

면담자1 : 다른 사람...다른 분하고 같이 그냥 가보자

구술자 : 그렇죠 궁금하니까

면담자1 : 아니면 우리 여기 가서 좀 쉬자 그런 건 아니고

구술자 : 궁금하니까 들어가본 거죠

면담자1 : 으음 근데 가실 때마다 그럼 거기 철조망 있는 데까지

구술자 : 아니 갈 때마다 처음에만 끝까지 들어가 봤지. 그 다음부터 거기까진 안 들어가  
가지.

면담자1 : 그냥 입구에서 조금 들어가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구요?

구술자 : 네네.

면담자1 :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별로 그걸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네요?

구술자 : 그렇죠 사용할 일이 없죠.

면담자1 : 거기가 그게 있다는 걸 그럼 다른 분들도 알고 있었나요?

구술자 : 거기 근무했던 사람들은 다 알죠.

면담자1 : 외벽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요?

구술자 : 네. 입구가 완전히 개방돼 있었으니까

면담자1 : 아 완전히 개방돼 있었어요?

구술자 : 개방돼 있었고, 입구 쪽에 인제 초소가 있었어요.

면담자1 : 초소요?

구술자 : 네 초소는 인제 우리 병사들 근무서는 초소. 미군부대 그 기억자 끝에 모서리 부분에 거기 초소가 있어서. 그리고.

면담자1 : 군대 초소가 있었던 거예요?

구술자 : 그렇죠. 부대니까.

면담자1 : 그러면 그 입구하고 가까운 곳에 있었나요?

구술자 : 그렇지 가깝지. 아주 가깝죠

면담자1 : 드나들면서 다 볼 수 있었겠네요?

구술자 : 그렇죠 네.

면담자2 : 초소가 한국군이 만든 초소인가요?

구술자 : 그렇죠 그거는.

면담자1 : 그럼 거기는 뭐라고 부르셨어요? 그 당시에? 매일 드나드시면서 뭐라고.

구술자 : 그냥 굴인데 땅굴이라고 그랬거든요.

면담자1 : 아 땅굴?

구술자 : 네. 땅굴이라고 그랬고 나중에 인제 새마을 본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파헤치다가 연도 발견했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구요. 연도, 연도가 뭔가 그랬는데 용광로 굴뚝 쪽으로 들어가는 공기 통로라고 그러더라구요.

면담자1 : 거기서 연결이 됐다고요?

구술자 : 네. 통로 굴뚝쪽으로 연결하는..

면담자1 : 아 그 지하도에서?

구술자 : 아, 지하도가 아니라 지하도 앞쪽에

면담자1 : 아 지하시설 앞쪽에요?

구술자 : 앞쪽에 보면 지금 그 둘레길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미군부대 쪽으로? 고 앞쪽으로 인제 방벽호라고 그래서 차량을 두 대 세 대씩 넣게 이렇게 포상식으로 만들어져있지 않습니까. 거기 차 두 대 세 대씩 집어넣결랑.

면담자1 : 방벽호

구술자 : 방벽호

면담자1 : 그것도 어디 무슨 지하시설인가요?

구술자 : 아니 지하시설. 그건 한국군 부대에서 차를 전시에 차 보호하기 위해서 옆에 흙을 이렇게 쌓아놓고 쌓아놓고. 예에 고 안에 지금 그대로 그 형태가 남아 있잖아요. 고기다 차를 집어 넣는데 고 차집어 넣는 부분에 파헤치니까 그

일반 하수도 비슷하게 지금 하수도 비슷하게 이렇게 연도가 주욱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면담자1 : 아아

면담자2 : 연도라는 게 구멍 형식이 아니라 하수도 형식으로

구술자 : 하수도 형식이죠. 하수도 형식으로 주욱 해갖고 이제 미군부대 쪽으로 연결됐다고 그러더라고.

면담자1 : 지금 그 미군부대 있는 그 건물 똥공장있는 그 쪽으로.

구술자 : 그렇죠 그 굴뚝 보이지 않습니까? 네에 그쪽으로 연결됐다고 그러더라고

면담자2 : 그쪽 한 개짜리 두 개짜리

구술자 : 두 개 짜리 곁쪽 그러니까 정면으로 보면 거기서 둘레길에서 정면으로 보면 굴뚝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면담자1 : 그 쪽 방향 두 개 있는

구술자 : 네네 지금도 파보면 연도가 나올 겁니다 아마 고거.

면담자1 : 지금도 부영공원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구술자 : 그 파면은 나올 거 같은데요? 지금?

면담자1 : 아아 밑으로 땅 밑으로

구술자 : 방벽호 쪽으로 둘레길 허고 그 담에 둘레길 있는데 방벽호 사이에 그 뭐야 배수로 있죠? 배수로에서 방벽호 쪽으로 한 1,2메타? 2,3메타? 그 쪽으로 연도가 이렇게 쪽 콘크리트로 돼 가지고 배수로 형식으로 뚜껑 덮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면담자2 : 배수로랑 연도랑 혹시 구분이 됐었나요? 모양이.

구술자 : 지금 있는 배수로는 배수로 둘레길 있는 배수로는 옛날부터 있던 배수로고

면담자2 : 네네

구술자 : 그 안쪽으로 방벽호 쪽으로 그게 있더라구요

면담자1 : 그러면은 초소에 들어오면서 매일 매일 보는 시설이잖아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그걸 전혀 활용을 안 했던 거네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매일 보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구술자 : 그 부대가 바쁜 부대라 맨날 출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을 주지 않더라구요

면담자1 : 거기 말고 다른 곳에도 지하 시설이 있었나요?

구술자 : 없었습니다. 여기는 그 분들 와 가지고 그 뭐 풍수니 뭐 지가 갖고 와서 여길 파야 된다 저길 파야 된다 그리고 말하자면 연병장이라서 운동장이죠.

면담자1 : 금속 탐지기?

구술자 : 금속 탐지기가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수맥 보는 사람들 갖고 다니는거.

면담자1 : 수맥 보는 사람들.

구술자 : 어 그걸 갖고 와서 여길파자 저길파자 그러는데 하도 반대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미군 부대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면담자1 : 누가 반대했어요?

구술자 : 저희가 그렇죠 뭐.

면담자1 : 부대에서

구술자 : 네. 부대에서 차도 다녀야 되고 차가 수 백 대가 있는데 거길 파헤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면담자1 : 그러면 그때 그 지하 시설 안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갔나요?

구술자 : 어떤?

면담자1 : 그 전경환씨 일행이

구술자 : 봤겠죠. 우리보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했으니까

면담자1 : 그 지하 시설로 들어갔는지는 모르시고요.

구술자 : 네. 들어가봤겠지. 우리는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이렇게 옛날 보안사 죠? 보안사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쳐다보지도 못하게 했으니까.

면담자1 : 금 찾을까봐.

구술자 : 그렇죠 금피 찾는다고 들어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면담자1 : 선생님 들어가셨을 때는 몇 미터 정도 되셨어요? 그 철망까지?

구술자 : 철망까지요? 글썄 이게 공간이 야외같은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하로 들어가니까 정확히 그 가늠하기가 힘들더라구요.

면담자2 : 대략..

구술자 : 150미터 그 정도 일거 같은데

면담자1 : 근데 처음에는 거기가 깔끔했는데 점점 지저분해졌고.

구술자 : 그 안쪽은 물이 차 있었어요

면담자1 : 아 물이 차 있었어요? 얼마나?

구술자 : 약간 자박자박 물 잠길 정도. 그래서 잘 안들어가죠.

면담자1 : 얼마나 가면 그 물이

구술자 : 그때 한 6,70미터 지난 거 같은데

면담자1 : 채광 있는데 지나서

구술자 : 네. 그렇죠.

면담자1 : 그러면 약간 기울여졌나요?

구술자 : 그러니까 그게 물이 찬 거 보니까 그쪽으로 약간 기울기가 있다고 봐야겠죠?

면담자1 : 혹시 계단 같은 거 보셨어요?

구술자 : 하.. 계단.. 옆 쪽에서 그 때 파났을 때 잠깐 본 거 같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과왔을 때. 쪼끄만 좁은 계단 같은 걸 봤는데 그게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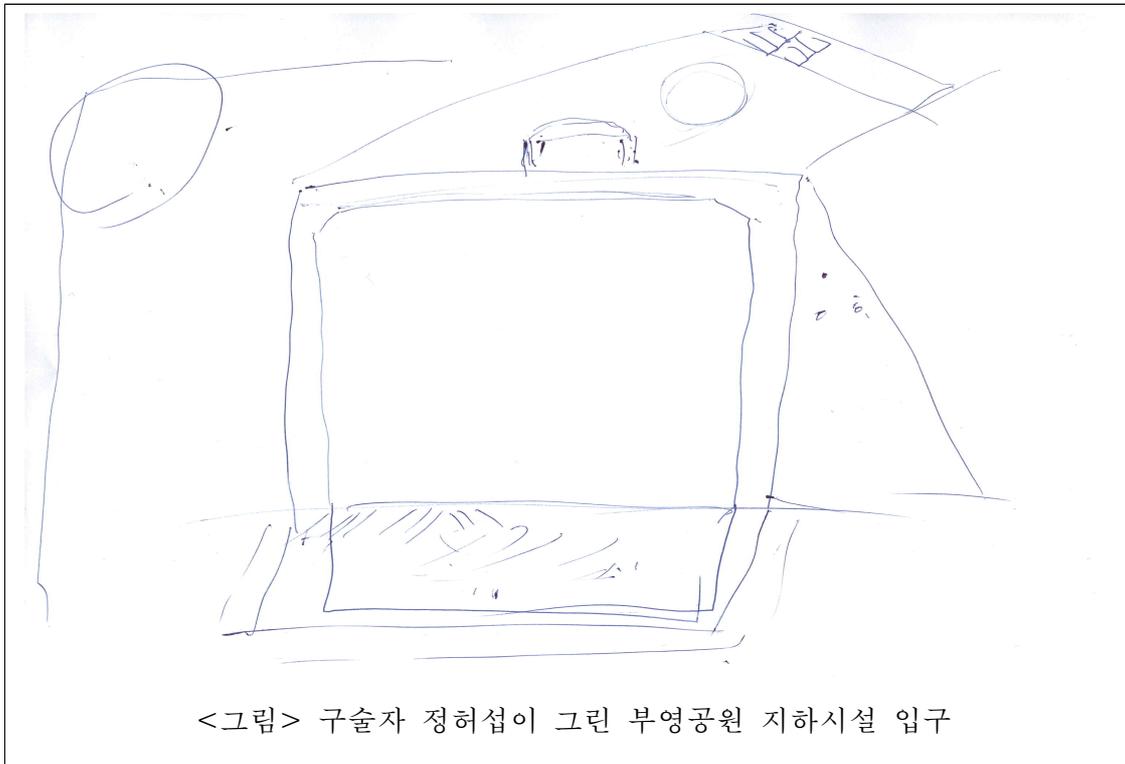
면담자1 : 승강기를 타고 내려갔다고 하면 그게 1층이 아니고 2층도 있을 수 있었겠네요?  
요?

구술자 : 그렇죠. 그건 모르죠. 그 분 잠깐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 하셨으니까. 정확히 모르죠. 그러니까 그분도 거긴지 아니면 정확히 미군 부대 쪽인지 에스캄 쪽인지 그걸 잘 모르는거야

면담자2 : 혹시 잠깐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셔서 그림을 조금 이렇게 길 모양을.

면담자1 : 입구하고 지하 시설 모양 안에 좀 그려주시면

구술자 : 어뜨케.... 이게 지면이지... 이렇게 돼 갖고 약간 이렇게 아르가 졌더라구요. 이렇게 졌고, 이 부분이 ...



면담자1 : 가로가 더 넓게요?

구술자 : 이렇게 직사각형이고. 요부분은 앞쪽으로 경사가 돼 갖고 바깥으로 나왔죠.

면담자1 : 예 그리고 써진 부분이.

구술자 : 그 답에 이 위쪽이.. 위쪽에 통풍구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면담자1 : 네?

구술자 : 통풍구 비슷한 거

면담자1 : 통풍구

구술자 : 입구 쪽에 이렇게

면담자1 : 아. 입구 쪽에 통풍구가 있었어요?

구술자 : 통풍구 비슷한 게 콘크리트로 만들어져서 통풍구 비슷한 게 이렇게 하나 있었어.

면담자1 : 아아 크기가 그러면은

구술자 : 한 이 정도 됐나? 근데 위에는 막혀 있더라구

면담자1 : 아 위는 막힌 통풍구같이 보이는.

구술자 : 예예. 따로 이건 콘크리트 원래 콘크리트인데 위쪽에 덮은 거는 따로 덮은 거 같아요.

면담자1 : 아아.

구술자 : 이 덮인 부분은.

면담자1 : 여기 부서진 건 어느 쪽이에요? 어디쯤이 부서진 거예요?

구술자 : 이게 안쪽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부서졌다는 게.

면담자1 : 철근 보이는 게

구술자 : 아, 이쪽이 여기 여기 입구쪽일 겁니다 아마. 입구 쪽 같고 이렇게 콘크리트가 쳐져 있었어. 여기 뭐 말하자면 총탄 자국처럼 이렇게 콘크리트가 파여 있더라고 중간중간 많이.

면담자1 : 뭐 이게 전쟁의 흔적이다 그런 얘기는..

구술자 : 그런 건 없었구요.

면담자1 : 그러면은 입구는 밝겠네요?

구술자 : 네 입구는 밝았죠. 저희가 이사갈 때도 입구는 안 막고 갔걸랑.

면담자1 : 예예

구술자 : 안 막고 갔는데 공원 조성하면서 막은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에는?

면담자1 : 아아 옳기실 때까지.

구술자 : 예 안 막았습니다.

면담자1 : 옳기실 때가 그러면은

구술자 : 89.. 아니야 90년대

면담자1 : 시흥으로 옳기실 때 까지.

구술자 : 네네 안 막혔습니다.

면담자1 : 옳기실 때도 그대로 두고 갔고 여기는 그러면 흙이 덮이거나 그렇지 않았겠네요?

구술자 : 그렇지 않았어요.

면담자1 : 흙이 덮인 건 옳긴 다음에 공원 조성하면서

구술자 : 공원 조성하면서 덮은 거 같아요.

면담자1 : 네에 이 앞에는 잔디였구요.

구술자 : 잔디 아니고 흙바닥이죠.

면담자1 : 그냥 흙.

구술자 : 흙 바닥이고 요 입구 바로 인접해서 이렇게 박스형태로 여길 파걸랑 근데 콘크리트가 박스 형태로 이렇게 돼 있더라구 여기 안쪽을 파보니까.

면담자1 : 아 콘크리트가 박스 형식으로

구술자 : 네 박스형식으로 그냥

면담자1 : 아래로 들어갈 수 있게요?

구술자 :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박스형식으로 이렇게 파져있더라구 그 사람들이 포클레인으로 이렇게 하니까.

면담자1 : 이렇게 콘크리트가 있어요? 안에? 한 자리 파보니까...

구술자 : 네네

면담자1 : 초소는 그러면 이쪽 자리에

구술자 : 초소는 이쪽 모서리. 미군부대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가 여기 여기 모서리 부분에 초소를 설치했었걸랑.

면담자1 : 음...

면담자2 :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입구 밑에 또 콘크리트 박스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술자 : 여기 그렇죠. 제가 그렇게 본 거 같은데.

면담자2 : 봤을 때

구술자 : 네 봤을 때. 여기 파고 이 옆면을 파단 말이에요?

면담자1 : 여기를 파고 이쪽 옆면을 파면서 연도가.

구술자 : 아 연도는 이쪽에

면담자1 : 아 이쪽에

구술자 : 이쪽 이쪽에 방벽호 쪽에. 방벽호 쪽에 연도가 주욱 콘크리트 세멘으로 해 갖고 덮개 식으로 지금 우리 배수로 덮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근데 저는 배수로인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연도라고 그러니까

면담자2 : 혹시 여기 위쪽에가 위쪽이 다 흙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요?

구술자 : 아 이쪽에 위에는 흙이 없었어요. 한 10메타?

면담자2 : 그럼 다 콘크리트로

구술자 : 콘크리트로 노출되어 있었어요. 여기 중간에 이게 설치돼 있었지.

면담자2 : 이게 입구 모습인데 들어가는 지하의 길 모습을 좀 한번

구술자 : 길은 똑같애요. 길은 입구쪽이나 안쪽이나 똑같애 넓이 똑같애. 일정해요

면담자1 : 아 계속해서 가고 약간 기울어진 거고.

구술자 : 약간 물이 찾으니까 약간 기울었다고 봐야죠. 물이 자박자박 했으니까.

면담자1 : 예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채광 시설이 있고 이렇게 가로로요.

구술자 : 네 이렇게 이렇게 있었다고 봐야죠. 유리블록. 유리블록이

면담자1 : 유리 블록이요

구술자 : 유리블록이 이런 식으로 채광시설이 돼 있었어요

면담자1 : 아아 유리 블록이요. 그리고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이쪽으로 그럼  
공간이

쪼그만 공간이

구술자 : 그렇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쪼그만 공간이

면담자1 : 예 이 방향으로 들어가면.. 예

면담자2 : 그럼 끝까지 갔을 때 다른 건 보신 건 없으세요?

구술자 : 다른 건 없었습니다.

면담자1 : 철망은 어떻게 생겼어요?

구술자 : 철망은 그냥...

면담자1 : 여기 안에 한번 쪼끄맏게 표시해 주시면

구술자 : 그... 지금 옛날에 쓰던 철조망 있죠. 그

면담자1 : 가로로 돼 있는 거요.

구술자 : 그런 철조망 말고 일반 철조망. 일반 철조망 또 엉성하게 그 엮어놓거.. 엮어  
놔었으니까 제가 그때 그래서 거기 아마 들어가지 말라고 한국군에서 지었을  
수도 있고. 네 그럴 거 같아요. 철조망이 군대에서 쓰는 철조망이니까.

면담자1 : 이것이 입구에 이렇게 노출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저게 뭐다 이런 얘  
기를 많이 했을 거 같아요.

구술자 :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면담자1 : 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구술자 : 네 그게 일제 시대 때 조성된 거라고 인제 얘기를 하니까.

면담자1 : 아 일제 때 조성된 거다. 그런 얘기...

구술자 : 그렇지.

면담자1 : 그러면요 이제 화수부두까지 연결됐다는 얘기는 어느 분한테 들으셨어요.

구술자 : 그냥 그거를 모르죠 그냥 풍문이니까 그 당시에는 궁금해서 물어보면 저기  
화수부두 쪽으로 연결됐다 그렇게 들었으니까.

면담자1 : 화수부두에 연결됐다는 거는 그래서 뭐 했다 이런 얘기는

구술자 : 그렇죠. 그니까 물자수송이라고 봐야지 그렇게 보면은

면담자1 : 차가 충분히 드나들 만한

구술자 : 그렇죠 네.

면담자1 : 그런데 이용은 안 하는 오래된 것

구술자 :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4분 5톤 옛날 트럭 일본 쪼끄만 트럭 있죠. 그걸  
다찌차 라고 그러잖아. 사분에 오톤 트럭 다찌차라고 그러죠. 그런 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면담자1 : 여기에 들어가서 낮잠을 주무신다거나 그런 건

구술자 : 추워서

면담자1 : 아 추워요?

구술자 : 추워요. 상당히 추워요

면담자1 : 그래두 그냥 호기심 가지고 가신 거로는 서너차례면 많이 가셨네요?

구술자 : 아니, 맨 처음에는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그 새마을 본부에서 와서  
그걸 뒤져보니까 더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면담자1 : 처음에는 그냥 혼자 궁금해서 간 건데

구술자 : 그렇지.

면담자1 : 분명히 뭔가 예사롭지 않은 거라 이렇게 뒤졌겠다 하면서 다른 분도 같이  
가보자 그러셨겠네요?

구술자 :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면담자1 : 그래서 금은 나왔어요?

구술자 : 못 찾았어요.

면담자1 : 아 못 찾았어요?

구술자 : 못 찾고 나중에는 뭐 그 사람들이 용역을 준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죠. 일단은 그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들어왔다고 하니까 일단은 사람이 어  
여기 금이 있어? 그 사람들도 보통 그렇게 장비를 동원할 정도면 일반 이런 거  
찾으러 들어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면담자1 : 네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구술자 : 그죠. 네. 그니까 그 당시에 징용 왔던 분 몇 분 데리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근거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면담자1 : 그럼 며칠이나 머물다 갔어요?

구술자 : 좀 꽤 있었을걸요? 보름정도

면담자1 : 아 보름이요?

구술자 : 꽤...

면담자1 : 그럼 포클레인이 왔어요?

구술자 : 포클레인이 파고.. 포클레인 판 거는 뭐 얼마 안돼는데 왔다갔다 자기들끼리  
탐사했으니까 저희들한테 쳐다보지도 못하게 했으니까 그 쪽으로.

면담자1 : 그러면은 최종 가져간 거 뭐가 있었어요?

구술자 : 그건 모르죠. 그건 이제 가져갔는지 안가져 갔는지 뭐가 나왔는지는 모르죠.

면담자1 : 전혀 모르시고

구술자 : 네

면담자1 : 네. 아이 궁금하게

구술자 : 제가 보기엔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 보면 못 가진거 같아요. 찾았으면..

면담자1 : 며칠은 아니고 보름 가깝게

구술자 : 네 보름 가까운 거 같아요. 제 생각엔. 그니까 여기만, 여기만 그 사람들이 탐사한 게 아니라 딴 데도 갔다. 80이나 부평공원 자리나 산곡동 자리나 갔을 거 같아요.

면담자1 : 여기 부평공원 자리 말고요 다른데 혹시 지하 시설 보신 데가 또 있으세요?

구술자 : 아니요 그 없습니다. 별로 관심을 안가져가지고

면담자1 : 여기만 다니시니까..

구술자 : 네네 근무지니까

면담자2 : 그러면 그 3군지사를 근무원으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지금 부평공원 자리에 서만 계속 근무를 하셨던 거구요?

구술자 : 네 이사할 때까지

면담자2 : 이사하기 전까지.

면담자1 : 시흥으로도 가셨죠?

구술자 : 네

면담자1 : 시흥에서 계속 2017년까지 계셨다는

구술자 : 아니요 다시 사령부로 들어왔다 정비대도 있었고.

면담자2 : 시흥으로 가셨다가 다시 17사단쪽으로 오시게 된 거...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그때가 그러면은 언제쯤인가요? 시흥에 계셨던 때.

구술자 : 그게 제가 기억이 잘 안나. 2천...

면담자1 : 언제 거기서 퇴직 하셨는지....

구술자 : 제가 2017년에 퇴직을 했걸랑요?

면담자1 : 네.

구술자 : 그니까 2014년, 13년 정도 거기 시흥에 있었어요

면담자2 : 600 수송대대라는 그 부대의 정식 명칭이 뭔가요?

구술자 : 정식 명칭이 그 옛날에 68 대대라고

면담자2 : 68대대요?

구술자 : 68대대가 전신이고 그담에 600 수송대대로 바뀐 거지. 이름이 명칭이.

면담자2 : 600 수송대대

면담자1 : 600 경자동차..

구술자 : 경자동차 대대죠

면담자1 : 경자동차 대대 네

구술자 : 네

면담자1 : 600 경자동차 대대요

구술자 : 네, 600 경자동차 대대죠.

면담자1 : 본래 그러면은 소속이 어떻게 되셨어요? 정확한 소속이?

구술자 : 무슨...

면담자1 : 선생님 그 다니시던 그 회사의 정확한 명칭

구술자 : 아...제 직책이?

면담자1 : 네네.

구술자 : 아 차량 정비원

면담자1 : 어디 소속에 차량 정비원

구술자 : 육백 수송대대 889중대 그 당시에

면담자1 : 아 육백 수송대대 889중대

구술자 : 네 그렇죠.

면담자1 : 차량 정비원

구술자 : 네

면담자2 : 889

구술자 : 중대 그니까 그 당시에 880중대 882중대 889중대 이렇게 있었어요.

면담자1 : 그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구술자 : 세 개 있고 본부 있었고 중대가 네 개죠.

면담자1 : 아아 본부까지

면담자2 : 889중대랑

구술자 : 882중대

면담자2 : 882중대

구술자 : 880중대

면담자2 : 88

구술자 : 0중대

면담자2 : 네네. 본부가 있었고 본부는 지금 3보국단 자리에 있는 건가요?

구술자 : 아니요 아니요. 그 저 지금 화장실 있는 자리 있죠.

면담자2 : 아 예예.

구술자 : 그쪽에. 대대 본부

면담자2 : 거기 연단이

구술자 : 그게 인제 메인 연병장이고 고 연단 앞쪽 자리가 882중대 자리. 그 담에 입구 쪽 들어오면서 입구 쪽 고 정문으로 들어오면서 그 입구 쪽에 있는 게 880중대. 그 담에 아까 설명 드린 부분 땅굴 있는 부분이 889중대. 그담 그 위쪽이 882중대.

면담자1 : 네. 여기가 땅 위로 솟아있는 자리잖아요?

구술자 : 네.

면담자1 : 그죠. 위로 지금 솟아있는 거잖아요 입구가. 근데 왜 땅굴이라고 부르셨죠?

구술자 : 그 안쪽에 들어가서는 덮여 있으니까.

면담자1 : 그니까 입구는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 그 뒷부분은 흙으로 덮여 있으니까.

구술자 : 네 흙으로 다 덮여 있었으니까.

면담자1 : 들어가면서 아예 땅굴이라고..

구술자 : 땅굴이라고 정식 명칭이 없으니까 땅굴 땅굴 하는거죠.

면담자1 : 어떤 분은 벙커라고...

구술자 : 벙커라고는 안불렀습니다 그때.

면담자1 : 아 그렇게는 안불렀고요.

면담자2 : 제가 이거 지돈데요? 지금 보시는 여기가 굴뚝 두 개 있는 건물이고. 여기가 디알엠오 장소고? 꺾이는 장소고? 여기가 부영공원이거든요?

구술자 : 네네

면담자2 : 그래서 화장실이 지금 화장실이 이쪽에 있고

구술자 : 네

면담자2 :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단이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구술자 : 네. 그니까 요 부분이 인제 사무실 대대본부? 대대본부 자리고

면담자2 : 네

구술자 : 그 담에 이 부분이 882중대

면담자2 : 882중대

구술자 : 여기가 889중대 880중대 그래갖고.

면담자2 : 880 889요

구술자 : 네

면담자2 : 882중대고 여기는 본부

구술자 : 네.

면담자2 : 이쪽은 본부. 이쪽은요?

구술자 : 그냥 연병장으로 썼습니다.

면담자2 : 연병장이었고. 그리고 지금 지하시설은 이쪽에 있잖아요? 입구가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2 : 초소는 이쪽에 있다는

구술자 : 그렇지. 그 모서리 부분.

면담자2 : 여기가 초소자리고? 이쪽에 인제 지하시설가는 인제 땅굴이라고 불렀던 이 쪽 방향으로 갔는데 쪽 일직선이었나요?

구술자 : 네 일직선으로.

면담자2 : 이걸 한번 지도로 다시 한번 혹시

구술자 : 아니요 그게 882중대 쪽으로 이렇게 연결됐거든요. 이렇게 연결돼갖고 애들이 근무 서면서 이쪽에 쪽문인가 조끄만 게 하나 있었죠. 철문 비슷하게

면담자2 : 모르겠습니다. 문이 또 있나요? 출입구?

구술자 : 출입구 쪼끄만 게 하나 있었을 겁니다. 이쪽에서 개를 키워 갖고 개가 짖으면  
은 굴속으로 울러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병사들이.

면담자1 : 군견이요?

구술자 : 아니요. 군견이 아니라 개들을 옛날에 조금씩 키웠어요. 한 두 마리.

면담자2 : 꽤 여기 있는 초소가 있었고. 출입구가 또 이쯤에 있었나요?

구술자 : 그렇죠 이 정도 쪽에 쪼끄만한 철문 쪽문 비슷하게. 철문? 쪽문? 저기 철근  
비슷하게 그걸로 만든 거, 누가 만들어서. 그런 거 같더라고

면담자2 : 이쯤에서 개가 짖으면

구술자 :그렇죠 그게 울러가지고 희한하게 울러가지고.

면담자2 : 여기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좀 무서웠다

구술자 : 좀 그렇지.

면담자1 : 여기부터 여기까지 입구부터 철문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구술자 :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면담자1 : 그러면 여기 더 지나서 철망이 있었던 거네요?

구술자 :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조금 더

면담자2 : 여기까지 가셨던 거예요? 그러면.

구술자 : 조금 더 갔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구.

면담자1 : 철문있는 데에서 조금 더 가셨고 중간에 공간은 여기 쯤.

구술자 : 중간 예..

면담자1 : 철문 있는 전에 공간이 있었고

면담자2 : 아까 말씀하셨던 왼쪽에 방 같은 거는 어디,,,

구술자 : 그게 정확히 몇 미터인지는 몰라도 왼쪽으로 조그마하게 설치되어 있더라구.

면담자2 : 근데 왜 아무도 한국군이 아무도 들어가지서...

면담자1 : 지금 여기에 가보시면 다 기억 하시겠죠? 여기 철망이 어디 쯤에 있었다  
뭐...

구술자 : 글썽 정확히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유리블록이 그 당시에 유  
리블록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그 당시에 유리블록이 있었어? 그 희한하게 생  
각이 들더라구. 그 당시 일제 시대 때 유리블록이 있다는 것도 좀 의아했어  
요

면담자1 : 흐리게 채광이 들어와서

구술자 : 네네.

면담자1 : 반짝반짝 하거나 그런건 아니고.

구술자 : 네 그런 건 아니고

면담자1 : 어두운 데서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그 공간에 누가 무슨 남겨두거나 그런

건 없이 완전히 비어있는 그런..

구술자 : 그렇죠. 안쪽에 끝 쪽으로는 좀 지저분했고 그 중간 뒀 입구 쪽부터 입구 쪽은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면담자1 : 다른 분들은 여기 잘 안 들어가셨나요?

구술자 : 그렇죠. 그 당시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바빴지. 봉급도 적고.

면담자2 : 그 때 지휘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 좀 조사하라고 안하셨나요?

구술자 : 자기 본무도 바쁜데 그거. 하하하.

면담자1 : 위험한 시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그러니까 여기 입구 좀 어떻게 정리해라. 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구술자 : 그건 안했습니다. 끝 쪽만 철조망으로 쳐 놓은 거 같아요.

면담자1 : 으음. 그 안쪽에.

면담자2 : 보셨던 철조망 너머는 뭐가 더 보였나요?

구술자 : 무너져 있으니까

면담자2 : 아 무너져 있었어요?

면담자1 : 무너진 걸 혹시 보셨어요?

구술자 : 그니까 흙 더미 비슷하게 콘크리트 더미 흙더미 비슷하게 무너져 있더라고.

면담자1 : 아 무너져 있었어요? 네에 그렇게 육안으로 확인하셨네요?

구술자 : 네.

면담자1 : 그럼 밑에는 물이 자박자박한데 거기까지 들어가 봤더니 철망이 있고 철망 넘어서

구술자 : 무너져 있는거지.

면담자1 : 콘크리트도 같이 무너진

구술자 : 흙 더미 비슷하게... 기억이 정확지는 않은데 흙 더미 비슷하게 그냥 뭐 지저분하게 무너져 있으니까 폭파시켰다고 그러지..

면담자2 : 그러면은 전까지는 그냥 다 뚫려 있는 굴인데

구술자 : 그걸 모르지 안 들어가봤으니까 하하

면담자2 : 선생님이 입구부터 쪽 들어가실 때는 아무런 장애 없이 들어가다가 철조망 너머로 보니 흙더미가 보였고

구술자 : 그렇지 뭐 뭐 막혀있었죠.

면담자1 : 그 거리가 한 150미터?

구술자 : 글썽 150미터지 200미터지 굴속이라 가늠이 정확히 안돼.

면담자1 : 어두운 데까지 랜턴 들고 가셨는데

구술자 : 어찌면 내가 그게 무서우니까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

면담자1 : 아네

구술자 : 그쵸.

면담자1 : 끝에는 흠더미가 무너져 있었고

면담자2 : 다시 돌아오는 길을 보면 바깥쪽은 환하잖아요?

구술자 : 그치.

면담자1 : 그게 잘 보이는...

구술자 : 보이죠.

면담자1 : 보이는 정도의 짧은 거리네요. 그쵸? 긴 거리는 아니고.

구술자 : 그쵸.

면담자2 : 화수부두라는 말이 나온 소문이 화수부두에서 연결됐다는게 뭐 추측인건지 거기 연결된 통로가 있다는 건지.

구술자 : 그니깐 그 얘기 들었는데 그 쪽에도 굴이 있다는 소리 들렸잖아요

면담자2 : 아 그래요?

구술자 : 네. 화수부두가 어딘지 그 인천항 쪽으로 이런 통로가 있다고 듣긴 들은 거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추측을 하기에는 계속 연결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죠.

면담자1 : 그리고 뭔가를 날랐을 것이다. 차량이 드나들 만한 넓이니까.

구술자 : 그렇죠 네.

면담자1 : 추측을 하시고 그런 소문이 있고 그랬던 거네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그런데 생각보다 부대 안에 있는 공간인데 관심이 많지는 않았나.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여기가 무너졌으면 지금 뭐 이거를 되살리거나 하기가 쉽지는 안겠네요?

구술자 : 제가 판단할 순 없구요.

면담자1 : 여기가 이게

구술자 : 네 저도 궁금한 게 계속 파 봤으면...

면담자1 : 그럼 또 어딘가가 연결된 부분이 있을텐데요. 만약에 이게 화수부두든 아니면 뭐 어디 다른 곳이든 연결이 됐다면 폭파된 자리 말고 그 다음 자리가 또 있을텐데 그런 건 말씀은 못 들으셨어요.

구술자 : 네 못들었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철수하면서 중간중간 폭파하고 갔다는 소리는 들었고.

면담자1 : 일본사람들이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가면서 폭파했다고요.

구술자 : 네

면담자1 : 6.25때 폭파된 건 아니고요.

구술자 : 네.

면담자1 : 그런 소문이 돌았네요?

구술자 : 네.

면담자2 : 그 보셨던 흙더미가 터널을 꽉 채울만한 흙더미였는지 아니면

구술자 :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쌓였어. 그니까 그 위에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캄캄해서 잘 안보이지.

면담자1 : 흙이 쌓여 있었어요.

구술자 : 네네

면담자2 : 인제 상식적으로 콘크리트 박스인데 거기 안에 흙을 갖고 들어갈 일은 없을 거고.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위에 지상에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구술자 : 넣기도 그렇지. 그렇죠. 그게 흙을 갖고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되고.

면담자1 : 터널이 붕괴된 흔적이다. 그렇게 보기가 쉽겠네요? 그 전경환씨 일행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겠어요?

구술자 : 쪼끔 많아지다가 이제 또 저기했죠. 그 때

면담자1 : 별거 아니구나

구술자 : 네네 못 찾았으니까 찾았으면 저긴데

면담자1 : 무려 보름이나 그렇게 있었는데

구술자 : 보름인지 정확히 보름인지는 기억은 안나는데 일단 장비가지고 파고 지네들이 탐사하고 또 탄사람들이 와서 지가라나 그거 갖고 와서 이제 또 공간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면담자1 : 지가 지가라고 하나요?

구술자 : 막대로 된 거 있잖아요.

면담자1 : 수맥 찾는 거?

구술자 : 네네 그렇죠.

면담자1 : 그걸로 금을 찾았네요?

구술자 : 공간을 찾은 거죠.

면담자1 : 아 공간, 비어 있는 곳을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그러면 거기 뭔가 묻혀 있을 수 있다.

구술자 : 그렇겠죠.

면담자1 :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어디를 파보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구술자 : 아이 그 당시에 장비도 그런 게 없고 중장비랄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차만 갖

고 있지.

면담자1 : 거기 다니시면서 뭐 이거 옛날에 물건인데 하고 줍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구술자 : 그건 없고요 지금 그 대림아파트 자리에 옛날에 포병대대 자리에 거기도 방벽호 포상이라고 그러나 포상 옆에 흙 같은 거 그거를 갖다가 엽전을 찾은 적은 있죠.

면담자1 : 엽전이요? 엽전은 어디 ... 어느 나라 엽전이다

구술자 : 그게 인제 제가 보기에 중국 돈도 있고 우리 옛날 엽전도 있었고 많이 섞였어요. 중국 거는 좀 크더라구

면담자1 : 크기가 달랐어요?

구술자 : 네. 엽전들이 다 크기가 다르니까

면담자1 : 그런데 그 일대에서 그런 동전은..

구술자 : 그런 건 원래 없었어요.

면담자1 : 아 원래 많았어요.

구술자 : 아니 원래 없었다구. 이부대에는 그게 없었어요. 탄 데서 그 포상의 흙을 퍼와 가지고 찾은 적은 있지.

면담자1 : 다른 데서 가져온 흙에서 엽전이 나왔고.

구술자 : 네네 옛날에 신문에 나왔으니까 그 뭐더라 우성아파트 자리? 그 자리에 엽전 많이 나왔다고

면담자1 : 네

구술자 :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면담자1 : 그러면은 그 엽전 나오고 한 거 때문에도 더 그런 소문이 나서.

구술자 : 그건 그 전에 저기고 엽전은 따로고

면담자1 : 아 그거보다 훨씬 먼저예요?

구술자 : 네네

면담자1 : 엽전이 나왔을 때보다 먼저

구술자 : 네네 그렇죠.

면담자1 : 거기 그 콘크리트로 주욱 마감이 돼 있던 거죠?

구술자 : 네

면담자1 : 내부는 무너졌거나 그렇지 않는 않았어요?

구술자 : 그 안쪽에 막힌 데까지는 무너진 게 별로 없었어요.

면담자1 : 깔끔하게...

구술자 : 깔끔했어요. 거의 입구 쪽이 제일 깔끔했고. 안쪽은

면담자1 : 그 분위기로 계속 막힌 데까지.

구술자 : 네네

면담자1 : 완벽하게 마무리를 다 해 놓고 이용을 한 거 같은 흔적이 있던가요?

구술자 : 글썄 그... 이용을 어떻게 했다는 지는 모르는데 상당히 그 당시에 기술을 가지고 상당한 기술력이라고 제가 보기엔 판단을 했걸rang요

면담자1 : 깔끔하게 잘 마무리를 했다는 생각이...

구술자 : 네네. 안쪽은 좀 거칠긴 하죠 바깥쪽보다 조금

면담자1 : 그런데 입구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놨다.

면담자2 : 글자나 이런 건 보신 건 없으세요? 글자나 뭐 유리블록 말고 다른 거 보신 건...

구술자 : 글썄 그게 그 아까 빈 공간 그 위쪽에 빨간 스프레이 비슷한 걸로 뭐 의무실 이렇게 써있는 거 같던데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면담자1 : 의무실이요?

면담자2 : 빨간 스프레이요?

구술자 : 네 빨간 스프레이 같은 걸로. 그래서 이거 뭐야? 누가 써놨을까? 그 생각을

면담자1 : 천장에?

구술자 : 예?

면담자1 : 천장에요?

구술자 : 아니 벽쪽에

면담자1 : 아 벽쪽에 빨간 스프레이로 의무실

구술자 : 의무실 비슷하게 써 있더라구 그래서 이거 누가 써놨을까

면담자2 : 글자가 있었다구요 의무실이라고요

구술자 : 그니까 영성해 글자가. 영성한 거 보니까 우리 한국군이 들어와서 썼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면담자1 : 그냥 낙서를

구술자 : 예에 낙서식으로

면담자1 : 위치는 어디쯤 있었어요?

구술자 : 그 방 쪽 고 공간

면담자1 : 그 공간 안쪽에다가

구술자 : 아니 공간 입구 위에

면담자1 : 아아 공간 위 쪽에다가 글씨를 써놨어요?

면담자2 : 한글로

구술자 : 네 한글로 그래서 이거 그 때 쓴 거 같지 않은데

면담자1 : 네.

면담자2 : 어차피 뭐 6.25 전쟁하면서 왔다갔다 했을 거니까 한국군도 뭐 활용은 했을 건데

구술자 : 근데 제가 83년도에 갔는데 전혀 활용방안이 없었어요. 그니까 화랑농장 저

위쪽에 토굴 같은 게 있는데 거기는 새우젓 창고로 쓴다는 말은 들었걸랑.  
근데 여기는 뭐 전혀 활용방안이 없었죠. 쓸 일이 없고.

면담자1 : 글씨는.. 글씨는 뭐 작게 썼어요?

구술자 : 아니 좀 컸어요.

면담자1 : 아 좀 크게 잘 보이게 의무실 이렇게 해서

구술자 : 그냥 흘려 쓴 거 비슷하게 그냥 글씨체도 엉망이고

면담자1 : 깔끔하게 쓴 게 아니고

구술자 : 네에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린 거 같은 느낌이더라구요.

면담자2 : 6.25 당시 스프레이가 있었죠?

구술자 : 없었죠?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니까 나중에 누가 저기 들어가서 쓴 거 같은...

면담자2 : 여담이긴 하지만 미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 유럽에서 전쟁할 때 탱크에다 스프레이를 뿌려서 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넘어오진 않았을까...

면담자1 : 혹시 이런 말씀을 다른 분들한테 하신 적이 있으세요?

구술자 : 아니 뭐 별로 할 일이 없죠.

면담자1 : 부영공원에 옛날에.

구술자 : 그냥 땅굴이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굳이 일부러 얘기할 필요도 없고

면담자1 : 별로 이렇게 화젯거리가

구술자 : 네네 화젯거리가 안되죠.

면담자1 : 다른 분들께서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지금 부영 공원 말고 다른 쪽에 캠프 마켓 일부 반환된 거 아세요?

구술자 : 네

면담자1 : 가보셨어요?

구술자 : 아니요 안가봤습니다.

면담자1 : 그 아직도 반환되지 않은데도 있는데 조만간 다 반환되겠죠?

구술자 : 네네

면담자1 : 그러면은 그런 공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구술자 : 글썄 좀 이게 우리의 뼈아픈 기억이니까 조금 남겨서 교육자료로 좀 쓸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후대에서는 일본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 동원해서 잔악한 행동으로 강제노역을 시킨 거는 후대에 아직 우리 어린애들은 그걸 모르걸랑요. 교육자료는 진짜 좀 남겨서 필요하게 쓸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면담자1 : 캠프 마켓을.. 반환 받으면

구술자 : 네.

면담자1 : 그러면은 그 지하 시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기념공간으로 쓴다 그러면  
어떤 용도로 가능할 거 같으세요?

구술자 : 글썄요 그 일단 뭐 건축코스도 좋고

면담자1 : 위에 불빛이 있는 시설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구술자 : 네 그런 전기시설, 전기선 이런 건 보질 못했습니다.

면담자1 : 아 전기선 못 보셨어요? 채광시설 말고도 전기선 필요했을 거 같은데

구술자 : 그러게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면담자1 : 계단도 못 보셨고요?

구술자 : 네

면담자1 : 일단 그런 일제 강제동원의 흔적중에 하나니까 그 일부를 건축 코스로 넣는  
건 가능하겠다.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구술자 : 네

면담자2 : 지하에 바닥은 그냥 콘크리트였나요?

구술자 : 네.

면담자2 : 옆에 물 빼는 이런 수로는

구술자 : 아 그런건 못봤어요. 평평했습니다.

면담자2 :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거기가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거 같으세요? 공간인지  
아니면 통로인지

구술자 : 공간은 아니고 통로로 봐야죠.

면담자1 : 지하에 어떤 공간이 있고 거기를 가기위한 입구다. 통로다.

구술자 : 통로로 봐야죠. 통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간중간에 환풍기 좀 설치해 가지  
고 위로 빼내고.

면담자2 : 환풍기가 있었어요? 중간에...

구술자 : 환풍기는 없었는데 지금 입구 쪽에, 입구 쪽에보면 동그랗게 그 위에 막았는  
데 그게 환풍기 시설이 설치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면담자1 : 그런 게 중간중간 있으면 이 시설이 계속 이어졌을 것이다.

구술자 : 그렇죠 저는 그 하나뿐이 못봤는데 그 다음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이  
환풍기 시설이 있었으면은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면담자1 : 그 공간이 거기에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짐을 넣어 놓  
는 공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는

구술자 : 저는 통로로..

면담자1 : 아마도 통과하기 위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안전하게 지하로 지나가기 위한?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그리고 거기가 입구니까 이 시설은 계속 이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 거네요.

구술자 : 네.

면담자2 : 지대가 이제 일반 평지에 콘크리트 박스가 있는 형태고 그 위에 흙을 덮은 느낌이면은 약간 높잖아요. 애가요.

구술자 : 네

면담자2 : 근데 미군 부대 쪽은 낮고 이 콘크리트 박스는 좀 높고 옆에 한국군 부대가 찌기 있었던 건데 높이가 계속 일정한가요? 이렇게 느낌이? 그니까 미군부대 캠프마켓 자리랑

구술자 : 네네

면담자2 : 아까 말씀하셨던 889, 880, 882부대쪽이 좀 높았던 거네요.

구술자 : 약간, 약간 높죠. 네

면담자2 :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캠프 마켓도 구분되는 담벼락이 있었을텐데

구술자 : 그대로죠. 지금은 이거...

면담자2 : 지금은 조금 이제 밀려난거죠

구술자 : 네. 지금은 이제 콘크리트 블록으로 쌓아가지고 구분이 완전히 돼있죠.

면담자2 : 그럼 이제 추측을 해보면 콘크리트 박스가 어쨌든 뭔가 쪽 갈려고 하면은, 땅 위에 만들었다고 하면은 지대의 차이가 있을 텐데.

구술자 : 그니까 입구쪽이니까. 입구쪽이니까 고 제가 보기엔 자박자박한게 물이 종종 종종 내려갔을 거 같은데.

면담자2 : 종종종 내려.. 아...비스듬하게 인제

구술자 : 그렇죠. 완만하게 갔겠죠. 경사가 심하진 않고.

면담자2 : 신기한 게 캠프마켓이 반환.. 뭐지. 예전에 산곡 현대아파트 쪽이 먼저 반환이 되고 그쪽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구술자 : 그렇지. 거기 우성아파트 지금 얘기하는 부대자리? 그 쪽으로 아파트 하나 있죠 우성아파트라고. 그 자리가 이제 포병 대대가 있었어요.

면담자2 : 네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지금 2001 아울렛 쪽에는 현대아파트가 지어지고 그런데. 어.. 왜냐면은 아파트가 보통 지금은 땅을 막 파버리니까 말씀하신 이런 식으로 연결됐다고 하면은 발견됐을 텐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가다가 옆으로 휘었을텐데 그런 게 전혀 노출이 안되었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요.

구술자 : 그거.. 저의 여담인데 만약에 그런 게 아파트를 짓다가 발견되면 그 사람들이 그거 발견됐다고 하겠습니까?

면담자1 : 아니면 그냥 밀어 버리나요?

구술자 : 공사 이런 거 지연되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또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잡히질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래요. 만약 그쪽으로 뺐었다 그래도 발표 안했을 거 같아요.

면담자1 : 이런 게 발견됐다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이죠?

구술자 : 그렇죠. 만약 발견됐다 그래도.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문화재 발굴되든 공사하다가 중단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제 생각이예요 그게.

면담자1 : 나중에 부영공원에 가보셨죠.

구술자 : 네

면담자1 : 덮어놓은 자리 보셨어요?

구술자 : 네

면담자1 : 그니까 그 위치를 다 짐작하시겠죠.

구술자 : 네

면담자1 : 여기가 입구고 여기 통기창이 있었고? 여기 유리로 된 채광창 있었고 이런 거

구술자 : 네

면담자1 : 거기 이렇게 둥글게 된 이런

구술자 : 입구 바로 위에 그 당시에는 거기 흙이 안 덮여있었으니까

면담자1 : 그게 다 육안으로 구분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구술자 : 네네. 채광창은 안보였고, 바깥에서 안보였고 통풍구 비슷하게 동그랗게 된 부분은 보였다는 말이에요. 바로 입구 쪽에 있어요.

면담자1 : 말씀하신대로 뭐 어떤 통로로 활용된 곳이다 라고 하면 그런 내용이 좀 밝혀지면 학생들 견학코스나 아니면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그러면 이제 입구 부분은 조금 걷어내고 약간 원형 복원을 한 다음에

구술자 : 네

면담자1 :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서 아 옛날에 이렇게 생겼었다 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면담자2 : 그 저희가 지난번에 이한수님하고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따로 이한수님하고 같이 들어가 보신 적은 없으세요 거기들?

구술자 : 아니죠.

면담자2 : 없으세요?

구술자 : 부대가 틀리니까.

면담자2 : 다르니까.

구술자 : 예.

면담자2 : 으음..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때 뭐...

구술자 : 별로 그렇게 그런 애긴 안하죠 별루.

면담자1 : 이한수 선생님이 아, 선생님이 잘 아실 거라고 거기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구요.

구술자 : 이 그 그러니까 하도 그 당시에 기억이 관심을 안두니까 그렇게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거기에 관심이 있었으면 좀 저기 했을텐데 그 당시에 뭐 스마트폰도 없었고, 맞아요. 이렇게 있었으면 사진도 찍어두고 그렇게 했을텐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면담자1 : 가끔 언론에 나는 거 말고는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곳은 아니었네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늘상 보는 곳인데?

구술자 : 아 이런 게 있나보다 그러고 다니는 거지

면담자1 : 오히려 지금 그게 흙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형이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들고, 그게 어디까지 연결이 돼있는 건가 용도가 뭐였나 궁금증이 드는데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 그런 상태네요.

구술자 : 네.

면담자2 : 이 시설을 미군이 만들었을 리는 없겠죠?

구술자 : 그렇게 저도 미군이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개네들이 뭐가 아쉬워서 거기다가 그 노력을 들여서 그걸 만든다고

면담자2 : 한국군 부대는 관심도 없었고

구술자 : 관심도 없었죠.

면담자2 : 미군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시설을 굳이 만들 리도 없을 거고 그러면은 만들사람은 일본...

구술자 : 그렇죠 만약에 미군들이 만들었으면 입구나 높이 이런 거는 더 크게 만들었겠죠.

면담자1 : 높이가 작나요?

구술자 : 높이가 좀 저기하죠. 아주 높진 않죠. 뭐 보통 큰 차가 다니기는 문제가 있니까.

면담자1 : 굳이 지하 시설로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구요.

구술자 : 그렇죠. 네.

면담자2 : 정황상 일본군 외에는 거기다가 만들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한국군도 방치를 했고. 미군도 그렇게 할 일이 없고.

면담자1 : 그런데 길게 연결되는 걸 보면 저는 지금 정허섭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히려 통과하려고 하는 통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에 뭔가 물자를 보관한다 라고 하면 옆으로 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을테고

그리고 사람들이 머문다 하더라도 머물 수 있는 아까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신 방이 옆으로 계속 있거나 아래로 오르내리기 쉽게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할 텐데 단순한 공간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길게 있다고 하면 오히려 통로의 역할을 한 게 아닐까.

면담자2 : 통로

면담자1 : 네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구술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로 아니면 사람이 대피할 공간은 아니거든요.

면담자1 : 대피할 공간이요? 대피할 공간이 아니라고요?

구술자 : 네, 대피하거나 그렇게, 그렇게 잘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길게.

면담자1 : 아아 대피할 공간이라면 굳이 콘크리트로 마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술자 : 마감할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길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면담자1 : 으음 네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반공 훈련 끝나면 나가고 하도록

구술자 : 네.

면담자2 : 그쵸. 유리 블록을 천장에다가 만들어 놓을 구조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죠.

대피시설인데 그냥 전선 연결해서 하면 되는거라...

구술자 : 그래서 저도 그 유리 블록을 설치한 걸 보고 그 당시에 일본군들이 기술이 이렇게 좋나? 그 생각이 들었걸랑요.

면담자1 :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이걸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다 조병창 때 있었던 거다 하는 소문은 있었네요?

구술자 :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면담자1 : 예. 그 유리창은 눈으로 유리는 보였어요?

구술자 : 보였습니다.

면담자1 : 아 유리가 보이는 약간 반짝이는 그런 게 있었나요?

구술자 : 요렇게 네모나게 요정도 크기로 이렇게 여러개 뒀 대여섯줄씩 대여섯줄로 해 갖고 짝 박혀 있었으니까

면담자1 : 격자무늬로 여러개 작은 유리가 여러장

구술자 : 네 블록으로

면담자1 : 두꺼운 유리?

구술자 : 두껍죠.

면담자1 : 약간 반투명한

구술자 :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두꺼운 거 같아요.

면담자1 : 상당히 두꺼운 유리 네 그게 여러장 작은 게.. 몇 줄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구술자 : 대여섯 줄 될 거 같은데요?

면담자1 : 대여섯 줄 가로로 길게 양옆이 다 연결되게 그정도...

구술자 : 끝 쪽으로 양 쪽 끝으로 이렇게

면담자1 : 아 양쪽 끝으로요? 내부도 아까 이렇게 기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술자 : 예. 고 안쪽에 들어가면 각이 딱 진 게 아니라 약간 아르가 지게

면담자1 : 아르가 지게. 약간 모서리가.

구술자 : 사다리꼴 비슷하게 끝단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구술자 : 그냥 딱 직각이 아니고 깎아놓은 모양이라는 말씀이죠?

면담자2 : 입구 말씀하시는거죠.

면담자1 : 안에. 안에 들어가면 모양이 계속 이렇게 되는데 안에 이렇게.

구술자 : 안쪽 구석은 잘 못봤는데 입구 쪽부터 시작해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면담자1 : 예 그걸 아르가 진다고 표현하네요.

면담자2 : 아 지금 우리 건물이 딱 직각으로 벽이랑 천장이 만나는데 이 모양이 아니고 각을 한번 쥘서 이런 느낌을 줬다는 거죠?

구술자 : 네네

면담자1 : 근데 그 모양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구술자 : 안쪽은 자세히 못봤으니까 뭐 입구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면담자1 : 네, 저희가 부영...

면담자2 : 지금 정허섭님이랑 지난번에 제가 만나 뵈었던 분하고 또 다른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여기 지하를 그때 같이 동행하신 분이 계시고 하는데 연락이 닿는 분이 계신가요?

구술자 : 잘 없을 겁니다 아마.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도 많이 안 들어가봤을 거 같은데. 제가 아는 정도 그 정도....

면담자1 : 여기를 그때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한 건 아니니까

구술자 : 그런 게 없었습니다.

면담자1 : 주로 드나드신 분은 안계신거죠?

면담자2 : 그럼 정리를 하시면은 83년도에 여기에 인제 근무를 하셨고 첫 호기심에 들어간 게 거의 그때쯤인가요 83년도.

구술자 : 그쵸.

면담자2 : 그 쯤에 들어가셨고 나머지 총 세네차례 가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그 이후는 그 전경환씨가 이 금괴탐사를 한 이후 그니까 80년대 후반 이후에 들어가신거예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2 : 90년 대나 이때 들어가신건 아니고

구술자 : 네 별로 안들어갔어요.

면담자2 : 90년대 초반 이때쯤에...

구술자 : 90년대 초반...입구쪽에만 저기했지 안쪽으로 들어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면담자2 : 그러면 제일 깊이 들어가신 때는 87년도? 그 때 금괴 탐사 이후에 그들이 떠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게 된...

구술자 : 네

면담자2 : 연도는 뭐 조사하면 연도는 나오니깐요 그쵸. 네...

면담자1 : 혹시 포크레인이 파면서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았을까요?

구술자 : 없습니다. 그건 없었어요.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드린 건 아니고 그 옆쪽을 파고 그랬으니까.

면담자1 : 그 내부가 궁금했던 건 아니니까요. 그 사람들이.

구술자 : 그 사람들 뭐 그 내부는 뭐 들어가 봤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딴 목적이 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면담자2 :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 하신 발전실 얘기를 조금 하면.. 선생님이나 지나 봤던 그냥 들어가는 입구

구술자 : 바로 입구

면담자2 : 밑에 땅을..

구술자 : 밑에 사각형으로 그냥 있더라구요

면담자2 : 우리가 본 게 약간 반지하 시설이라고 하면 완전 지하가 또 한 개 있는 거 잿아요?

구술자 : 지하가 바로 입구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그냥 고 굴 공간만큼

면담자2 : 우리가 보는 요만한 공간만큼 지하에 또 있다는 거죠.

구술자 : 그게 그 입구가 요거 요거 요공간. 이렇게 파어져 있더라구 땅이 공간이, 흙으로.

면담자1 : 여기가 발전실이라구요.

구술자 : 그 사람들이 여기가 발전실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난 이해가 안가는 게 거기 다 발전실을 만들면 어떻게 저기할까. 왔다갔다 했을까.

면담자1 : 예.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술자 : 그래서

면담자2 : 궁금한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던 높이가 이 높이랑 애가 거의 비슷했는지...

구술자 : 아닙니다 알았죠 쯤.

면담자2 : 더 알았나요?

구술자 :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단을 보긴 봤는데 이쪽인지 이쪽인지 잘.

면담자1 : 계단이요?

구술자 : 네 계단이요.

면담자1 : 내부로 들어가서요?

구술자 : 쪼꼬만 요 옆쪽에서 계단이 있는지 쪼꼬만 계단이...

면담자1 : 아, 이 옆에요 아니면 내부로 약간 들어가서

구술자 : 아니 안쪽은 아니고, 요쪽 아니면 요쪽에 계단이 있었을 거 같아요. 요 안 밑 으루

면담자1 : 그러면은 그렇게 들어가서 발전실로 갈 수는 있었겠네요?

구술자 : 그렇지 위에를 뭐 덮어놓고? 그렇게 할 수는 있었겠죠. 그래서 구조가 좀 의 아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

면담자2 : 저는 다 여쭙본 거 같습니다.

면담자1 : 몇 차례 들어가셨을 때 거의 그냥 비슷하게 랜턴 키고 그냥 쭉욱 들어갔다 나오시고.

구술자 : 그렇죠. 옛날에 랜턴도 뭐 어찌다 랜턴 들고 들어가서 후레쉬 조그만거 갖고 들어가잖아요. 기억자로 된 거 옛날에.

면담자1 : 그래도 저희가 빈 분 중에는 이 지하시설 안에 들어가 보신 분이 지난 번에 빈 이한수 선생님하고 선생님 두 분이고, 그분은 한번 들어가 봤다 그러시고 잠깐 들어갔다고. 선생님만 제일 깊이 여러 번 들어가 보셨거든요. 세 차례 네차례 가셨을 때는 뭔가 좀.

구술자 : 그니까 처음에만 깊이 들어갔지. 그 다음에는 깊이 안 들어갔다는 거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게... 한여름에 또 시원도 하구 그러니까

면담자1 : 저희가 부영공원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실제 어디까지 연결이 됐고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구술자 : 저도 궁금합니다

면담자1 : 직접 말씀해주실 분을 뵈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 안에 언제 들어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선생님 모시고 가면서 어디가 어떻게 생겼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면담자2 :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이 먼저 구술 조사를 하는 거고 나중에 시나 구에서 좀 대대적으로 here를 뭔가 다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땅을 파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저희가 다시 연락 드려서요 다시 한번 같이 들어가실 수 있게끔 뭔가... 그때 당시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은 기억 안나시는 게 또 뭔가 나오실 수 있으니까...

구술자 : 네, 알겠습니다.

면담자2 : 그때는 가스가 나와서 못 들어갔다가 그런 건 아니었죠?

구술자 : 네.

면담자1 : 나중에 가시면 그때도 다시 한 번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술자 : 네 알겠습니다.

면담자1 : 늦은 시간인데, 오늘 퇴근하시고 피곤하실텐데 길게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술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끝>

**부영공원 지하시설 콘텐츠 발굴프로젝트  
기초조사 보고서**

**부영공원 지하시설 관련 구술**

**3. 이한수 구술녹취록**

## 구술 녹취록 개요

- 면담주제 : 부영공원 지하시설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부영공원 지하시설 관련 구술)
- 구술자 : 이한수(88정비대대에서 34년간 근무)
- 면담자 1 : 이상의(인천대학교 초빙교수)
- 면담자 2 : 김규혁(부평문화원 기획팀장)
- 면담 일시 : 2020년 10월 16일 오후 6시 20분
- 면담 장소 : 부영공원 구술자 사무실
- 주요 용어 : 부영공원, 부평공원, 88정비대대, 600경자동차대대, 이동정비, 지하시설, 병커, 대대본부, 창고
- 특기 사항 : 육군 88정비대대에서 근무하면서 600경자동차대대로 이동정비를 나갔다가 부영공원 지하시설에 들어간 경험이 있음. 88정비대대(현재 부평공원 자리)의 구조를 매우 상세히 묘사하였고, 대대본부 건물의 지하시설에도 들어간 경험이 있어 두 곳을 비교하면서 설명함.
- 구술자 녹취록 검토 여부 : 검토 완료

# 구술자 동의서 1

## 개인정보로 삭제함

## 구술자 동의서 2

### 개인정보로 삭제함

## 구술자 사진



**구술자 신상카드**

**개인정보로 삭제함**

# 이한수 구술 녹취록

## [1차 1번 녹취록]

구술자 : 내가 경험한 게 5분이면 끝난다니까요. 이 부대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저는, 시작하는 건가요?

면담자1 : 아니요, 아직 시작 안했어요.

구술자 : 저는 요 옆에 부대에 있었어요. 부평공원이라고. 여기, 여기는 이제 부영공원 이고요. 그 옆에가 부평공원이고. 이제 부평공원은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부영공원은. (카메라 정비) 그리고 내가, 나보다는 이쪽 부대에서 더 많이 아는 정허섭씨를 소개를 했는데.

면담자2 : 아 그분도 할 겁니다.

구술자 : 그러니까 그분하고 해야지. 나는 솔직한 얘기로 인접부대에서 업무차 잠깐잠깐 와서.

면담자1 : 저희는 다른 것보다 지하에 있는, 거기 지하시설이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지하 시설을?

구술자 : 우리는 그걸 빵카라고 그랬어요, 보통.

면담자1 : 빵카. 아하.

면담자2 : 잠시만요. 일단은 이번에 조사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기에 앞서서 동의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요. 이거는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고, 뒤에 거는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학술조사사업이니까 이렇게 조사사업에 부락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서류 작성 및 인터뷰 준비)

면담자1 : 이걸 시작하려면 이게 어떤 거라는 걸 전면적으로 읽고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읽겠습니다.

면담자2 : 녹화도 지금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 보셔도 됩니다.

면담자1 : 네, 그냥 저희 보고 말씀해주세요. 이 인터뷰는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부평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부영공원 지하시설 컨텐츠 발굴 프로젝트에 관한 구술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이한수 선생님의 1회차 구술채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시는 2020년 10월 16일 오후 6시 20분이고 장소는 부평구 부영공원 내의 구술자 사무실입니다. 구술면담은 인천대 기초교육원 교수 이상의와 부평문

화원의 김규혁팀장이 진행하고, 촬영은 김규혁선생이 담당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고향은 부평이세요?

구술자 : 고향이 부평은 아니고요. 동구 송림동에서 태어났구요. 팔십 아니, 73년도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부평에서 많이 생활을 했고요. 83년도 군무원 시작을 하면서 현재 부영공원 맞은편 쪽에 있는 부평공원에서 정비 업무를 담당하느라고 거기서 한 30년 근무한 것 같습니다.

면담자1 : 네.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부평에 왜 자주 오셨어요?

구술자 : 놀러 왔습니다.

면담자1 : 부평에 유명하니까?

구술자 : 그거보다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부평 친구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학교가 인하대학교 안에 있는 그때는 한독실업학교라고 그랬고 지금은 정석항공고등학교. 그쪽에서 부평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이 한 네다섯 명 있었고. 고다음에 작전동, 그쪽으로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서 부평에서 주로 모여 갖고 부평시장 일대를 돌아다니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면담자1 : 예.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바로 군무원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구술자 :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부사관으로 들어가 갖고 한 군 생활을 6년을 했습니다. 그때는 1군지사이라고, 강원도지역에 근무를 했고. 그리고 이제 81년도 12월 달에 제대를 해서 일반 직장생활 한 1년 반 하다가 군무원시험 봐갖고 군무원생활을 했죠.

면담자1 : 아, 군무원 시험을 보셨어요?

구술자 : 예.

면담자1 : 시험은 어떤 거였나요?

구술자 : 그때 뭐 국어 영어, 뭐 국사, 뭐 이런 거 했던 거 같애.

면담자1 : 아 지필시험.

구술자 : 네 지필시험도 하고 실기시험도 했고.

면담자1 ; 실기시험은 어떤 걸 보셨어요?

구술자 : 그때 당시에 처음 들어올 때는 기계공작 이라는 특기가 있어요. 군대 가면 이제 자기 주특기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기계공작이라고 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뭐 부품을 만드는. 그래갖고 이제 선반이나 밀링 이런 걸로 해서 뭐 볼트 너트라던가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특기였습니다. 그래서 선반 가공했던 것 같아요, 실기시험은.

면담자1 : 아 실기시험을요?

구술자 : 네.

면담자1 : 그럼 군대에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실기시험을 보신 거예요?

구술자 : 예, 그렇습니다.

면담자1 : 그러면 ‘군무원이 돼야지’하고 계속 기회를 보셨어요?

구술자 : 아니요. 군무원 들어오는 건 우연하게 들어왔어요. 우연히 고등학교 때 부평에 많이 놀러왔다고 그랬잖아요? 제대해갖고 부평5, 저기 주안공단을 5공단이라고 그러거든요? 5공단에서 신화공업사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면담자1 : 신화공업사요?

구술자 : 네. 신화공업사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부평에 있는 친구들과하고 놀러. 놀려고 백운역 있는 데를 지나가는데 육군본부 이렇게 해 갖고 군무원모집 해서 커다랗게 간판이 있더라고, 아니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 생활 6년 했으니까 중사로 제대했으니까 저건 뭐 쉽, 그렇게 안 어렵게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모집분야를 보니까 제가 이제 공고계통에 기계과를 나왔는데, 기계공작 특기로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 생활 할, 중사 부사관 생활을 할 때도 기계공작이었고. 그래서 저거는 뭐 보면은 뭐 붙을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시해서 합격 해갖고 83년도 8월부터 2017년까지. 음, 자그마치 한 35년 했네요.

면담자1 ; 아 35년이요. 그러면 그 부대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구술자 : 88정비대대.

면담자1 : 88정비대대.

구술자 : 옛날에는 70년대는 307병기대대였다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기능화체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 갖고, 기능화체제로 개편에 되면서 정비대대, 88정비대대라고 명칭을 했죠.

면담자1 ; 네. 거기에서 주로 하셨던 일은 아까 기계공작이라고 하셨,

구술자 : 기계공작업무를 한 10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정비 업무를.

면담자1 : 아 자동차정비요?

구술자 : 네.

면담자1 : 그 88정비대대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였나요?

구술자 :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장비. 아 이거 모든 장비는 좀 아닌 것 같고. 지상 장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 사용하는 장비 중에서는 해군들은 이제 배도 있잖아요. 공군은 비행기 있고. 육군은 지상 장비. 그래 갖고 총, 차량 대포, 탱크, 뭐 여러 가지. 우리말론 지상 장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장비 특수무기를 제외한 전 장비.

면담자1 : 아. 특수무기를 제외한,

구술자 : 전 장비. 특수무기는 말 그대로 특수하다 해서 특수무기 정비대가 따로 있고. 나머지 지상 장비는 저희가 했는데 뭐 통신, 고 다음에 뭐 군대전문용어로 자꾸 나오는데. 기동장비, 차량은 기동장비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화력장비

라고 해서 총 대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탱크, 그다음에 통신, 무전기, 유선 전화기도 통신이고 무전기도 통신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면담자1 : 그것을 정비하는,

구술자 : 네. 고치는.

면담자1 : 고치는, 수리하는 게 이 88정비대대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구술자 : 네, 그렇습니다.

면담자1 : 네. 그중에서도 특별히 그러면은 기계 관련해서 일을 10년 정도 하시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동차정비를 하시고. 31년 계셨다고 들었어요.

구술자 : 35년, 36년 한 것 같은. 35년?

면담자1 : 35년이요?

구술자 : 왜 그러냐면 83년부터 2017년까지 했으니까 3,4,5,6,7.

면담자1 : 35년.

구술자 : 그러네. 35년 했네. 좀 오래했죠.

면담자1 : 그러면은 퇴직 하실 때가 몇 년 인가요?

구술자 : 2017년.

면담자1 : 2017년. 그렇죠. 2017년에 그러면 그 88정비대대를 마치시고 그다음에는, 현재 부평공원 자리

구술자 : 이제 제대할 때는 88정비대대가 아니고. 중간에 또 부대구조개편이 있으면서 88정비대대가 80정비대대, 90정비대대 해가지고 두 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90정비대대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면담자2 : 그 부평공원이 생기면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구술자 : 부평공원으로 생기면서 절반은 90정비대대는 지금 무네미길. 인천중앙병원 뒤에. 군사보안에 걸리나? 모르겠다.

면담자2 : 17사단 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구술자 : 17사 옆인데.

면담자2 : 네, 괜찮습니다.

구술자 : 아니요, 그래도 조금 짝짝한데. 하여튼 글로 갔고. 또 절반은 시흥에 있는 무지동이라는 곳으로 갔고. 그런데 저는 무지동까진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부평 무네미 거기 17사 옆에 있는 부대로 갔어요.

면담자1 : 네 그리고 퇴직하시고는.

구술자 : 퇴직하고 나서 태안에 좀 내려가 있다가. 혼자 가있다가 아니다 싶어 갖고 다시 올라와서 부평시설관리공단 정규직 시험에 응시해서 2018년 3월 22일 날 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해 갖고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면담자1 : 시설관리가 주 업무시네요. 시설관리공단이니까.

구술자 : 공원 관리합니다.

면담자1 : 네 주로 공원 부영공원과 관련되는?

구술자 : 부평 여기는 이제.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에 있는 시설부라는 곳인데. 부평에 한 180여 공원 및 녹지가 있어요. 녹지고 있고 공원도 있고. 그거를 전반적인 수목 관리. 그 다음에 그 운동기구나 뭐 이런, 벤치 이런 거 부서지면 고치고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부평구에 있는 전반적인 녹지 및 공원에 대한 시설하고 나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면담자1 : 네. 시설 수목 관리 업무. 평생 뭐 잘못된 거 다 고쳐주시면서 사시네요.

구술자 : 사람만 못 고쳐봤어요.

면담자 : 그 저희가 오늘 아까 처음에 읽은 것처럼 부영공원에 지하시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요. 이전에 88정비대대에 계실 때부터 혹시 활동하시면서 그곳에서 근무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지하시설을 보신 적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쭙보고 싶어요.

구술자 : 제가 본 거는 일단 저쪽 함봉산이라고 그러나?

면담자2: 함봉산.

구술자 : 함봉산. 그 자락에도 토굴이 조금 있어요. 두 군데 봤고요.

면담자1 : 언제 보셨어요?

구술자 : 그 함봉산에 있는 토굴은 최근에 봤어요. 한 뭐, 몇 년 안됐어요. 몇 년 안됐고,

면담자2 : 어떻게 보셨어요?

구술자 : 어. 선포 약수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밑으로 가다보니까 시커먼 굴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게 뭐냐’ 그래갖고 들여다봤죠. 궁금하면 들여 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고쪽에 토굴 같은 거 두 군데는 그래서 본거고.

면담자1 : 거기 뭐 안내판 써있는 거 보셨어요?

구술자 : 안내판이 있었던지 없었는지 잘, 그 기억은 없어요.

면담자2 : 선포 약수터 뒤쪽에 보신 거라면 그 집 뒤에 있는 거 보신건가요? 부광고등학교랑 사이에 있는?

구술자 : 하여튼 거기 학교 지나서 뒤쪽으로 돌아서 가보면 거기 토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쪽 이제 옛날 10화학대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부대에도 쪼그만 토굴이 있고. 그건 이제 토굴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짧아요. 굴 길이가 한 4, 5미터 이내였던 것 같아요. 크기는,

면담자1 :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면 밖에서 보셨어요?

구술자 : 4, 5미터인데 뭐 보고 들어가고 말고 할게. 들어가도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볼 게 없었어요. 4, 5미터니까 그냥 한눈에 다 보이죠. 그리고 그 토굴 길이가 아니 크기가 폭이 한 2, 3미터도 안되었던 것 같아요. 높이도 우리 키보

다 조금 더 컸던 것 같고. 그리고 80, 88정비대대에 이렇게 동굴 같은 게 있었고.

면담자1 : 아 그 안에요?

구술자 : 네. 고 다음에 여기 옛날에 600경자대대라고 했던 우리 부영공원에 빵카 같은 게 있었고. 그 정도 본 것 같아요. 제가 본 거는.

면담자1 : 그 먼저 88정비대대에 계실 때 보신 거부터 좀 여쭙볼게요. 그게 어디쯤,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구술자 : 하, 어렵다. 그 어디쯤이라는 게 지금 부평공원에서. 어렵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면담자2 : 지도로 설명이 조금 가능하실까요?

구술자 : 지도로요?

면담자 : 네. 대략 위치만 좀.

구술자 : 아니 그러니까요. 아.

면담자1 : 아니 여기 그림으로 한번 부평공원을 그려 봐주시면 어떨까요.

(구술자가 종이에 그림을 그림)

면담자1 : 이쪽이 부평역 가는 길이고요. 이쪽이 백운역 가는 길이고.

구술자 : 철로예요, 이게 철로.

면담자1 : 네.

면담자2 : 방위는,

구술자 : 그렇게 되나요? 네, 네. 해서 여기가 철길이고. 이쪽이.

면담자2 : 신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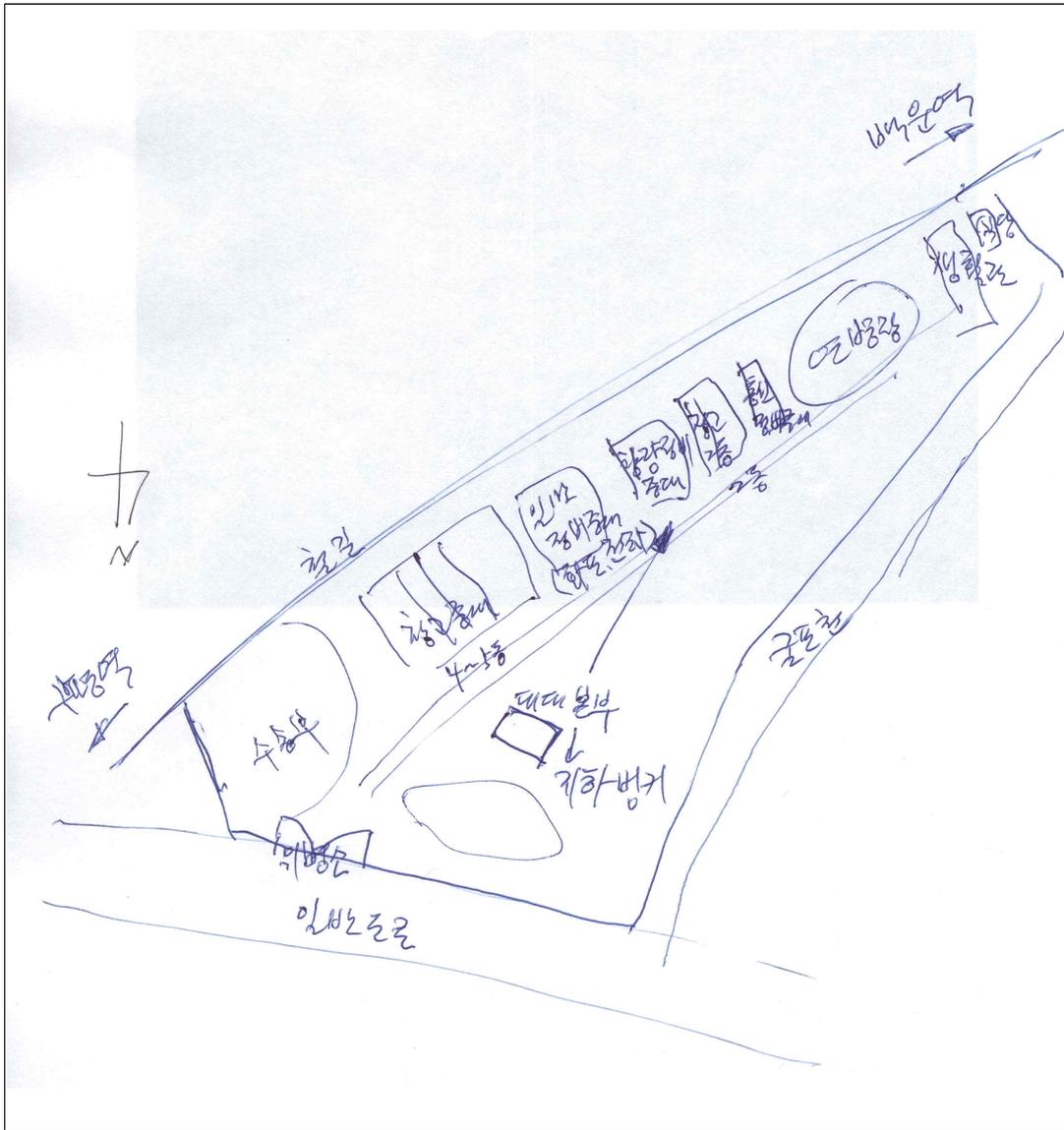
구술자 : 신촌인데 이게 굴포천이고. 이쪽이 도로. 일반도로죠. 그리고 한 이만쯤이 위 병소였던 것 같고.

면담자1 : 위병소.

구술자 : 네. 정문. 고 다음에 이쪽 일대가, 길이 이렇게 부대 안에 길이 이렇게 있었고. 이쪽에 대대본부 있었고. 이 대대본부 지하에, 지하에? 지하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하여튼 지하에 대대본부, 이렇게 대대본부가 2층 건물인데 지하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지하에 들어가면 뭐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일본 애들 건물 잘 진다'하는 느낌으로 뭐 그런 거, 벽이 이렇게 두꺼워요. 벽이 한 30, 40센치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문이 있는데 문 두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진 뭐 큰 건가?' 그랬어요.

면담자1 : 문이 철문인가요?

구술자 : 네. 철문이 있었어요.



<그림 2> 구술자 이한수가 그린 부평공원의 과거 88정비대대의 구조

면담자1 : 아, 철문이요.

구술자 : 철문. 문은 없었고, 철문 틀만 있었어. 문틀만.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면담자1 : 개방이 돼 있었어요? 문이 없이?

구술자 : 네, 개방 됐던 것 같아요. 개방 됐던 것 같고. 그 문틀이 이렇게 두꺼워서 ‘야 여기 철문이 있었던 흔적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고. 그 안에 조금 들어가다 캄캄하니까. 조명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폭으론 한 2미터 정도 됐던 것 같고. 거기도 높이도 우리 키보다 조금 높았던 것 같고. 방향은 지하에 방향은 제가 볼 때 이쪽 방향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지하, 지하 뺱커라고 해야 하나? 지하 뺱커. 뺱커가 맞는지 굴이 맞는지 하여튼 뭐 그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좀 5미터 10미터 쯤 들어가다가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다시 되나 왔어요.

면담자1 : 왜 들어가셨어요?

구술자 : 궁금하니까.

면담자1 : 아, 궁금하니까. 몇 분이 가셨네요, 같이?

구술자 : 그때 두세 명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밑으로, 지하로.

면담자1 : 아아 저기 밑에는 어떤 데냐. 그 지하 내려가는 데가 보통 그 시설을 지하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굴이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아까 뺑커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뺑커에 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구술자 :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이제 대대본부 1층에 행정과라고 있어요. 행정과라는 게 이제 부대에서 제반, 전반적인 행정업무. 뭐 병사들 월급도 줘야 되고, 휴가도 보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데가 행정과예요. 거기 이제 잠깐 이제 지원업무를 할라고 가 있으니까 행정과 옆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면담자1 : 실내에 있어요?

구술자 : 그렇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실내에 있어요.

면담자1 : 실내에 바닥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구술자 : 바닥이라는 의미는 모르겠고요.

면담자1 : 지하로 내려가는 시설이 여기서부터 그냥 이어져서?

구술자 : 그렇죠. 이게 실내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면 대대장실이 되는 거고, 지하로 내려가면은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뭐 이렇게 뺑커 비슷하게 있었어요.

면담자2 : 그러면 혹시 궁금한 게 대대본부 건물이 한국군에서 만든 건 아니었나요?

구술자 : 그런 느낌 안 받았어요. 저는 그때 당시 일본 애들이, 아 건물 자체는 한국군이 졌을지 모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건물하고 지하뺑커하고 일체형이니까. 일체형이었어요, 일체형. 그러니까 뭐 지하 뺑커를, 지하에 들어가는 계단을 별도로 만들고, 왜 지하에 그 아무것도 사용 안하는 공간이었으니까 글로 내려가는 거를 일부러 계단을 만들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은 대대장실이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지휘관실이니까 무서우니까 다들 거기 접근을 안 하지. 왜 혼날까봐. 근데 이제 저는 행정과에 지원업무를 하니까 ‘어? 야 여기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네? 내려가 보자.’ 그래갖고 내려갔는데 그 상황이니까. ‘별것도 없네? 그리고 캄캄하고.’ 근데 거의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문틀이 있는데 그 벽체 두께가 한 4, 50센치 정도 되는 거고. 그 문, 장식이라고 그러나요? 힌지. 그런 흔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들어갔다가 한 몇 미터 들어갔는데 캄캄하잖아요. 옛날, 지금 물론 휴대폰으로 이제 랜턴기능으로 해서 들어가면 되지만, 옛날에 일부러 후레시를 들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캄캄하니까 거기 조

명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야 거기 들어가지만 거기 왜 들어가.” 그러니까, “그래 뭐 별 것도 없는데 더 들어가래도 안 들어가겠다.”

면담자1 : 그 안에서 보신 건 뭐,

구술자 : 그냥 고 지금 말씀드린 게 다예요.

면담자1 : 예. 그 안에 다.

구술자 : 다 캄캄하니까.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내가 탐사를 한다든가 뭐 발굴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지 단순한 호기심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냥.

면담자1 : 여기 계단이 올라가는 데 있고 내려가는 데 있는데 내려가는 계단 내려가면,

구술자 : 내려 아니, 이렇게 내려가서 한번 꺾어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손짓으로 직진 후 오른쪽으로 돌림)

면담자1 : 내려가서 꺾어지면 그다음에 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술자 : 지하 공간이 있었고, 지하 공간 쪽으로, 한쪽 벽으로 문틀이 있고. 그 문틀 안에 캄캄한 철축 같은 어둠이 있는 거죠.

면담자1 : 네. 그게 뭐 얼마나 연결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못 받으시고요.

구술자 : 소문에 의하면 부평삼거리 공동묘지 입구에 은광이라고 있었어요. 광산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연결이 됐다.’라고 우리 선배들이. 근데 뭐 그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그때 그리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 나이는 아니고 이십대, 아니 삼십대 초중반이니까. 그런 역사에 관심 있는 나이는 아니고, 오로지 그냥 어떻게 하면은 퇴근을 빨리할까.

면담자1 : 그러면 그때가 한 90년도 이쯤인가요?

구술자 : 아니요. 팔십, 제 생각으로 팔십팔, 구년도? 그 정도 같아요. 왜냐면 팔십팔, 구년도에 내가 행정과 행정지원업무를 가 있었으니까. 그때 업무 하면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들어갈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면담자1 : 네, 그러면 이런 구조로 생긴 건물이 다른데도 또 있었어요? 이렇게 지하에 시설이 있던 건물이요.

구술자 : 지하시설은 거기가 유일했고요.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은. 나머지 지상에는 그냥 일제시대 때 건물인지 미군들이 만든 건물인지, 미군들이 지었을 것 같진 않고. 하여튼 전형적인 그 창고건물이었어요.

면담자1 : 창고건물이요? 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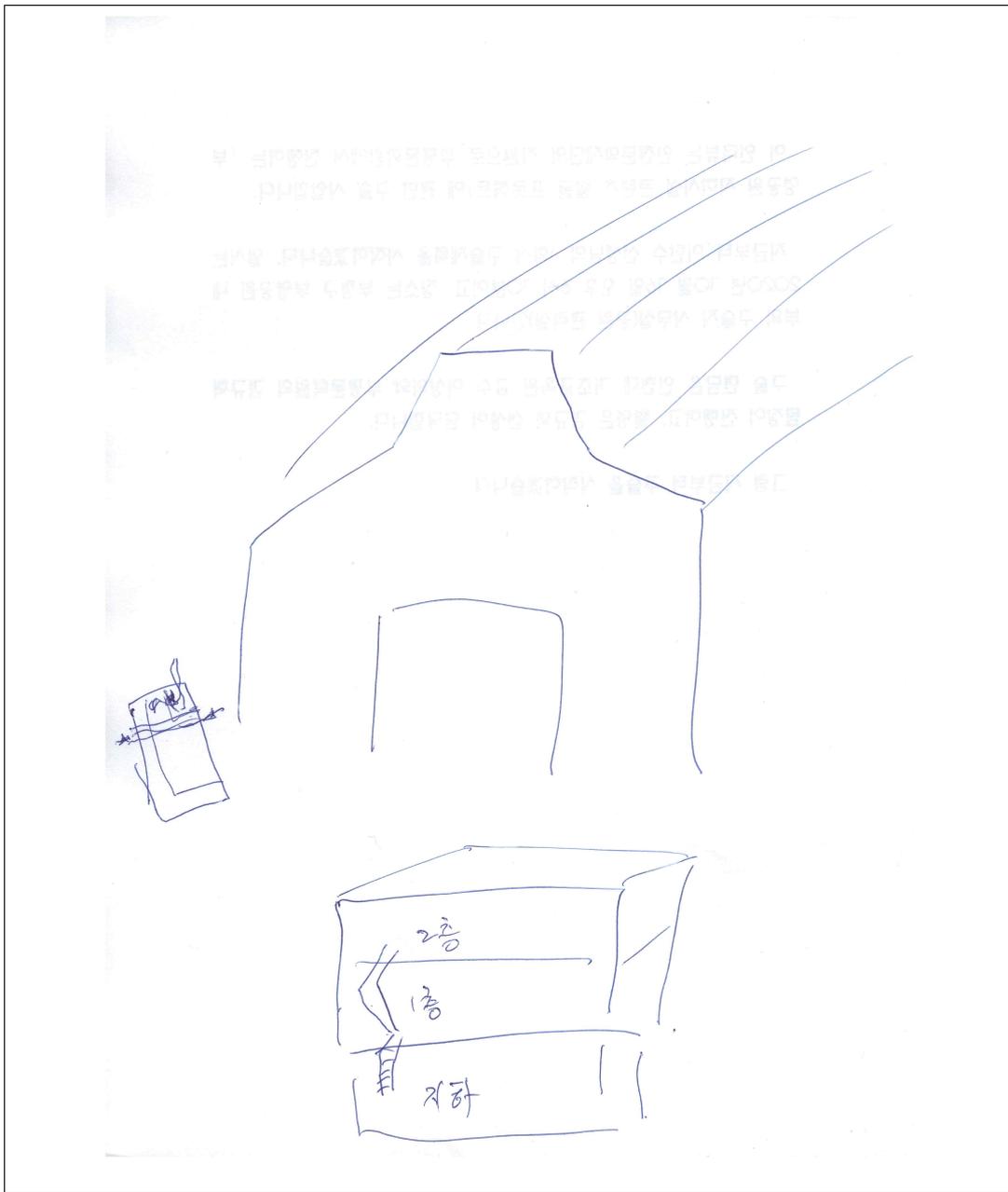
구술자 : 창고 같은.

면담자1 : 자재는 어떤 게.

구술자 : 각종 수리 부속이라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비하는 부대니까 정비를 하려면 그 부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비하는 부품뿐만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뭐든 지상 장비를 운영하는 부대들한테 부속을 공급해주는 창고도 있었, 창고중대가 있었고. 그니까 88정비대대 안에 창고중대가 있고 전차화포 고치는 중대가 있고. 차량 일반장비 건설장비 이런 거 고치는 중대가 있고. 통신장비를 정비하는 중대가 있고. 그래서 창고중대, 일반정비중대, 차량정비중대, 통신중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요기 역 내에는. 88정비대대.

면담자1 : 건물은 대부분 그러면은 그 대대본부같이 생긴 건물들이었어요?



<그림 3> 구술자 이한수가 그린 88정비대대의 과거 건물 외관

구술자 : 아니에요. 대대본부는 거의 라멘조라 그러나요? 콘크리트 사각, 콘크리트. 사각 콘크리트 건물이었고 다른 데는 대부분이 창고형태였어요. 건물 자체들이, 건물자체들이 보통 보편은 이렇게, 이렇게. (종이에 그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큰 출입문이 있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큰 크기이고 그다음에 뭐 여기 창문 쪽 있고, 이런 형태.

면답자1 : 이런 창문이 있고요?

구술자 : 그렇죠, 이런 창문이 있고, 지붕이고요. 여기 출입구고, 요런 형태의 건물. 지금 이런 형태의 건물이 어디 있을까. 미군부대 안쪽에도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면답자2 : 그러면 혹시 본부건물 좀 이렇게 묘사해 주실 수 있나요?

구술자 : 본부? 본부. 그냥 사각이었어요. 사각.

면답자2 : 색깔이라던가, 층수.

구술자 : 겉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 이런 그냥 사각이었어요. 그래갖고 1층, 2층. 요쪽으로 계단으로 통해서, 계단으로 통해서 지하 있었고.

면답자1 : 이 계단이 2층으로 이어지구요.

구술자 :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면답자1 : 그러면은 이 지하가 동굴처럼 돼 있는데 이 건물 전체를, 밑에를 관통한 그런 곳이었던데요.

면답자2 : 1층, 2층 크기만 한 면적이 지하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구술자 : 그거보다 작게 봤어요. 1층 2층 건물보다 지하면적이 작다고 생각했어요.

면답자1 : 일단 입구부터 좀 2미터정도 이렇게 되고 작으니까.

구술자 :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이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서 1층, 2층, 지상이 이만큼 있으면, 여기 이제 계단을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요쪽 커탕이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출입문이 이렇게, 이렇게 관통하는 출입문이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일루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일루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요 계단이 2층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지하로도 내려가기도 하고. 근데 내려가서 보편은 이렇게 큰 면적이 아니고 뭐 대충 한 이정도 면적?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여튼 그 지하면적이 지상면적 건평, 그 뭐라 그러지. 연면적이 아니고 평면. 그거보다 좀 작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캄캄해요. 캄캄해 갖고 “야, 이한수! 거기 미친놈처럼 캄캄한데 아무 것도 없는데 왜 들어가냐!” 그래갖고.

면답자1 : 남들은 관심이 없었고요?

구술자 : 그렇죠, 저도 한번 그냥 ‘야 여기 지하가 있는데 들어가 보자’하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캄캄하고.

면답자1 : 근데 거기를 막지는 않았네요?

구술자 : 예, 안 막았어요.

면담자2 : 사용도 안하고 막지도 않고.

구술자 : 예, 그랬어요. 뭐 굳이 막을 일이 없었어요. 군 생활하면서 지휘관실을 병사들이 오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안 오지. 그렇잖아요. 그 안 막아도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빈공간이니까. 뭐, 근데 나중에 우리부대 이사 가고 쉼터 촬영하고.

면담자2 : 쉼터, 네.

구술자 : 쉼터가 거기 창고에서 촬영한 한 장면이 보이는데 거의 그 창고 일부분만 보여요. 그 쉼터 영화에서 그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 막 훈련하는. 창고 같은데서 훈련하고 격투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걸 거기 창고중대 요런 건물에서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면담자2 : 아 네, 네.

구술자 : 그리고 지금 여기 병사, 여기 병사들은 이쪽에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생활관이었고. 생활관이었고, 여기가 식당이었고, 쉼터장이었고. 여기가 연병장이었고. 여기가 수송부였고. 요만큼 창고중대고. 이런 창고가 막 있어갖고 창고중대고. 여기가 일반정비중대. 여기가 이제 화포, 전차, 이런 거 고치는 대고. 여기가 차량정비. 차량정비 하는 곳이고. 중대고. 그다음에 저기, 여기 창고가 또 있었다.

면담자1 : 이렇게 생긴 창고요?

구술자 : 네. 그런 게 창고가 또, 창고가 그때 두 동 있었어요. 두 동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통신중대가 있었고, 통신정비중대가 있었고. 대충 여기 저 또 연병장 있었고. 대충 요 이런 형태였어요. 부대는. 근데 주로 이제 여기 생활관 쪽에서, 여기서 업무 보고, 생활관으로 병사들은 가고. 우리들은 퇴근하고 이리로. 그리고 여기 갈 일이 없죠.

면담자1 : 네. 보통 갈 일이 없었겠네요. 창고중대는 이런 건물이 몇 채 정도 있었나요?

구술자 : 요쪽에 두 동. 요쪽에 네 동인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네 동 내지 다섯 동 이었던 것 같아요.

면담자1 : 이렇게 생긴 건물은요?

구술자 : 네, 아니. 건물은 다 대부분이 이런 건 여기 네, 창고가 네, 다섯 동 있었고. 요기 한 동. 요기 한 동. 그랬던 것 같은데? 정비중대도 이런 거였어요.

면담자1 : 아. 건물이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되어있었어요?

구술자 : 대부분 이런 형태였어요.

면담자1 : 예. 근데 지금 전혀 안 남아있네요?

구술자 : 그렇죠. 전혀 없죠. 없어요. 아주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부

대 이전하고 여기 이제 공사할거 아니에요. 짝 뒤집어서 여기 부평공원 만든 거니까. 여기 부평공원이거든요, 지금. 근데 소문에 의하면 뭐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뺄어 있잖아요. 그렇게 파낼 거 아니에요. 파내는데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일본도도. 일본도라도 일본군, 군인 애들이 쓴 그 군도. 그런 것도 몇 개씩 나오는데, 뭐 녹 하나, 녹이 하나도 안 쓸었더라. 일본 놈들 대단하다. 4-5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녹이 하나도 안 쓸었냐. 뭐 이런 소리도 있었고. 근데 하여튼 그런 건 다 들리는 소문이지. 내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에요.

면담자1 : 그렇죠. 네. 다른 것도 나왔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구술자 : 네. 그거 일본도하고 이런 뭐 군부대니까 군대부속 같은 것들도 좀 있었고. 그랬죠.

면담자1 : 그럼 아까 그 600경자.

구술자 : 네. 현재 요 자리. 600경자동차대대, 경자대.

면담자1 : 경자대, 600경자대. 네. 그게 부영공원 이 자리죠.

구술자 : 네, 그렇습니다.

면담자1 : 이 자리에도 다니신 건가요? 아니면은,

구술자 : 여기는 이제 어떤 일로 오냐면, 여기 자동차대대잖아요? 그 맨 처음에 기계공작하다가 자동차정비업무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정비 업무를 하러 와요. 우리 군대말로 이동정비라고 그래요. 이동해서 정비해준다, 우리가. 이제 고장난 장비를 가지고 오면 입고정비. 고장 난 장비를 입고해서 정비했다고 하면 입고정비. 정비 요원이 그 현장으로 가서 하는 거는 이동정비. 우리는 여기 이동정비를 여기 종종 오죠.

면담자2 : 음. 출장서비스를 하러 오셨네요.

구술자 : 그렇죠. 그러면 일반용어로 출장서비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면담자1 : 그러면은 하루 종일 여기 계시나요?

구술자 : 하루 종일까진 아니죠. 한 거기서 아홉, 여덟시 반 쯤 오면 여기 한 아홉시쯤 도착해요. 그럼 한 오후 두시, 세시까지는 있다가 복귀하죠.

면담자1 : 아 다시 복귀하시고? 그러면 그사이에는 주로 여기에 와서 차량을 정비하시고. 네. 주로 일과는 차량 정비인데 그 사이 시간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구술자 : 그건 국가 비밀인데요.

면담자1 : 하하, 개인비밀 아니신가요.

구술자 : 하하, 개인비밀이라고. 땡땡이도 좀 치고 쉬기도 하고. 그렇죠.

면담자1 : 이 부영공원 이 자리에도 지하시설이 있다고 언론에 나오잖아요. 혹시 그것도 보셨나요?

구술자 : 안 봤어요. 언론에 나온 건 안 봤어요. 볼 필요가 없던데요? 관심도 없고?

면담자1 : 아니요, 그 지하시설을. 그 병커를 보셨나요?

구술자 : 아, 그 병커는 봤죠.

면담자2 : 여기 근무하실 때에?

구술자 : 에에 뭐 들어가 봤, 그때도 들어가 봤죠,

면담자1 : 아, 거기도 들어가셨어요?

구술자 : 그럼. 거기 시원해요. 거 좀 땡땡이 치고 거기 들어가서 좀 쉬기도 하고. 여름에.

면담자1 : 아, 그러면 쉬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겠네요?

구술자 : 많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고, 솔직한 얘기로 땡땡이치려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면담자1 : 시원하니까.

구술자 : 그렇죠. 여름에.

면담자1 : 근데 들어가서 쉴 만큼 그러면 거기는 안전한 곳이었네요? 캄캄하거나 뭐, 물이 있거나 그런 데가 아니고?

구술자 : 그때는 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땐 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면담자1 : 거기는 위치가 어디쯤이었어요? 부영공원이라고 하면.

구술자 : 가보시지 않았을까? 팀장님 보셨을 것 같은데?

면담자2 : 아니 저랑 갔는데도 한번, 선생님 그 당시에 한번 기억을.

구술자 : 아니 그때 기억이나 지금 기억이나 똑같죠. 그 나 자세히는 몰라요. 진짜, 여기는.

면담자1 : 가보신, 가보신 그곳을 한번 좀 그려봐 주세요.

구술자 : 하아, 어려워. 여기 아니, 아니 이거는. 내가 거기서 몇 십 년 있었으니까 그런 거고. 이거는 제 생각인데, 우리 또 다른 분하고 인터뷰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분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분은 여기서 아예 상주를 하면서 근무하셨던 분이니까. 저보다는 더 정확할 것 같고. 저는 그냥 들리는 낭설만 듣고. 어찌다가 땡땡이치려고 들어갔고.

면담자1 : 그럼 들어가서 보신만큼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술자 :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이제, 그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차가 들어갈 만큼 커요, 병커가.

면담자2 : 어떤 차까지가.

구술자 : 우리 저, 두돈 반차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높

이가 한 3미터로 봐야 되나.

면담자1 : 3미터요? 그러면은 폭은 얼마나 되죠?

구술자 : 폭도 한 5미터? 5미터 봐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네. 그 정도로 하여튼,

면담자1 : 굉장히 높고, 넓고.

구술자 : 네, 엄청 커요. 뭐 느낌이 ‘이야 뭐 이렇게 크게 뺑커를 지었지? 여기 대피손  
가 보다.’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대피소라는 느낌으로 받았어요.

면담자1 :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구술자 : 크기가 크죠. 그다음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거기 의무실이라는 글씨도 봤던  
것 같고.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커요. 크기가 좌우 폭이 한 5미터 정  
도 되는 것 같고. 5미터 이상이라고 봐야 해. 그리고 높이고 제법 높고. 차도  
쭙 들어갈 수 있고.

면담자1 : 차가 그때는 들어갈 일이 없었죠?

구술자 : 들어갈 일이. 우리 한국군이 거기 차 갖고 들어갈 일이 있겠어요?

면담자1 : 차가 들어갈 만한 크기였다.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차가 들어갈. 들어갔을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받으셨어요?

구술자 : 이제 사람은, 이제 그때 당시만을 딱 잘라갔고 기억하는 건 참 어렵고. 최근  
에 본 기억으론 차바퀴가 있었어요.

면담자1 : 아, 차바퀴가 어디에 있었어요?

구술자 : 그 뺑커에 차바퀴 흔적이 있었다고.

면담자1 : 아, 그러면 그건 흙 위에 있는 건가요?

구술자 : 바닥에서 그,

면담자1 : 시멘트 위에?

구술자 : 그렇죠, 그렇죠.

면담자1 : 아, 시멘트에 바퀴자국이 남아있었어요?

구술자 : 시멘트가 있고, 양금처럼 흙이 있고. 막 먹는데, 바퀴자국으로 나는 봤어요.  
바퀴자국처럼 이렇게.

면담자2 : 이번에 들어가 보신 거예요?

구술자 : 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봄쯤인가? 네 봄쯤인 것 같아요. 그때 그 뭐,  
“야, 저 뭐 개봉한대.” 그래서 ‘저것들을 왜 개봉하나.’ “야, 근데 개봉하는데  
가서 뭐 담치고 뭐하고 도와줘야 된대.” 그래갖고, “그래, 그럼 가보자.” 그래  
갖고 뭐, 갔지. 옛날생각이 나더라고.

면담자1 : 근데 그게 바퀴자국이라고 하면 저건 70년도 넘은 흔적이다, 이런 느낌,

구술자 : 아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면담자1 : 그건 아니죠? 최근에,

구술자 : 네, 네. 최근에 저기 누군가가 그 입구를 막았다 열었다 막았다 열었다 한 것 같아요. 부대가 이전하고 나서.

면담자1 : 중장비 뭐, 약간 그런 흔적이 있어요?

구술자 : 중장비 아니고 일반 차량 타이어 바퀴(바퀴) 같은 흔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이 부대가 94, 5년도쯤에 이사 갔을 거예요. 4, 5년쯤에 이사 갔는데 뭐 무슨 이윤지 싹 덮었던 말이에요, 안전 때문에. 여기 한동안 여기 개방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쪽이 정화 사업한다고 연병장 지금 축구장 있는데, 그쪽에 정화사업, 토양 정화사업 한다고 그래서 큰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막 거기서 토양 정화작업 한 다음에 개방을 했잖아요. 그게, 그 과정을 저는 모르죠. 왜 그리냐면 93년도 4년도 어간에 이 부대가 지금 저쪽 시흥 무지리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여기로 올 일이 없었죠. 그리고 최근에 여기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고 시설부로 배치 받으면서, 일본 애들 시설에 굴뚝에 고쪽 모퉁이로 뱅커가 있었는데 암만 봐도 못 찾겠는 거예요. 없어졌어. 뱅커가.

면담자2 : 그때 기억이 있으시니까.

구술자 : 네. 그래갖고, 하 이게 벌써 치매도 아니고. 하여튼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그냥 봄에 포크레인으로 딱 퍼내서 입구를 했다가 또 덮었다가 그랬잖아요. 금년에 그랬잖아요.

면담자2 : 네, 그때 저 있었습시다.

면담자1 : 그 사이에는 전혀 보실 수가 없었네요.

구술자 : 그렇죠. 불려고도 안했죠. 관심도 없고 불려고도 안했고. 여기 들어올 일도 없었고.

면담자1 : 그러면은 90년대 초반에 보시구요. 90년대 초반에 보셨을 때 그 모습이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구술자 : 느낌상으로 한 100미터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면담자1 : 아 네, 100미터 정도요?

구술자 : 하여튼 굉장히 깊게 간다고 해서 “야! 거길 왜 들어가냐.” 그리고

면담자1 : 아 100미터까진 들어갔다 나오시고 그러셨어요?

구술자 : 한번쯤은 야, 그러다가 점점점점 막 깊어지니까.

면담자1 : 아 깊어져요? 어떻게 깊어지나요?

구술자 : 아니 깊이가.

면담자1 : 어둡고?

구술자 : 어둡고 길어지니까, “야 저 안에 뭐있냐?” 그러니까, “야, 막혀있어.” 그러니까, “막힌 건 뭐 하러 보냐.” 고 정도.

면담자1 : 이. 기울어졌어요, 땅이?

구술자 : 그랬던 느낌이에요. 약간 경사졌던 느낌이에요.

면담자1 : 들어갈수록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경사요?

구술자 : 그랬던 기억인데.

면담자1 : 완만하게?

구술자 : 그렇죠. 아주 완만한. 느낌이 없을 정도.

면담자1 : 네, 혹시 계단도 있었나요?

구술자 : 지상으로 나오는 계단.

면담자1 : 음. 지상으로 나오는 계단. 옆으로나 뭐 아래층 더 내려갈 수 있게 생긴 계단은,

구술자 : 그것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저는 직접 못 봤어요.

면담자1 : 아, 100미터 정도 들어가실 때는 그걸 못 보시고요.

구술자 : 아니 뭐, 예. 저는 하여튼.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말을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고,

면담자2 : 아까 그 의무실 글자를 얼핏 보셨다고 했는데,

구술자 : 아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자신 없어요. 그건 자신 없어. 기억이 가물가물 해.

면담자2 : 그러면은 그 너비하고 높이 정도는 이제 기억나시는데, 특이점은?

구술자 : 특이점은 그러니까 하여튼 크고 깊다. 그리고 이 정도로 팔 때는 이렇게, 통로용도로는 아닌 것 같다. 왜? 옛날 88정비대대는 통로가 좁거든요. 그 굴이. 그리고,

면담자1 : 거기는 높이하고 너비가 어떻게 되었었죠?

구술자 : 아까 한 2미터.

면담자1 : 네 2미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는 그러면 한 세 배정도?

구술자 : 네. 엄청 커요. 세 배가 아니라 한 여섯 배? 왜 그러냐면 길, 폭이 세 배, 높이가 두 배. 그럼 여섯 배 아닌가요?

면담자1 : 네. 그렇게 넓은 입구. 입구가 넓고 그 넓은 입구가 터널로 쭉 계속 이어지고. 그런데 100미터 정도는 걸어보셨고.

구술자 : 100미터. 느낌은 한참 걸어 들어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100미터가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대충 하여튼 길었어요.

면담자2 : 그 당시에 천장에 뭐 전등이라던가 그런 건 있었나요?

구술자 : 조명시설 설치한 흔적은 있었어요. 근데 조명이 켜지고 그런 시설은 아니었어요. 근데 흔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면담자1 : 어떤 전선,

구술자 : 네 그러니까 조명. 전깃줄이 들어오고 이러한 흔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자세히는.

면담자1 : 콘크리트 마감된 곳이죠?

구술자 : 그렇죠, 콘크리트로 마감됐어요.

면담자1 : 그러면 거기에 붙어있는 시설들이 그러면 전선?

구술자 : 그러니까 전선이 설치됐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조명이 옛날에 이  
    땡커에 조명도 들어왔다는 느낌이었어요.

면담자1 : 전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구술자 : 네, 네.

면담자1 : 연결됐겠다.

구술자 : ‘조명시설이 있었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면담자1 : 그때까지는 물이 전혀 차지 않았고요, 그냥.

구술자 : 물이 찬 건 몰랐어요.

면담자1 : 어두워서 못 들어가신 거고, 물이 차서 못 들어가신 건 아니네요.

구술자 : 그렇죠, 그렇죠.

면담자1 : 그러면은 지금 물이 찼다고 해도 그 아래가 좀 완만할 수가 있겠네요.

구술자 : 그럴 것 같은데요. 전 최근에 안 들어가 봤고. 근데, 저번에 봄에 들어갔을 때  
    물 찼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면담자2 : 그때는 물은 안 찼었구요. 아주 자박하게만 있었고, 뭐 옆에 계단 쪽에나 물  
    이 찼었던 것 같고. 그 때 당시에 돌무더기 이런 건 없었었나요? 그냥 쭉  
    들어갈 수 있게끔 다 비워져 있었나요?

구술자 : 그랬던 것 같아요.

면담자1 : 뭔가 중간에 막아놓은 시설 없어요?

구술자 : 끝에는 막혀있다고 그랬어요.

면담자1 : 아, 끝에는 막혀있다고요? 끝에는.

구술자 : 안 들어갔었죠.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고. 막아놨다고 들었어요. 근데 거기,

면담자2 : 막아놨다는 게, 문을 막았다라는 건지. 아니면 아예 길이 없다는 건지.

구술자 : 문을 막았다는 소리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니  
    까 다른 그 제가 소개해줬던 그분하고 인터뷰하면 더 구체적으로.

면담자1 : 네. 그 옆에 뭐 지상으로 통하는 시설이라던가, 혹시 이런걸 보신 기억이 있  
    으신가요?

구술자 : 계단이 있었어요.

면담자1 : 계단이 바로.

면담자2 : 계단이 몇 개 정도?

구술자 : 두세 개, 나가는 길이 두세 개 있었던 것 같아요.

면담자 : 밖으로 나가는 계단이 두세 개 정도요?

구술자 : 예, 예.

면담자1 : 그리고 뭐 밖에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환기구가 있다던가, 이런 거는 없었  
나요?

구술자 : 환기구는 뭐 그 나이에 천정 보면서 뭐 탐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들어갔다  
가 솔직한 얘기로 정비하고 좀 더울 때 쉬러 들어가자. 근데 이쪽 부대에 뭐  
지휘관들이 보면은 ‘저 새끼들 정비에 지원하러 왔다가 땡땡이만 치네.’ 하니  
깐 안 보이는데 숨어서 쉴려고 들어간 거죠. 솔직한 얘기로.

면담자1 : 처음에 밖에서 그 입구를 다 알고 들어가셨어요? 그냥 보고 들어가셨어요?

구술자 : 그냥 걸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면담자 : 그 당시는 막아놓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구술자 : 네, 네. 그런 건.

면담자2 :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모습을 좀 다시 한 번 그림으로 부탁하면 안 될까요?  
그때.

구술자 : 아니, 아니야. 그거는 뭐. 솔직한 얘기로 저보다 더 정확하고 더 잘 아시는 분  
이 차후에 인터뷰 계획이 있다 하는데. 뭐,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한 번, 두  
번. 그 정도 들어갔던 거니까. 그리고 그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몰래.

면담자1 : 자주 드나드는 곳은 아니고.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가끔 쉬러 몰래. 들어가시는 곳.

구술자 : 아 썰러.

면담자2 : 아 늦었어요.

면담자1 : 그러나 숨겨진 곳은 아닌 곳. 그렇죠?

구술자 : 그렇죠. 굳이 거기 숨겨진 곳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면담자2 : 군대에서 문을 막았다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그냥 뚫려있던.

구술자 : 못 들어가게 문 막고 그랬던 기억은 없는데요. 근데 그 안에는 있었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제 기억으론 여름에 더우니까 시원한 곳을 찾아서, 그때  
는 에어컨도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시원한 곳이면 무조건 좋았죠. 그래서 땡  
땡이치러 들어간 거죠.

면담자1 : 여기서도 굉장히 오래 근무하셨네요.

구술자 : 어디. 여기?

면담자1 : 밖에. 그 600경자대대? 네. 거기서 오래 근무하셨네요.

구술자 : 저는 600에서 근무 안했었다니깐.

면담자1 : 그 88에서 여기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구술자 : 아니, 이동 정비하러 지원, 차를 정비하러 가끔 들어오는데. 이제,

면담자1 : 항상 오시는 게 아니고,

구술자 : 그렇죠. 항상 들어오는 건 아니죠. 여기 우리가 지원해주는 데가 김포, 강화, 저 백령도까지. 저 밑으로는 평택까지. 동쪽으론 저기, 저. 경기도 우리말로 그냥 경기도 한수 이남. 한 강이남 경기도. 고다음에 서북, 서해 5도서. 요정도 정비해주는 그 지원부대가 넓어요.

면담자2 : 엄청 규모가 넓었네요.

구술자 : 그렇죠, 넓죠. 근데 여기 올려면 1년에 한 서너 번 오죠, 서너 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여기 상주해서 계속 살던 사람하고 인터뷰하는 게 더 정확하실 것이고, 저는 지극히 단편적으로 한두 번 본 거에 불과한 거죠.

면담자1 : 근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아까 그림도 엄청 잘 그리셨어요.

구술자 : 아유 칭찬 감사합니다. 하하.

면담자1 :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아까 소개해주신 분 정 허자, 섭자?

구술자 : 섭.

면담자1 : 예, 정허섭 선생님 뵙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해주시는 건 이렇게 마칠까요?

구술자 : 예. 감사합니다.

면담자1 : 네, 아휴 늦은 시간에 지금 저녁도 못 드시고 고단하실 텐데, 고맙습니다.

구술자 : 나이를 먹을수록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요. 젊었을 때 역사가 뭔지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학 땀길 때도 역사가 어찌구저찌구, 역사란 뭐 어찌고 그러는데. 에휴 뭘 쓸데없는 소리하고 학점 받기 바쁘고 끝나면 잊어버리는 과목이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역사가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역사를 정립하는 데 일조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면담자1 : 하하 네. 하나 더 여쭙볼게요. 캠프마켓. 일부구역 지금 반환해서 개방했잖아요. 네 이거, 저 공간에 아직 안 가보셨나요? 아니면,

구술자 : 가봤어요.

면담자1 : 다녀오셨는데 그 공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구술자 : 아 미국 놈들 넓은 공간에, 물론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이기, 지켜주기 위해서 오긴 했는데. 우리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넓은 호화로운 생활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면담자1 : 아, 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구나.

구술자 : 아 그리고 굉장히 저 미군 애들은, 우리 한국군들은 내무반도 1인당 한 평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개네들은 굉장히 넓은 데를 썼잖아요. 지금도 그 넓이가 진짜 야구장 하나 개방한 것 같잖아요 지금. 야구장 하나 개방한 건데 그 뒤로 어마어마한 그 부지에 여기 한 몇 명이나, 몇 명이 이 정도 썼을까? 우리 같으면 한 사단이 있었을 것 같아. 그 정도 부지면. 뭐 몇 천 명이 써도 될 공간인 것 같은데. 미군 애들 여기서 뭐 캠프마켓하고 뭐 병참부대 있었고.

그리고 기껏 했어야 뭐 백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 백명 정도 되는 인원이 저 넓은 데를 썼으니, 참 호화롭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면담자1 : 그러면은 반환되는 게 당연하다.

구술자 : 아 반환돼야죠. 우리 땅이고.

면담자1 : 아직 덜 된 곳이 있어요.

구술자 : 아직 뭐 토양 정화사업하는데 곳이 있고, 그다음 제빵 공장 있고. 제빵 공장도 뭐 미군 애들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내가 봐서는 빨리 평택 다 지었다는데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평택 다 지었다 그랬잖아요?

면담자1 : 조만간 반환이 되겠죠?

구술자 : 빨리 반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가물가물해요. 평택 거기 그 미군 부대 짓는데, 포크레인 빠져갖고 건져내느라고 고생했던 기억이.

면담자1 : 아, 거기도 다녀오셨어요?

구술자 : 그때 한참 데모하고 그럴 때. 그때도 한 두어 번 갔었죠.

면담자1 : 평택에서, 평택에서 시위하고 그럴 때요?

구술자 : 네. 그래서 시위대 몰래 뒤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어요. 지원하러. 그 포크레인이 수렁에 빠졌는데, 그걸 어떻게 뭐 하여튼 뭐.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하여튼 미군이 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고. 거의 다 지었다고 들었는데 안 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고요.

면담자1 : 도움이 크게 되었어요. 말씀해주신 거 저희가 잘 기록해 놓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구술자 : 네 감사합니다.

<이상 끝>

**부영공원 지하시설 콘텐츠 발굴프로젝트  
기초조사 보고서**

**부영공원 지하시설 관련 구술**

**4. 박의양 구술녹취록**

## 구술 녹취록 개요

- 면담주제 : 부영공원 지하시설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부영공원 지하시설 관련 구술)
- 구술자 : 박의양(애스컴 통신대, 캠프마켓 통신대장)
- 면담자 1 : 이상익(인천대학교 초빙교수)
- 면담자 2 : 김규혁(부평문화원 기획팀장)
- 면담 일시 : 2020년 10월 15일 오후 2시 5분
- 면담 장소 : 부평문화원 다목적실
- 주요 용어 : 애스컴, 캠프마켓, 통신대, 지하시설, 땅굴 위치, 금불이 소문
- 특기 사항 : 애스컴과 캠프마켓 통신대에서 1969년부터 31년간 근무하면서 전국 미군부대와 캠프마켓 내부의 통신 수리 담당. 캠프마켓 내부 지하시설에 들어간 경험이 있고, 캠프마켓 내부 6곳과 부영공원 1곳의 지하시설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
- 구술자 녹취록 검토 여부 : 검토 완료

# 구술자 동의서 1

## 개인정보로 삭제함

## 구술자 동의서 2

### 개인정보로 삭제함

## 구술자 사진



**구술자 신상카드**

**개인정보로 삭제함**

# 박의양 구술 녹취록

## [1차 1번 녹취록]

면담자1 :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구술 진행해주시는 거 전체적인 안내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인천 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부영공원 지하 시설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에 관한 구술사업입니다. 지금부터 박의양 선생님의 1회차 구술채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시는 2020년 10월 15일 오후 2시 5분이고 장소는 인천시 부평구의 부평문화원 다목적실입니다. 구술면담은 인천대 기초교육원 교수 이상의와 부평문화원의 김규혁 팀장이 진행하고 촬영도 김규혁 선생님이 담당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평문화원의 박명식 이사님이 동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르신 캠프마켓에 오래 근무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부영공원의 지하시설 그게 어떻게 생겼었나, 어떤 용도였나 하는 걸 어르신을 통해서 많이 배우려고 오늘 모셨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천천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고향이 부평이세요?

구술자 : 네, 네.

면담자1 : 네. 부평 어디?

구술자 : 부개동이요.

면담자1 : 부개동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술자 : 네.

면담자1 : 그럼 지금까지 계속 부평에 살고 계시죠?

구술자 ; 네.

면담자1 : 네, 평생. 생신이 언제인지? 언제 태어나셨어요?

구술자 : 천 구백, 태어난 게 1949년 6월 6일 날 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낳아가지고 충청도로 피난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거는 어리니까 모르죠. 그래가지고 돌아 와서 그 집에서 살다가 지금은 일신동. 일신동에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거기서 거기지.

면담자1 : 네. 그러면 부모님은 부평에서 농사를 지으셨나요?

구술자 : 부모님은요. 6.25 때 전사하시고, 아버지는. 또 어머니는 재가를 하셨어요. 내 7살 때. 그래가지고 할머니 슬하에서 자랐어요.

면담자1 : 아, 그러면 초등학교는?

구술자 : 초등학교는 부개초등학교.

면담자1 : 부개초등학교요?

구술자 : 4회입니다. 4회.

면담자1 : 4회. 그때는 몇 년이었어요? 초등학교 6년까지 마치시고?

구술자 : 그거, 길게 따져봐야겠네. 오십 몇 년도에 졸업했을걸요?

면담자1 :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그럼?

구술자 : 중학교.

면담자1 : 중학교는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구술자 : 주안이요.

면담자1 : 주안중학교요?

구술자 : 예, 예. 공고 병설중학교. 경인중학교라고 있어요. 인천공고 병설중학교가 한 3년인가 4년 있다가 없어진 게 있어요. 거기 중학교 다니고.

면담자1 : 아,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주안중학교가 된 거예요?

구술자 : 아니, 아니. 없어졌어요. 병설중학교로 인천공고에 있었다가 4년인가? 뭐, 졸업하고 나니까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고등학교는 인천 수산고등학교 나오 고. 수산고등학교. 지금은 해양과학고등학교로 만들었더라고요? 송도에 있고.

면담자1 :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셨어요?

구술자 : 사업도 좀 했죠. 택시사업 하다가, 20대에. 뭐 군대 갔다오고 뭐 하니까, 이 십. 스물한 살 때인가? 택시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우물우물 하 다가 69년도 하반기에 여길 들어갔죠.

면담자1 : 아, 69년도요? 아 그러면 스물한 살이실 때? 스물한 살 되셨을 때요. 49년 생이시니까 69년이면 스물 하나 되셨을 때, 캠프마켓으로.

구술자 : 아니. 그때는,

면담자1 : 애스컴이었죠?

구술자 : 택시 사업을 했죠.

면담자1 : 아, 예. 그때 택시사업 하시고 그 다음에 애스컴 들어가신 게 그러면 언제쯤 이신가요?

구술자 : 69년도 하반기요.

면담자1 : 69년도 하반기.

구술자 : 네. 한 11월 쯤 될 것 같아요.

면담자1 : 그때 그러면 어떤 부서로 들어가셨어요?

구술자 : 통신대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면담자1 : 통신대요?

구술자 : 네. 거기서만 34년을 있던 거예요.

면담자1 : 34년. 언제까지 계셨어요?

구술자 : 이천년 대 정년퇴직해가지고,

면담자1 : 2000년?

구술자 : 네. 캠프로 한 일 년 더 다녔죠. 그래가지고 정년퇴직 하고 나온 거죠.

면담자1 : 그러면 애스컴 시절에 들어가셔서 캠프마켓 시절에 계속 계시면서, 2000년 때까지. 통신대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구술자 : 통신대는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산이란 산 왜, 망대에다 레이더 돌아가고. 강화 같은데 고려산 같은데 왜 레이더 있죠? 그런 레이더 시스템, 전화 시스템, 이런 게 다 지원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통신대가. 이 통신대가 생기기, 어떻게 생겼냐면은. 67년도인가? 타일랜드 철수하느라고. 왜 타일랜드 철수 하는데 일로 가져왔는지 몰라요. 모든 장비서부터 시스템이 다 이쪽으로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창고도 저, 한 7개는 썼어요. 그 큰 놈의 창고를.

면담자1 : 대만에서 미군부대가 철수하면서? 거기에 있던 장비를?

구술자 : 그렇죠. 이리로 다 들어온 거예요.

면담자1 : 그러면, 그 때가 몇 년쯤인가요?

구술자 : 67년도로 알고 있어요.

면담자1 : 67년이요? 그러면 어르신은 아직 들어가기 전이네요?

구술자 : 아니, 아니. 막 들어올 때 들어왔으니까 내가. 인원이 그때 필요해가지고.

면담자1 : 아, 그게 들어올 때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때 들어가시게 된거예요?

구술자 : 예.

면담자1 : 그 장비를 그러면 애스컴 안에 여러 창고에 비치할 해둔 거네요? 왜 그걸 비치해뒀죠?

구술자 :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쓸 수 있나 못 쓸. 그러니까 철수를 하니까 그냥 똑똑 자를 거 아닙니까? 케이블선 같은 것도? 쓸 수 있나 없나 그거를 미국 하와이에서 나와 가지고, 세 사람이.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테스트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쓸 거 못 쓸 거. 그러니까 이 코드를 정해가지고, 알파 브라보 찰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를 정하더라고. 못 쓸 건 DRMO 처분을 하고. DRMO라는 게, 죄끔 있으면 내가 말씀 드리겠는데, 쓸 거는 A. 알파라고 해서 A급, B급, C급까지는 여기서 써요. 근데 나머지는 저기다 갖다 처분을 해요. 고철로.

면담자1 : 고철로. 어떻게 처분을 하죠?

구술자 : 그 테스트를 해가지고,

면담자1 : 처분하는 게?

구술자 :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저는 모르지. 갖다 여, 이제 DRMO라고, 고철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거기다 갖다가 우리가 터닝을 시킨다고. 이걸 못 쓰는 거니까, 터닝을. 그러면 업자들이 매주 목요일인가? 며칠날 와서,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철이면 고철, 구리면 구리, 뭐 다 분리해가지고,

사가는 사람들이 와요. 경매를 넣어가지고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그 업체들 최악 와가지고 입찰을 봐요. 그러면 입찰을 보는 대로 팔리는 거야, 그게.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면담자1 : 그러면 A급, B급, C급은 애스컴 안에서 사용을 하는 거네요?

구술자 : 네. 애스컴 안에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각, 그렇죠. 그런 식이지. 애스컴 안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디 다른 데 필요한 게 있으면은 대구도 보내고. 여기서 필요한 게 있으면 산꼭대기도 보내고.

면담자1 : 애스컴에 비추해 뵈다가 다른 미군부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공급을 하는 거네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네. 그러면 어르신은 그 중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통신대에서?

구술자 : 저는 현장 소장으로 제일 책임자로. 81년도에 현장 소장이 되었어요. 현장 소장도 뭐 영어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뵈도 해야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험을 봐가지고 소장으로 승격 받았어요, 그때.

면담자1 : 영어 시험 보셨어요?

구술자 : 예, 예.

면담자1 : 들어가실 때에도 영어 시험 보셨어요?

구술자 : 아니 그건 안보고.

면담자1 : 아, 근데 소장이 될 때는 영어 시험을 보고.

구술자 : 네.

면담자1 : 필기시험 보셨어요?

구술자 : 네. 필기시험.

면담자1 : 그러면은 소장이 되실 때는 들어가신지 몇 년 쯤 지나서 인가요?

구술자 : 한, 8년 되었죠?

면담자1 : 한 8년쯤 지나서 이제 영어가 능숙해지시고. 그러니까 영어시험도 잘 보고 소장이 되셨네요. 통신대에서 소장이 되면 어떤 일을 담당하시나요?

구술자 : 우리 직원이 한 17명 돼요.

면담자1 : 통신대 직원이?

구술자 : 네. 우리 직원이.

면담자1 : 전원 한국인이고요?

구술자 : 그렇죠. 그러면 오늘 어디 배달가고, 물건을. 어디 배달가고 내일은 용산 가고 모레는 동두천 가고 이걸 지정을 해주고. 이제 전화를 해서 거기 책임자, 미국 사람한테 내가 다, 내일 모레에 뵈 가지고 갈 테니까 니네 스케줄이 어떠냐. 오케이 땡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거 스케줄을 잡아, 일일이 다. 해가지고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며 무얼 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

책임자한테 갖다 줘요, 그거를. 그러면 오케이 끝. 하면 이제 그 일은 끝나는 거야, 나는.

면담자1 : 그러면 81년에 소장이 되셔서 19년 동안 2000년까지 계속 소장으로 지내셨어요?

구술자 : 네, 끝까지요.

면담자1 : 네. 통신대의 소장을 하시면 애스컴 안에 많이 다니실 수가 있나요?

구술자 : 아유, 그럼요. 안 다닌 데 없이 다 다니죠. 무슨 전화가 이상하다 뭐 하면은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하니까. 기술자를. 기술자를 부리고 가야하는데 이 사람이 영어가 좀 모자라면 또 가서 맨날 해주고,

면담자1 : 한국인 기술자를 그 캠프마켓 안에 통신이 이상이 있으면,

구술자 : 거 두 명이 있어요.

면담자1 : 그러면 그 기술자와 함께 어르신이 통신이 이상이 있는 곳으로 다 다니신 거죠?

구술자 : 그렇죠, 그렇죠.

면담자1 : 그리고 그걸 고치고. 그게 주로 통신대의 역할이네요.

구술자 : 네, 네.

면담자1 : 전국에 공급하는 거 말고 캠프마켓 안에서 통신 이상 있는 것도 고치고.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그러면 매일매일 캠프마켓 안에 다니셨어요?

구술자 : 매일 그냥 다 다니는 거지, 심심하면. 뭐 클럽도 갔다가 또 점심 먹으러 클럽도 갔다가 매일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우린 통신대고 그 사람들은 철조망 하나하나 사이에 다 부서가 달라요. 그 시스템이 부평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우리 통신대. 그 다음에 인쇄소, PPCK. 그 다음에 DRMO. 그 다음이 베이커리, 빵공장. 그 다음에 엔지니어, 뭐 수리. 화장실 저기하면 왜 그런 거 수리하는 거 있죠. 이 다섯 구조로 되어 있다고, 여기가. 그 넓은 데도.

면담자1 :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나요, 전체? 한국인이 몇 명 정도가 돼요?

구술자 : 한 백 오십 명 되었을 걸요.

면담자1 : 그 다섯 부서에 백 오십 명 정도.

구술자 : 예, 예.

면담자1 : 미군은 몇 명 정도 있었어요?

구술자 : 어디요?

면담자1 : 미군.

구술자 : 미군은 군대가 이게 한 80년도 한 중반 정도 되니까 군인이 필요 없는 거야. 우리는,

면담자1 : 80년도 중반이요, 90년대 아니고요.

구술자 : 네. 우리는 서전 메이저. 그러니까 통상사까지 있었어요, 옛날에. 그 전에는. 그게 일개 여단에 하나씩 있을까 말까한 데 걸랑요. 서전 메이저라고 요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관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팔십 한 오년도 중반 쯤 되니까 미군이 없어요. 다 시빌리언이야, 민간인들. 그래가지고 민간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서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 군인이 없어지면서. 그래가지고 슬슬 없어지더니 이게 이천년도 정도 되니까 민간인도 없어져. 어디로 가느냐, 용산으로 다 가는 거야.

면담자1 : 용산으로요?

구술자 : 네. 그래서 용산에서 파견 나오는 거예요, 여긴 없고. 그게 보니까 데모도 앞에서 하고 그냥 뭐, 미군 철수해라 내놔라 데모하고 그럴 적에, 아유 빨리 내주지 이걸 뭐 붙들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모르지 어떻게 된 건지. 반환을 한다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아, 먹고살기는 여기서 먹고 살았는데. 반환을 해줘야지, 부평 가운데서 이게 있다는 게 난 엄두가 안나. 그래서 박명식씨(면담자 3)를 내가 알고 그 아버지가 옛날에 같이 있었어요.

면담자1 : 통신대에 계셨어요?

구술자 : 네, 네. 아버지는 뭐했냐면은, 포크레인. 지게차 있죠? 이걸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같이 한 술에 밥을 먹었지. 그런데 정년퇴직하시고 나가서 한 일, 이년 있더니 그냥 돌아가시더라고.

면담자1 : 근데 그러면 미군은 다 떠나가고요. 민간인도 다 옮겨가면, 그러면은 캠프마켓 안에서 한국인 백 오십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구술자 : 일은 그냥 자기가 하는 게 있잖아요.

면담자1 : 그 일을 그대로,

구술자 : 네. 그 일을 계속 해야지. 미군이 없어지는 거는 책임자가 없어지는 거지, 위에서 다 전화가 와요. 빵이면 빵, 뭐, 뭐 만들어라. 뭐, 뭐 그렇게 다 나와요. 월요일 날은 식빵을 만든다던지. 화요일 날은 도나스(도넛)를 만든다던지. 우리도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은 어디에 컴퓨터, 이제 곧 나중에 컴퓨터가 들어오더라고. 컴퓨터까지 우리가 맡았어요. 처음에 ‘웨이’이라는 컴퓨터가 있더라고. ‘왕’, ‘웡’. 영어로 ‘웨이’. 그 컴퓨터를 만드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거야,<sup>3)</sup> 미국에서 오는 거래, 이게. 가만히 보니까. 중국에서 이걸 미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오는 거야, 그게. 처음 들어보시죠? ‘웨이’이라고. 그게 처음에, 그게 오더라고요. ‘아, 이게 중국 기업체에서 만들어서 미국한테 오는

---

3) Wang 컴퓨터를 이른다.

구나.’ 내가 그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서 수입 해다가 한국군, 그때 군인들 있을 적이니깐. 군인에게 막 배급하더라고. 그 배급까지 다 맡았어요, 그걸. 우리가 다 해줬어요.

면담자1 :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실 때 지금 게이트가 있다고 그러면, 어느 길로 출근을 하셨어요? 1번 게이트,

구술자 : 1번 게이트, 저기 남쪽에 있는 게이트 있죠? 신촌 고 앞에. 거기가 오리지널 게이트(게이트)이에요.

면담자2 : 네, 어제 개방했던 문이요.

구술자 : 몰라, 난 어저께 안 봐서. 그게 오리지널, 그거 돌로 다 쌓았는데?

면담자2 : 어제 이제 다 문 열어놔서.

구술자 : 그 게이트로 출근을 하다가 맨날 데모하고 그냥 별안 난리가 나잖아, 거기. 데모하고 그러니까. 차가 들락날락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이걸 낸 거야, 게이트를 여기.

면담자1 : 지금 동아아파트 있는 쪽이요?

구술자 : 그렇죠. 그리로 출퇴근 하라고 해서 거긴 한갓지지.

면담자1 : 언제쯤인가요?

구술자 : 네?

면담자1 : 언제쯤.

구술자 : 요게, 꽤 됐지. 한 15년 됐나? 15년 되었을 거야, 한 15년. 한 15년이 아니야? 그 게이트 생긴 지가. 구십 몇 년도에 생겼는데, 92년도인가 93년도에 생겼는데, 그게.

면담자1 : 예.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돌아서 출근하셨어요?

구술자 : 예, 예.

면담자1 : 통신대는 어디쯤에 있는지 이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구술자 : 통신대.

면담자1 : 출근을 하시면은,

구술자 : 저길 봐야 돼요?

(판넬 보면서 얘기)

면담자3 : 제가 비춰드리고, 통신대라고 여기. 여기 통신대라고 써놨거든요. 여기가 입구.

면담자1 : 팀장님 이쪽에 카메라 보이게 좀 해주세요.

구술자 : 이거, 이거. 이쪽에 긴 창고 있어요, 이거. 하나, 둘, 세 개 하고, 여기 벽돌로 만든 거.

면담자3 : 창고, 통신대 창고라고.

구술자 : 벽돌로 만든 거.

면담자3 : 요 세 개요. 하나, 둘, 셋. 통신대 창고.

구술자 : 세 개를 쓰다가. 여기 굴뚝 두 개 있는 거 이걸 쓰다가. 또 여기, 어디 갔어.  
술 창고. 술 창고 앞에 또 긴 창고 있지. 이것도 쓰고. 다섯 개를..

면담자3 : (목소리 겹침) 까만 거요, 파란 거?

구술자 : 여섯 개를 썼었어요.

면담자1 : 네. 건물을 옮겨가면서 쓰신 거예요?

구술자 : 예, 예. 비니까 쌀 게 없잖아, 그니까. 이걸 어디서 지원을 하나면 3사지원단  
에서 이걸 해요. 그러면 창고가 비었다, 우리가 좀 쓰자. 한 달에 얼마씩 줄  
테니까 그걸 쓰자, 그래가지고 빌리는 거예요.

면담자1 : 네. 그러면 출근 하셔서요. 통신대에서 일을 할 때 주로 어느 쪽에서 이상이  
생겼다, 이것 좀 수리해달라고 연락이 오나요?

구술자 : 여기요, 빨간 거.

면담자1 : 빨간 거는 무슨 건물이죠?

구술자 : 이게 벽돌인데요. 왜정시대 때 지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두꺼워요,  
벽이. 금이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두꺼워. 요거 하나, 둘, 세  
동을 썼어요, 우리가. 하나, 둘, 셋. 이 긴 창고 말고. 이 벽돌창고만 세 개를  
썼어요.

면담자1 : 게이트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있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건물 세 동을 썼는데, 거기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어디 고장 났다, 수리해  
달라. 주로 어디에서 연락이 와요?

구술자 : 다 이 일대에서 오는 거지.

면담자1 : 거기 여러 군데. 그러면은 거기로 이제 수리하러 가지않아요. 그러면 동선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여기저기 다니시면 어디까지 다니셨어요? 범위가 어디  
부터 어디까지.

구술자 : 이거 뭐, 다 다니는 거죠, 뭐 이거. 수없이. 이거 왜냐면은 미군들은 그 건물  
마다 뭐가 있냐면 ‘펠레스트’라고 건물에 이렇게 길쭉한 게 하나씩 달라 붙어  
있어요. 길쭉하게 이렇게.

면담자1 : 이름이 뭐라고요?

구술자 : 펠레스트. 그게 뭐냐면 전화 연결선이에요. 건물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안 들  
어가 보셨어요?

면담자1 : 일부 건물 들어가 봤습니다.

구술자 : 들어가 보시면은 빌딩마다 구석에 이렇게 하나씩 달라붙어 있어요. 거기 위  
로, 주로 고장 나는 게 거기서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점프 시켜놓고,  
안되면 전화기가 고장 나던가. 그럼 바꿔주고, 바꿔주고. 그게 수리지 뭐 딴

거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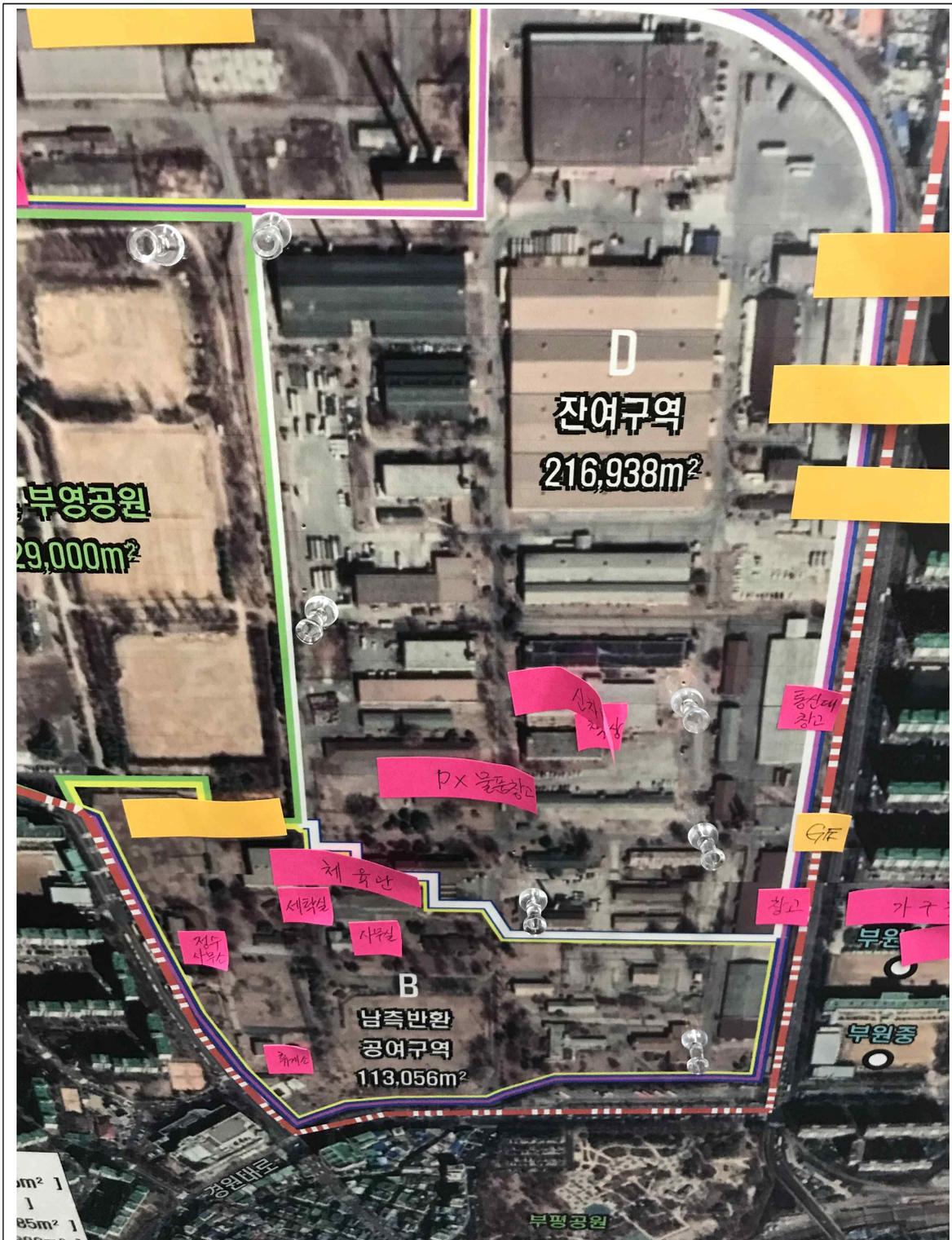


사진) 구술자 박의양이 캠프마켓의 사진 위에 지하시설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7개의 압정을 꽂아 놓았다.

면담자1 : 하루 종일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궁금해서 여쭙보고 싶은 게 저희는 부영공원에 있는 지하시설이 궁금하지만 그 부영공원도 예전에는 캠프마켓 부지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캠프마켓 부지 안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하시설이 분포되어 있었나 그런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아까 미리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압정을 7군데 콧아주셨잖아요. 거기 하나씩 이게 어디 쯤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구술자 : 불펜 하나 줘요. 여기서부터 해야죠? 여기는 중문, 중문 바로 앞에. 망대가 있을 거예요, 거기. 경비 서는 망대. 거기 앞에 있어요. 요 앞에.

면담자1 : 바로 그 앞에요?

구술자 : 예, 예. 그 앞에, 그게 인제, 없었어. 그걸 때려 부시고. 경비 정문을 내다보니까 그게, 그게 가지는 거야, 차 이렇게 파킹시킬, 지금 차 정문 이렇게 들어가면 차 파킹 시키는 데가, 그 밑에가 땅굴이에요. 그걸, 위에 걸 다 부시고 덮어버린 거예요.

면담자1 : 자, 부순 거는 땅굴 들어가는 입구를 부순 건가요?

구술자 : 그렇죠. 입구만 부시고, 여기 입구만 부시고 이게 땅굴이라고. 밑에가.

면담자1 : 그러면 지금 우측, 정문으로 들어가서 우측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땅굴 윗부분을 부수고 그러면 흙을 깔아 덮어서,

구술자 : 네, 그렇죠.

면담자1 :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구술자 : 한 번 들어가 봤어요, 한 번. 그걸 어떻게 들어갔냐면 한참 내가 사람을 찾는 데 아 이 녀석이 안 뵈어. 그래서 내가 “야, 미스터 고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저 쪽으로 나가던데요?” 그래. “글로 나가면 어디, 바깥으로 나갔냐?” 그랬더니, “아니 거기 가끔가다 굴로 내려가요.” 그런단 말이야.

면담자1 : 아, 가끔 그 굴로 들어가는 분이 있었어요?

구술자 : 네, 거기 계단이 있었걸랑요. 땅 내려가는 계단. “왜 거길 내려가?” 그랬더니 “아, 소장님 한 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무턱대고 일단 나가서, “이 자식이 여기 들어가서 뭐해?” 아, 하나님, 하나님, 뭐, 뭐.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게. 조용하잖아요, 거기가. 땅굴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물이 잔뜩 있어. 내려가다가 계단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면담자1 : 계단 앞으로 물이 차 있어요?

구술자 : 네, 네.

면담자1 : 입구는 쇠로 문이 잠겨있지 않았어요?

구술자 : 입구는 아니 거기, 아예 바깥으로 나오면 오픈된 저기가, 마개가 있었걸랑. 근데 그걸 없애고 거기를 매립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는 참 좋지.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엉엉대고 울어도 상관

안하고. 그래 가보니깐, “야, 너 여기서 뭐해 이놈아.” 그랬더니, “소장님 오셨어요.” “너 뭐하는 거야.” 그랬더니 “기도 중이에요.” “이 자식이 이 시간에 무슨 기도야.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할라고.” 물이 그냥, 짝 찼더라고.

면담자1 : 빠질 만큼,

구술자 : 네. 그 깊이가 얼마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한 번 혼낸 적 있어요.

면담자1 : 굴은 넓은 곳이었어요? 넓었어요?

구술자 : 굉장히 넓더라고요.

면담자1 : 그러면 굉장히 어두웠겠네요?

구술자 : 껌껌하죠.

면담자1 : 넓은 곳인데, 시멘트로 마감을 한 데인가요 아니면 그냥 돌 파낸 데 인가요?

구술자 :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사방으로 막힌 거예요. 그리고 가생이에다 계단을 만들어서 들락날락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밑에는 보니까 다 물인데 얼마큼 되고 깊이가 얼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내가 한 번 해봤다고. “너 어떻게 여길 따고 들어왔냐?” 그랬더니 녹슨 거 밀면 되니 뭘 그려냐, 그래.

면담자1 : 문은 철문이에요?

구술자 : 철물. 철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열쇠로 딱 잠갔더라고.

면담자1 : 네. 그 문은 쇠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나무로 되어 있어요? 문, 입구.

구술자 : 문 입구는 열쇠로 계단만 보이는 거지 입구는 잠켜지니까, 문으로 잠켜지니까 안에는 볼 수가 없죠.

면담자1 : 바깥에. 바깥에 문은요?

구술자 : 바깥엔 그거 하나예요.

면담자2 : 철문이에요?

면담자1 : 열쇠로 잠근 철문.

구술자 : 그렇지

면담자1 : 그 문이 두툼하겠네요, 그럼?

구술자 : 근데 녹이 슬어가지고, 녹이 슬어가지고.

면담자1 : 생각이 안 나시고요. 네. 그럼 그걸 평소에는 잠가놓는데 그 분은 그게 잘 열리는 걸 알고 수시로 가서 기도를 한 거네요.

구술자 : 그런가 봐요.

면담자1 : 어르신은 거길 그날 처음 들어가 보셨고요.

구술자 : 처음 들어가 봤죠.

면담자1 : 그 자리가 지금 주차공간이면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구술자 : 중간에 있어요, 중간.

면담자1 : 주차장 가운데?

구술자 : 내가 보건대 주차장 이렇게, 중간에 있어요. 하여튼 뭐든 다 파면은 땅굴이예요, 거기.

면담자2 : 철문만 지도에 표시해주시겠어요? 주차장이랑.

구술자 : 여기 중문에서 주차장 사이, 여기. 가운데 여기.

면담자1 : 그 첫 번째. 어르신이 가보신 데가 전체 여섯 군데고 지금 여기에는 부영공원에 있는 곳까지 일곱 군데 지하시설을 표시해놓으셨잖아요. 그 중에 지금의 동아아파트 쪽의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에 있는 지하시설. 그걸 설명해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 다른 데로 옮겨 주시면.

구술자 : 두 번째는 이리 가야지 뭐. 요게 굴뚝, 이게 굴뚝이지.

면담자3 : 요게 사령관실, 이게 경비대.

구술자 : 굴뚝 두개 있는 거에서. 이건가, 이거 굴뚝 두개?

면담자3 : 그 다음에 그게 서전트. 서전트 숙소. 요게 PX. 매스홀. 오피스. 굴뚝이 여기.

구술자 : 굴뚝이 요쪽에 어디 있는데.

면담자3 : 요거예요, 요거.

구술자 : 여기 보편은 콘테이너를 이렇게 막사를 만든 데가 있어요. 그거 다 뜯었나 몰라. 콘테이너 막사가 있는데, 요쪽에.

면담자1 : 어떻게 생겼나요? 지붕이 어떻게 생겼어요, 막사는?

구술자 : 막사는 이렇게 철, 철판. 그건 미군 애들이 지은 거예요. 철판 이렇게 해가지고.

면담자1 : 네 주로 미군이 쓰는 막사,

구술자 : 골로 이렇게 된 철 있죠? 그걸로 해서 뒤집어씌우고 그 안에는 우리나라 중산층 사는 것 마냥 해놨어요. 중산층 사는 거.

면담자1 : 그런데 그 막사를 헐고,

구술자 : 막사를 헐었는지 안 헐었는지 난 지금 보질 못했는데 봐야 이걸 알겠어, 봐야.

면담자1 : 아 그게,

면담자3 : 굴뚝.

면담자1 : 굴뚝 두개 있는?

구술자 : 이게 어디냐? 그 다음에 굴뚝 두개 있는 데 콘센트가 있는데 거기 옆에도 땅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건가 봐, 이거.

면담자1 : 그걸 옮겨야겠네요? 압정 위치를.

구술자 : 아뇨, 이게 위치가 이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 이게 사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면담자1 : 그게 굴뚝 두개 있는 건물이에요?

구술자 : 아니 거기 가기 전에 이렇게 돌아서 온 거 아녜요. 여기가 맞을 거야.

면담자1 : 거기에는 무슨 용도로 쓰던 건물인가요?

구술자 : 여기가. 이것도 용도로 쓰는 거는 숙소, 애들 숙소. 미군 애들 숙소. 숙소로 쓰던 건데 여기가 왜 있냐 하면 저쪽에 벽돌로 집 창고가 하나 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대피용으로 일본 놈들이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애. 대피용으로.

면담자1 : 벽돌로 지은 건물도 오래된, 왜정 때 지은 건물인가요?

구술자 : 그렇죠. 벽돌하고 콘크리트 한 거는 다 왜정 때 지은 거예요.

면담자1 : 콘크리트 건물하고 벽돌 건물은요?

구술자 : 네. 고 다음에 틴, 티라고 있어. 틴. 그거는 양철로 이렇게 만든 건데. 그건 다 애네들이 와서 가건물로 해서 전부 다 지은 거지.

면담자1 : 그건 미군이 지은 거고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그런데 벽돌로 된 건물 앞에,

구술자 : 앞에 옆이나 하나씩 다 있어요.

면담자1 : 그 주변에 건물마다?

구술자 : 네, 네.

면담자1 : 콘크리트 건물이나 벽돌 건물 주변에 하나씩 지하시설이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 시설은, 지금 두 번째 시설은 생김새가 어땠는지 혹시 기억 하세요?

구술자 : 이걸 들어가보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지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열쇠 잠그고 이 계단으로. 계단으로 내려가는 건 똑같애요, 계단 내려가는 거는.

면담자1 : 밖에서 보셨어요?

구술자 : 네, 네. 그렇게. 거기를 왜, 그걸 볼 걸 봤나. 건물마다 그, 내가 아까 말씀 했죠. 건물마다 통신대에서 해주는 ‘패스트르’<sup>4)</sup>라고 단다고. 그걸 달다가 건물을 보면은, 이렇게 볼 거 아녜요, 유심히. 어디다 달아야 하나 하고. 선을 어떻게 끌어야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깐, ‘아 이게 야, 땅굴이다, 땅굴. 다른 데로 가자. 선 다른 데로 빼야지 이걸 어떻게 땅을 파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눈치를 보니깐 거기가 딱 그거 예요. 빨간 벽돌이나 콘크리트 벽돌은 전부 다 왜정시대 때 지은 거예요.

면담자2 : 그러면 일본군들이 지었던 건물 옆에는 다 이렇게 지하 통로가 있는데 지하 통로가 다 연결된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다 독립된 걸로,

4) PSTN 공중교환전화망을 의미한다.

구술자 : 연결이 되었는지. 내 생각에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연결이 되어서 무슨 인천항까지 뚫렸다,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면담자1 : 어느 분께 들으셨어요?

구술자 : 옛날서부터 그 얘길 들었어요.

면담자1 : 주변 어르신들한테요.

구술자 : 네. 뭐 금불이가 무슨 뭐, 패망하면서 갈 적에 몇 백 톤을 어디다 연못에다 갖다 집어넣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갔다고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금을 그걸 찾느라고 셋이서 매일 같이 들어와서 땅 파는 거 있죠. 거 왜, 롤러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거. 매일마다 쭈시고 돌아다니는 거야.

면담자1 : 누가요?

구술자 : 그거 민간에서, 민간기업.

면담자1 : 아 민간업자들이요?

구술자 : 네.

면담자1 :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허락받은 사람들이었네요.

구술자 : 그렇지. 그걸 이제 허락을 받은 거지. 금 캐면 얼마씩 나눠서 이렇게 하자, 그 래가지고 용산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그 패스가 나왔어, 그 사람들이. 소방서고 뭐고 안 쭈시는 데가 없이 쭈셔대더라고. 그 연못을 찾으라고. 내가 하도 그래서 “아이 여보, 여기 무슨 금이 있소,” 그랬더니 “아니 가끔씩 가다가 뽁뽁 소리는 나요.” 이게 지네는 그런 것만 찾는 거야, 그냥. 연못을 찾는 거래는 거야. 아니 여기 넓은 바닥에 무슨 연못을 찾는다고 그렇게 쭈셔대. 한 4년을 그렇게 쭈셔대더라고.

면담자1 : 언제쯤인가요? 그때가. 대통령으로 얘기한다면.

구술자 : 요게 구십, 구십 한 오 년 정도서부터 한 사 년, 하여간 나 나올 때까지 쭈셔 댔으니까 4년, 5년 되었어요. 그 쭈셔 대는 게.

면담자1 : 그래요?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 때네요.

구술자 : 김영삼? 4년, 5년? 그 정도 되나. 난 대통령 관심이 없어서.

면담자1 : 김영삼 대통령 되었다가,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 그때 어르신이 퇴직하셨네요.

구술자 : 예, 예.

면담자1 : 그 언저리에 그렇게,

구술자 : 그렇죠. 그 중간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맞겠네. 그렇게 쭈셔대더라고. 나중에 “찾았소?” 그랬더니 이놈들이 찾아도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지들이 파 먹을라고 그러는지. “찾긴 뭘 찾아.” 그러고. 언젠가 철수하더라고. 그래서 이놈들이 여기 어디에 있나, 그런 생각도 해 봤다고. 여기에 있길래 저 놈들이

철수하지? 없다고 그러고 큰소리치면서 하더니, 싹 철수하더라고. 그 속을 누가 알아.

면담자1 : 다시 그 지하시설로 돌아가면요. 지금 두 번째 시설은요. 그것도 똑같이 자물쇠가 녹슬어 있었나요?

구술자 : 자물쇠로 잠갔어요. 여긴 다 잠갔어요.

면담자1 : 다 자물쇠로 잠갔었어요. 근데 1번은 녹이 많이 쓴 걸 알고 어떤 분이 열고 닫고 그렇게 해서,

구술자 : 기도한다고 그걸.

면담자1 : 네. 다른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드나들었어요?

구술자 : 드나드는 건 난 못 봤어요.

면담자1 : 그렇지만 여기가 땅굴이다 하는걸 아시겠네요?

구술자 : 우린 알죠.

면담자1 : 잠겨있던 걸 그러면 통신장비 옮기려고 열어보신 거예요? 들어가진 않으시고.

구술자 : 근데 여는 건 쉬워요. 이렇게 툭툭툭 건들이면 녹이 슬어가지고 발로 툭툭 치면 열려요.

면담자1 : 그게 지하시설이라는 게 외관으로 표시가 나나요?

구술자 : 표시가 나죠. 이 탑을 쌓기 때문에.

면담자1 : 이렇게 둥글게.

구술자 : 이렇게 해가지고 여길 막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계단을 쭉 했죠. 언제 들어가셨어요?

면담자2 : 저 어제 개방했을 때 들어갔었고요.

구술자 : 처음 들어갔었어요?

면담자2 : 몇 번 들어갔었어요.

구술자 : 거기 들어가면은 모퉁이나 이런데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니 벽돌도 쌓아가지고 양회를 발랐어요, 이렇게. 그게 지하예요.

면담자2 : 그러면은 그 지하로 가는 통로 되는 조그만한 그 건물이, 벽돌로 쌓은 건물이. 그게 크기가 얼마큼 돼요? 가로세로 대략?

구술자 : 지하가? 지하 입구?

면담자2 : 지하 입구로 만든 요만한 튀어나온 건물 조그맣게 지은 거잖아요. 그게 가로세로 크기 얼마큼 되는지.

구술자 : 그걸 재보질 않았는데, 대략 한 2메다(미터).

면담자1 : 팔 벌리시면.

구술자 : 2메다, 1메다 반, 1메다 오십. 2메다, 1메다.

면담자1 : 그러면 정리하면은 1미터 2미터 되는 거예요. 일본군이 만든 벽돌 건물 또

는 콘크리트 건물 옆에 그 건물이 아닌 조그마한 구석으로 된, 이렇게 특 튀어나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문처럼 그런 게 있는데

구술자 :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아파트 올라가는.

면담자1 : 아까 박명식 이사님이 말씀하신, 어제 부대 개방 행사할 때 열 체크하고 바로 들어가면 아까 제가 물탱크 들어가는 입구라고 그랬던 것처럼 그냥 평지에 갑자기 특 튀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평지에 건물 조그마한 게. 근데 그게 지하로 내려가는 것처럼 생겨가지고 제가 여쭙보니까 물탱크 내려가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요만한, 조그마한 1, 2미터 되는 크기의 건물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일본군 건물에.

구술자 : 네, 그렇죠.

면담자1 : 그게 물로 채워 넣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그 뒤로 연결이 된 거네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네. 연결된 상태로 지하로 내려갈 수 있게 바로 계단이.

구술자 :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예요, 이거는. 여기 지금 하나가 지하로 내려가는 게 있잖아. 그러면 이게 물이 있어, 다 통하는 것 같애, 이게. 여기, 여기, 여기, 이게 이렇게 통할 것 같애. 보증은 못 해, 근데. 물이 차서 그런데.

면담자1 : 전부 다 물이 찼어요?

구술자 : 다 물 들어가 있죠. 콘크리트도 엄청 잘 해냈더라고 맨질맨질하게 이렇게 짝 해서. 천장도. 이게 다 연결되어서 통하는 것 같애.

면담자2 : 그러면 그 건물 생김새는 어때요? 입구 지하 내려가는 조그마한 건물, 그건 어떻게 생겼어요? 한 요 사이 서계신다고 하면은, 일 미터 이 미터 사이의 건물인데.

구술자 : 건물은 없고,

면담자1 : 입구를 여기에 한 번 모양을 그려봐 주시면.

구술자 : 이거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면담자1 : 생각나는 대로 천천히 그려주세요. (종이에 그림) 이게 문이에요. 이걸 고리를 딱 잠켜. 여기가 열쇠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어?

면담자2 : 네, 네.

구술자 : 이렇게 생겼다고. 요게 높이가 한 1메다 한 육, 칠자.

면담자3 : 1미터 칠이요? 1미터 칠십이요?

구술자 : 그럼 1메다 한 오십?

면담자1 : 이사님 키가 어느 정도,

면담자3 : 1미터 칠십이요.

구술자 : 1메다 칠십? 1메다 한 오십.

면담자3 : 오십 정도요.

구술자 : 오십센치.

면담자2 : 건물 높이가요?

구술자 : 높이가.

면담자2 : 조그맣네요.

구술자 : 아니 굵혀서 뛰어 내려가야 되니까. 그렇게, 모르지 난. 일본 놈들이 지은 거니까. 이게 폭이 한 이것도 1메다 한 오십? 요정도. 한 1메다 오십 정도 돼요.

면담자3 : 내려가기 힘들었겠네요.

구술자 : 아이 일본 놈들이 뭐 키가 커? 옛날에 못 먹어서 다 그 모양이지. 또 뭐.

면담자1 :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아직 일곱 개 가시려면 조금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지하시설로 갑니다. 보통 어르신 거기서 일할 때.

구술자 : 여기죠?

면담자3 : 서전트 막사 있는 데.

구술자 : 여기. 여기는.

면담자1 : 뭐라고 부르셨어요? 땅굴이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굴이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구술자 : 어디를.

면담자1 : 그 지하 시설을.

구술자 : 우리는 부르지도 않아요, 그걸. 건물 모양 키크도 안하는 놈을 뭘 불러요.

면담자1 : 아, 그냥 저거.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길 뭐라고 호칭을 할 필요가 없었네요.

구술자 : 그럼, 없었어.

면담자1 : 쓰임새가 없으니까.

구술자 :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물으니까 땅굴이라고 그러지, 거기서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저게 뭐냐 그러면. “아이 돈 노우.” 자기도 모른다는 거야.

면담자1 : 그게 그러면 일본사람들이 만든 거다, 하는 건 아셨어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그런 얘기는 전해 들으신 거예요?

구술자 : 전해 듣고, 또 이놈들이 거기서 화약 무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습을 하면은 어차피 뛰어 내려가야되겠구나, 땅굴로. 그래서 ‘아, 이거 방공호다.’ 우리는 그렇게 예측을 한 거지.

면담자1 : 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공습 오면은 도망가기 위해서,

구술자 : 저게 방공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들어가 보지도 않고, 처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면담자1 : 그러면 이제 그, 세 번째.

구술자 : 여기요.

면담자1 : 예.

구술자 : 여기는 이게 옛날에 미군들 많을 적에 여기가 맥스홀 있던 데예요, 여기가. 맥스홀이 뭐냐면 음식 개네들 고기, 뭐 부대고기 나오는 고기, 땅콩 뭐 이런 거, 여기 이 창고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서 옮겨서 이 식당 쪽으로 우리 한국종업원이 날라다 거기서 음식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은행나무가 크게 하나 있어요.

면담자2 : 네.

구술자 : 예, 봤어요? 거기 보면은 거 뒤쪽으로 길이 있는데 여기에 또 한, 특 튀어나 온 게 하나 있어. 은행나무 큰 거 있는 데.

면담자1 : 그 건물의 뒤편에 그런 굴 입구가 또 나타나는 거구요.

구술자 : 예. 거기 유심히 보시라고. 건물 뒤편에.

면담자1 : 거기도 열어 보셨어요?

구술자 : 난 열어보지는 않았더니까. ‘아 여기가 그거다.’ 똑같애.

면담자1 : 네. 입구 모양이 다 똑같아요?

구술자 : 똑같애.

면담자1 : 지금 어르신 말씀하신 일곱 군데가 모양이 다,

구술자 : 다 똑같아요.

면담자1 : 혹시 부영공원에 있는 그 땅굴 보셨어요?

구술자 : 못 봤어요.

면담자1 : 아, 거기는 못 보셨네요. 그러면 표시하신 데는, 캠프마켓 안에서 가보신 데 는 모양이 크기가 다 똑같았고.

구술자 : 다 똑같애요.

면담자1 : 아. 열어보신 데는 열면서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었고 계단이 있었고 아래로 물이 많이 찼고. 아, 많이는 모르겠고.

구술자 : 물이 짝 찼어요.

면담자1 : 네. 그러면 거기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신 데는 건물 이름은 뭔지 혹시 기억 하세요?

구술자 : 나 있을 적에만 해도 여기가 뭐로 불렀나, 이거. 이게 구석이 되어가지고 우리 잘 안가. 전화 뭐 해서 신고 와야 한 번 가볼까 말까 하지, 여기 잘 안가요. 구석이래가지고. 여기 건너에 숙소가 하나 있다고, 여기. 여기 숙소가 민간인들 떨어져서 좋아하는 놈들. 떨어져서 사는 거 좋아하는 놈들, 애네들이

와서 여기 와서 자요.

면담자1 : 이사님 저 건물을 뭐라고 아까 말씀올,

면담자3 : 서전트 숙소. 여기는 지금 사병 막사라고. 사병.

구술자 : 사병 막사?

면담자3 : 네. 서전트 숙소라고 저희는.

구술자 : 그럼 막사로 썼구나, 이거를.

면담자3 : 숙소, 숙소예요.

면담자1 :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갈까요.

구술자 : 여기?

면담자1 : 네.

면담자3 : 인쇄소 앞에.

구술자 : 인쇄소 앞에. 여기를 우리가 맨날 배구 하던 데예요, 여기가.

면담자1 : 인쇄소 앞에 마당에서.

구술자 : 네. 여기가 배구 하던 텐데, 이 마당이.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게 올라와  
가지고 배구를 하면 자꾸 헛갈려. 그러더니 요 놈이 여기다 창고를 짓는 거  
야, 아니 여기다. 여기다 창고를 지었어. 그러니까 이게 자꾸 거추장스러우니  
까 이 “셋. 메꿔버리자.” 이렇게 나오더라고. 인쇄소에서.

면담자1 : 배구하다가요?

구술자 : 네. 그래서 “야, 빨리 메꿔. 운동하는데 지장 있으니까 빨리 메꾸라 그래, 개  
보고.” 그랬더니 당장 하더니 아스팔트 싹 깔아가지고 뭉개버리고. 아스팔트  
깎 거예요, 여기가. 여기서 여기.

면담자3 : 그쪽은 통신대, 2번, 2번 통신대. (판넬 가리키고) 1번, 2번, 3번.

구술자 : 이게 우리 막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다고 이게 다섯. 이게 내가,

면담자3 : 여기 막사 뒤에가 인쇄소거든요.

구술자 : 그렇지. 이게 인쇄소야.

면담자3 : 여기도 주차장에다가.

구술자 : 주차장이 아니고 여기가 운동장을 해 놓은 거야. 여기가 뭐냐면 장교들 별자  
리들, 별. 미군 애들 별자리 있잖아. 그 운전수들이 여기서 관문점을 갔다 그  
러면 관문점에 길이 막힐 거 아니예요. 그럼 돌아서 확 돌아가지고 왜 그 하  
는, 그런 걸 가르치더라고 여기서.

면담자1 : 운전 연습하는 곳이에요?

구술자 : 예. 그게 차 왜, 장군들 모시면은 막 폭탄이 여기 떨어졌다 그러면 껍 돌아가  
지고 빼액하고 획 도는 거 있죠. 이런 걸 여기서 가르치더라고. 차는 그 고철  
처리반 있는 데 거기서 중고차 이렇게 해가지고 지내들이 다 수리해가지고  
거기서 운전 하는 거야, 그냥. 망가져도 상관없는 거야. 획 돌고 획 돌고.

면담자1 : 그 연습하던 공간 옆에 또.

구술자 : 여기 창고가 하나 있어요, 여기 창고. 요거 같아 내 생각엔. 여기. 여기가 하나. 또 그렇게 숨어 있어요.

면담자1 : 아, 거기에 굴이 있어요?

구술자 : 여기, 그래서 헐어서 메꾼 거예요. 여기 아스팔트가 지금, 한 번 가보시면 알거야. 구멍이 났어. 아스팔트가. 그게 땅굴이야. 그게 물이 자꾸 그리 내려가는 거야. 아스팔트가 구멍이 났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쇄소가 여기 보면 구멍 난 데가 땅굴이라고. 그걸 유심히 잘, 내 얘길 잘 들으시라고.

면담자1 : 그러면 그 압정은 약간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구술자 : 요거? 요렇게. 여기 있어요, 여기. 구멍이 났다고.

면담자1 :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두 개 더 남았어요.

구술자 : 다섯 번째는 어디냐. 이거?

면담자1 : 네.

구술자 : 이거.

면담자1 : 지금 그 자리는요.

면담자3 : 여기가 신차 배급소.

구술자 : 여기는요, 이게 지금 빨간 벽돌이에요. 콘크리(트) 해가지고. 여기가 창고예요, 창고. 3사에서 뭐냐면은, 이런 가구. 가구를 여기다 잔뜩 집어넣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못 쓸 거는 전부 다 이리로. 부품으로 가져와요, 애네 들은. 쓸 만한 건 어디다 놓으냐면은. 별자리들 쓰는 건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요. 소파고 뭐고, 침대고 뭐고, 다.

면담자1 : 거기가 가구창고네요

구술자 : 네. 침대, 매트리스, 티브이, 하여튼 별자리에 필요한 것은 여기에 다 있어. 내가 많이 가서 얻어, 나도 소파도 얻고 다 했는데. 여기가 개네들 별자리에요. 제일 한갓진 데 갖다 댔어, 이놈들.

면담자1 : 그러면 못 쓸 것은 이쪽에 있고,

구술자 : 못 쓸 거는 이 창고에, 뭐. 여기 못쓸 거 엄청 많아요. 다 갖다 어디다 놓으냐면 DRMO에 갖다가 여기에 터닝 시킨다고. 스케줄을 잡아서. 한꺼번에 안하고 개네들도 가구가 또 팔어야 뭔가 되잖아요. 자리가 되 좁어. 그러니까 한꺼번에 못하고 그냥 갖다 쌓아 놓는 거야. 이게 또 쌓아놔서 개네, 그 업체들이 사가면 일류 가구가 돼요. 몇 천만 원 짜리 가구 돼. 개네들 수리해서 놓으면.

면담자1 : 그래서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입찰도 하고.

구술자 : 네. 아주 멋있게 나와요, 가구 수리하면. 그걸 또 납품해요. 그래가지고 별자리 있는 데 또 들어가 그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야 계속. 이 풀 깎는 거

있죠. ‘람모’라고. 람모. 풀 깎는 거, 기계. 이것도 여기서 사다가 싹 한 바퀴 돌면 풀 깎는 사람한테 그게 다시 돌아와. 수리해서 싹, 해서. 이게 돌고 도는 거야, 이렇게. 참 희한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머리가 그렇게 비상해요.

면담자1 : 재주가 좋으네요.

구술자 : 하하.

면담자1 : 그러면 그 다섯 번째 터널은 위치가 어디쯤 되죠?

구술자 : 여기 카츄샤 스낵바있던 데 있죠.

면담자1 : 카츄샤 스낵바 있던 곳이요?

구술자 : 네. 요거 같애, 요거. 요게 카츄샤 스낵, 이게 사진이 어두워, 항공 촬영한 거예요, 이거?

면담자3 : 네. 지금 조금씩 바뀌었을 거예요. 시대별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구술자 : 이게 큰, 여기에. (사진 포스트잇 떼면서 계속 확인함) 카츄샤 스낵바가 이 건물 데. 스낵바 가기 전에 요 쪽에 있을 거예요, 요게. 이 건물 뒤에.

면담자1 : 똑같은 모양으로 생긴 입구가요?

구술자 : 아 요거구나. 여기구나, 요거.

면담자2 :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구술자 : 요거 2층이에요.

면담자2 : 2층짜리 건물이요?

면담자1 : 2층이요?

구술자 : 1층.

면담자1 : 하나.

구술자 : 이게 레크레이션 센터였던 거예요, 이게.

면담자1 : 네?

구술자 : 레크레이션 센타. 춤이 이상한 거 있지, 그 향아리 만들고 도자기 구워서 저기에다 구워가지고 뭐 그런 거 만들고, 또 뭐. 아저씨들 좋아하는 이런 거 만들고 하는 거 있어요.

면담자1 : 누가 만들어요, 거기서?

구술자 : 거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면담자1 : 그러니까 민간인인가요?

구술자 : 민간인들

면담자1 : 민간인들 그곳에 와 있는. 캠프마켓에 와 있는.

구술자 : 한국 사람들은 못 들어가죠.

면담자1 : 그러니까 캠프마켓에 있는 미국 민간인들.

구술자 :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기로 와 있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기도 만들어서 구워서. 왜, 등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걸 또 팔아요. 만들어가지고.

면담자1 : 그 건물도 오래된 건물이에요?

구술자 : 네. 이것도 왜정시대 때 만든 건물이에요, 이게.

면담자1 : 그러니까 바로 그 옆에 또,

구술자 : 이게 또 있어요. 이게 유심히 보세요, 여기. 스넥바.

면담자1 : 거기도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셨죠?

구술자 : 들어가 봤으면 내가 자세한 걸 말씀 드리는데. 들어가 보질.

면담자1 : 아니에요, 지금도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술자 : 자세한 거예요?

면담자1 : 예, 예.

구술자 : 자세히 말씀을, 아유 난 안에 구조는 몰라요. 여튼 들어가면 입구만 있는 거야. 자 고 다음에.

면담자1 : 여섯 번째.

구술자 : 이걸 뭐야, 요건.

면담자1 : 빵공장 있는 데요.

구술자 : 아냐 이거 빵공장이 아니고 이걸 바깥인데.

면담자2 : 부영공원 이번에 조사한 거고요. 여기 빵공장 쪽.

구술자 : 이게 빵공장이 아닌데. 아냐 이거, 저기야. 주안장로교회 있는데 바로 그쪽인데. 이게 빵공장이지, 이게. (아래 건물 가리킴) D자. 이거는 이게 개집들 있는 데예요. 개집이 여기.

면담자3 : 개집이 여기 있어요. 군견막사라고 써 놨죠. 여기 큰 굴뚝 바로 뒤에 요거.

구술자 : 거기야?

면담자3 : 네. 그게 군견 막사예요.

면담자1 : 아 큰 굴뚝 뒤에요?

면담자3 : 군견막사. 큰 굴뚝 있는 데.

구술자 : 이게 뭐야. 포스트 오피스 뭐야. 우체국?

면담자3 : 우체국이 아니라 우체국 화물들 여기다 실어놨대요. 큰 굴뚝 안에다가.

구술자 : 에이, 가만있어봐.

면담자3 : 이게 군견 막사고, 요게. 들어갔다 왔어요. 개들 열댓마리 풀어놓고 있고.

면담자2 : 빵공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술자 : 쪽 들어가면은 철조망이 이렇게 해서, DRMO 가는 길이야. 여기에 하나 있어요, 여기. 이걸 지금도 있을 거야, 여기. 그 입구가. 땅굴 들어가는 입구.

면담자2 : 저기가 지금 부영공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면담자1 : 그러면 빵공장 있는 데는 아니네요.

구술자 : 빵공장 에리어(area)예요, 이게. 에리어가 빵공장의 에리어야. 같이 이렇게인데 한 빌딩은 뚫이고, 뚫이고 해서 다 달라요.

면담자1 : 거기서 그 굴뚝 있는 건물 지붕이 좀 특이하게 되어있죠?

구술자 : 가다보면 DRMO 싹 구부러지잖아요? 여기 무기고 있고, 아니 탄약고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올라온 게 있다고. 그게 땅굴 들어가는 거야.

면담자2 : 거기서 보신 그 건물 모양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구술자 : 어디가, 땅굴?

면담자2 : 네.

구술자 : 땅굴 들어가는 모양?

면담자2 : 여기서 보신 그 조그마한 건물이 다 똑같은 거예요?

구술자 : 그렇지. 건물이 아니고 그냥,

면담자2 : 조그맣게 올라온,

구술자 : 네. 여기 보라고. 여기 딱 꼬부라지는. DRMO 갈 수 있나, 금방?

면담자2 : DRMO 저 들어가 봤는데 그런 건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부영공  
원시설에 제가 내려가 봤는데 거기 내려가서 왼쪽 편에 계단이 있었고요. 그  
리고 올라가면은 지상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거든요. 그거 말씀하신 것 같아  
요, 지금.

구술자 : 아냐 이쪽은 난 몰라.

면담자2 : 제가 들어가 봤어요. 올해 4월 달에.

구술자 : 여기 있는 거는 내가 거, 자세히 말씀 드릴게. 딱 가다가 꼬부라지기 전에 이  
렇게 딱 한 번 보라고.

면담자2 : 예, 있습니다.

구술자 : 거기에 요따만한거 하나 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땅굴일 거예요.

면담자3 : 이 굴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요거.

구술자 : 요거보다 높아. 요렇게. 요거보다 배만큼 높아.

면담자1 : 크기가 좀 더 1미터 50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구술자 : 네. 그거 뭐, 빌딩이라고 볼 순 없잖아. 우리가 보건대. 그러니까 그냥 등한시  
하는 거야 미국 놈들도.

면담자1 : 어르신 지금 여기 들어가시면 어딘지 다 아시겠네요?

구술자 : 알죠. 내가 들어가면 알죠.

면담자1 : 그리고 이 자리가, 이 자리에 어떤 모양이 있었다, 그럼 바로 아시잖아요.  
이제 들어가시면,

구술자 : 이거 내가 보면 지금 눈앞이, '아, 여기 뭐 했었고, 뭐 했었고.' 다 나오지. 다  
나오죠.

면담자1 : 언제 모시고 같이 가면 좋겠네요.

면담자2 :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서전트 숙소 옆이나 거기까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가  
도요. 지금 미군기지가 5시까지 오픈해서 저기를 한 번 보시면 어떨까요. 교

수님.

면담자1 : 아 은행나무 옆에 있는,

면담자2 : 네. 지금 부영공원도 볼 순 있는데 위치만 좀 짚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면담자1 : 지금 괜찮으세요? 시간?

구술자 : 지금?

면담자1 : 네.

면담자3 : 3시 7분.

구술자 : 들어갈 수 있어?

면담자3 : 예, 들어갈 수 있어요. 부영공원하고 거긴 들어갈 수 있어요.

면담자2 : 말씀하신 곳 중에서 두 군데. 그러니까 여기하고요.

구술자 : 여기, 은행나무.

면담자2 : 여긴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술자 : 여기, 여기는. 정문에.

면담자2 : 여긴 못 들어가요.

구술자 : 여긴 왜 못 들어가요?

면담자2 : 지금 미군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해요. 미군 측에서. 이번에 개방 행사 B구역이 오픈 되니까 들어갈 수 있고요. 부영공원은 원래 오픈 되었으니까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곳 중에서, 총 6개 중에서 여기 은행나무 뒤에 서전트 숙소 옆에 하고 부영공원 DRMO 꺾이는 길 이걸 지금 보실 수가 있거든요.

구술자 : 그럼 가보지 뭐.

면담자3 : 지금 가시죠.

구술자 : 말씀 다하고. 다 하고 나서.

면담자2 : 조금 더 하시고 시간 있으니까.

면담자1 : 그때 주변에서 소문이요, 이걸 뭐 하던 데다 소문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까 인천항까지 연결되었다 그런 말씀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구술자 : 글썄 금도 몇 백이 묻혔다, 무슨 인천항까지. 근데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도, 일본 애들이 미국까지 먹을라고 그러다가 이렇게 되었잖아, 항복했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면담자1 : 항구로 연결했을 것 같이?

구술자 : 네. 지금 여기 공원, 무슨 공원이야 앞에?

면담자3 : 부평공원이요.

구술자 : 부평공원. 거기가 옛날에 일본놈들이 가면서 '생전에 찾으리'라고. 거 맨 꼭대기에다가 써 놨다고.

면담자3 : 살아 생전에 다시 오겠다.

면담자1 : 부평공원 있는 데요?

구술자 : 거기 부평공원이야? 철로길 옆에.

면담자2 : 네, 네.

면담자1 : 철로길 옆에 어떻게 써 붙였어요?

구술자 : ‘생전에 찾으리.’

면담자2 : 한자로?

면담자1 : 일본어로 썼겠네요?

구술자 : 아니, 아냐. 왜 일본 애들 한글 잘 알잖어.

면담자1 : 그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구술자 : 아유, 그건 들었죠. 저거 누가 썼는지. 저 꼭대기를 어떻게 올라가서 썼나. 그  
랬더니, “아 일본 놈들이 항복하면서 가면서 저걸 쓰고 갔댄다, 야.” 이러더라  
고.

면담자1 : 어르신 그런 말씀 들으신 게 언제쯤이에요?

구술자 : 우리 학교 다니면서 통학하면서 고등학교 다닐 적에, 뭐 다닐 적에. 통학을  
하면서 이렇게 매달리고 가면은. 항상 보지 뭐, 항상. 올 적, 갈 적에는.

면담자2 : 글자가 뭐라고요? 다시 한 번.

구술자 : 생전에 찾으리.

면담자2 : 그걸 한글로 썼다고요? 일본 애들이.

구술자 : 한글로 그냥. 하얀 뽕끼(페인트)로. 그 콘크리트 벽에다가 그렇게 써 놨다고.  
그 높은 데다. 그래서.

면담자3 : 하얀 현수막을?

구술자 : 현수막이 아니고 벽에다 페인트로 썼다니까.

면담자1 : 하얀 페인트로.

구술자 : 그걸 사진을 찍었어야 지금 역사적인 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걸 등한시하고  
지나쳤으니까 그렇지.

면담자1 : 누가 인민군이 쓴 거다 그런 얘기는 안하셔요?

구술자 : 인민군이요?

면담자1 : 네.

구술자 : 아이 인민군이. 일본 애들이 항복하면서 가면서 이걸 언제 찾냐.

면담자1 :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구술자 : 이런 식으로 써놓고 간 거예요, 그게.

면담자1 :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네요.

구술자 : 그거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다 때려 부  
수더니 공원이 되더라고. ‘아 이게 공원이 되는구나 여기가.’

면담자1 : 부평공원에 있던 높은 건물에 써 놓았던 거였어요?

구술자 : 그 병참, 미군애들, 아니 미군이래. 일본 애들 그 저기에, 무기고 창고야, 그  
게. 굉장히 높이 이렇게 지어놨었어요. 봤어? 그게 엄청. 거기에 무기가 엄청  
들어 가. 탱크 이런 게 들어갈 거예요. 아마 기분에.

면담자2 : 혹시 미쓰비시, (66:51 오디오 물림)

면담자3 : 부평공원에 6개인가 7개가 있었는데.

면담자1 : 부평공원에요.

면담자3 : 네. 히로나카 상공을 미쓰비시 중공업이 흡수를 해요. 사십,

면담자1 : 네. 인수를 했죠.

면담자2 : 그때 건물 같은데.

면담자1 : 미쓰비시 건물에 써 있었다고요. 미쓰비시 건물이 높았는데, 그 건물에 생전  
에 찾으리라고.

면담자2 : 이런 모양의 건물이었었나요? 이렇게 생긴 건물? 대략.

구술자 : 그렇게 지었어요, 맞아요. 그게 한 2층, 3층 돼. 높이가. 2층, 3층이 뭐야. 맨  
꼭대기는 거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붓으로 그냥 큼지막하게 써 놓고. 생전에  
찾으리. 이렇게 써놨더라고.

면담자1 : 어르신 어제 캠프마켓에서 일부, 저 아래쪽 은행나무 있는 그 쪽을 개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0년도 넘게 남들은 못 들어가다가 한국 사람들이  
어르신처럼 그렇게 일하러만 들어가셨고 다른 사람들은 출입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 지역만, 남쪽 지역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제 가보  
지 않으셨죠? 거기에.

구술자 : 일 땀에 어저께 못 가봤죠.

면담자1 : 일부 지역이 반환이 되었는데, 아까 ‘당연히 반환되어야지.’ 그런 말씀을 하  
셨잖아요.

구술자 : 아, 당연히 반환되어야지요.

면담자1 :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구술자 : 그런데 60년도에 참 부평. 얼마나 보릿고개, 보릿고개 하고 못 먹었었어요?  
이 부평 사람들은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 배고프다는 얘기도 안하고. 이게  
부대가 좋겠어요, 미군부대가? 이 부평 시내 다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인원이 몇 천 명이란 말이에요.

면담자1 : 네, 미군부대에 일하는 사람이요?

구술자 : 그렇죠. 그 머슴도 가서 여기 다녔어. 머슴도. 그러니까 배고프단 얘기는 몰  
라. 그러니까 뭐 하면은,

면담자1 : 그만큼 경제 수준이 높았겠네요.

구술자 : 높았죠, 이쪽에는. 뭐 하다못해 주머니에 넣고 나가도 몇 푼 버는데. 이게 굶

어 죽었대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 미군부대 있을 적에는 참 좋았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되니까, 나이가 되니까 다니기도 길이 미어가지고 이놈들 때문에 교통상황도 여기 딱 막혀가지고 있고.

면담자1 : 부평 한가운데 있어서.

구술자 : 네. 용산도 마찬가지로요.

면담자1 : 네, 그렇죠.

구술자 : 용산이나 여기나 이렇게 똑같지 뭐야. 아 이게, 빨리 가야되는데, 이놈들. 나는 먹고 살았지만은 이제 가야되는데, 이 생각이야.

면담자1 : 쓸모도 없는데요. 미군한테 쓸모도 없는 건물이잖아요.

구술자 : 그렇지. 쓸모도 없는 거야 창고만 지어놓고. 무슨 가구 다 못 쓰는 놈 갖다 집어넣어 놓고, 그게. 실제로 들어가 본 사람들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이걸 몇 십만 평 땅덩어리에다 이런 걸 갖다가 여기에다 저장해 놓고 있을 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한다고.

면담자1 : 안에서 일하시면서 그렇게,

구술자 : 아, 당연하죠.

면담자1 : 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 하셨나요?

구술자 : 아유, 그럼. 다 마찬가지죠.

면담자1 : 미군이 우리 땅 이만큼 이렇게 쓸모없이 차지하고 있다고.

구술자 : 여기만이 아니에요. 동두천, 의정부, 용산, 문산. 엄청 많아요. 평택도 그래, 평택도 우리나라 돈으로 왜 그렇게 지어 주고. 골프장도 23홀을 해놨어. 23홀이면 얼마나 넓은 땅이에요, 그게.

면담자1 :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반환되면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으시겠어요?

구술자 : 여기는 역사관으로 해야 돼.

면담자1 : 역사관이요? 무슨 역사를 남긴 관으로,

구술자 : 이 보세요, 부평에. 부평에 무슨 역사관이라던가 뭔가 있습니까? 없죠.

면담자1 : 여기 역사박물관이요.

구술자 : 아니 학생들, 초등학생들 어린 애들 와서 견학도 하고 눈으로 보는 거니까. 이게 일본 애들이 지어놓고 간 건데. 여쭙껏 이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산 교육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가르치는 단장님이나 누구는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가슴 아픈 얘기를 해 가면서. 절대 이래서는 안된다 이제는, 이런 걸 또. 개방도 하고, 애들 교육도 되고. 개네들이 자라서 또 보면, 개네들은 듣는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 거짓말 없이. 그걸 개방을 해야죠.

면담자1 : 그럼 아직도 개방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술자 : 이 부대 안에요?

면담자1 : 그 빵공장 옆에, 왼쪽. A라고 써 놓은 지역이요.

면담자3 : DRMO.

구술자 : 여기? 아 이거는 내가 말씀드리는 게 왜 이게 들어왔냐면은, 이거 참, 미군 애들이 고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때는 안 사갔어요. 왜냐하면 차도 없고. 내가 서글픈 얘기를 한 번 할게요. 6.25 때 미군이 원조를 해줬죠. 트럭이니 뭐니 다 원조를 했는데. 그 원조 한 차가 100대다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쓰면서 이 보디를 갖다가 개네들이 찍은 남바가 있어요, 보디 남바가. 이걸 한국군에서 여기다 갖다 반납을 하는 거야. 그게, 도대체. 이게 뭘 놈의 나라인가 그랬어. 아니 6.25 때 그거 몰자해서 뭐 해준 100대를 지금까지 이걸 쓰는데, 이것까지 반납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되는 거냐구.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쪽에 병참 부대가 하나 있는 모양이야 문관이 하나 있는데. 트럭에다가 그 보디만 달고 들어와. 그래서 내가 있다, “아니, 여기 웬일이야?” 그랬더니, “형님 여긴 웬일이야. 나 물건 좀 반납 하러 왔어.” 그랬더니, “자네는 왜 왔나?” 그랬더니, “거 6.25 때 준 트럭, 보디를 가져 왔어요.” 그걸 떨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나 이거야 도대체. 미국 애들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는 그냥 주겠지. 그런 거는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썩어도 갖다 반납해야 돼. 참 그래서 한국사람 한심하다 내가 그러는 거야.

면담자1 : 어르신, 지하시설 같은 거 아니면 캠프마켓에서 근무하셨던 내용을 한 8년 전쯤에 다른 분들하고 같이 기자회견 하신 적 있으시죠?

구술자 : 한 번. 시청에서 한 번 했어요.

면담자1 : 시청에서요. 그때 어떤 말씀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구술자 : 기자들이 질문을 하더라고. 땅굴 얘기를 하더라고, 땅굴.

면담자1 : 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궁금한 건 지하의 땅굴인데 이걸 얘기 했네요. 그때 오늘 같은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구술자 : 이걸 뭐 묻지도 않더라고. 오늘 같이. 이 땅굴에 대해서는 오늘 같이 얘기를 하고. 뭐 덤으로 나가는 거는, 물어야 얘기를 하지. 묻지 않는 놈을.

면담자1 : 그럼 그날 무슨 말씀 하셨어요?

구술자 : 그 땅굴에 대해서 얘길 한 거예요.

면담자1 : 땅굴에 대해서 뭐라고.

구술자 : 몇 개가 있는데. 아유, 내 명함을 하나 받았었는데, 그 양반이 한 번 보자고 하더라고. 기자인데. 아니 여기서 기자회견 했음 되었지 뭘 또 보냐고 내가 그랬더니, 자기가 뭐 톱기사로 쓰려고 하는 건지 뭘 좀 보자고 그래. 그래서 아니 나 바쁜 사람인데 뭘 자꾸 보자 그래,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모르지 한 사람은 만났는지. 그 무슨, 무슨 일보야. 경인일보인가? 그 양반이 한 번 보자고 그랬어. 아 나 바쁘다고 나 맨날 밭에 가서 살고 농사일을 하는데 뭘

보자고. “어디서 보자는 거요?” 그랬더니. “제가 전화드릴게요.” 그러더라고.

면담자1 : 어르신 기억이 좋아서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많이 되시나봐요.

구술자 : 모르겠어요. 나는 도움이 되는 건지 난 아는 데까지만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면담자1 :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어제 개방된 은행나무 있는 쪽 거기 가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땅굴 입구,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네. 그리고,

구술자 : 내가 그거는 아직 허물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으면 이런 형태로 있는 게 다 그런 형태이다, 내가 애길 해 줄게.

면담자2 : 없어지면 위치라도, 좀 알려주시면.

구술자 : 네?

면담자2 : 없어졌으면 위치라도.

구술자 : 네, 그래요.

면담자1 : 그리고 부영공원에 가서도 그거랑 모양이,

구술자 : 난 부영공원은 몰라.

면담자1 : 아 부영공원은 지금 형태는 안 드러나죠?

면담자2 : 네. 지금.

면담자1 : 양쪽에, 두 군데. 부영공원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은행나무 있는데 두 군데 좀 같이 방문해 주시고. 그러시면 오늘 일정 저희가 아주 수확이 크게 마칠 수가 있겠네요.

구술자 : 뭐 좀 도움이 되었어요?

면담자1 : 아유 긴 시간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었어요.

구술자 :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그래도 내가 시간 내서 온 게 좋고. 도움이 안 되면 또 섭섭하지. 마지막으로 더 물어보세요.

면담자1 : 일단 은행나무 있는 쪽으로 가서 더 여쭙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해주시는 건 구술은 지금 그러면 3시 22분인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술자 : 감사합니다.

면담자2 : 감사합니다.

<이상 끝>

**부영공원 지하시설 콘텐츠 발굴프로젝트  
기초조사 보고서**

**부영공원 지하시설 관련 구술**

**5. 이종웅 구술녹취록**

## 구술 녹취록 개요

- 면담주제 : 부영공원 지하시설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부영공원 지하시설 관련 구술)
- 구술자 : 이종웅(캠프마켓 인쇄소 21년 근무)
- 면담자 1 : 이상익(인천대학교 초빙교수)
- 면담자 2 : 김규혁(부평문화원 기획팀장)
- 면담자 3 : 허광무(부평문화원 연구위원)
- 참고인 : 박명식(부평문화원 이사)
- 면담 일시 : 2020년 9월 24일 오후 2시 20분
- 면담 장소 : 부평문화원 다목적실
- 주요 용어 : 캠프마켓, 인쇄소, 지하시설, 폐유 방류, 한미합동조사단
- 특기 사항 : 1976.4부터 2003년 캠프마켓 인쇄소가 철수될 때까지 27년간 인쇄소에서 근무. 캠프마켓 내부 지하시설에 들어간 경험이 있고, 캠프마켓 내부 구조를 자세히 설명함.
- 구술자 녹취록 검토 여부 : 검토 완료

# 구술자 동의서 1

## 개인정보로 삭제함

## 구술자 동의서 2

### 개인정보로 삭제함

# 구술자 사진



**구술자 신상카드**

**개인정보로 삭제함**

# 이종웅 구술 녹취록

## [1차 1번 녹취록]

구술자 : 몰라. 거기서 아무리 오래 했어두, 개들은 어디 못 움직이게 하거든. 그리고  
뒀나면, 내가 이 말을 못 하고, 저. 내가 조심해야지,

참고인 : 보안이 굉장하더라고.

구술자 : 보안은 뭐, 우리 신원 조회는 말도 못 하게 해요. 다 잊어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 나갈라고 여권 만드니까. 거기서 해가지고 비자 떨어지니까, 일주  
일도 안되어서 떨어지더라고. 일주일도 안 돼요. 거기 빨기는 아이들이 놀래  
요. 아니 어떻게 된 분이 남들은 한 달 되어도 잘 안 나오고 제일 빨리 나와  
야 보름인데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나온다고 말이야. 그래 신원은 그게 확실  
한 거죠, 그러니까.

면담자1 : 좀 있다가 뵙겠습니다.

참고인 : 시작하기 전에 인사,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기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맞죠?

면담자2 : 앉아계시면,

구술자 : 건방지다고, 앉아 있으면 안 되지.

면담자1 : 앉아 계셔야죠. 오늘 주인공이세요.

구술자 : 주인공은요. 하하.

면담자1 : 전 인천대학교 역사 선생이예요.

구술자 : 아, 그러시구나, 예.

면담자1 : 한국사 가르치고 있어요. 이상의라고 합니다.

구술자 : 전 이종웅입니다. 그런데 전 이게(명함이) 없어요.

면담자2 : 저는 사업 담당자고요, 김규혁입니다.

구술자 : 네, 저는 이종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면담자3 : 허광무라고 합니다. 부평사 요번에 편찬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야기 잠깐만  
여쭙보려고, 들으려고 저는요. 옆에 방청하는 거고요.

참고인 : 저도 방청객입니다. 그리고 이종웅, 아저씨라고,

구술자 : 아저씨라면 뭐, 아저씨지 뭐.

참고인 :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70년대 중 후반부터 2003년도까지.

면담자1 : 네, 저희가 지하에 땅굴, 지하시설에 대해서 오늘 여쭙보려고 그래요. 근데  
말씀해주신 걸 카메라로 찍으려고 그러거든요. 찍고, 나중에 글로 쓰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지, 그것 좀.

면담자2 : 이거는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녹음기랑 영상으로 녹화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학술에 이용하겠다, 그런 내용이라서. 성함만 써주시면 제가.

(서류 작성 내용 생략)

면담자3 : 저랑 같은데 계셨어요. 제가 아현국민학교를 다녔었는데. 아현동에서, 굴레  
방다리 밑에서.

구술자 : 오, 그래요? 현 아현국민학교를 다녔고, 저는 소의국민학교를 다녔고. 어디냐  
면 저희 집은 거기 봉래국민학교 있죠? 만리동 넘어가는 꼭대기. 거, 꼭대기.  
요고는 만리동, 여기는 아현동. 우린 다 아현동이라 그래. 59번지.

면담자3 :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거기 보니까.

면담자1 : 완전, 아파트.

구술자 : 그렇죠, 네.

면담자3 : 아파트, 온통 아파트촌이고.

면담자1 :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의 정보제공 동의서입니다.

참고인 : 이걸, 병원 맞고요.

면담자3 : 이게 병원? 저는 본부라고 보는데.

참고인 : 저는, 오늘 몇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병원.

면담자3 : 그러니까요. 애스컴이 들어서면 이걸 병원으로 쓰는 거죠, 애스컴에서는.

면담자1 : 나중에,

참고인 : 아니 애스컴 병원, 그. 완투완병원은 위에. 현대아파트 2002아울렛 뒤쪽. 120  
동 121동 사이. 이걸 조병창 때.

면담자1 : 네. 애스컴 병원은 다른 데고요. 조병창 병원이었다가, 나중에 본부.

면담자3 : 본부?

면담자1 : 45년. 병원을 소화고녀로 옮기라고,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면담자3 : 어디루요?

면담자1 : 박문여고 있던 데로. 병원을 옮기라고.

참고인 : 지금 저기, 옛날 경찰청 자리.

면담자1 : 제가 읽고 시작할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모시고 말씀 여쭙는 것 좀 읽고  
시작할게요. 이 인터뷰는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부평문화원에서 진행되는  
부평공원 지하시설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에 관한 구술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이종웅 선생님의 1회차 구술 채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시는 2020년 9월 24  
일 오후 2시 40분이고, 장소는 인천시 부평구의 부평문화원 다목적실입니다.  
구술 면담은 인천대 기초교육원 교수 이상의와 부평문화원의 김규혁 팀장이

진행하고 촬영은 김규혁 선생님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부평문화원의 박명식 이사님과 허광무 상임연구위원이 동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 캠프마켓에서 이전에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저희가 여쭙볼게요.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몇 년에 출생하셨어요?

구술자 : 천, 42년.

면담자1 : 42년. 생신은?

구술자 : 3월 15일

면담자1 : 42년 3월 15일에 태어나셨네요. 그러면 고향이?

구술자 : 서울 아현동.

면담자1 : 서울 아현동이요?

구술자 : 네. 59의 45.

면담자1 : 거기서 학창시절 다 보내셨어요, 아현동에서?

구술자 : 전 학교,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직장 다녔어. 열여섯 즈음에 직장 다니고. 6·25 때는 3년 동안 학교를 못 다녔으니깐. 그러니까 갔다 와가지고 조금 학교 다니다가. 그때 국민학교 2, 3학년 다니다가 6·25 났으니깐. 그러고서는 갔다 와가지고 학교 들어가 가지고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입학했다가 직장 들어갔어요, 바로.

면담자1 : 중학교, 어느 중학교로 가셨어요?

구술자 : 마포에 거, 동도중학이라고 있어요.

면담자1 : 아, 동도중학교요?

구술자 : 네. 동도, 있어요. 거기 1학년 다니다가 말았어요.

면담자1 : 그러면 부평으로는 언제 오셨어요?

구술자 : 그러니까 76년도 4월.

면담자1 : 그러면 연세가, 42년이니까? 꽤 많이 드셨을 때 오셨네요?

구술자 : 네, 그렇죠. 군대 갔다 오고, 다 저거 뭐 하고 직장 다니다가. 이쪽으로 시험 봐가지고 되가지고 들어온 거죠.

면담자1 : 캠프마켓 들어가려고 시험 보셨어요?

구술자 : 시험 봤죠. 정식으로 시험 봤어요.

면담자1 : 어디, 캠프마켓 어느 부서에서 일하셨어요?

구술자 : 이것이 그때 당시 인쇄소가요, 동남야로 나간다 소리가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철수를 하면선. 근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대한민국이 좀 실적이 낫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처음에.

면담자1 : 캠프마켓 미군부대 안에 있는 인쇄소로 들어가신 거네요?

구술자 : 네, 글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 인쇄소가 인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작하기는, 사람 뽑아가지고 시작하기는, 75년 11월로 들어온 거라 맨 처음에 들어온 거. 순서대로 들어오니깐, 난 76년 4월에 들어왔거든요? 조금 늦게 들어온 거지, 난 그래도. 그때 이제 들어와 가지고 기계 설치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3년도? 그때 완전히 다 철수를 했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뭐냐면 컴퓨터 나오고 뭐고 하다보니까. 할 게 없거든요? 그 당시 이것이 거의 인쇄소가 뭐가 되었냐면, 미국서도 품이 많이 들어오지만 웬만한 건 모자라는 건 동남아로 다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건 동남아로 다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인쇄소에서 나머지 찍은 거예요. 그게.

면담자1 : 아, 그러면 어떤 내용을 인쇄하셨어요?

구술자 : 품. 양식. 양식 같은 것 찍었었죠.

면담자1 : 양식을 그냥?

구술자 : 그래가지고 전부 다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 나오는 바람에, 완전 다. 일이 없어지니까 철수한 거죠, 다.

면담자1 : 네. 시험은 어떤 걸 보셨어요? 거기 들어가시기 전에.

구술자 : 인쇄소에 대한 거 시험 봤어요. 근데 인쇄소에 대한 거 본 것이 뭐냐면, 지금 애들은 거 알아듣지를 못하지. 왜냐면 그때 당시 우리 배울 땐 일본말 식으로다 그 사람들 밑에 가서 배운 사람한테 배웠으니깐. 그건 일본말로다가 듣는 거지, 지금 말하자면.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는, 그래서 시험은 난 봤는데 열 문제 나왔는데 아홉 문제 맞고 한 문제가 틀렸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 놈들이 시험 문제를 냈어. 고려서적에 있는 놈들이. 우리는, 내가 59년도서부터 인쇄소에 들어갔어요.

면담자1 : 네. 서울에서 계속 인쇄업을 하셨네요?

구술자 : 인쇄는 이제, 업이 아니라, 직공생 하러 들어간 거죠. 처음. 먹고 살기 뭐하니까, 그때 당시 힘들고 뭐 하니까. 그래가지고 일 시작해가지고 군대 가서도 이 직업 그대로 총칼없이 군대생활 했어요. 대전 3군사령부에서. 그렇게 또 나와가지고. 직장 다니다가, 데리고 있는 아이가 영문으로다가 뭘 쓰더라 말이야, 일하는데. 그때 국일매장에 있었는데. 하시길래, “야, 너 좋은 거 하는 것 같은데, 나도 한 번 그것 좀 써 보자.” 그랬거든. 그랬더니, “글쎄요, 이걸. 될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러더니, 그놈이, 좀. 제대해 가지고 애까지 있는데 일을 좀 하는데 좀 서툴렀어요. 근데 뭐냐면, 너도 직장생활이고 나도 직장생활이니까. 애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좀 돌봐줬나봐, 조금. 근데 이놈이,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실은 자기 고모의 남편인데. 그 사람이 미군부대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래봐도 최고 책임자가 이 그레이드라 하면, 월급 조정하는 거, 직위 조정. 그거 직위 조정관의 최고 책임자야,

한국에서. 대한민국 전국을 다 직위 조정을 해주는 거야 이 사람이. 그 사람 소개로 받은 거예요.

면담자1 : 아 캠프마켓 가실 때요.

구술자 : 그 사람이 갈 때 이력서를 내야 할 거 아니예요. 그걸 쫓길래, 그걸 가지고 찾아 갔어. 갔더니, 용산 갔더니 “잠깐 있어” 하더니. 일 끝나고서 나오더니. 용산 그때 당시에 가면 타이프팀이 많았었어요. 그 뒤로 가더니, 한 군데 아는 집 가더니, 거 잘 줌, 영어 번역해서 잘 줌 써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접수해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접수는 사실 그 분 아니면 접수가 되질 않았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접수해서 다 접어놨는데, 이 분이 그런 저기가 있으니깐 시험관 받는데 그 안에다가 갖다 집어 넣어준 모양이야, 비공식으로다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게 했는데 부평을 내려가라고, 거 내가 데리고 들어간 애랑 같이 내려왔어, 여길. 내려왔는데 불르지를 않는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불려 들어갔는데.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만 있는 거지. 안 불려, “우리 왜 안 부르니?”, ‘여기 이름 없다’ 이거야. 이름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되겠다고 서울에 그 아저씨한테 전화했더니, 행정관에서 전화하더니 최고 책임자가 나오더니,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걸 안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선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시험 보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봤는데, 개는 떨어지고 나는 붙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세 개 네 개씩 틀렸다 했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밖에 틀린 게 없더라고.

면담자1 : 일등 하셨네요?

구술자 : 근데, 보니까는 공군 흑인이 그거를 시험 보고 나니까 시험지 걷어가지고 그 때 당시에 다, 저기 해. 그래서 내가 하나 틀렸는지 두개 틀렸는지 그래서 아는 거야, 보고서. 이렇게 딱 가더니 공군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여길 들어올라고 그러냐 이거야. “안전한 직장이고 내 앞을 바라봐서 내 여길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왜, 거기보다는 월급이 좀 적은데 왜 여길 들어오느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안전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기 뭐 그래서. 그래서 들어왔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됐다 그럼 나가 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갔죠. 그래가지고서 있는데, 나중에서야 나한테 통보가 안 오고 그 아저씨한테 통보가 간 거야. 그러니깐 비공식으로 그냥 넣어준 거여 거기다가, 내 보니까.

면담자3 : 75년도?

구술자 : 75년도에 11월, 1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시험은 봤지. 그 전에 시험은 거진 한 일 년 전 봤을 거야. 그래가지고 ‘에유, 뭐 틀렸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그거 딱, 해서 그 아저씨가 오더니 그 아저씨가 일등이다 그러는 거

야, 됐다고. 그놈 되었으면 내가 여기 있질 않았지. 실은 그때 당시는 뭐냐 하면, 배우지는 못했어도 그것만 가지고 가도 미국서 먹고 산다는 소리를 들어서, 실은 거기 들어갈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놈이 떨어지는 바람에 나도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나 혼자 들어가게 됐죠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28년 4개월 근무했어요, 내가. 거기서.

면담자1 : 하루 몇 시간 일하셨어요?

구술자 : 하루, 개들은 8시간이에요.

면담자1 : 8시간이요?

구술자 : 네. 아침 8시에 들어가면 12시죠? 그럼 한시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은 개인 시간이에요, 그제. 이건 월급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5시 퇴근이야, 아니 네 시. 네 시 반 퇴근해.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네 시 반 퇴근을 왜 그러하냐면,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줄여버렸어. 왜 우리 시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름에 네 시 반이면 반나절에 나와요. 그렇게 퇴근하고 할 게 없어가지고 나오며는 빙빙 놀기만 하고 그랬지.

면담자1 : 가족도 다 같이 그럼 부평으로 이사하셨겠네요?

구술자 : 그렇죠. 그때 당시 딸내미 하나 낳아가지고.

면담자1 : 그러면 댁이 어디셨어요? 그때?

구술자 : 신촌요. 부평 신촌. 그리로 이사 왔어요.

면담자1 : 신촌이면 멀지 않게 걸어 다니셨네요?

구술자 : 정문 앞에서, 거기서 걸어 다녔죠.

면담자1 : 어떻게 걸어 다니셨는지 길 기억 하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걸으셨는지?

구술자 : 지금 정문이 요새 신촌 쪽인데.

참고인 : 밑에요, 밑에.

구술자 : 산곡여중이 어디 있지? 그러면 이쪽일 거예요. 여기쯤 되겠어.

참고인 : 여기가 신촌이고, 1번 게이트. [지도에서 캠프 남쪽 보고 설명 중]

구술자 : 아 1번이 이쪽이라고요, 그러면 여기로 가면 여쪽에 있어요, 여 쪽에. 여기 골목에 들어가 가지고.

참고인 : 여기는 주 게이트고요, 주 도로고, 1번 게이트. 하천이에요.

구술자 : 그래, 여긴 하천이고. 여리로 어떻게 들어가. 그러면 여기 9통인가 있었어요, 9통.

면담자1 : 아 그러면 부대 안으로는 출근하시는 곳까지 한 번 손으로 짚어 봐주시겠어요? 1번 게이트로 들어가서?

구술자 : 제가 이리로 출근, 처음에는 일로 드나들었거든요? 이리로 드나들었죠, 일로. 이리로 이렇게 해서, 일로 가죠. [손가락으로 1번 게이트에서 북쪽으로 직진 해서 올라가면서 설명] 주욱 가면 여기 건물 있잖아요. [길 우측]

면담자1 : 아 그 건물요?

구술자 : [큰 건물 2동 중 아래] 요거를 우리가 이제, 종이 창고. 물건 들어오는 거 여  
기다 다 쌓고. 그거 저 여기여기 있었고.

면담자1 : 종이창고도 일제하에 만들어진 건물인가요? 그것도 왜정 때 만들어진 건물.

구술자 : 그거는 뭐, 왜정 때 만들었는데, 그냥. 이거 한 번 뒤집어씌운 거예요. 빨간  
벽돌이 없으니깐, 빨간 벽돌 이런 거는 전부 일본놈 네들이 지은 거거든요.

면담자1 : 네. 인쇄소는요?

구술자 : 인쇄소는 요거 요거, 2층에 요거.

면담자1 : 2층에, 그건 번듯한 건물이고요?

구술자 : 그렇죠, 예.

참고인 : 일제 때 만든 건가요? 인쇄소. 여기 이렇게 두껍다고 그러셨잖아요.

구술자 : 어휴 무지하게 두껍지. 그건 뭐, 이거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올라가  
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여기 2층으로 올라가는 거. 그 밑창에 무슨 공사하려  
다가 엘리베이터 밑창 공사하다가 이게 터져버렸는데 물을 막지를 못해. 워  
낙 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소방서 차 갖다 대놓고선 계속 물 푸면서 그거  
막았다고. 그게 그렇게 심하더라고. 여기는 뭐냐면 철문이 이렇게 두꺼워워,  
이렇게. 이렇게 두꺼워. 이게 맘대로 우리가 혼자서 단질 못해. 무지하게 두  
꺼워워, 그게.

면담자1 : 예전에는 그 인쇄소가 뭐 했던 건물이다, 그런 말씀 들으셨어요?

구술자 : 그건 못 들었어요. 그건 못 들었어요, 제가.

면담자1 : 부대 안에는 오래된 건물이 많이 있었나요?

구술자 : 그렇죠, 많이 있죠. 거기는.

면담자1 : 그러면 정문에서 1번 게이트에서 인쇄소까지 가시는 길에, 거기에도 무슨  
지하에 굴이 있다던가, 그런 거 보셨어요?

구술자 : 그 이쪽에 보면 여쪽 어디, 이쪽 건물에 어디 있을 거예요. 요고일 거예요, 요  
놈. 지하 밑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면담자1 : 거기에 터널이 있어요?

구술자 : 요만하게 되어 가지고, 튀어나와 있는데 문이 닫혀있어요.

면담자1 : 입구가 이렇게,

구술자 : 입구는 문 열게끔 되어 있어요.

면담자1 : 쇠문이에요?

구술자 : 아뇨, 그땐 쇠문 아니었어요, 그때는.

면담자1 : 문이 닫혀있는데 열고 들어갈 수 있게?

구술자 : 네. 들어가서 밑창만 들여다봤어, 들어가서.

면담자1 : 아, 열어 보셨어요?

구술자 : 네. 거 들어가서, 한번.

면담자1 : 얼마큼 들어가 보셨어요?

구술자 : 그 층계까지만 내려가 봤어.

면담자1 : 바로 문 열면 계단이 있어요?

구술자 : 바로 문 열면 계단이니까.

면담자1 : 그러면 아래로 쪽 내려가야 되는 거네요?

구술자 : 네, 뭐 그렇게 깊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면담자1 : 왜 열어 보셨어요?

구술자 : 궁금하지요. 하하하.

면담자1 : 궁금하니까, 자유시간에?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그냥 들어가도 괜찮은 곳이네요?

구술자 : 원은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다. 근데 열렸으니까 우리가 그냥 들어간 거지.

면담자1 : 우리가. 그러면 같이, 다른 분하고 가셨네요?

구술자 : 한 두놈하고 같이 가야지. ‘야 여긴 뭐냐’, 하고선.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냥.

면담자1 : 네. 다른 분들도 여기 들어갔던 분이 계신가요?

구술자 : 그건 모르죠. 호기심들 많은 사람들은 다 들어가 봤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왜냐하면 침부터 여기서 미군 애들한테 이상하게 보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니까는. 잘 내다니진 않죠. 하여간 여기 들어갔어도 조심들 많이 하니까, 서로들.

면담자1 : 거기서 냄새나거나?

구술자 : 그런 건 못 느꼈어요.

면담자1 : 그리고 보관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구술자 : 네 그런 건 못 봤고.

면담자1 : 그냥 버려진?

구술자 : 네, 그냥 킁킁하고 좀 어둑허니깐.

면담자1 : 캄캄하고요. 전혀 안 쓰는?

구술자 : 그렇죠. 완전히 그건 뭐, 들어가면 냄새나는 거, 그거 뭐 마찬가지로 아니에요, 그거.

면담자1 : 그러면 거기 말고도 다른 데 또 지하시설이 있어요?

구술자 : 그렇죠.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에 어디 있던데. 여기 근처에 또, 여기 여기 근처에 또 있을 거예요.

참고인 : 지금, 정문이고요?

구술자 : 아, 정문이 여기 있구나, 그럼 여기.

참고인 : 경비실.

구술자 : 지금 여기, 여기.

참고인 : 통신대 앞예요.

구술자 : 통신대 요 쪽에.

참고인 : 그 다음에 주차장 뒤쪽.

구술자 : 주차장 뒤쪽으로, 또. 그렇게.

면담자1 : 거기도 들어가 보셨어요?

구술자 : 아니 안 들어갔어요. 딴 데는 들어가 볼 생각,

면담자1 : 거기 있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구술자 : 그게 말들은 안 해두, 아 여기쯤 뭐 있다는 거는 전부들 눈치들 채는 사람들이 많죠.

면담자1 : 서로서로 얘기를 하면서?

구술자 : 네, 네.

면담자1 : 그러면은, 그 옆쪽에 있는 굴만 가보고 다른 데는 안 가보셨어요?

구술자 : 딴 데는 뭐 그렇게 잘들 다니질 않았어요, 이쪽까진. 왜냐하면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PPCK 여기니깐, 여기까지. 원래 여기 문이 있어요, 철문. 여기. 여긴 케알이(KRE)니까는 여긴 못 들어가요. 여긴 못 들어가니까는 여기만 돌아다니죠.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까지는 들어가 봤어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진 뭐냐면, 여기가 정비. 케알이 차 정비하고 뭐 하는 데예요, 여기가. 그래서 내가 기계 부속 고장나면은, 여기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얘기를 해갖고 들어가, 문 열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여기서 케알이 이제, 지게차 같은 거 고치는 사람들 좀 아니까. “야, 나 이거 고장났으니깐 하나 맡아 해줘.” 그러면 지들이 파트, 저기 해가지고 저것 하나 신청해 가지고 지네가 갖다 끼운 것처럼 해가지고, 하날 주면 내가 가지고 나와 가지고. 내가 지게차 고치고 뭐하고 그랬어요.

면담자1 : 아, 미군이요?

구술자 : 네.

면담자1 : 네. 그러면 한국인들은 다 저 중간까지만 가보네요?

구술자 : 아니죠, 여기서도 한국사람들도 다 여기들 근무 했으니깐. 케알이도. 다, 근무는 다 하는데, 여기 근무하는 사람하고 이쪽 근무하는 사람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쪽으로 해서, 인쇄소. 이쪽으로 가면 공병대가 있지? 공병대가. 지금 아 이쪽이 이쪽이구나. DRMO 이쪽. 일로 가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이것이 창고인가?

참고인 : 주물공장이요, 주물공장.

구술자 : 주물공장이면 그럼 이쪽. 이게 저기 무기창고, 무기창고로구나, 여기.

참고인 : 벙커.

구술자 : 벙커로다, 벙커로 뒤집어씌운 거. 이게 그거고. 이걸 공병대 사무실이고. 여긴 DRMO 창고고. 근데 여기는 맘대로 드나들었어요, 여기는. 왜냐면 내가 정비하고 뭐 하면, 정비하고 부속 하면 여기로 들어가서 가져왔으니깐. 그래서 조금 알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일하던 사람은, 인쇄소 하면 여기 외에는. 여기 식당에 이제, 여기 가면 창고 있고 식당이 여기 있었다고, 식당이. 식당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만 갔었지 다른 덴 못 다니게 했어요. 못 다니고들.

면담자1 :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니면서 ‘여기에는 굴이 많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술자 : 뭐가 좀 있다는 얘기들은 했는데, 서로들 그렇게 친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해 줘요.

면담자1 : 아, 왜요?

구술자 : 왜냐면 개들은 저기 뭐냐면, 비밀유지를 많이 해요, 양놈들이.

면담자1 : 미군부대 내부니까.

구술자 : 서로들 좀 나가서 무슨 좀 뭐 할까봐. 비밀유지를 상당히 많이 해 말조심들을, 그래서들. 그 안에서 암암리에 서로들 조심들 하는 거지. 근데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잡아먹어요,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미국 놈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잡아먹어요. 내가 여기서 20년 이상을 내가, 한국 사람한테 두 놈한테 내가 당하고, 하하.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면 ‘예수 믿어’ 그러면 내가 쳐다도 안 봐. 그놈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침마다 기도한단 말이야?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 아 부러 좋자고 기도를 하는 건데, 나 어떤 날은 기계가 고장 나서, 가서 일 잠깐 하면, 찾아보다가 없으면 그냥 소리 먼저 지르고. ‘개새끼 저 새끼’하고 찾아온다고. 그러면 구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개 지금 저기서 일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그땐 말이 없는 거라. 개들이 그래요. 사람이 뭐 하나 하면 정직하게 그제 하는데, 고 때하고 또 다른 때하고 또 달라요. 그래 하도 나는 사람 많이 모여 가지고서는 회의 중에 다 하다가도 양놈이 설명해주고선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 잔뜩인데 나 찾다 없더니 거기서 보이니까 거기서 대번 욕을 하더라고. 개새끼 너 죽인다고서. 그래서 내가 하다 못해 그랬어요. 그 여러 사람 있는데 망신당하니까 나와가지고 패스 딱 쥐고 “야, 이새끼야 너 뭐라고 그랬어. 나 그만둔다 여기서. 한 번 할래?” 그랬더니 “야 내가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니가 좀 봐줘.” 그러더라고.

면담자1 : 어르신 그 때 지위가 어떻게 되었어요?

구술자 : 지위는 난 뭐, 정비공이에요. 인쇄소 기계 정비하는 사람이야.

면담자1 : 그럼 월급이 많은 분 아니에요?

구술자 : 월급은 또 급수가 또 있어요. 4급,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땐 7급 받고 들어갔어. 7급 받고 들어갔다가 기계가 좀 큰 게 들어 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참. 큰 기계는 시내에서 다 돌려보고 조그마한 기계로 돌리니까는. “나도 큰 기계 할 수 있다. 그리로 가야겠다.” 그랬더니, 나는 사람을 잘 못 사키어요. 고지식해가지고, 되도 안 돼. 근데 한국 사람 최고 책임자, 인쇄소 최고 책임자. 그 사람이 인쇄소, 원래 한국 인쇄소에 부산에서 인쇄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대위로 제대한 사람이에요. 나는 대전 항공부에서 일을 한 사람이고. 쫓병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거기서 대위를 했던 사람. 그런데 여기서 책임자로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최고 책임자로 왔었던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밑창에 가니깐, 그 사람 있으니깐 뭐 인쇄하고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거기서 부산서 근무하던 애들은 많이 들어왔어, 보니깐 알고 보니깐, 그 안에 들어갔어. 근데 개들하곤 연락이 되는데 나는 모르니깐 연락을 안 한 거야, 서로. 근데 차별대우를 많이 하더라고. 뭐 그래도 내가 할 거 하고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거니깐. 그리고선 여기서 근무를 했는데, 그거보다도 내가 이쪽에서 창고에서 내가 근무하면선 두 놈한테 그렇게 한 20년 이상 당했죠. 그래서 내가 이중성격 쓰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면담자1 : 저희가 지하에 있는 시설에 관심이 많거든요.

구술자 : 글썄요, 그걸 내가 들었는데, 제가 저.

면담자1 : 아까 들어가보신 데는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구술자 : 한 번. 한 번 이상 안 들어갔어요. 네. 왜냐하면 들어가서 뭐 발견하고 뭐 할 게 없으니깐. 킴킴하고 좀 뭐 하니깐. ‘지하다.’, ‘아 여긴 비상구로구나.’ 뭐, 혼자. 그리고서는 더 이상은 상관 안 했죠.

면담자1 : 여기 비상구로구나 그렇게 생각은 하셨는데

구술자 : 그렇죠, 그렇죠.

면담자1 : 다른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 봤다는 얘기는 안 해요?

구술자 : 그거는 들어봤죠. ‘야 저쪽에 지하에 있다’, ‘저쪽 어디에 있다.’ 그 소리는 들었죠.

면담자1 : 그 굴은 그럼 언제부터 있었는지?

구술자 : 거기 인쇄 들어온 사람들은 오래되었어요, 다들. 다들 그래도 칠십, 난 육 년도에 들어왔지만. 칠 년도, 팔 년도, 뭐 구 년도, 그래도 80년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많았어요. 다.

면담자1 : 근데 그 분들도 거기에 지하 시설을 열어 보았어요?

구술자 : 거 확실히 모르죠.

면담자1 : 옛날에 여기에 지하시설, 터널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는 부대 안에서,

구술자 : 이게, 그거는, 저거 하고. 이게 부두에도. 그러니깐 송도인가? 어딘가 부두에  
요. 연안부두인가 거기까진 뚫렸다 말은 내가 들어 본 적은 있어요.

면담자1 : 어디에서요?

구술자 : 거기, 부대에서.

면담자1 : 캠프마켓,

구술자 : 그 안에서. 거기 뚫렸다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

면담자1 : 연안부두까지 뚫려있다고요?

구술자 : 근데 거기까진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면담자1 :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 하세요?

구술자 : 그건 모르죠, 지금도.

면담자1 : 그냥 서로 떠도는 소문에,

구술자 : 네. 거기서 하는 소리가 그렇게 들렸어요.

면담자1 : 그게 어디에서 시작된다, 그런 말씀 들으셨어요?

구술자 : 시작은 다 뚫려 있으니깐. 그 안에 다.

면담자1 : 그 안에 여러 개가 있다,

구술자 : 네. 그리고 하수도는 아주 끝내주게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

면담자1 : 하수도요?

구술자 : 네, 하수도는 아주. 그러니까 아무리 장마 쳐도, 거, 물이 괴이지 않아. 하수  
도는 아주 잘되었다 그래. 그 아무리 장마가 지고 뭐 해도 거긴 물 괴는 게  
없어. 다 빠져나가.

면담자1 : 하수 시설은 누가 갖춰냈을까요?

구술자 : 아 일본놈들이 했겠지요.

면담자1 : 처음 만들 때?

구술자 : 그렇죠. 처음 만들때 그렇게 했겠죠.

면담자1 : 이 주변에 땅이 굉장히 질었다고 그랬거든요.

구술자 : 근데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질은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왜냐  
하면 우리가 여기로 나와서 여기, 요리로 다니면서 여기 와서 밥을 먹거든.  
근데 이쪽에 가면 기름 탱크가 있었다고, 여기가. 거기 기름 탱크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터진 게 거기 있었다고, 거기. 그리고 이 건물은 뭐냐면 그  
냥 의료 장비, 다.

참고인 : 의료장비요?

구술자 : 침대 같은 거, 야전침대 같은 거 전부 이 창고에다가 쌓아놨었다고.

참고인 : 저번에 거기 꺼내놓은걸 보니깐, 이전할려고 많이 꺼내놨거든요.

구술자 : 그런 것들?

참고인 : 네.

구술자 : 그 창고예요, 이게. 그 창고고.

참고인 : 지금 빨간 지붕으로 되어 있는 거요,

구술자 : 그거?

참고인 : 네. 거기는 매트리스 같은 거.

구술자 : 이건 매트리스, 매트리스인데, 여기도 매트리스가 여기도 있었다고. 그리고 이 쪽, 여긴가 여기. 이진가? 저기 시체창고. 사람 죽은 거 그것들이 있었다고.

참고인 : 저는 시체창고를 여기서,

구술자 : 여기, 여기 어디 있었다 했잖아.

참고인 : 여기 정도로 들었거든요?

구술자 : 여기, 여기로다가. 그래가지고

참고인 : 여기가 그리고 모터풀.

구술자 : 어, 모터풀. 헌병 모터풀이야, 여기가. 여기가 그, 빵공장이 여기 있었다고.

참고인 : 조그마한 거요?

구술자 : 아니, 저기 뭐냐.

참고인 : 빵공장은 여기고.

구술자 : 그거는 처음에 여기 있었어. 가만 있어봐, 인쇄소가, 아 여기로구나. 여기가 여기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쪽에. 굴뚝 있잖아, 굴뚝.

참고인 : 이게 헌병, 지금 보일러실.

구술자 : 굴뚝 여기 있지, 이거 굴뚝 아니야.

참고인 : 굴뚝 이거, 이거.

구술자 : 굴뚝이지?

참고인 : 네.

구술자 : 그것이 이제 빵공장이었어, 그 전에. 그게 빵공장이었다가 케알이 일로 이사 오고서 이것저것 완전히 채워넣고선 일로 갔단 말이야, 그것이.

면담자2 : 선생님 케알이라고 하는 게 명칭이 뭐예요?

구술자 : 케알이란 명칭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여기 가면 전자부속이고 미국 놈들 물품 쓰는 거, 생활용품이고 뭐든 게 다 여기 있었어. 전자제품이고. 다 여기서 관리했어, 이쪽 위에서.

면담자2 : 부를 때 '케알이'라고 불렀어요?

구술자 : 케알이라고 불렀어.

면담자1 : 그러면 여기 근무하실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술자 : 한국 사람들이, 미군 애들은 별로 없었어도 한국 사람들이 전부 근무 했죠, 뭐. 대리로다가. 미군애들 두, 서너 명, 많아야 다섯 명 있고 전부 한국 사람들이었죠.

면담자1 : 아, 주변엔 미군은 거의 없고.

구술자 : 그때 당시엔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좀 뭐 하면,

면담자1 :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나요?

구술자 : 한국 사람들은, 뭐. 전부, 공병대는 전부 이 안에 하고, 뭐. 강화 같은 데나 미군부대가 되면 설치도, 옛날에 김포 같은데 있으면 이 공병대에서 다 파견 나가서 그거 다 일 봐주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 전부 모든 거 다. 개들이 다 저거, 했죠. 다 다니면서 김포 같은 데 이런데 가서도 다, 다니면서 다 했다고요.

참고인 : 술 창고는 어디였어요, 선생님? 파란색인가요?

구술자 : 술 창고? 술 창고 여겨야.

참고인 : 거기요? 거기 뒤가 무기고인가요?

무기고는 이쪽으로 와 있지. 여기. 여기가 술 창고고, 여기가 저기 뭐 하고. 여기 술 창고 다음에 이렇게 쳐가지고 이쪽이 케알이 되니까는, 하고. 케알이가 이쪽에. 술 창고 그쪽 넘어서고.

참고인 : 여기가 지금 전에 식당 겸 카지노 있었어요. 여기 사령관 막사.

구술자 : 아니 식당은,

참고인 : 여기 카지노 있던데요.

구술자 : 카지노, 그래 그 클럽. 클럽 있는 거,

참고인 : 클럽 있고. 사령관 막사고. 캠프마켓 본부 자리가 되거든요, 이게?

구술자 : 캠프, 네 그 쪽에. 사령관 자리 저쪽에.

참고인 : 그리고 여기가 사령관 숙소, 이 정도 됐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럼 여기는 통신대 창고.

구술자 : 그게 통신대 창고, 여기도 창고.

참고인 : 네, 이거 다 창고였고. 인쇄소였고.

구술자 : 여기는 사무실이었고.

참고인 : 박의양 아저씨 들어보면 여기 뒤에 지하호 있었고.

구술자 : 여기, 이쪽.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참고인 : 그리고 이쪽에다 아까 오시다 보면서 오염수를 버러가지고서 이쪽으로 흘러, 어디로 버렸다는 거예요?

구술자 : 오염수가, 지금. 여기가 인쇄소 자리지? 여기, 여기 쪽에.

참고인 : 창고 뒤에 여기 나무 있는데다?

구술자 : 아니, 아니야. 여기 마당이 있어, 여기에. 여기 있다. 여기쯤 있었다고.

참고인 : 그러면 파이프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네요? 이쪽.

구술자 : 그렇겠지. 거기다가 트럭으로다 한 두어 개나 세 개 싣고 오면 거기다 갖다 그냥 부었다고. 못 쓰는 폐유 같은 거.

면담자1 : 아 폐유를?

구술자 : 그러니까 기름이 아니고 오염된 것들이죠, 전부.

면담자1 : 어디에다 버려요? 하수구에?

구술자 : 여기다 보면 하수구 하면 일로 들어간다고. 여기까지, 정화, 여기까지 간다니까.

면담자1 : 네. 지금 정화조 있는 데까지요?

구술자 : 네. 글로 가는 거야.

면담자1 : 왜 거기에서 버려요?

구술자 : 다른 데다 버리면 오염되니깐. 거기다 그걸 버리면 정화조에서 정화해서 나가 버리니깐 그렇게 다 버리는 거야.

면담자1 : 누가 버리나요?

구술자 : 문세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세상 뺏어요. DRMO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술 먹고 같이들 지냈으니까 아는 거지. “야, 그걸 왜 갖다 버려, 임마.” 그러면, “야 내가 어떻게 하나. 양놈이 버리라는 걸 어쩔 수 없이 갖다 버리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 그 식이에요.

면담자1 : 그 다음에, 나중에도 계속 그랬나요? 23년간 계실 때 보시면 계속 거기에 버렸어요?

구술자 : 그걸 제가 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건 자세히 모르지. 제가 근무해가지고 몇 번씩 하여간 봤으니까 와가지고 하는 걸. 나는 이제 뭐, 기계 정비 일을 하다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깐 그걸 갖다 버리는 걸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니깐. 그리고 또 그 사람들 하곤 직장 끝나고 또 여기 나와서 같이들 술 먹고 뭐 하던 친구들이니깐 다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하는데 그걸 갖다 버리는데 누가 알지도 못하고 뭐라고 하냐고 하면 욕만 먹으니까 참견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 뭐냐면 미군 애들은 남들이 뭐 하는 걸 터치할 안 해. 자기 일 이외에는 터치 안 해, 오해 살까봐. 오해사면 한국 사람들이 저놈 나빠 그러고 찍으면 바로 보내버려요. 왜냐하면 문제 생길까봐.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해.

면담자2 : 그 말씀 나온 것 중에 오수정화조가 저기 위쪽에 있잖아요. 오수정화조가 위쪽에 있는데.

면담자1 : 정화조.

구술자 : 아 위에 있는데.

면담자2 : 근무하신 인쇄소 앞에서 이제, 어떤 하수구에다가 버리면 폐유를 파이프로 저기까지 갔다고 하는데, 저기다가 정화조를 만든 이유는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근처에 안 만들고 왜 멀리 있잖아요.

구술자 : 이걸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는. 일본 때 그거 해 놓은 거예요.

참고인 ; 저기까지 조병창, 미군부대, 애스컴. 동아아파트, 대림아파트, 우성아파트가, 거기까지, 우리가 어렸을 때

면담자1 : 그쪽이 애스컴 구역인거죠? 저희가 이제,

구술자 : 저기까지 애스컴 블록이니까, 다.

참고인 ; 이게 지금 하천으로 해, 굴포천으로 해서 이렇게 와서 되는 게 여기까지 다 미군부대였어.

구술자 : 그러니 뭐 다.

참고인 ; 그리고 여기서 이게 아파트가 애스컴 시티거든요. 없어지면서 불하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게 굴포천이 요렇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천이라는 건 똑바로 안 돼요. 이것이 하천이 여기서부터 이리로 지나갔다.

구술자 : 지나갔는데 이것 때문에 돌린 것 같아.

참고인 : 지나가다 돌렸어요. 이 하천을 돌려가지고 이 다다구미,

구술자 : 응, 다다구미.

참고인 : 이 흙을 파가지고 메꾸었다.

구술자 : 메꿔버렸어.

참고인 : 그러니까는 여기는 평지가 생기니까 다다구미, 다전조, 개가 여기서 한국인 농사를 살 게 했다. 그런 애길 옛날서부터 전 들어 왔고요.

면담자1 : 조병창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물길을 밖으로 돌렸다고요?

참고인 : 네.

구술자 : 그렇죠.

참고인 : 그것이 딱 물길을 두 번 돌려요. 대우자동차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한 번 돌리고 여긴 39년도 그때 해가지고 물길을 돌렸다고 노인네들이 애길 하시더라고. 그럼 여기에, 제가 보기엔 이쪽까지 가던 게 산곡천이거든요 이렇게 흐르는 게 산곡천이라고. 이쪽하고 산곡천하고 연결이 되었다. 이것이 뜬금없이 도시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전엔 여기까지, 미군부대까지.

구술자 : 다 같은 저기였으니까.

면담자2 :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지하시설이 좀 궁금해서. 부영공원 쪽에 지하시설은 따로 얘기를 못 들어보셨어요?

구술자 : 이쪽에는 자세히 들어보진 못했어요. 이쪽에는. 왜냐면 이쪽에는.

면담자2 : 그러면 근무하실 당시에 총 몇 군데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었던 것 같으세요?

구술자 : 내가 알기론 들어가서 확인 해 봐야 저 한 서너 군데나 우리가 알까. 그 외에는. 지금 또 잘 아는 사람들은 있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자세히들 얘기 하겠

죠. 내가 알기론, 내가 한 서너 군데 좀 아는데.

면담자1 : 문 열어보신 데가 서너 군데 정도 돼요?

구술자 : 아, 그렇게는 안 열어 봤어요. 아 여기가 어디다, 여기가 뭐다, 뭐하면 다들  
고거만 알지.

면담자1 : 열어보신 데는 그 안에 시멘트였어요?

구술자 : 그렇죠. 그 안에 다 시멘트로 저, 견고했죠.

면담자1 : 아, 견고하게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혹시 짐작 하세요?

구술자 : 캄캄하니까 그렇게 해도 뭐, 크진 않고 그렇게 넓진 않더라고요. 저쪽에서 한  
여기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

면담자1 :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한 4, 5미터?

구술자 :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때 들어가 볼 적에는.

면담자1 : 높이는 어느 정도 돼요?

구술자 : 높이, 우리 배 반대 정도 될까?

면담자1 : 사람이 들어가면 한 배 반되게요?

구술자 : 한 두 배 반이야 우리가 내려가는 그, 층계를 내려가는 거지. 한 배 반 밖에  
안 된 다고.

면담자1 : 들어가면서 바로 내려가는데. 네. 1층?

구술자 : 그렇죠. 1층. 더 이상은 못 들어가 봤으니까, 안 들어가 봤으니까.

면담자1 : 아 내부는 잘 모르시고요.

구술자 : 그렇죠. 내부는 잘 모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면담자1 : 뭐 조명해놓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쓰는 게 아니니까.

구술자 : 그건 없었죠. 그런 건 하나도 없었죠.

참고인 ; 다음 주에 만날 박의양 아저씨가 위치는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구술자 : 예. 의양이가 위치는 정확히 알거예요. 그 애는 왜 그러냐면 반장을 하면선  
곳곳이 다 그래도 다녔거든.

참고인 : 통신대

구술자 : 통신대 저 기계 뭐. 전화 이상 있으면 여기도 맘대로 들어가서 다. 뭐든 맘대  
로 물어볼 수 있고 뭐 하니까. 의양이는 그래서 자세히 아는 거야.

면담자1 : 어르신을 출퇴근하는 그 길에서 그냥 잠깐 다른 데를 보신 거고?

구술자 : 네. 그렇죠.

면담자1 : 소문으로만 서너 군데 여기저기 지하시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들으신 거네  
요?

구술자 : 네, 네. 그렇죠.

면담자1 : 지금 저기 들어가 보시면 어디쯤이다 하는 거 아시겠어요?

구술자 : 들어가서 보면 대충 좀 알죠.

면담자1 : 여기다 하고, 내가 들어갔던 데다, 하고.

구술자 : 네. 들어갔던 데는 확실히 알고.

면담자1 : 거기를 그때 안 들어가 보셨지만, 지금 만약에 가서 여기가 굴 자리인데 여  
기가 지하시설 자리인데 이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놓을까? 누가 그렇게  
얘길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를.

구술자 : 그리 가서 좀. 해 놓으면 만약에 그래도 와서들 보겠죠. 거기다 해 놓으면. 기  
념으로다 그때 당시에 참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겠죠,  
서로들. 여기를 개발 잘만 해 놓으면 관광코스도 될 거 아니에요.

면담자1 : 아, 관광코스요.

구술자 : 네, 관광코스보다가.

면담자2 : 혹시 현재 부평공원 위치에 그쪽에도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았던  
지,

구술자 : 아, 여기에요?

면담자2 : 부평공원이요.

구술자 : 아, 여기 부평공원.

면담자2 : 아니 그 밑에요. 신촌 옆에 부평공원.

참고인 : 여기가 부평공원이거든요?

구술자 : 아, 여기. 여기는 지금, 여기서 여기로 있냈는 데 난 몰라. 지금, 현재는.

참고인 : 여기도 덮어놓은 게 있어요. 그 지하터널 입구.

구술자 : 덮었구나.

면담자2 :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으셨던 게 있나요?

구술자 : 여기 뒤에 건물 하나가 여기로 통했다는 얘긴 들었어요. 근데 어딘지 모르지.

면담자1 : 어디예요? 어디하고 통해요?

구술자 :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아스팔트 길 아니에요. 도로, 지금 현재 차 다니는  
도로 거기 건너서 왔다 갔다 하는 굴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다니까. 그런데  
내가 확인은 못 해봤지. 뚫렸다 그러더라도 지금도 그러는지 하여튼. 뚫려는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사용은 안하니까 막아버렸다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면담자3 : 굴포천이 흐르는 곳인데 그 밑을 뚫은 건가요?

참고인 : 그렇죠. 그건 만든 거니까.

구술자 : 만들었으니까 그리 해. 예전엔 만들은 거니까 밑창에 깊이 뭐, 저거 하면은  
충분히 뚫리거든요.

면담자1 : 천 밑으로요?

참고인 : 이거는 조병창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판 하천이에요. 일부러 판. 하천이라  
는 게 곱게 두부모 짜르듯이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이것이 노인네들이 요  
하천이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서 산곡천하고 만났다, 제가 보기엔 여기로 보

거든요. 그 다음에 산곡천도 이렇게 해서 3보급단 쪽에서 나오지만, 이쪽에서 산곡남중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고.

면담자2 : 그럼 미군들이 그런 지하시설을 만들 일은,

구술자 : 개들이 만들 일은 없고요. 개들이 위에다 뭐 좀 했지, 아래쪽에는 안 건 걸로 알고 있어요, 난.

면담자1 : 땅 밑으로는요. 땅 위에는 그러면 새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구술자 : 지었다 헐고, 지었다 지어서 뭐 하고. 막사도 좀 뭐 하고 했죠. 왜냐면 이쪽에 해가지고 정문이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 여 쪽에 원래 2층으로다 막사 지었다가 사병 막사 지었다가. 아마 헐었을 거예요. 벽돌로다가 짓고 그랬는데. 보로 벽돌로.

면담자1 : 옛날 건물은 헐기도 하고요?

구술자 : 아니요 그런 건 안 헐고. 그때 공터로 되어있는 거 2층으로다. 벽돌 보로 벽돌 이렇게 큰 거 있잖아, 4인치 짜리. 그걸로다 지었다고 여기다가. 여기, 여기.

면담자1 : 옛날 건물 헐지는 않고,

구술자 : 않고.

면담자1 : 공터에다 새로 건물을 지었다,

구술자 : 개들은 웬만하면 건물 안 허물고 그냥 써요. 그리고 뭐냐면 지들이 건물을 짓거나 저 뭐 하면 수리해서 쓰지, 허는 건 없어. 별로 허는 건 없어요. 개들이 그래서 새로 짓는 것보담 오래된 건물을 개들은 더 비싸. 개들이. 수리하는 걸 참 뭐 계산서 떼어서 보관해서 그걸 값 쳐서 받는다고. 개들은 그래요 원래.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옛날 걸 좋아하잖아. 개들은 그래. 오래된 걸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지금.

면담자1 : 2003년에 퇴직하시고 여기 다시 들어가 보셨어요?

구술자 : 여기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려고 하지 않았고 들어갈 생각도 안했고. 뭐. 들어가려면 패스를 다시 내야했는데 남들은 안내주거든요.

면담자1 : 네. 그게 어려워서.

구술자 : 네. 그게 뭐냐면, 패스는 그, 하는 걸 전부 반납시켰거든. 우리는 그만두면 패스를 전부 반납해야 돼요. 차량 출입증이나 뭐 그런 거 있는 거를 전부 반납하고 나와요.

면담자1 : 그러면 그만두고 10년 후에 2013년에 기자 간담회 하셨잖아요. 기억하세요?

구술자 : 네.

면담자1 : 그때 무슨 말씀 하셨는지 혹시 생각나세요?

구술자 : 별로, 그런 별로 무슨 말을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이상으로 뭐 딱 건 없는 것 같애.

면담자2 : 그때 당시 기자간담회는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구술자 : 묻는 대로 그냥 답변 한 거죠.

면담자2 : 시청에서 먼저 연락이?

면담자1 : 그때 주로 그러면, 지하시설에 대해 말씀을,

참고인 : [오디오 물림] 위치 비정을 좀 해 달라, 그래가지고. 요 자체에서 빨간 페인트로 해가지고 위치를 동그라미 칠을 박의양 할아버님이 요기요기 여섯 군데를 찍어 주시더라고요.

구술자 : 박의양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해줬을 거예요, 그 당시에.

면담자1 : 위치 찾느라. 위치가 여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느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저희가 어딘지 모르니까.

참고인 : 그리고 사령관실 앞에도 하나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퇴직하기 직전에 한미 합동으로 지하시설물 합동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구술자 : 그때 조사했다 소리 들렸는데.

참고인 : 그것을 6개월이요?

구술자 : 글썄. 한미 합동으로다가 해가지고.

참고인 :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면담자1 : 15년 전이에요?

참고인 : 한 20년 되었죠.

구술자 : 오래 되었지.

참고인 : 그때가 2013년이니까, 15년 전이라니까. 퇴직하기 직전에 그렇게. 미국에서 미군 누가 돈 대고 한국에서. 지하조사. 지하시설물 조사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

면담자2 : 2013년에 10년 전이니까 2003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담자1 : 네. 2003년에 퇴직하셨는데 그 이전에 한 걸 보셨다는 거니까. 직전이 되는 거죠.

면담자2 : 선생님 저희가 이번에 부영공원, 그러니까 DRMO랑 부영공원이랑 현재 남아 있는 캠프마켓 만나는 모서리 점이 있거든요.

구술자 : 여기요?

면담자2 : 네 그 모서리 점에 들어가는 지하시설을 한 번 갔다 왔어요. 들어가 보니까 나름 규모도 좀 컸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거든요.

구술자 : 그래요. 콘크리트.

면담자2 : 네. 그 시설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는 저희가 모르는데요.

구술자 : 모르죠.

면담자2 : 그래서 오늘 가장 궁금했던 거는 미군기지 근무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정

문 옆에 한 개 있었고, 미군기지 본부 건물 옆에 한 개 있었고.

구술자 : 그리고,

참고인 : 여기,

구술자 : 거기 있지. 근데 여기에 보면, 그전에 이제 뭐냐면, 여기서 금을 파느니 뭐니 그랬단 말이야. 그때 당시 의양이고 다 근무할 적에 여기쯤에 그것 때문에 파봤고.

참고인 : 통신대 창고 뒤에요.

구술자 : 어, 어. 파봤고. 여기 파봤고. 왜냐하면 여기 인쇄소이니까.

참고인 : 바로 보셨겠고.

구술자 : 여기 바로 보이니까 여기 쯤 했고. 그리고 여기인가 안에 인가 여기 파면 지하에 병커가 나온다고 소리를 들었어, 여기서. 여기서 판다고 여길 뚫었거든. 근데 지하 병커가 나왔다 그랬단 말이야.

참고인 : 그럼 물이 솟아오르고.

구술자 : 아니 물보다도, 지하 통로, 그거 저 하는 거 이게 나온 거라, 여기. 건물 안에서 파니까 그게 나왔다 그랬거든.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일 거야 아마 요거. 인쇄소가 요거니까.

면담자1 : 인쇄소 옆에, 옆에 건물 밑에서요.

구술자 : 네. 그때 뭐 좀 캔다고 용써서 내가 하루 맡아가지고, 나가서 뚫은 일이 있었어요.

면담자1 : 네. 그때 전부 다 조사할 때요.

구술자 : 아니 좀 뭐 한 사람이, 일본놈들이 나가면서 뭘 하나 거기다 했다 그래가지고.

면담자1 : 물어봤다고.

구술자 : 네. 그래가지고서는 허가 맡아가지고 와서 몇 군데 다니면서 뚫어봤다고. 근데 여기서 그것이 있다고 소리를 들었다고, 내가.

면담자1 : 그래서 뭔가 찾았대요?

구술자 : 못 찾았죠. 그때 당시에.

면담자1 : 아, 못 찾았어요? 지하가 뚫려 있는 것만 확인했네요?

구술자 : 그렇죠. 그것만 나온 걸로 알고 있지. 일본 놈들이 나가면서 거길 뭘 파묻어 놓고서 한국 사람들은 몽땅 시켜놓고 묻어라 해서 갖다 놓으면 폭발시키고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면담자1 : 폭발을 시켰다고요?

구술자 : 예. 그래서.

면담자1 : 그러니까 지하 시설이 건물 아래에도 있고 건물 바깥에, 땅 쪽에도.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1 : 거기에도 있고, 지금의 정문 있는 옆 쪽에도 있고 그렇네요? 어르신 보신 그  
지하시설은 이렇게 반듯하게 콘크리트로,

구술자 : 네, 네. 콘크리트. 이렇게 되어 있죠.

면담자1 : 동굴처럼 이렇게, 돔으로 된 거 아니지요?

구술자 : 네, 네. 그렇게 동굴처럼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죠.

면담자1 : 지금 아까 김규혁 선생이 얘기한 데도 부영공원 있는 데도 이렇게 생겼거든  
요. 거기 사진이에요. 네. 거기하고 비슷한가 해서,

구술자 : 그렇죠. 네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면담자2 : 호기심 때문에 내려가신 건 맞는데 보안이나 미군들의 눈치 때문에 더 깊숙  
이 들어가시지는 않았고.

구술자 : 들어가진 않았죠. 그때 뭐냐면, 불도 캄캄하고 거기까지 안에 들어가서 여기  
뭔가 하고 문이 있으니, 열렸으니 잠깐 보고 얼른 들어갔다 보고서. 아유, 이  
거 굴이라 이려고서 달고 나온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깐 지하시설 거  
일본 놈들이 파냈다고 그러더라고 전부. 그래가지고서 연안부두인가 거기까  
지 연결이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들. 그래서 그걸 아는 거지  
뭐, 아나?

면담자2 : 혹시 부평역으로 뚫렸다, 이런 얘기는 따로,

구술자 : 그건 못 들어봤어요. 부평역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참고인 : 그 정문 옆에 경비소 뒤에, 출입증 바꾸는 데요. 박의양 아저씨 말로는 들어  
가면 물이 차서,

구술자 : 물이 차서 못 들어간다 했잖아.

참고인 : 무릎까지는 들어가 봤다. 레일이 노는 거 봤다. 말씀은 하셨거든요? 거기 같  
이는 안 들어가셨어요?

구술자 : 그건 같이는 안 들어갔지.

참고인 : 박씨 아저씨만?

구술자 : 그렇지 뭐.

참고인 : 그리고 또 우리 그 클럽 앞에 파킹 포인트인데요. 앞이 사령관 막사고 옆에  
소방서거든요. 그 사령관 막사 앞에도 지하호가 있다,

구술자 : 그쪽에도 뭐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렇지. 몇 군데가 있  
을 거라고, 그게 지금 다. 근데 덮어 놓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오래 되었으  
니까.

면담자3 : 저는 지하호 말고. 어르신이 75년도에 근무하셨다 그랬죠?

구술자 : 76년 4월.

면담자3 : 76년도. 76년도면은 에스컴이 많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난 다음이었겠네  
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3 : 그러면은 어르신 혹시 동아아파트 쪽에 거기에도 옛날에 조병창 건물이 잔뜩 있었는데. 어르신이 들어간 76년도에는 여기 건물들 없었어요?

구술자 : 없어. 없었어. 나중에 지은 거죠 이게.

참고인 : 동아건설에서 매입할 시기.

면담자3 : 아 그 시기였구나. 바로 여기 부렸겠네요. 그때는.

구술자 : 그렇죠. 네.

면담자3 : 네, 알겠습니다.

참고인 : 그리고 여기에 주안장로교회거든요. 철로가 이렇게 가는 철로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철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철로가 있어요. 90년대까지 여기에 역전이라고 대포가 나오고,

구술자 : 그렇죠, 그렇죠. 다 나왔다고 그랬어요.

참고인 : 그래서 인천시립박물관에 기증하고. 근데 저희들도 이만큼 주워서 갖다 주려는, 서울 청계천인가 거기서 와가지고 5백 원짜리 지폐. 처음 봤어요. 여기에 많이 있었어.

구술자 : 거기서 많이 나왔다고 그랬어, 그때.

참고인 : 아마 트럭, 몇 트럭 나왔을거예요. 지금도 여기 파보며는 주차장 자리에 있을 거다.

구술자 : ‘있을 거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가 뭐냐면, 여기에 주물공장이 있었잖아. 여기 굴뚝 두 개. 그러니까 동전이요 뭐든 거 다 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여기서 무기 만드느라 주물을, 자기가 녹여가지고 전부 모았던 거라 말이야. 그것들이.

참고인 : 제가 보기에 이걸 빵공장인데요. 그럼 빵공장 생기기 전에 여기 먼저 있었던 거네요, 굴뚝 있는데.

구술자 : 그렇지.

참고인 : 그러면 이게 나중에. 55년도까진 안 보이더라고요. 빵공장이.

면담자1 : 빵공장 건물이요?

참고인 : 예. 여기 기찻길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빵공장이 없고 요게, 그래서 이 빵공장을 산곡남중학교가 1빵공장이라는 거예요. 거긴 6.25때 폭격 맞은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빵공장, 케익을 위주로 만들었고 여긴 식빵이나 햄버거 빵 같은 거 위주로 만든. 그 전에 바로 쓰던 게,

구술자 : 여기, 여기 있었어.

참고인 : 이게 지금 막사, 보일러실로 쓰고 있거든요. 보일러실로 쓰고 있고, 여기가 냉장고. 요게 냉장고 아냐? 매트릭스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구술자 : 냉장고, 매트리스하고 개네들이 같이 관리했거든.

참고인 : 그래서 여기에,

구술자 : 박씨라는 사람이 이것하고 이쪽 그것하고 관리하면서 이쪽 뒤에 와가지고 여  
권도 다 했던 말이야.

(잠시 사담이 이어짐.)

참고인 : 그리고 여기 이쪽 기차길이 꺾어지는 기차 진입로가 있거든요? 담벼락에 꺾  
어진다고 그랬어요. 기차가 바로 들어오더라고.

구술자 : 그렇지.

참고인 : 기차가 들어오고, 또 여기도 이렇게 꺾어지면 이렇게도, 여기 큰 건물이 있죠.  
큰 건물로 기차가 이렇게 들어와요.

면담자1 : 건물 안쪽으로요?

참고인 : 아니 이 옆에 길로.

구술자 : 옆에 길.

면담자1 : 건물 옆으로요.

참고인 : 네. 그래서 이 큰 건물 위주로 다 기차선이 연결이 돼요.

구술자 : 연결이 돼요, 다.

면담자1 : 그건 언제 연결이 되었을까요.

구술자 : 이거 연결이 된 거는 그때 당시에,

참고인 : 60년대 초 중반까진 다 연결이 되었어요.

구술자 : 아 그때 당시에, 그래 당시에.

면담자2 : 그럼 미군이 추가로 필요에 의해서 더 선로를 증설 한 거네요.

참고인 : 그건 미군이,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가 지금 부평공원인데 홍중상공 공  
장이라 그러거든요. 히로나카 공장인데 애네들이, 이 경원로가 없었어요. 이  
뒷길로 해서 다녔는데 여기 있던 분선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 기차길이 공원  
까지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구술자 :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는 이 길로다가 다녔지.

참고인 : 그리고 이 조병창이 만들어지면서 이 경원로, 지금.

구술자 : 그렇지. 경인선에, 경인선에 생긴 거지.

참고인 : 그게 산을 깎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도 부평1동이 산이었어요. 서초  
등학교 있는 데 까지. 그래서 어렸을 때 썰매 타던, 눈썰매 타던. 눈 오면 서  
초등학교 한 4, 5백 미터 쪽 타고 내려오고.

면담자2 : 나지막한 동산이었네요.

참고인 : 네, 동산.

구술자 : 그렇죠, 동산이었죠.

참고인 : 그래서 이게 방공, 대한극장 지금 있는 자리가, 방공, 한국군 방공포대가 있어요. 포대가 있고 거기에 북인천우체국도 절개지가 사진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73년으로서 애스컴시티가 해체되면서 캠프마켓 담벼락이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갔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여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찰라 먹고. 여기가 포로수용소 자리. 이 건물. 이 건물 1층, 2층. 2층이거든요, 굴뚝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건물 바로, 이게 헬기장.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저씨는 그때 들어오시면 75년도 76년도면은,

구술자 : 6년도니까, 나는.

참고인 : 그때는 애스컴이 해체된 다음이니까,

구술자 : 없어졌지.

참고인 : 여기가 방공포대. 여기가 공수부대.

구술자 : 공수부대는 있었어.

참고인 : 여기가 반공 포대. 아마 인천 월미도에 사령부가 있고 여긴 중대 정도. 이쪽에 한국군 정비대가 있었어요, 조그맣게. 정비 중대? 여기가, 여 자리가 176 정비대대가 있었어요. 미군 애들. 그리고 여기, 아저씨 여기 기억나세요? 이 건물인지 저 건물인지 전 기억을 못하는데, 1층에는 다 창문을 빨간 벽돌로 쌓아놨어. 못 들어가게. 출입문만 하나 남겨놨더라고. 2층은 창문이 뚫렸는데. 그거가 무기고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구술자 : 무기고는.

참고인 : 그러니까 M16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놓던데. 여긴가 난 이게 술 창고여서 그런가 하고.

구술자 : 그건 술 창고야, 술 창고.

참고인 : 술창고. 그러면 무기고는 이쪽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하우스처럼 되어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통신장비나 컴퓨터 같은 거 파쇄 하던 게 여기였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술자 : 그게 여기가 케알이, 저기니까.

참고인 : 케알이라는 건 코리아 뭐, 알. 뭐 재생, 보급.

구술자 : 보급 저 뭐.

참고인 : 케이알은 전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케이알.

면담자2 : 아까 케알이 말씀하신 게 케이알?

참고인 : 케이알, K, R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좀 의문점이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선 잘 모르니깐.

구술자 : 그렇게만 듣는 거지.

참고인 : 그리고 이 시설. 야구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수영장이 있고 바비큐장이 있

고 농구장이 있고 그런데. 여기 시누쿠가 가끔 뜨더라고.

구술자 : 그거 헬기장이고.

참고인 : 여기 체육관인가요?

구술자 : 체육관.

참고인 : 그리고 여기가 사령부 본부. 그다음 여기 인쇄소, 그다음 종이창고.

구술자 : 창고.

참고인 : 여기가 술 창고. 그럼 여기는 뭘 많이 쓰던, 여기 보니까 침대인가, 아까 말씀 하신.

구술자 : 이진 침대. 여긴 병원 했던 데가 여기고.

참고인 : 완투완(원투원)병원, 레크리에이션, 취미센터.

구술자 : 어, 그거 하던 데고. 여긴 가구 창고. 가구 창고 여기다 다 갖다 놨다고, 여기 다가. 아, 요거 가구 창고 아니고 저거다. 여기서 뭘 썼냐면, 무슨 차를 신청 해가지고 개발했어.

참고인 : 차요?

구술자 : 차. 되게 트럭 같은 거 실러 나오면 미국서 차 나오는 거, 여기서 신청해서 각 부대로다 신청했어, 여기가. 여기가 가구창고고.

참고인 : 그 옆에가요.

구술자 : 어, 요거. 요게 그거야. 요것이 이런 건물이 아니고 세멘 벽돌인가, 그거지 뭐. 큰 건물이야. 그거.

면담자1 : 신촌에서 출발해서 1번 게이트가 이 쪽이예요? 여기요. 그러면 이 길로 출 근하신 게 언제까지인가요? 1번 게이트,

구술자 : 여기서 한 것이 언제 막았던지. 기억을 못 해.

참고인 : 구십 (오년도)

면담자1 : 95년이요.

참고인 : 2년서부터 5년 사이. 그때 구청하고 저기 해서 528일간인가 며칠 간 미군부 대 반환 운동을 했었어요. 최용규 구청장 있었을 때 반환운동 해가지고 이것 을 폐쇄시키고 이쪽으로 정문으로 해요. 그게 95년도 전 후 일거예요.

면담자1 : 그러면 95년부터는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가셨네요?

구술자 : 여기로 들어갔죠. 여기로.

면담자1 : 여기에 거기 말고는 다른 통로는 없었나요? 지금 없나요, 이용하고 있는 게?

구술자 : 여기 통로하고 여기는, 케알이라는덴 이쪽 통로가 있었죠, 이쪽에.

참고인 : 빵공장.

구술자 : 네, 네. 이쪽으로 들어갔나?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참고인 : 지금도 그 통로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DRMO 통로.

구술자 : 뒤로다 되어 있고.

참고인 : 여기가 지금 한화아파트거든요? 여기가요, 빨간 지붕이. 비행장이 여기서부터 있었어요. 운동장 있죠. 그다음에 2비행장이 이쪽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활주로요, 활주로. 여기가 국산자동차 추정 위치. 여기가 간장 공장. 그 다음에 여기가 전남방직. 여기가 한화, 그러니까 한국베어링. 한국베어링도 늦게 들어왔고. 국산자동차가 여기라 그러는데, 그리고 저번에 말씀들은 포로수용소가요. 요게 포로수용소. 아 포로수용소가 아니라 형무소. 그 작년에 이 교수님이 쓰신 책자 보니까 구술자료 보면 어르신들이,

면답자1 : 형무소가 있었다.

참고인 : 형무소 자리. 저는 여기서 자주 찾았거든요, 여기 사진. 그 분들이 하기를 이쪽으로 쪽 가면 여기는 장고개길이거든요, 이렇게 기차 다니는 데요, 이렇게 나가는데. 이번에 정확히 하다보니까는 현대컨소시엄에서 했는데, 당시에 “수도가 몇 밀리가 나왔어?” 했는데 7백밀리가 나왔대요. 7백밀리. 아니 내가 알기로 5백밀리 주철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7백밀리가 나왔대요. “그거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뻔하죠 저 산까지 파이프, 수도관을 넘길려면 동초등학교 있는데서 펌프를 틀던, 모터펌프를 틀면 이렇게 좁아져야 그 압력에 의해서 소방수처럼 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런 원리가 아닌가. 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 길이 제가 보기에 그 원통고갯길. 인천으로 가는 옛, 경인로길보다 더 오래된 길로 추정을 해요. 원통고갯길은 1883년도에 경인, 인천항이 개항되고 길을 만든 것. 많이 이용했는데 4미터짜리, 2미터짜리 길이래요. 근데 여기는 4미터짜리. 1886년도 때부터 해가지고 9년도, 10년도까지 해서 길이 났는데 옛날서부터 부평에 농산물, 김포 강화 계양 이 농산물 넘어가서 번지기 나루터. 바로 건너가면은 송림동 시장이다 이거예요. 거기 채미전 있죠? 배다리 밑에. 거기까지 바로 간다 이거야. 그래서 그 길이 어른들 얘기론 더 오래 되었다. 그러면서 조병창이 들어서면서 이 길 끝나는데, 3보급단이 있는데, 그 옆에 조병창 기능공양성소 자리. 지금 507여단 자리.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왜 거기다, 미군부대 안인데 왜 저기 있을까, 그랬더니 기능공양성소. 바로 옆에가 영단주택. 여기서 2, 3백미터 떨어진 데.

면답자1 : 네, 네.

면답자2 : 미군기지 위치가 나오면서 궁금했던 게 원투원 병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조병창 본부로 보이는 H자 모양 그 건물은 어떤 걸로 쓰였는지. 이 건물.

면답자1 : 하얀 건물이요.

참고인 : 이건 아저씨는 모르실 거예요. 이 건물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이제, 서전트 막사.

구술자 : 이거는 내가 보지 못했던 건물이지.

참고인 : 흔적은 남아 있어요. 가서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지하호가 있어요. 지하호. 이 뒤에 건물. 그리고 이 건물에 난 이 건물이 운동장이 있냐, 트럭이. 이게 부평공원이에요. 담벼락이 있어서 길이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아 나중에 늦게야 안 건데 부평공원자리다. 담벼락 뒤가 경인, 경원로다. 그렇게 알고.

면담자2 : 원투원병원은요?

참고인 : 완투완병원은 여기가, 2001아울렛 아시죠? 이 정도.

면담자2 : 그럼 지금 캠프마켓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었구나.

참고인 : 네, 바깥에. 그리고 여기가 모터풀. 완투완 모터풀. 여기가 8번 게이트, 7번 게이트예요. 7번 게이트에서 이쪽으로 가면 기차길이 또 나와요. 제의무보급창, 6의무보급창.

구술자 : 아주 옛날된 일인데, 뭐.

참고인 : 그 건물이 그 앞에 총 세 개 108동. 백, 십 몇 동, 십 몇 동 이 세 건물이 그 대로 지도상에 나와요. 그 지도에도 있어요. 그리고 요게 8번 게이트 7번 게이트. 그래서 홍수환 어머니가 여기서 함박집을 해요. 카투사 38보충대. 우리가 어렸을 때는, 홍수환이가 72년도에 세계 챔피언 되거든요? 두 달 전에 평택으로 이사 가요. 그래서 이 길을 홍수환 로드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근데 애네는 펜실베니아 에버뉴. 요거를 세크라멘토 에버뉴. 아, 세크라멘토 스트리트. 그 다음에 화랑 여기서 신촌 4거리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을 일리노이 에버뉴.

구술자 : 고개 넘는거.

참고인 : 아까도 그 김춘식씨, “이 은행나무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 오년 자꾸 방송에선 이백년이라 그러는데, 105년.” 저번에 한 번 거기서도, OBS에서도 150년, 200년 했는데, 105년.

면담자2 : 아 거기 막사 앞에 있는 큰 거요?

참고인 :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어른들한테 자꾸 형무소 저기 시체안치소 물어봤더니, 이쪽 정문 1번 게이트 정문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한 30미터, 20미터. 여기. 그 다음에 요것이 서전트, 하사관들 숙소. 요것이 EM 막사. 지금 병들이 없거든요. 병들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구술자 : 여기서, 저기서 뭐야, 그. PX마냥 뭐 사 먹고 물건 팔고 여기서 그렇게 했다고.

참고인 : 식당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데.

구술자 : 저기서 전부 저기서.

참고인 : 여기 있던 건물 뒤에, 지하호가 있더라고. 하다가 들어가서, 그다음에 못 들어가 봤어요.

면담자2 : 지금도 저기 서전트 막사라 불리는 건물 뒤에 입구가 있는 거예요?

참고인 : 있어요. 있어요, 저기. 저기 입구 확인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평역인 데요. 부평역인데 여기가 동암역이에요. 기차길 보이죠. 기차길이 여기까지 와요. 큰 건물 하나, 둘, 셋이 있어요. 그 다음이 7번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거꾸로 놓으면 7번. 여기까지 의무보급창이고 완투완 병원이 어디냐면 요거 야. 요기 언덕진 데고, 요 뒤에가 스낵바 있고 극장이 있고 재무중대 있고 바로 입구에 대정초등학교 자리. 언덕졌어요, 앞에. 부영공원 앞에. 여기 보충대 건물 있는 데. 여기도 일부 동아아파트 있는 데, 굴포천 있는 데에 막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사령부. 애스컴 사령부. 여기 나중에 캠프마켓 사령부가 되는데 애스컴이 해체되면서 이쪽으로 이사 오는 거죠. 그게 73년도 6월 30일이 중요한 거거든요.

구술자 : 아주 오래된 거 같아 보여.

참고인 : 여기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만들어진 지도.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또 정확히 대면, 우리 역사박물관에 이거보다 더 큰 지도가 있어요.

면담자3 : 아, 예. 있어요.

참고인 : 예. 큰 지도가 있는데 그걸, 나도 안 보이는 길이, 빔 프로젝트 120인치 사서 봤더니 길이 다 보이더라고요. 장고개길이고 뭐 김포 가는 길. 다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길이 있죠, 이렇게. 이게 수도국길이에요. 수도국길. 이게 노량진 정수장에서 여기서 동초등학교 뒤에 펌프장 있어서 그 압력으로 올라가요. 근데 애네들이 왜, 이게 1906년서부터 10년도. 지금도 3보급단에 수도가 묻혀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조사해 볼 만 하고요.

면담자3 : 네, 맞아요. GM공장 만들 때 수도관을 거기 통과시키더라고요.

면담자1 : 조병창 안으로 지나가는 거네요.

참고인 : 그렇죠. 그 길이, 관리를 하려니까 4미터짜리 길이. 약대동까지 가요. 직선으로. 그리고 6.25때 9월 15일날 인천상륙작전 해가지고 5연대, 미 5연대가 경인로로 가고, 일부 1대대인가 2대대인가 이리로 해서 김포공항으로 진격해요. 이걸 확실한. 고증 자료도 있고. 요게 수도국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시장. 일본애들, 강점기 때, 한국인 시장. 여기 다 눈발이었던거거든요, 이 뒤로. 그 다음에 여기가 일본인 시장. 그 다음에 여기에, 동지마을인데 안병원이, 지금 세림병원이 여기 있어요. 가끔 소 등에 이렇게 탱크로리 거 있죠. 그게 가스 탱크인지 무슨 탱크인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암모니아 가스 탱크라 그러더라고. 근데 일제시대 때 암모니아를 뒤에 쓰느라고 암모니아를 탱크를 그렇게 크게 지었을까. 지금도 궁금해요. 암모니아가 뒤에 쓰는지. 내가 그 얘기를 어른들에게 계속 제가 묻고 다니고 있거든요.

면담자2 :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번 해볼게요. 지하시설 보신 위치가 여기 정문 들어가서 어디쯤이셨어요?

구술자 : 정문에서 여기 뒤에쯤, 여기쯤 어딘가, 여기쯤 되었을 거예요.

면담자2 : 이쯤이요?

구술자 : 네. 이쯤 어디 되었을 거예요.

면담자2 : 거기 하나. 또 한 개는.

구술자 : 여기 어디쯤 있을 거예요.

면담자2 : 아까 건물 파다가,

구술자 : 건물 파는 건 아마 여기일 거예요. 여기, 여기쯤 있을 거예요.

면담자1 : 들어가 보셨다는 곳이,

구술자 : 여기, 내가 여기를 들어가 본 거예요.

면담자1 : 정문 옆에, 옆에 건물 그 사이네요?

구술자 : 네.

면담자2 : 인쇄소 건물이,

구술자 : 이거.

면담자2 : 이거였고. 이거 옆에, 옆에 건물이요?

구술자 : 이쪽, 이쪽.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쪽이고.

면담자2 : 이쪽이요.

구술자 : 네. 저기. 여기서 정문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면담자2 : 가는 길에 이제, 보신 거고. 통신, 아니 인쇄소 가는 길에 보신 거고.

구술자 : 네.

면담자2 : 또 한 개는 여기 막사 뒤에.

구술자 : 막사 뒤.

면담자2 : 그럼 총 네 군대를 보신 거네요?

면담자1 : 거기 있다고 말씀을 들은 거죠? 직접 들어가 보신 데는 한군데고.

구술자 : 예. 그건 들어가 본 적은, 않았고.

면담자2 : 여기만 들어가 보신 거고 나머진 다 들어보신 거고요.

면담자1 : 네 오늘 부영공원에 있는 지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서 그 주변의 캠프마켓에도 지하시설이 많이 있을 테고,

구술자 : 그렇죠, 예.

면담자1 : 그것과 이 부영공원에 있는 시설이 다 연결이 될 거다, 연관이 있을 거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어르신 모셔서 말씀 들었어요. 지금 굉장히 오시기 어려운 시절인데 오셔서 길게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술자 : 예, 예. 뭐 좀 자세히 더 잘 알았으면 알려드리는 건데.

면담자1 : 다음에도 생각나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오랜 시간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술자 : 네, 감사합니다.

면담자1 :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면담자2 : 감사합니다.

<이상 끝>

**부영공원 지하시설 콘텐츠 발굴프로젝트  
기초조사 보고서**

**부영공원 지하시설 관련 구술**

**부록 : 인천육군조병창 지하시설  
관련 구술**

## 목 차

인천육군조병창 지하시설 관련 구술 개요	156
윤용관, 지하 벙커에서 총검을 검사하다	158
지영례, 방공훈련 중 방공호로 환자를 옮기다	170
유만종, 넓고 밝았던 굴을 회상하다	176
최덕원, 지하공장에서 무기를 만들었다고 듣다	179
왕명근, 무기를 저장한 지하창고로 공습을 피해 들어가다	183
김상현, 공장 부근마다 구덩이를 파두다	186
김학수, 방공호에서의 휴식이 그리워 사이렌 소리를 기다리다	188
오상기, 조병창 시설을 옮기려는 굴착작업을 관리하다	190
전진수, 부평 야산에 진지를 구축하던 일본군을 보조하다	199

## 인천육군조병창 지하시설 관련 구술 개요

다음은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부평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부영공원 지하시설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결과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할 내용이다. 이 내용은 본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가 2017년, 일제 강점기에 ‘인천육군조병창’으로 강제동원되었던 노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구술면담 작업의 결과물이다. 결과물의 대부분이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2019, 국사편찬위원회)에 수록되어 있지만, ‘부영공원 지하시설’에 관한 본 프로젝트에 맞추어 지하시설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새로 편집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총 9명의 구술 내용을 수록하는데, 그 중 7명은 인천조병창 영역 내부로 동원된 경우이고, 2명은 조병창을 옮기고 확장하기 위해 작업을 하였던 조병창 외부로 동원된 경우이다. 구술자 별 면담 일정과 장소, 동석자 등 면담 환경은 다음과 같다.

### <구술자 별 면담 일정과 장소, 동석자>

윤용관 1회차 2017년 8월 3일, 전북 익산시 자택, 김현석  
지영례 1회차 2017년 7월 25일, 인천시 동구 자택 주변 서점, 머느리 이영애, 장희숙  
유만중 1회차 2017년 7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자택 주변 카페, 딸 유선영  
최덕원 1회차 2017년 8월 9일, 서울시 광진구 자녀택  
최덕원 2회차 2017년 8월 23일, 충남 보령시 자택  
왕명근 1회차 2017년 8월 3일, 전북 익산시 자택, 김현석  
김상현 1회차 2017년 7월 6일, 서울시 양천구 사무실  
김상현 2회차 2017년 7월 27일, 서울시 양천구 사무실  
김학수 1회차 2017년 7월 14일, 경기도 여주시 자택, 부인 민순기  
오상기 1회차 2017년 7월 19일, 경기도 과천시 자택 주변 카페, 김현석, 김규혁  
전진수 1회차 2017년 8월 1일, 서울시 서대문구 세미나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각 구술자의 인적사항과 동원 당시 상황, 조병창에서의 담당업무와 동원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구술자 별 인적사항과 동원 관련 내용

구술자 성명	출생 연도	동원 지역	동원 당시 학력	동원 기간	조병창 담당 업무	동원 관련 내용
윤용관	1929. 09.12	충남 공주	국민학교 5학년 재학	1944.05 ~1945.08	지하 검사계 에서 총검 완성품 검사	5학년 때 학교서 임원 2 명 동원. 작업 도중 옷이 올랐고 해방 후 한센병 발병
지영례	1928. 10.15	인천 부평	소화고녀 2학년 재학	1942.09 ~1945.08.15	병 원 ( 의 무 과) 서무과 근무	재학 중 '정신대' 동원을 피해 단체로 자퇴한 후 지원. 조병창 인근 거주
유만중	1927. 08.20	경기 김포	국민학교 졸	1945.03 ~1945.08.15	조병창 안에 서 기차 물 자 하역	경성전기 근무 중 재직 자 서류처리 미비로 징 용.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음.
최덕원	1927. 08.05	충남 보령	국 민 학 교 졸 (청년훈 련소 2년)	1943.01 ~1945.08.30	제2공장에서 장부 정리	경찰의 지원병 강요를 피해 군속으로 지원, 해 방 후 문서 소각 목격
왕명근	1927. 06.21	전북 익산	국민학교 졸	1942.03 ~1945.08.30	제2공장에서 단검두 제작	주변 권유로 돈 벌고자 지원. 선반기계에 엄지손 가락 일부 절단
김상현	1928. 02.25	강원 춘천	국민학교 고등과 졸	1944.04.01. ~1945.08.31	1공장 서무 과 작업반. 2 공 장 으 로 주물 배달	학교 졸업 직후 진학 대 신 8명이 함께 기능자양 성소 입소. 채병덕과 같 은 사무실에서 근무
김학수	1929. 01.24	경기 여주	국민학교 졸	1945.01 ~1945.08.15	철근, 목재 를 나르고 조병창 배수 로 공사	부친에게 영장이 나와 대신 징용. 형은 징병되 어 일본에 가 있었음.
오상기	1927. 12.13	서울 종로	동성상업학 교 졸	1945.06 ~1945.08.16	시미즈구미 (清水組)에 서 굴착작업 차트 관리	총독부 운수부 근무. 징 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일본인 수위와 다투자 영장 발부
전진수	1930. 02.05	경기 고양	경신중학교 2학년 재학	1945.07 ~1945.08.15	부평 산중터 터널 뚫는 현장서 돌을 나름.	학교에서 2학년 120명 단체동원. 일본 군인들과 방어진지 구축. 미쓰비시 사택 거주

## 윤용관, 지하 병커에서 총검을 검사하다

면담자 : 처음에 조병창으로 가는지는 모르셨네요?

구술자 : 몰랐죠. 처음에 어디 가는지는 모르고 무조건 하여튼 그리로 공주로 가가지고.

면담자 : 공주 어디요?

구술자 : 군청.

면담자 : 군청에 그림 두 분만 가셨어요?

구술자 : 둘이 가지. 가보니까 별 사람이 없더라고.

면담자 : 군청 앞에 몇 명쯤 모여 있었어요?

구술자 : 모르겠어. 한 여남은 됐나? 잘 모르겠어.

면담자 : 공주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

구술자 : 그거 다 학교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니까. 다 학생들이니까.

면담자 : 다 학생?

구술자 : 학생들이야.

면담자 : 그러면 5학년인데 국민학교 졸업을 안했잖아요?

구술자 : 못했죠. 못하고 그대로 왔죠.

면담자 : 졸업을 안했는데.

구술자 : 뽑혔어. 말하자면 강제로 뽑혀간 거야.

면담자 : 거의 다 그러면 그 나이 또래?

구술자 : 그렇지. 그 또래지 다.

면담자 : 군청에서 그러면.

구술자 : 거기서 군청에서 뽑아갔으니까 위에서 어디서 한 일인지까지는 우리가 모르지. 그때만 해도 부대에서 했는지, 군인이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군속이지 그러니까 군속으로 해서 뽑아간 거 같아. 우리 같은 (애들) 일 시키려고. 그래가지고 둘이 대전에서 둘이 뽑혀가지고 그때는 인천 백마장 조병창으로 직접 갔지요.

면담자 : 누가 데리고 갔어요.

구술자 : 그때 당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누가 와가지고 들어갔어요.

면담자 : 사람이 왔어요?

구술자 : 네. 와가지고 차출해가지고서.

면담자 : 군복 입고 있었나요? 아니면.

구술자 : 그걸 잘 모르겠어. 지금 기억이 안나요.

면담자 : 그럼 그 열댓 명 학생들이 같이.

구술자 : 예. 다 같이 갔죠.

면담자 : 공주 군청에서 기차 타러 갔나요?

구술자 : 기차 탔겠죠. 대전으로 가서.

면담자 : 대전으로? 대전까지는 걸어가요? 너무 멀지 않아요?

구술자 : 아니, 뭐야. 공주에서 태워가지고 갔으니까.

면담자 : 뭐를요?

구술자 : 공주에서 차로.

면담자 : 차타고 대전으로 가서 대전역에서 기차 타셨어요?

구술자 : 그렇죠. 그래가지고서는 뭐야 인천, 영등포에서 내려가지고.

면담자 : 영등포에서 내려서.

구술자 : 영등포 거기에서 그때 기차 탔나?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백마장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가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 학생들이.

면담자 : 아. 학생들이요?

구술자 : 순 학생들이지.

면담자 : 그때가 몇 월 쯤 될까요?

구술자 : 우리가 한 봄이니까. 4, 5월에 왔나 그때 쯤 될 거야.

면담자 : 4월, 5월 양력으로요?

구술자 : 양력으로.

면담자 : 그때 모내기 아직 안했을 때네요.

구술자 : 아직 안 했을 때죠. 그때 가가지고서 가가지곤 제일 처음에 한 것이 훈련을 시키더라고.

면담자 : 첫날?

구술자 : 처음에 가가지고 바로 입학한 뒤에. 조병창 창장, 창장이네 그러니까. 소장 이네 무슨. 이름은 모르겠고 고쓰비찌인가 뭐 하여튼 일본 놈이고 소장이고 그러더라고. 그 밑으로 그러니까 다 조수 놈들 군인들이예요. 그래서 몇 주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훈련을 계속 받았어요.

면담자 : 무슨 훈련을 받으셨어요?

구술자 : 막 운전시키고 하는데 그게 뭐 군인 만드는 그런 식으로.

면담자 : 군사훈련.

구술자 : 군사훈련 같은 거를 시키고 그렇게 공부도 가르치고 말이야.

면담자 : 학과공부도 가르치고요? 그럼 기술공부하셨나요?

구술자 : 예. 기술 공부를 내가 그때는 기술적인 그거로 갔지. 말하자면 가보니까 지하에 가서 뱅크가 있더라고. 지하뱅크. 지하뱅크.

면담자 : 지하 뱅커?

구술자 : 벙커. 거기에서 이틀테면 총, 말하자면 시험하는 데. 처음에 시험하는데.

면담자 : 시험하는 거? 다 만든 거?

구술자 : 나가나 안 나가나 그거 보는 거고. 또 칼도 만들었고 총칼을 거기서 만들더라고. 그 시기에 그러니까 나는 참 한참 막 저거할 때 아니에요. 그 당시 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들기만 만들면 나가는 거야. 뭐 불합격은 없어.

면담자 : 시험하는 게 역할인데 불합격이 없어요?

구술자 : 없어. 만들면 다 나가는 거야.

면담자 : 그냥 무조건 합격?

구술자 : 응. 그렇게 나가지. 내가 그때 검사실에 있었거든 거기? 그래가지고 학업 마치고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실습으로 들어가더라고.

면담자 : 그럼 얼마나 교육을 받으셨어요?

구술자 : 그때 하여간 솔찬히 했어요. 실습도 몇 개월간 했고 그래가지고 직접 막 거기 로 들어갔지.

면담자 : 지하 벙커로?

구술자 : 예. 거기 가가지고서.

면담자 : 훈련 하신 데하고 실습하신 데하고 다른 장소였어요?

구술자 : 틀리지. 건물이 틀리지.

면담자 : 건물이 다른 데였어요? 그럼 지하 벙커는 언제 가신 거예요?

구술자 : 그때 거기 그 안이 창장 내에 조병창 내에 가서 지하 벙커니 뭐니 다 있어.

면담자 : 지하 벙커가 넓었어요?

구술자 : 그렇게 넓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이틀테면 연습을 했으니까 총 만든 거 그런 거 시험해보고 나는 칼, 제대로 됐는가 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면담자 : 총 제대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봐요? 이게 총이면 어떻게 봐요?

구술자 : 그러니까 여기서 다 봐. 말하자면 이게 잘 만들었는지 들여다보고.

면담자 : 뭐로 합격!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술자 : 우리가 합격 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우리도 내보내. 그럼 자기들이 다 하는 거야.

면담자 : 그럼 만드시는 거예요?

구술자 : 우린 만드는 거 보기만 하고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거기서는 그 조사계로 있어, 검사계로 있으면서 거기 지하, 낮에는 거기 가서 하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됐거든?

면담자 : 낮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구술자 : 그 총대나 칼대에 거기는 나무가 재료로 붙잡아요. 그 나무에다 가서 그때는 옷칠을 다 했어. 옷칠.

면담자 : 총신에 옷칠을 했어요?

구술자 : 나무에다가 미끈미끈하라고 그 옷칠을 다 하더라고. 칼자루도 하고 총대도 하고 다 그걸 해. 그래가지고 그 한 대 한 대를 내가 검사하느라고 봤잖아.

면담자 : 그 옷칠한 거 이렇게 만지셨어요?

구술자 : 다 만졌지. 그게 내가 옷이 오르네. 옷이 올라서 아주 죽을 뻔 했어요. 이렇게 막 붓고 함지박만하게 붓더라고 얼굴이. 눈만 빠끔하고.

면담자 : 옷오르면 가려워요?

구술자 : 말도 못해. 이렇게 부어가지고서 말도 못하는데. 눈이 붓고 다 붓어서 이렇게 붓었으니까. 그래서 하얀 약을 발라주고.

면담자 : 하얀 약이요?

구술자 : 그걸 약이에요. 옷칠 약, 칠 약 말하자면. 다 얼굴에다 발라주고 거기 의무실도 있으니까.

면담자 : 의무실 가셨어요? 병원?

구술자 : 병원 그 조병창 안에 있는.

면담자 : 조병창 안에 있는 병원, 그 병원은 커요?

구술자 : 그 잘 모르겠어.

면담자 : 1층인지 2층인지 그런 거 잘 모르시겠어요?

구술자 :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나. 한 70년 이상 됐는데 내가 알겠어?

면담자 : 그러게요. 거기 의사선생님 있고 간호사들 있고.

구술자 : 그렇죠. 의사 다 있고 간호사도 다 있었지. 그 사람들이 다 치료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는 바람에 현장에 내가 못 나갔지. 이렇게 부었으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

면담자 : 그럼 병원 안에 입원해 계셨어요?

구술자 : 아니 그냥 내내 자기 있는 방에.

면담자 : 그냥 방에 누워계셨어요?

구술자 : 내 방에 항상 있으면서 말하자면 출퇴근 하는 식으로.

면담자 : 병원에?

구술자 : 병원 통원치료를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당시 하여튼 몇 달을 갔는데 그길로 옷 오른 게 거의 이듬해가 45년이지. 아깐 44년이지만. 45년 때 그런 일을 당했다니까. 그러니까 실습이, 실무교육 받고 실습교육 받고 뭐 학생 여러 가지는 다 배우고 나서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러다보니까 그 이듬해 45년도 그때까지 그게 갔었어요. 그때가 아마 봄인가 여름인가 옷이 올랐던 거 같아. 그게 빠지기도 전에 그 길로 해방이 돼가지고서. 내가 해방 돼서 나왔거든. 그렇게 돼서 죽을 뻔한 그것이 결국엔 알고 보니까 여기서 옷 오른 것이 결국 나중에는 이 한센병으로 발생한 거 같애. 얼굴이 부어가지고서 그

길로 빠지지도 않고 그 길로 한센병이 발생했거든요? ...

### 조병창 검사계의 업무

면담자 : 어르신 옛날에는 왜정 때 다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구술자 : 바꾼 이름이 있지. 이토. 이토면 이등이란 이야기지. 이토 쇼기치.

면담자 : 이토 쇼기치라고 하셨네요. 그 장기면 대교리. 처음 대전에서 부평으로 가셨을 때요. 부평에 내리면 큰 담이 있고 그 안에 조병창이 있었잖아요? 그 조병창 안에 들어갈 때문에 뭐라고 쓰여 있는 지 보셨어요?

구술자 : 그런 거 기억 안나.

면담자 : 기억 안나세요. 그 안에.

구술자 : 육군 조병창이라는 거만 알지. 백마장에. 그거 말고 다른 거는 몰라.

면담자 : 그 안은 넓었어요?

구술자 : 커요. 제 기억에는 넓었어요. 그 안에 공장이 다 있었으니까.

면담자 : 공장?

구술자 : 총 만드는 공장, 칼 만드는 공장 있으니까 탄약도 만들고.

면담자 : 아 탄약도 만들었어요?

구술자 : 탄약도 만들었어요. 총알에 넣는 탄약. 소총에 넣는 거.

면담자 : 뭐 뭐 만들었어요?

구술자 : 그러니까 탄약, 총, 칼 이렇게 세 가지. 단총, 그러니까 단창이죠. 긴 칼이 아니고 총대에 꼽는 거.

면담자 : 총검.

구술자 : 그런 거 단창.

면담자 : 그러면 거기 공장이 여러 개면 공장에 1공장, 2공장 이렇게.

구술자 : 그렇지. 그렇게 있어서 구분되어 있었지. 여기를 보면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었죠.

면담자 : 공장이 몇 공장까지 있었어요?

구술자 : 그건 잘 모르겠어. 나는 하여튼 지하병커로 갔으니까.

면담자 : 거기는 몇 공장인지 모르시고요?

구술자 : 그걸 모르겠어. 모르고 하여튼 지하병커로 만날 갔다는 거만 기억하지. 그런 거는 어려서 뭐 알아. 이런 거 저런 거 할 줄 알았나? 그것도 다 잊어버렸지.

면담자 : 지하병커에서 총 검사 할 때 하루에 몇 정 줘?

구술자 : 모르겠어. 회전하지. 회전 만드니까 회전 만져 회전, 그 안에서 다 하니까. 총대 만지고 칼 만지고 다 거기서 하고 있어. 뭐 시간,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시간 마쳐야 나와.

면담자 : 하루 종일하고 있었어요?

구술자 : 그렇게 됐어.

면담자 : 공장이 크면 굉장히 많이 만들었겠네요.

구술자 :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빼기면 빼면 나가버려. 보내서 줬어. 합격이고 불합격이고 없이 만들기만 만들면 빠져 나간다고 그랬지. 그렇게 되더라고.

면담자 : 조병창 안에 뭐 있었는지 혹시 그림을.

구술자 : 그런 거 못해.

면담자 : 혹시 거기 조병창에서 잠수함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구술자 : 에이, 그런 건 없어.

면담자 : 그런 거 없었어요?

구술자 : 그런 건 안 만들었고 아까 말한 대로 그거뿐이야.

면담자 : 총하고 검하고 탄약하고.

구술자 : 탄약하고. 그것도 크더라고. 공장이 여러 개에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면담자 : 굉장히 많이 만들었겠네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보통 아버지 연배 정도였나요?

구술자 : 그렇지. 우리 나이 때지. 다 젊은 사람들이지. 그렇게 끌어왔으니까.

면담자 : 그 지하병커 있는 사람들은요?

구술자 : 그 지하병커 뿐 아니라 다.

면담자 : 다른 곳도요?

구술자 : 다 학생들이야.

면담자 : 거기에 혹시 군인 중에 한국 군인도 있다 그런 말씀 들으셨어요?

구술자 : 그런 건 못 들었어요.

면담자 : 못 들어보셨어요?

구술자 : 군인 이야기는 듣도 못했어. 다 군속들인 거 같아. 온 사람들이.

면담자 : 아니 위에.

구술자 : 위에 사람들은 군인이 있고.

면담자 : 공장장 이런 사람 중에.

구술자 : 윗사람들이 다 군인들이고 일본 사람들이고 그래요. 책임자는 일본놈들이고.

면담자 : 반장도 있었어요?

구술자 : 책임자가 다 있죠. 가서 내가 검사계에 있는데 검사계 내에 계장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면담자 : 그러면 옆에 일본인 친구도 있었나요?

구술자 : 일본 사람들은 별로 모르겠어.

면담자 : 거기 검사계에요?

구술자 : 예. 일본사람들은 못 봤어.

면담자 : 여학생들은요?

구술자 : 없어.

면담자 : 여학생 없었고요.

구술자 : 순 남자들만.

면담자 : 니스 칠하고 그럴 때도 옷칠하고 그러셨어요?

구술자 : 옷칠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해서 검사실로 온 것을 내가 먼저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른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서가 많았었지. 조립하는 데 뭐 다 있었을 거 아니야.

면담자 : 예.

구술자 : 지금 같으면 니스 칠하지만 그때만 해도 니스가 별로 없으니까 옷칠을 생옷칠을 하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옷 오른 사람들이.

면담자 : 아까 같이 가셨던 분이요.

구술자 : 그 이는 참 뉘야. 나보다 영리했던 가봐. 왜냐하면 도망 가버렸거든.

면담자 : 아, 도망을 갔어요?

구술자 : 한 몇 개월 있다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후에 알고 보니까 군인 갔다고 그러더라. 군인이 돼가지고 소령까지 됐더라고. 해방 후.

면담자 : 한국군?

구술자 : 어, 한국군. 소령까지 한 사람이 있더라고.

면담자 : 그분도 처음에 검사계였어요?

구술자 : 아니. 그 사람은 다른 데. 그때 그렇게 도망갈 때는 부서 배치하기 전이야. 전에 갔어.

면담자 : 부서 배치하기 전예요? 처음에 훈련 받을 때?

구술자 : 훈련받고 그럴 때 그때 갔어 그 사람은.

면담자 : 도망간 사람이 또 있었어요?

구술자 : 그때는 모르고 나는 우리밖에 몰랐어. 그 사람도.

면담자 : 그 도망가면 막 찾나요?

구술자 :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찾아내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도망갔다고 하면 나중에 그것도 알았어 그것도.

면담자 : 미리 알았으면 '나도 도망가야지.' 했을 텐데.

구술자 : 아마 미련해서 가도 못했을 거야 아마. 하하.

## 검사 업무의 실상과 생활 여건

면담자 : 기숙사에 계시다가 운동하고 식사하셨잖아요. 식사하고 그 다음에 출근하시는 거죠?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 : 그럼 공장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구술자 : 얼마 안 돼. 그 안에.

면담자 : 조병창 안에 있으니까?

구술자 : 안에 있으니까. 예.

면담자 : 그런데 지하병커에서는 나중에 나와서 공장으로 옮기셨어요?

구술자 : 지하병커에서 있다가 그 길로 말하자면 해방이 됐으니까.

면담자 : 계속 그럼 지하에 계셨네요?

구술자 : 네. 계속 있었어요. 지하병커에 계속 있다가 옷을 닦을 때.

면담자 : 병원으로 가셨어요?

구술자 : 병원으로 나와서 치료했지. 그때는 거기 안 들어가고. 거기까지 못 들어갔지.

면담자 : 검사계는 전부 지하에 있었나요?

구술자 : 예. 다 지하에 있었죠.

면담자 : 그 검사계에 인원이 많았겠네요?

구술자 : 많았어요.

면담자 : 그럼 그게 굉장히 넓은 곳에 있었나요?

구술자 : 넓은 거 같아. 그러니까 한 군데는 총 쏘는 데가 있고.

면담자 : 총 쏘는 것도 지하에서 해요?

구술자 : 지하에서 해요. 지하에서 그걸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백미터면 백미터. 그 걸 또 하나씩 하나씩 걸어놓고 하지요.

면담자 : 무조건 합격이라면서요.

구술자 : 합격이라도 해.

면담자 : 그래도 실험은 하는데 백미터 거리 멀리, 지하에서 그 정도로 멀리 쏠 수 있을 만큼.

구술자 : 그렇죠. 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멀더라고.

면담자 :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거 검사하고. 불빛이 어두웠을 거 같은데.

구술자 : 아니 그때는 그래도 전기를 쓰니까.

면담자 : 밝게 되어 있었어요? 일하는 데 지장 없게?

구술자 : 그런 거 다 할 수 있더라고.

면담자 : 합격이면 합격이라고 뭐라고 표시해요?

구술자 : 아니. 우리는 그냥 내보네.

면담자 : 그냥?

구술자 : 그냥 보네. 형식이 그러니까 형식.

면담자 : 그럼 뭐 훈련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구술자 : 그러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 해방하니까 다급했잖아,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해방하니까. 해방되기 직전이니까.

면담자 : 다급했네요.

구술자 : 다급했죠. 그러니까 만들면 그냥 나갔다니까. 폐품이라는 건 있들 않아. 불합격이 어디 있지를 않아. 그냥 내보내는 거야.

면담자 : 그때 그런 생각하셨어요? 일본이 지금 급하구나. 만들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구술자 : 그때 그런 것은 못했지.

면담자 : 그때 그런 판단은 안 들었지만.

구술자 : 안 들었지요. 열 대여섯 살 되는 놈이 뭘 알겠어요, 에이그 참.

보조면담자 : 공장은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구술자 : 안 들어 가봤지.

보조면담자 : 전혀 못 들어가셨어요?

구술자 : 예. 안 들어 가봤지.

보조면담자 : 그럼 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모르시네요?

구술자 : 다른 부서니까 갈 수도 없고 데려다 주지도 않고. 자기 담당 부서만 드나드는 거야 말하자면. 지하병커만 내가 드나들었지.

보조면담자 : 지하병커 이외에 다른 공장은 전혀 못 가시고요?

구술자 : 안 가봤어. 병원은 별도로 있는 거지. 병원은 아마 몇 층 됐나, 그런 큰 거 같아.

보조면담자 : 조병창 안에서 돌아다니시거나 이러지는 못하셨겠네요?

구술자 : 그렇지.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지.

보조면담자 : 숙소하고 지하병커하고.

구술자 : 자기 그거만 왔다 갔다 하지. 한정된 지역 내에서 활동했죠.

보조면담자 : 지하병커는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는 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술자 :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보조면담자 : 철문 같은 거를 열고 가셨나요?

구술자 : 그렇게 됐을 거 같아요.

면담자 : 입구가 넓지는 않고요?

구술자 : 네. 들어가 보니까 쪽 길더라고. 이쪽에는 다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나중에 총이면 총 이런 거 시험대 올려놓고 저쪽이면 또 종점이 되니까 쏘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크더라고.

보조면담자 : 지하병커 들어가면 길게 복도가 있고 방이 검사실이 따로 있고 그래요?

구술자 : 검사 그런 것은 별로 없고 크게 그냥 한 군데로 되어 있는 거 같아.

보조면담자 : 그 안에서 가끔 가다 신입들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구술자 : 신입들이 들어오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더라고. 하도 많으니까 잘 모르겠어.

보조면담자 : 그 안에서 차출돼서 군대로 끌려가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구술자 : 그런 건 없었어. 거기 온 사람들은 거기서만 일하게 됐던 거 같아. 그것도 알고 보니까 일종의 군속으로 되어있었거든. 군속으로 하더라고.

보조면담자 : 지하병커는 다 콘크리트 같은 걸로 마감을 해놨어요?

구술자 : 그렇게 됐을 거야.

보조면담자 : 일반 동굴 파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구술자 : 네. 콘크리트로 했으니까 좋았다고 거기만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 같아.

보조면담자 : 그 안에 물이 차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구술자 : 그런 일은 없는 거 같아.

보조면담자 : 병커는 하나만 있나요? 다른 데 또?

구술자 : 거기 말고 다른 데는 못 봤어요. 아마 그거뿐일 거예요.

보조면담자 : 근처에 무슨 산이나 언덕이나.

구술자 : 그 뒤에 큰 산이 있다니까.

보조면담자 : 가까운 데?

구술자 : 나와서 보면 커. 백마장 뒷산이.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평평한 게 아니에요. 백마장은 들어와 앉아있었고, 이 안에.

보조면담자 : 다니신 데는 백마장이라고 그랬어요?

구술자 : 그때 백마장.

면담자 : 같은 방 쓰는 기숙사 다른 친구들은 어디로 출근했어요.

구술자 : 그걸 내가 모르겠어요.

면담자 : 서로 다른 데로 갔고?

구술자 : 부서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랬겠죠. 부서에 따로.

면담자 : 거기 지하 병커로 같이 출근한 건 아니고.

구술자 : 그렇죠. 지상에 있는 무슨 공장으로 갔다든지 이런 거 다 있었을 건데. 공장이 컸지 싶어. 내가 생각해도. 거기서 총, 칼을 다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을까요? 그 만든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처리를 하고, 지하병커에서 실험했지.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그 안에 공장이 여러 개가 있었지 싶어. 우리 내내 그리로 안뵈혀 가서 그렇지 그렇게 된 거 같아.

보조면담자 : 포탄은 안 만드셨어요?

구술자 : 포탄은 안 만들었어.

보조면담자 : 수류탄.

구술자 : 그런 건 없고 탄약.

보조면담자 : 탄알.

구술자 : 탄알만.

보조면담자 : 탄알이면 일반.

구술자 : 소총 알. 거기서 만들어서 시험해본 거야. 그렇게 된 거야.

면담자 : 검사계가 검사하는 게 그렇게 총하고 검하고 탄약하고 세 가지라고 그러셨잖아요.

구술자 : 네.

면담자 : 검사계가 다른 곳에 또 있었을까요?

구술자 : 없죠.

면담자 : 거기 만요?

구술자 : 응. 우리만. 거기가 있으면 또 우리는 뭔가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보조면담자 : 다른 데 병커가 있다는 말씀은 못 들어보셨고요.

구술자 : 못 들어 봤어.

보조면담자 : 땅속에 들어가서 있는 시설물은 어르신 계신 데가 유일한 거네요?

구술자 : 그렇겠지.

보조면담자 : 다른 지역은 없고?

구술자 : 응.

보조면담자 : 그 병커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은 못 들어보셨어요?

구술자 : 그건 몰라요. 내가 나이만 좀 들었고 세월이 지난 다음이면 생각날 수도 있겠는데 원래 어릴 적이라 그리고 하도 오래 돼서 내가 다 알 수가 없지. 본거만 알고 그렇지.

보조면담자 : 그 옷이 올라서 병원에 계실 때는 조병창에서는 계속 병원에만 계시면 일을 못 시키는 거잖아요.

구술자 : 그렇지. 못 하지.

보조면담자 : 그 부분에 대해서 별 다른 이야기가 없었어요?

구술자 : 없었어요. 통원치료 했지 말하자면. 일을 못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부었다니까 눈만 빠끔하고. 내가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면담자 : 그러면 댁에 연락을 했었어요?

구술자 : 집으로?

면담자 : 네.

구술자 : 연락을 못했죠.

면담자 : 아, 연락을 안 하고.

구술자 :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면담자 : 그러면 가족들은 편찮으신지를 몰랐네요?

구술자 : 모르지. 내가 나와서 알았지. 나와서 고향에 가서 알았지.

면담자 : 뭐 다치거나 환자가 되면 집으로 보내주지 않았어요?

구술자 : 그런 건 모르겠고 하여튼 내가 46년도에 집을 나왔는데 그때서야 알았지.

## 지영례, 방공훈련 중 방공호로 환자를 옮기다

면담자 : 거기 병원에 친구랑 같이 가셨잖아요.

구술자 : 응.

면담자 : 그 친구도 같이 서무 보셨어요?

구술자 : 서무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병원에서 심부름만 하는 사람도 있구.

면담자 : 병원 잔심부름, 그니까 간호 보조?

구술자 : 응. 보조.

면담자 : 예. 간호사를 한 친구들은 없었어요?

구술자 : 간호사 한 애들도 있었죠.

면담자 : 그러면은 조금 더 나이가 많이 있겠네요? 간호사 한 사람들은?

구술자 : 그렇죠. 그럼. 나이 차이가 있지.

면담자 : 예. 근데 조선 사람이 거기 간호사로 있었구요?

구술자 : 일본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때만 해두.

면담자 : 의사들은요?

구술자 : 의사들두 일본 사람두 있구, 한국 사람두 있구.

면담자 : 아. 의사들도 다 군복처럼 그렇게 ‘국방색’ 옷 입구요?

구술자 : 그렇죠. 그럼. 국방색. 그렇지.

면담자 : 하얀 가운 안입구요?

구술자 : 저, 하얀 가운을 그 병원 안에서는 좀 입어요. 근데 인제, 바깥에 나갈 땐 안 입지만.

면담자 : 예. 그 병원 말고, 조병창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도 여학생이 있었어요?

구술자 : 그렇죠. 공장.

면담자 : 공장 안에도요?

구술자 : 공장에. 거기두 여학생, 여자들도 있었어요.

면담자 : 그러면은 무기 만드는 일을 직접 했네요?

구술자 : 그럼.

면담자 : 조병창은 주로 조선인이예요 아니면 일본인이예요?

구술자 : 조선인이 많죠. 일본 사람은 그 공장 안에서두 좀 일이 차별이 있어요. 그 인제 그, 거기에 간부들 아는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은 좀 편한 데 가서 있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공장에, 거 갔다 오니까 옷들을 갈아입어야 해. 기름칠하구 하니깐. 그래서 거기서 옷들 저, 출퇴근 할 때 갈아입구 땡겨. 여자들두 많았지. 그때. 음.

면담자 : 혹시 병원에 계실 때 종이가 생각 나세요? 외과 가라, 내과 가라 이렇게 써

주실 때, 어떻게 쓰셨는지 종이 생각 나세요? 이름 쓰고, 몇 살,

구술자 : 이름 쓰구, 저기, 무슨 과, 외과, 내과, 그거 쓰구. 그렇게 썼지 뭐. 인제.

면담자 : 그것만 간단하게요?

구술자 : 응. 그것만 쓰면 인제, 가져가서 거기서 인제 간호원이 또 저길 하는 거지.

면담자 : 우선 그러면은 문에 들어오면, 문 열고 아픈 사람이 들어오면, 그러면 어르신 만나서 나 왔다. 나 이름 누구다. 뭐 미야모토다 그러면은, 어르신이 미야모토 이렇게 써 넣고, 내과, 배 아파서 왔다 그러면 내과, 이렇게 써서 들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술자 : 그럼. 카드만 써서 주, 주면 인제 가지고 내과는 내과 가고, 외과는 외과 가고 이리지. 과마다 다르니까 인제.

면담자 : 그러면 감기 걸려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 :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라고,

구술자 : 내과.

면담자 : 내과 가라고요? 어, 외과는 주로,

구술자 : 다친 사람들. 인제.

면담자 : 다친 사람이요?

구술자 : 그 기계, 만지고 하는 사람들 다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다리 두 잘려서 오구, 손목도 잘려서 오구, 기계 인제 일하는 데서,

면담자 : 예.

구술자 : 거기 의무과에 인제 와서, 우케스케(うけつけ-접수)에 와서 인제 이름하구 적어가지고, 카드 적어가지고 가면, 인제 그걸루다 병실 가서, 치료 받고, 그러니까.

면담자 : 입원은 누가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입원을 했었어요?

구술자 : 인자 몸을 몹시 다쳐서, 그 기계 만지는 데니깐, 기계에 이러면 거기 옷이 떨어 들어가 가지고 팔 잘린 사람두 오구,

면담자 : 그러면은 여기, 다 꼬매고, 깁스 하고,

구술자 : 그러니깐 인제 팔은 팔대루 따로 오구, 사람은 사람대로 따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 그대루 가서 인제 수술실에 가서, 팔 맞히는 사람은 맞히구, 그것두 안되는 사람은 또 못하구 그냥 거기만 잘린 채루, 저기하구. 아휴, 그 땐 그 거기 일하는 애들이, 젊은 애들인데, 참 다친 애들도 많고 한, 하루에 아마 팔 다친 애들이 한 댓 명 와요.

면담자 : 하루예요?

구술자 : 예. 끌려들어가서, 옷이, 끌려들어가 가지고 그냥. 일들은 서툴른 데다가 인제 기계 해가지구 이렇게 허다 보면 옷이 물려들어가 가지고 그냥 끌려들어가서

팔 잘리구. 애들.

면담자 : 외과가 엄청 바빴겠네요.

구술자 : 에휴.

면담자 : 조병창에 군인들은 없었나요?

구술자 : 없어. 거긴 공장이니깐. 물건 만드는 공장이야. 조병창.

보조구술자(떠느리) : 거기, 저 칼 차고 자박자박 하면서 다녔다고 했잖아요.

구술자 : 아이 인저 그, 상관들은 다 총이, 소위, 그런 사람들이니깐 칼 차구 있지.

면담자 : 조병창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구술자 : 어. 그럼. 그 사무실에 인저, 과장급이니, 그런 사람들은 다 긴 칼 차구 있지.

면담자 : 군복 입구요?

구술자 : 그럼.

면담자 : 아, 그러면 그 사람들만 군인이었네요.

구술자 : 그렇지. 그 그냥 직원들은 다 보통 이런,

면담자 : 일 하는 사람들은? 예. 혹시 거기에, 상관, 군인 중에 조선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구술자 : 드물어요. 조선 사람은. 거의 다 일본,

면담자 : 군인 중에는?

구술자 : 어. 일본 사람들이 상관은 다 했지, 한국 사람은 드물어.

면담자 : 그러면 다 군복, 뽀뽀하게 입고 다녔겠네요.

구술자 : 모두 입구, 긴 칼 차구.

면담자 : 예. 차두 타고 다녔나요?

구술자 : 그럼요.

면담자 : 뭐, 어떤 차를 타고 다녔어요?

구술자 : 그 사람들 타는 차는 또 따로 있어요.

면담자 : 뭐 질차 같은 거예요?

구술자 : 응. 그 안에서두 인제, 안이 원체 넓으니깐, 이거에서 어딜 갈래면 인제 차 타구 거기 와 내려서, 일 보구 또 차 타구 오구 그랬어. 그 조병창이 굉장히 넓거든. 그 안에.

면담자 : 그 조병창 안에 그럼 그 사람들 잠자는 데도 있고, 밥 먹는 데도 있고,

구술자 : 그럼.

면담자 : 일하는 공장도 있구,

구술자 : 죄 따로 있지.

면담자 : 예. 무기 쌓아놓는 데도 있고. 그렇겠네요?

구술자 : 그렇지.

면담자 : 뭐 창고 같은 거도 있고?  
구술자 : 창고 같은 거, 몇 군데 있지.  
면담자 : 방공호도 있어요?  
구술자 : 그럼. 방공호. 그 때만 해두, 그 땐 뭐, 혹 허면 그냥 연습을 허는 건지, 진짜 오는 건지, 사이렌 소리가 나면 다 방공호 속으로 들어가요. 인제. 일 하다가.  
면담자 : 사람이 굉장히 많다면서 다 방공호로 들어가요?  
구술자 : 깊이 파구선 방공호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넓어요.  
면담자 : 넓어요? 방공호가?  
구술자 : 그럼.  
면담자 : 그러면은 거기 일하던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는 걸,  
구술자 : 그럼.  
면담자 : 뭐 연습도 했고, 진짜 오기도 했고 뭐 그랬을텐데,  
구술자 : 그럼.  
면담자 : 그러면은 여기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쪽 방공호로 간다.  
구술자 : 다, 다 인제 정해 있지. 이 공장에선 어떤 방공호, 이 공장에선 어떤 방공호, 다, 공장마다 따로따로 방공호가 있어요. 있어.  
면담자 : 방공호가 여러 개였겠네요?  
구술자 : 여러 개지. 그럼.  
면담자 : 큰 게, 그러면 땅굴도 있었나요?  
구술자 : 응?  
면담자 : 땅굴. 굴.  
구술자 : 그 인제, 굴을 파구, 문을 저, 쇠문을 해 달아요. 그래가지구 인제, 사이렌 소리가 나면 인제, 그 인제 가끔씩 연습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인제 비행기가 뜬대든지 하면. 그러면 인제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 문 열어놓구.  
면담자 : 다 이렇게 줄지어 가지고 그렇게 가라고?  
구술자 : 그럼. (웃음)  
면담자 : 갑자기 웬-하구 올리면은, 이렇게 쭉,  
구술자 : 다 그냥 일허다 말구, 죄 나와서 그리 다 들어가는 거지.  
면담자 :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요?  
구술자 : 병원엔 병원대루의 또 따루,  
면담자 : 방공호가 있었어요?  
구술자 : 방공호가 따로 있었다구.  
면담자 : 그러면 어르신도 방공호 들어가셨어요?  
구술자 : 예.

면담자 : 그럼 환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구술자 : 환자들은 환자대로 들어가는 저, 병원 방공호가 있어요. 그 간호원들이 인제 구루마에다 태워갖구 다 거기 들어가.

면담자 : 거기가 그러면 병원 바로 옆에?

구술자 : 그럼. 병원 방공호는 또 병원 앞에 방공호가 따로 있구, 사무실 쓰는 데두 사무실, 그니까 인제 그 건물마다 방공호를 따로 그렇게 해놓은 거야. 밑에 지하를 파구선.

면담자 : 지금 가보시면 어디가 방공호였는지 기억하시겠어요?

구술자 : 글썸. 가서 보면 짐작은 허갓지.

면담자 : 병원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뭐 어느 쪽이다 이런 거 기억 나시겠네요?

구술자 : 응.

면담자 : 나중에는 못 보셨죠?

구술자 : 나중엔 못봤어.

면담자 : 예. 들어가질 못하니까. 병원 건물은 머리에 그려지세요? 어떻게 1층, 뭐 길게 생겼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같이 지내던 사람들은 잘 해줬어요?

구술자 : 네. 다 친절해요. 그 안에 있을 땐.

면담자 : 의사도 친절하고, 간호사도 친절하고? 서무 보는 사람들은 서로 또 친하게 지내구요?

구술자 : 그럼. 다 끼리끼리가 있어. (웃음) 어딜 가든가. 예를 들어서, 사무 보는 사람들끼리는 또 그 사람들끼리 인자 뭉치고,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뭉치고,

면담자 : 뭉쳐서 점심 같이 드시고,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요?

구술자 : 그럼...

면담자 : 그 때 학교를 더 다니셨으면 좋으셨을텐데요.

구술자 : 예휴, 다녀도, 학교를 다니는 건지 뭔지, 그 때는 혹 하면 그냥 사이렌 소리만 나면 굴 속에 찾아가야 하구,

면담자 : 학교에서도요?

구술자 : 어. 공부하다가도, 사이렌만 불른 굴 속에 들어가야 해.

면담자 : 그러면은 학교에도 다 방공호가 있었네요?

구술자 : 그럼. 학교에도.

면담자 : 그 학생들이 다 들어갈 만큼이면 엄청 큰 방공호였겠네요.

구술자 : 그 밑에 그냥 다 방공호 파구선,

면담자 : 방공호는 누가 봤어요? 그거?

구술자 : 정부에서 했갓지. 뭐. 그거.

면담자 : 그것두 누가 와서, 다 파냈어야 될 거 같은데,

구술자 : 그게 아마 저 그거 지을 적에 아주 다 했을 거예요. 그 때, 일정 때는 이제 전시 때니까, 지을 적에 방공호 먼저 파구 인저 해놓구, 학교 올리다가, 건물을, 방공호 밑에 이, 위에 건물에 있었으니까.

면담자 : 응, 방공호 위예요? 아. 소화고녀에서, 수업하실 때는 무슨 과목을 좋아하셨어요?

구술자 : 오래 돼서 인젠 정신도 없어.

## 유만종, 넓고 밝았던 굴을 회상하다

면담자 : 어떤 작업을 하셨어요?

구술자 : 거기서 이제 물건 내리고 이런 거요.

면담자 : 하역 작업이요?

구술자 : 네.

면담자 : 무슨 물건을?

구술자 : 기차로 뭐가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하차하는 거예요. 물건 나른 건 이제 두 가지만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거기서 이제 장작이요, 장작을 이제 기차 도 로코에다 잔뜩 싣고 오죠. 그거 부리는 거.

면담자 : 장작이요?

구술자 : 나무, 땔 나무.

면담자 : 장작을 기차로 싣고 와요?

구술자 : 네.

면담자 : 그럼 그걸 내려서 조병창으로 옮기는 거예요?

구술자 : 네.

면담자 : 장작을 왜 싣고 오지요?

구술자 : 거기서 쓰는 거겠죠 뭐. 공장 안에서.

면담자 : 그러니까 불을 많이 피우나 보네요? 조병창에서, 뜨겁게 달궈서 뭔가를 많이 했나 보네요.

구술자 : 거기서 총을 만드는, 탄을 만든다니까.

면담자 : 탄환 만들고, 총 만들고?

구술자 : 총 만들고 뭐 탄알 그건 못봤어요. 우리는 이제 거기 갖다 운반만 해주는 거니까.

면담자 : 안에서는 무기를 만드는데 그거는 그냥 말씀으로만 들으시고. 그 장작 하역작업을 주로 하셨네요? 그럼 장작 말고 다른 거는.

구술자 : 그리고 그때 중국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중국 돈이요.

보조구술자 : 동전.

면담자 : 중국 돈이요?

구술자 : 그게 동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총알로 쓰려고 그걸 거기서 모아서 포대에 다 모으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무거워요. 그걸 이제 들어서 옮겨놓고요.

면담자 : 중국에서 돈을 다 모아서 상해에서 그럼 배로 싣고.

구술자 : 그건 모르지만 거기 올 때는 차로, 저 기차로. 화물차에다 싣고 온 거죠. 하역

하는 거죠.

면담자 : 처음 들었어요.

구술자 : 그 돈이 상당히 커요. 중국 돈이요. 한국 거보다.

면담자 : 크기가 커요?

구술자 : 그 동전이었던가요? 거긴 상당히 커요. 그 돈이. 구리로 되어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강제로 이제 저거 했겠죠. 그걸 갖다 총알 만들려고.

면담자 :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일찍부터 하루 종일 하역 작업만 하신 건가요?

구술자 : 그게 거기 굴이 있어요. 백마장에.

면담자 : 굴이 있어요? 백마장 어디쯤에 굴이 있어요? 그 조병창 안에?

구술자 : 그 조병창 안에요. 그런데 그 굴이 상당히 길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뭐 손으로 하는 거 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요.

면담자 : 그러니까 하역을 안 할 때는.

구술자 : 거기 들어가서.

면담자 : 굴 안에서 뭐를 만드셨어요?

구술자 : 뭐를 했는데 뭐를 했는지 기억에 없다고요.

면담자 : 거기 좀 캄캄했나요?

구술자 : 아니죠. 불을 켜죠.

면담자 : 밝게?

구술자 : 네.

면담자 : 그럼 그 굴이 어느 정도 넓이었어요? 이 방(구술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카페 내부의 큰 방)만한?

구술자 : 이 방만한 것이 상당히 길어요.

면담자 : 이만한 넓이로 길게 있어요?

구술자 : 네.

면담자 : 그게 몇 키로미터 정도? 한 5리? 10리?

구술자 : 그 끝까지는 안 가봤는데 상당히 길었어요.

면담자 : 그러면 어르신 말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구술자 : 네. 같이요.

면담자 : 뭐 만들고 이려고 그랬어요?

구술자 : 뭐 만들고.

면담자 : 그 굴속에는 그럼 뭐가 있었나요?

구술자 : 그냥 아무 것도 없죠.

면담자 : 텅 빈 굴이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술자 : 들어가서 뭐 했는데 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면담자 : 굴은 그러면 일하실 때만 들어가고 다른 때는 안 들어가셨네요?

구술자 : 네. 그렇죠.

면담자 : 예를 들어 공습이 있었어요? 어르신 거기 계실 때?

구술자 : 공습은 내 생각에 못 느꼈어요 거기서.

면담자 : 뭐 공습이 있으면 이런 데로 숨거나 그랬으면 딱 맞았을 거 같은데.

구술자 : 그런 거는 없고.

면담자 : 굴은 한 군데, 딱 한 군데만 있었나요?

구술자 : 여러 군데 있었죠. 굴이요.

면담자 : 여러 군데요. 그럼 어르신은 그 중 몇 군데 들어가 보셨어요?

구술자 : 아니 그런데 한 군데만 들어간 기억이 나지. 다른 데는 모르죠.

면담자 : 굴이 몇 개나 있다 이런 말씀은 못 들으시고요?

구술자 : 네. 못들어 봤어요. 뭐 많다고 들었던 거 같아요.

면담자 : 많다고 들으셨다고요?

구술자 : 네. 최근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백마장에 굴이 많다고.

면담자 : 네. 뉴스에 나왔어요. 어르신 거기 가보고 싶으시면 제가 안내해서 거기 같이 갈게요.

구술자 : 아니. 거기는.

면담자 : 안 가고 싶으세요?

구술자 : 네.

## 최덕원, 지하공장에서 무기를 만들었다고 듣다

구술자 : 그 잇세료에 근무하는 군속들이 아마 몇천 명 됐을 거야. 아마 몇천 명.

면담자 : 그 사람들이 다.

구술자 : 거기 군속원 다 거기 있었으니까.

면담자 : 조병창 사람들이요?

구술자 : 그렇지. 조병창에 근무하는 군속들이여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면담자 : 그러면 학생들은 어디서 잤어요?

구술자 : 학생들은 인제 서울서 다 오고 가고 하니께 뭐 몰르지 뭐. 우리는 학생들은 거기서 밥 먹고 점심만 먹지. 점심 공장에서 점심만 먹지 점심은 우리하고 같이 먹고, 공장 있는 사람 원래 공장 있는 간부들도 다 점심 거기서 같이 먹고. 학생들도 먹고. 우리 군속들도 먹고. 그러고선 인제 아침 저녁은 료에, 잇세료 와서 먹고 자고. 또 학생들이는 점심 먹고 일하고선 이제 시간되면 가고. 아침 먹고 또 오고.

면담자 : 공장에서는 점심을 어떻게 드셨어요?

구술자 : 공장에서는 인제 공장에 공장 직원이 인제 우리처럼 군속이 많지만서도 군속이 인제 공장에도 인제 과장이 있고, 인제 공장장이 있고. 인제 부서마다 인제 다 있고, 그러니깐 인제 부서가 공장 안. 공장도 큰 공장이니께 부서가 아마 몇 개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 우리부서가 한 20명 30명 돼.

면담자 : 아버님 이거 총 구멍 뚫는 데가요?

구술자 : 그렇지. 총 구멍 뚫는. 그런게 거기는 인제 지하에도 우리 가보던(가보지는) 안했지만 공장이 있디야. 지하에서는 뭐 대포 땡기는(만드는) 공장이라대 지하는. 그런 얘기만 듣지.

면담자 : 아 2공장에도 지하공장이 있었어요?

구술자 : 그렇지.

면담자 : 근데 1공장에도 지하 공장이 있을테고.

구술자 : 있었다. 지하공장이. 근데 우리가 알들 가보들 못했지만, 공장은 굉장히 크고 그때는 그 주소가 백마전(백마장)이라고 이 백마.

면담자 : 백마장.

구술자 : 이 흰백자하고 말마자하고. 백 하쿠바초라고. 백마정 1번지라고 돼있어. 아주 판판한 들인디 한동네보다도 훨씬 더 커. 그것이 다 공장이고 글로 다 기차가 들어와서 물건 실어오고, 물건 자료 실어오고 다 제품 만든 거 가져가고. 지금은 그 동네가 부. 부평이라더만 그러 부평.

면담자 : 예 부평이요.

구술자 : 옛날엔 백마정이라고 백마정 1번지라고 그랬어. 지금은 그때 그 흔적이 다 없어졌어. 없어졌.

면담자 : 그 2공장이 굉장히 컸잖아요.

구술자 : 어. 내가 있던 데가 2공장이지.

면담자 : 2공장이 컸죠?

구술자 : 컸지. 다. 공장이. 공, 이, 공장 하나에 몇 백 명씩 근무했지.

면담자 : 몇 백 명씩이요?

구술자 : 그럼. 굉장히 큰 공장이지.

면담자 : 그러면 2공장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구술자 : 2공장 안에 인제 줄로 죽- 있고, 또 줄루 쪽- 있고. 줄로 쪽- 있고 그랬어. 그래 굉장히 큰 공장이야. 2공장이지.

면담자 : 여기 2공장을 문부터 한번 좀 그려봐 주시겠어요?

구술자 : 하고 인제 되게, 공장이,

면담자 : 공장 문,

구술자 : 예. 인제 측면으루 따지면은, 예 [그림을 그리고 있음] 이렇게 생긴 큰 공장이지. 예. 이런 것이 수없이 있어요. 여기두 사진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 내부가, 아마 교실 몇 개 될 거야 아마. 굉장히 커.

면담자 : 학교건물처럼 생겼어요?

구술자 : 예예. 예. 인제 뭐,

면담자 : 체육관처럼 생겼어요?

구술자 : 2층 3층 이런 공구리집이 아니고, 이 지붕은 아마 슬레이튼지 함석인지 그건 잘 몰르겠는디, 이, 그래 갖구서 인제, 말하자면 이 안에는 좀 이렇게 인제 줄루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 갖구서 인제, 여기 사람 이렇게 다 요렇게 다 조기에 있어. 저-기 갖구 요기서 인제 사람 하나씩 저기가 있어서 인제, 딱딱, 자기 맡은 거, 어. 이거 갖구 인제,

면담자 : 이 줄은 뭐 뭐 방아쇠 만드는 줄, 이 줄은 뭐 총 구멍 뚫는 줄,

구술자 : 그 인제 인제, 대개 내가 알기로는, 우리 2공장은, 2공, 2공, 2공장은, 총신, 총신을 땡길은 공장이야. 이 99식.<sup>5)</sup>

면담자 : 예.

구술자 : 99식. 총신을 땡그는 공장이야. 예. 총신. 인제 다 달버(달라).

면담자 : 아버님 지난번에, 그, 조병창에 보성전문 학생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구술자 : 예. 그 가보니까, 하여간 뭐, 보성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뭐, 다 고등학교서

---

5) 속칭 아리사카 소총의 후기형으로, 1939년에 제식화기로 지정, 1941년도부터 생산된 일본군 소총.

땀기는 학생들, 전-부 그냥 뭐 여기다 이 완장 차구서 뭐 학교 공불랑 막 관  
두고 거기 와서 다 일하는 거예요. 예. 거기 와서 전-부 일이여. 어. 그러구  
서 인제 또 저녁때는 가고. 점심은 공장에서 먹고. 그리고 우리 군속이나 양  
성소 사람들은 주야근무여. 예. 그니까 기계는 놀 새가 없어. 이. 예. 어느 1  
주일은 주야 낮, 낮 근무, 고 다음 1주일은 밤 근무. 그러니까 이, 저 숙소도  
마찬가지여. 어. 아침에 떠나면은 저녁에 잘 사람들 오 오구. 공 공장에서 오  
고. 간 사람들도 오고. 공장도 또 마찬가지.

면담자 : 같은 방에요?

구술자 : 예. 예.

면담자 : 같은 방에, 내가 나가야 딴 사람 또 와요?

구술자 : 그렇지. 예. 인저 그 사람들, 가, 아침에 가잖여? 그러면 우리는 인제 아침에  
인제 저녁 저 밤, 밤일 하구서 아침 온 온단 말이여. 그 사람 간 다음에. 예.  
또 인저,

면담자 : 그, 그 방으로 들어가요?

구술자 : 어. 그렇지.

면담자 : 간, 간 방으로?

구술자 : 그니까, 이, 공장이고 잇세이료하고, 쉴 새가 없어. 예. 어. 밤낮할 거 없이.  
그렇게 그렇게 참 많이 혹된 일을 했어. 그 그래도 그놈들이 원체 인저 여러  
가지가 어 부족허고 하니께 인저 참 손들고 말았지만서도, 음.

면담자 : 보성전문 학생들이 머리가 큰 학생들인데, 그냥 시키는대로 순순하게 있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구술자 : 그럼요. 아, 그때야 뭐, 그 뭐, 그 사람들 뭐, 뭐 이 시키는대로 뭐, 척척 해야  
지, 안하면, 예. 예. 다 와서 학생들이, 대학생들, 중학생들이 와서 전-부 거  
기 와서 다, 일하는 거이. 일.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봉사라고 허까. 옛  
날엔 저 그런 일 보고 비력질이라. 이런 시골에선 비력질이라 그랬거든. 인  
저. 예. 그런게 인제 그런, 그런 식으루다 인저, 원체 인력이 부족허니께 그렇  
게 그래서, 우리가 듣기는 가 가보지는 안했지만 지하 공장에는 무슨 기관포  
니 대포니 맹긴다구 그랬었어요. 지하, 지하 공장이 따로 있어서.

면담자 : 거기서는 누가 일해요?

구술자 : 거기두 인제 다 그런 사람들이 일할테지만,

면담자 : 똑같이?

구술자 : 우리가 듣기에는, 지하공장에서는 기관총이니 대포니 맹긴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들은 생각이, 들은 일이 있어요.

면담자 : 2공장에도 지하공장이 있어요?

구술자 : 글썄, 인저 공장마다 있는단 건 모르지만, 지하공장이 있다 그랬었어요. 지하

공장이. 지하공장에서는 기관총이니 대포니 땡긴다고 그런 얘기.

면담자 : 누가, 그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과 싸우지는 않았어요?

구술자 : 일본 학생들은 없고, 일본사람들은 대개 거기 인제, 지 지휘자라고 할까, 지도자라고 허까.

면담자 : 반장?

구술자 : 어. 감독이라고 허까 인제 그런 사람들이여. 다. 일본사람들은. 다 그런, 그 사람들이.

면담자 : 가, 간부들이요?

구술자 :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인제, 다 그 사람들이 인제, 군속이니, 양성소 직원이니, 또 학생들이니 다 인제 일을 시키, 분야별루 일을 시키는 거지. 그냥. 음.

## 왕명근, 무기를 저장한 지하창고로 공습을 피해 들어가다

보조면담자 : 출근하시는 분은 대개 어느 쪽으로 가세요? 사시는 데가.

구술자 : 아, 거기가면 그냥 굴뚝 들어간 것이나 같은데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누가 알겠어. 그냥 가면 밥 먹으면 공장가서 일 하고서 때 되면 점심 먹고 벤토 먹고 기숙사로 가고 그러는데 그거 몰라. 어려서 한 일이라 잘 몰라.

보조면담자 : 조병창에 공장이 한 네 개 정도 있었던 거 같은데요.

구술자 : 커. 네 개고 뭐고 그냥 척척 이런 식으로 지은 집을 쪽 이어가지고. 뭐. 그렇게 그냥 크게 지어놔서 모르겠는데, 조병창이 굉장히 넓은 게 부평에서 조병창 모르는 사람 없었어.

보조면담자 : 뭐 만드시는지는 다 모르시겠네요?

구술자 : 응. 총하고 칼 만드는 그것만 내가 2공장에 내가 있었는데 1공장에서는 총 그것 만들고 2공장에서는 칼 만들고 있었는데, 그거나 바드시 알까. (나머지 공장들에서 뭐 만들었는지는) 줄병이라 몰라.

보조면담자 : 아버님이 만드신 거는 총에 붙어있는 상태로 만든 게 아니라 요만한 거를 만들면 나중에 갖다가 붙이시는 거죠?

구술자 : 하나를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칼 만들려고 하면 칼 대가리를 만들려고 하면 한 사람이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멍 뚫는 사람, 깎는 사람, 옆에 쓰는 사람, 이렇게 흠파는 사람 모두 있어가지고 결국 몇 가지 거쳐서 만드는 거.

보조면담자 : 그거를 총에다 붙여놓은 상태로 만드세요? 아니면 그거만 따로 만드세요?

구술자 : 그거만 따로.

보조면담자 : 따로 만드세요.

구술자 : 따로 만들어. 칼을 여기에다 붙이지.

보조면담자 : 그럼 선생님 작업하셨던 그 다이[작업대]에는 총대나 뭐 이런 게 올라오지는 않았겠네요?

구술자 : 않았지.

보조면담자 : 그냥 그거만 있었겠네요? 작업하시는 거만.

구술자 : 작업하는 거만 올라오지.

보조면담자 : 공장 자체가 그래요? 2공장 자체가?

구술자 : 응. 아니, 나는 그거 하는 거 그거만 해. 그거 있었어.

보조면담자 : 공장 안에도 작업대가 여러 개 있었나 봐요? 안쪽에.

구술자 : 그러니까 고인이 됐는데 나하고 친구로 하나 간 사람은, 그 사람은 거기 총

끄트머리 겨누는 거 (만들었어).

보조면담자 : 조준하는 앞대가리요?

구술자 : 어, 그 앞대가리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도 총을 전부는 모르지. 완결되어 나오는 데는 따로 있어. 거기서 다 만들어서 가면 검사 받아가지고 합격품만 쓰는 거야.

보조면담자 : 완성된 총을 잡아보신 적은 없었겠네요?

구술자 : 아유 그 작업을 하는 게, 그거 못 잡아 봐요.

보조면담자 : 다른 공장들에서는 다른 거 뭐 만드는지 혹시 아세요?

구술자 : 몰라.

보조면담자 : 다니실 때도 그런 정보가 아예 없어요?

구술자 : 몰라. 아 그 어릴 때 학생이 가서 뭘 알겠어?

보조면담자 : 그 안의 지하시설 혹시 있는 거는 들어보셨어요?

구술자 : 지하실은 있지. 지하실은 있는데 나는 훈련 받는데, 날마다 훈련을 받는데 좀 치면 척-하더니 공장 사람들 다 나가. 그런데 우리는 연령 미달이니까 거기 해당이 안 돼. 그래서 가다 공장에 들어오고 그랬지.

보조면담자 : 대피하다가?

구술자 : 응.

보조면담자 : 대피훈련하다가요?

구술자 : 응.

면담자 : 공습한다고?

구술자 : 응, 훈련.

보조면담자 : 그 지하시설에 들어가 보신 적은 없으세요?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어요?

구술자 : 응.

보조면담자 : 지하시설이니까 대피하려고 만든 곳인가 보네요? 공습하면.

구술자 : 지하는 거기가 창고나 갈터만. 총이고 칼 같은 거 만들면 거기 지하실에 저장하고.

보조면담자 : 그런 지하 창고가 많았어요?

구술자 : 모르지. 그건 모르는데 그렇게 사용했지.

보조면담자 : 공습한다고 하는 소문은 없었어요?

구술자 : 왜 공습한다고 하면 다 땅굴로 들어가고 그랬지.

보조면담자 : 땅굴? 지하?

구술자 : 응, 지하로.

면담자 : 일하다가도 다 들어갔어요?

구술자 : 응. 썩 들어가. 공장 모다 그거 다 꺼.

면담자 : 공장 모터를 꺼요?

구술자 : 응 공습할 때.

면담자 : 불도 다 끄고요? 그 지하 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 훈련을 여러 번 하셨어요?

구술자 : 난 그런 거 별로 안 했어.

보조면담자 : 지하에 들어가 보신 적은 있으세요?

구술자 : 들어가 본 적도 없어.

보조면담자 : 전혀 없으시고요?

구술자 : 응.

보조면담자 :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공습이 와요? 비행기가 뜨거나 이런 게 실제로 있었어요?

구술자 : 그게 연습하는 거지. 훈련을 받았겠지.

보조면담자 : 실제로 비행기가 뜬 적은 없고.

구술자 : 그렇지. 미국 비행기가 오면.

## 김상현, 공장 부근마다 구덩이를 파두다

면담자 : 어르신 여기서 일 하실 때요. 혹시 비행기 뜬다고 공습경보 내리고 그런 적 있었나요?

구술자 : 그런 거는 공습경보는 내린 적은 있죠. 여기 저 언제인가 김포공항에 비행기 언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놀러 갔다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김포공항일 거야 아마. 공항에 뭐 비행기 일본 저 미국 비행기는 높이 떠서 최악 가는 비행운 있잖우. 비행운 때문에 최악 가는 표시가 나는데 일본 비행기는 거기 미쳐 올라가지도 못할거야 아마. 밑에서 그런 거는 생각이 나. 지금도.

면담자 : 그러면 다들 일 중단하나요?

구술자 : 일?

면담자 : 미국 비행기가 뜨면?

구술자 : 원은 그런 훈련을 받죠. 그런 훈련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는 미쳐 안 했어요. 일본에서는 아주 굉장했다 그래. 일본서.

면담자 : 그러면 여기 혹시 터널 있는 거 보셨어요? 땅굴 같은 거?

구술자 : 여기서 그런 거는 없었어.

면담자 : 여기 조병창 안에요?

구술자 : 예. 조병창에는 없었어. 아, 그건 방공훈련이라고 그런 거는 하죠. 앵 하고 사 이렌이 울리면 전부 그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구덩이는 모두 파놔지.

보조면담자 : 방공호는 이 근처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구술자 : 방공호는 뭐 구덩이, 여기 이게 공장 아니요. 그럼 공장 여기에 방공호 파는데 다 파놓고 있다고.

면담자 : 거기 몇 명 정도 들어갈 규모로?

구술자 : 거기 다 수용할 만한 구덩이지 뭐. 한 구덩이에 한 대여섯씩 들어가게 만들어.

면담자 : 그럼 땅굴 정도는 안 되고 구덩이 파놓은 거?

구술자 : 예. 그 정도죠. 개개인이 만든 거죠.

면담자 : 어르신 혹시 여기 한 번 가보고 싶으세요?

구술자 : 가 봐도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겠어? 뭐.

면담자 : 지금도 미군 부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구술자 : 그 미군 부대가 와서는 오자마자 천막을 치고 이제 그랬겠지 뭐. 그거 기지 그게 필요해서 땅덩어리가 필요해서 한 거지. 그 자리는 옛날에 그 총 만들

던 자리인데. 그 총 만드는 그 유치한 그거 가지고 불도저 짹짹 내밀었겠지  
뭐. 미국은 그 자리에 천막에다 척척 치고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면담자 : 건물이 이때 건물이 남아 있는데.

구술자 : 옛날 건물이 남아있는 게 더러 있기가 있겠지.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은 없  
어요.

면담자 : 네.

구술자 : 우리 친구들은 같이 있던 제1공장에 같이 있던 친구가 한 번 전에 가봤다고  
그래. 가봤다고, 안 가보겠냐고. 그까짓 거 이제 가면 뭘 하냐고 하난 말이야.  
그리고 그때는 미군 비행기가 여기 한 번 오는 게, 가는 게 한 번 생각이 나.  
비행기 이렇게 그.

면담자 : 예.

구술자 : 사지를 짹 비행하면서 날아가더라고. 저거 가면 중국 땅이 본토를 전부 일본  
이 점령했는데 어디서 오지? 중국 관할이 오지 아니요? 저 비행기는 기지가  
어디인데 저렇게 날아가나.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면담자 : 그 비행기 날아가면 방공호로 얼른 들어가셨어요?

구술자 : 우리야 뭐가 위험하다고 들어가. 뭐 일본 비행기는 그거 있는데 도달하지도  
못하는 판인데.

면담자 : 그러면 어디 숨거나 그런 거는 없으셨어요?

구술자 : 네. 그런 우려는 없었어. 그리고 저 공장이 있으면 공장 부근에는 전부 방공  
호가 파여 있죠. 거기마다 저 급하면 사이렌을 울리고 그러면 공장에서 ‘와’  
하고 나와서 전부 방공호로 들어갔지. 그런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면담자 : 어르신은 한 번도 안 겪으셨어요?

구술자 : 그런 일은 없었어.

면담자 : 방공호는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쯤에 있었어요?

구술자 : 건물이 그 건물이 있으면 부근에 이렇게 공터에는 전부 다 그렇게.

면담자 : 그럼 건물 하나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방공호가.

구술자 : 그렇죠. 방공호가 여러 군데죠. 방공호라고 뭐 개개인 호로 파니까.

면담자 : 넓지 않게요?

구술자 : 넓지 않게. 한 두 사람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만드니까 다. 그렇게 정식이  
로다 한 게 아니고. 뭐 공식적으로 크게 만든 게 아니고. 개개인 호로 이렇게  
파놓은 거니까.

## 김학수, 방공호에서의 휴식이 그리워 사이렌 소리를 기다리다

면담자 : 배수로 공사 말고 다른 것도 하셨지요?

김학수 : 다른 건 안했어. 그것만 했어.

면담자 : 아 배수로 공사만 계속 하셨어요?

김학수 : 배수로 공사만 했어. 배수로 공사만 했는데, 낮에 12시가 되면은 미국에서 B29가 떠들어와. B29가 떠들어 와가지고 설량은 그 김포공항을 폭격을 하는 거야 인제.

면담자 : 폭격을 해요?

김학수 : 그럼 B29만 떠들어오면 이제 그냥 그 배수로 파다말고 방공호로다 들어가야 돼.

면담자 : 방공호가 있었어요 주변에?

김학수 : 방공호 다 파놓고 있었거든.

면담자 : 그럼 방공호는 누가 봤어요?

김학수 : 방공호도 이제 우리네가 해서 놓은 게 있으니까, 글로다 들어가서 있는거지 이제.

민순기 : 그러니까 배수로 파는 게 그런 거 하는건가 보네.

김학수 : 그래서 B29만 떠들으면 참 좋아 아주 그냥.

면담자 : 아, 좋아(웃음).

김학수 : 일 안하고 거기 가서 숨어있으니까 나는.(웃음)

보조면담자 : 그럼 B29가 뜨면은 소리가 막 났어요? 무슨 소리가 났어요?

김학수 : 그 사이렌 불잖아.

보조면담자 : 아 사이렌이 울렸어요?

김학수 : 사이렌 불어. 그러면은 이제 가서 숨는거야 이제.

면담자 : 숨어서 얼마나 쉬었어요? 그러면?

김학수 : 한 거진 한 시간 가까이 있다가서 좀 나오고.

면담자 : 괜찮네요. 그러면 딱 낮잠잘 시간이네. (웃음)

김학수 : 아주 열두시만 되면 날마다 들어오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보조면담자 : 그럼 맨날 열두시 기다리셨겠어요.

김학수 : (웃음) 안 오면 아주 그냥 서운했지 뭐 진짜.

면담자 : 아 안 오는 때도 있고요.

김학수 : 그러다가선 인제 하루는 일요일날이여 이제. 일요일날. 일요일날이라서 아이, 어디 놀러나 나간다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어. 그래서 뭐하는 데 이렇게 모여 있느냐고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했디여!” 그랴. “어우 여기

어딘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말이야. 아유 조금 있음 방송 나온디야. 그래서 거기있 으니까는 조금 있으니깐 일본이 항복을 한 거야 인제. 일본 천황이 항복했는게 나오더라고.

면담자 : 어디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항복한게?

김학수 : 거기서 라디오로 나오는게 인제.

면담자 : 라디오로요. 예.

김학수 : 그래설랑 뭐 이 누가 가란소리 하거나 말거나 그냥. 그냥 보따리 싸지고서 그냥 와서는 인제 부평역에서 차를 탈래니깐 말이야. 아이고 서울서부터 그냥 타고설랑은 지붕 꼭대기까지 다 타고 있으니, 뭐 탈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는 천상 걸어서 올라오는데 수원까지 오는거여. 이제. 수원까지 걸어오다가 선 이제 거리에서 하룻밤 잤지 뭐. 거리에서 하룻밤 자고서 그 이튿날 이제 수원. 수원역으로 오니까는 태극기가 걸려있는데, 처음 보는거여 이제 태극기는. ...

면담자 : 그러면은 조병창에서 숙소에서 작업하는 데까지 갈 때도 그 노래(학교에서 배운 군가)를 부르면서 가요 다같이?

김학수 :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가진 않아. 거기가선 노래 안불렀지. 거기가선 작업시키는 것만 하는 거지, 노래 부를 새가 어디 있어.

면담자 : 노래도 안부르고 계속 일을 하는 거네요.

김학수 : 열두시에 B29 떠들어올 때만 바라보고.

면담자 : 그 비행기를 보셨어요?

김학수 : 못 봤어.

면담자 : 그냥 사이렌 소리 울리면은 얼른 들어가 그니까.

김학수 : 그런데 폭격.

면담자 : 실제 공습하는 게 아니라 공습훈련을 한 거네요?

김학수 : B29가 와서는 김포 그 비행장을 포탄을 떨어뜨려. 떨어지면 그냥 쿵쿵 소리가 들리거든.

면담자 : 아 소리가 거기 조병창까지 들렸어요?

김학수 : 들렸어. 김포에서 떨어진 터지는 소리도 들렸어.

면담자 : 그래서 B29폭격으로 공항이 망가지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다 들렸어요?

김학수 : 망가지는 건 몰라도 하여튼 떨어지는 폭음소리만 들었지 뭐.

## 오상기, 조병창 시설을 옮기려는 굴착작업을 관리하다

면담자 : 그 징용영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무슨 색깔이었는지 얼마한 크긴 지.

구술자 : 허연 색깔 그냥 인쇄된 거예요 그게. 인쇄된 거고 그냥,

면담자 : 예. 거기에 그러면 뭐라고 써 있었어요?

구술자 : 거기에 이제 저거해서 이제, 언제까지 출동하라고 어디로 이제 집합하라고 이제 그거만 이제 있는 거예요.

면담자 : 그 며칠 만에 그러면은, 언제까지 나와라 이렇게,

구술자 : 그렇죠. 뭐. 날짜 기한은 있는데, 고거 날짜는 내가 기억이 안나요. 안,

면담자 : 언제쯤 동원이 되셨는지,

구술자 : 그거 그렇게 오래 길진 않아요 그게.

면담자 : 그러면은 종로구 어디에서 모이셨어요?

구술자 : 응. 종로구. 그럼요.

면담자 : 종로구민이니까 종로,

구술자 : 그렇죠. 종로.

면담자 : 어디에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였나요?

구술자 : 아이고, 고거 이제, 그 때 이제 국민학교, 그때 이제 국민학교 어디 운동장이 있었는데 그 기억은 안나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촬영자 : 선생님 다니셨던 학교에서 모인 건 아닌가보네요.

구술자 : 아니에요.

면담자 : 예. 그 길이,

구술자 : 그리고 우린 이제 종로니깐은, 종로에서 이제 영장 떨어진 놈들은 모두 이제 종로에서 한군데 모여서 이제 끌려갔고.

면담자 : 어느 정도나 됐어요? 인원이.

구술자 : 인원이 그 때 한 백여 명 정도 됐을까?

면담자 : 운동장에 같이 모인 인원이요?

구술자 : 응 고 정도 됐을까?

면담자 : 그럼 백여 명이 같은 곳으로 간 건 아니죠? 다.

구술자 : 글썄 모르지 이제 그건, 우리 이제 끌려간 것은 뭐 그거까지는 저거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국외로 가는 사람도 많고,

면담자 : 아. 그때요?

구술자 : 이거 했었는데, 그땐 우리는 운이 좋았는지 하여튼 국외로 못 갔어. 왜 그러냐면 그냥 폭격이 심하니까, 개네들 뭐 배 뜨면은 그냥 막 폭격을 하고 하니

간 이, 뜰 배도 없었지. 일본 애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그땐 일본이 망해가는 판이 아니에요? 그때 인제 45년도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부평구 이제 그리 그냥 몰은 거야. 그런데 부평 거기 이제 가보니까 일본 애들 토목 거기 다 시미즈구미(清水組)<sup>6)</sup>라고, 그 일본 그 건설회사 일본에서 상당히 커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 같애.

면담자 : 네.

구술자 : 거기서 아마 그걸 하고 있었던 모양이여. 거기 도급을 쫓가지고. 그놈들이.

면담자 : 조병창에요?

구술자 : 응. 그런 거 같애. 그런데,

면담자 : 시미즈구미가 맑을 청(淸)자,

구술자 : 응. 맑은. 물 수(水)자. 물 수자,

면담자 : 청수조?

구술자 : 물 수자죠.

면담자 : 예.

구술자 : 그거 한 거 같애. 그래서 인제, 가니까는 인제 우리가 인제 보충인원 되는 거지. 같이 이제 막- 근데 거기 인원들이 인제 일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그 함경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면담자 : 아. 거기,

구술자 : 그쪽 구미에 거기에 건설회사 거기에.

면담자 : 이 시미즈구미 안에요?

구술자 : 응. 거기서 아마 많이 뭐 하다가 이렇게 데리고 왔나봐. 되게 많았어. 그쪽에 많았어.

촬영자 : 그니까 함경도 말투로 인제 저 사람 함경도 사람이다?

구술자 : 응. 그렇지. 그림. 그러구 나중에 그걸 또 알았어.

면담자 : 어르신, 짐 꾸리고 갔잖아요. 조병창에 가실 때 같이 모여 있던 사람들 중에 몇 명 정도가 같이 가셨어요?

구술자 : 그때 몇 명이나 마나 하여튼 그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기차 태워가지고 그냥 가니까 몰랐지 뭐.

면담자 : 예. 그러면은 거기에 모여서 곧바로 서울역으로 갔나요?

구술자 : 그런 거 같은데?

면담자 : 거기에 가서 그러면 어디에 내리셨어요?

구술자 : 거기 부평 거기 인제 조병창에 내렸지. 그래 인제 그때 얘기가 내가 인제 듣기로는 이제 미군이 자꾸만 폭격하고 저거 하니까 인제 조병창을 그 땅굴로 인제 파가지고 옮긴다 뭐 그런 내가 소문을 들었어요 거기서.

6) 시미즈건설을 일컬음. 1804년 창립한 건설회사로 에도막부 시기 에도성 서부지구 건설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2011년 JR 하카타시지역 건설에 참여하는 등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면담자 : 도착하시면서 제일 먼저,  
구술자 : 인제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인제 뭐 일일이 인제 개인 뭐 저걸(경력)을 모두 다 물어보고 그러대.  
면담자 : 뭐를 물어봐요?  
구술자 : 뭐 어디 다니고 뭐 그런 거 모두 다 물어봐.  
면담자 : 이전에 뭘 했었나.  
구술자 : 응. 뭐 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걸 다 물어봐.  
면담자 : 예. 이상하게 생각했겠어요.  
구술자 : 이상하나 마나 뭐 여기 군대 여기 가니까 군대에서도 물어보더라고 그걸.  
면담자 : 상업학교 나오고 총독부 있었던 사람이 왜 여기 왔나 그랬겠네요.  
구술자 : 그러더니 나오라 그러더라고. 그래 나왔더니 그래 이제 거기서 두 사람인가 몇 사람인가 뽑았어. 그러더니 인제 거기서 모두 인제 숙소로 모두 인제 배정을 해서 모두 다 가보라 그러니까 또 다 들어가구. 뭐 내일부터 작업한다구.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집합하구 뭐 한다구. 이제 그러더라고.

#### 징용 현장에서의 경험과 업무

면담자 : 몇 시에 일어나요?  
구술자 : 뭐 아침에 여섯시?  
면담자 : 여섯 시?  
구술자 : 그 때 인제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인제 밥 먹고 일곱 시에 인제 밥 먹고. 인제 와서 거기 가는 거야.  
면담자 : 일 나가는 거예요?  
구술자 : 가서 인제 그러는 거야. 응.  
면담자 : 예. 그런데,  
구술자 : 나는 인제 두 명인가 이렇게 불러서 저거 하더니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더라고. 그러더니 너희는 여기서 시키는 대로 이거 해라 인제 그거야. 그래 뭔가 했지. 그랬더니 이제 사무실 거기 앉아서 인제 동원된 인원 파악, 또 이제 이 땅굴 파면은 그 땅굴 파는 그 작업 진도, 이걸 이제 그걸 체크해가지고, 그걸 그래프에 인제 매일 그리고 인제 그런 거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동원, 땅굴 파는 사람 같이 그렇게 고생은 안했죠. 하지만,  
면담자 : 예. 몸은 덜 힘들었겠어요.  
구술자 : 고생 안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인제 땅굴 파고 뭐 저거하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뭐 힘들게는 안한 것 같애 가만히 보니까. 요게 인제 한국 인제 모두 다 그러고 이제 건설회사든지 저 어디든지, 한국사람들 뭐 인제 그래 이제

저녁에 모여서 이제 그때 얘기하고 뭐 이거저거 하면, 그렇-게 그렇게 힘드는 거 같이 그렇게 얘기들은 안하더라고. 그렇게.

면답자 : 숙소에 다른 분하고 같이 계셨어요?

구술자 : 그럼 같이 있죠. 그럼 이제 자는 건 같이. 자는 건 같이 자고, 나는 인제 그쪽 (사무실)으로 가고, 그 친구들은 그 밑으로 가고.

면답자 : 아침에 똑같이 여섯 시에 일어나서 일곱 시에 식사하고?

구술자 : 그럼요. 똑같아. 그럼 똑같아.

면답자 : 예. 그럼 식사하시는 데가 따로 있었나요? 식당이?

구술자 : 응? 개네들 뭐 개들이 나무 도시락, 이렇게 한 거 있어. 거기다 그냥 밥 그냥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면답자 : 나무 도시락에 밥을 받아서 드셨어요?

구술자 : 그럼. 나무 도시락에다 그냥 밥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요 왜놈들 된장국, 뭐 이런 거 응, 거기다 이제 그 단무지 정도 이런 걸로 그냥 해서 그냥 주는 거죠. 뭐 없어.

면답자 : 그러면 거기에서 아침 드시고,

구술자 :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그리 가고.

면답자 : 출근 하고, 각자 일하고.

구술자 : 어.

면답자 : 네. 점심은 어디서 드세요?

구술자 : 점심도 인제, 점심은 인제 거기에 이제 몰라 이렇게 뭐, 통에다 담아가지고 가서 인제, 그 안에서 인제 거기 이렇게 노나주고. 그리고.

면답자 : 저녁은 다시 와서 거기서 드셨구요?

구술자 : 응. 저녁은 이제 나와서, 인제 아침하고 인제 저녁하고 먹고, 점심은 이제 챙겨 갔고.

면답자 : 숙소는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구술자 : 숙소?

면답자 : 숙소. 예.

구술자 : 그거는 맨 개네들 뭐, 천막. 그거. 숙소 같은 거. 뭐 이거.

면답자 : 거기는 천막이었어요?

구술자 : 그럼.

면답자 : 천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술자 : 여기, 이 천막 고거 고만 같애. 요새 치는 천막 그런 거.

면답자 : 그럼, 그러면 양 옆에 막아서?

구술자 : 그럼. 응.

면답자 : 몇 명쯤이 같이 지냈나요?

구술자 : 뭐, 그거 그냥 이렇게 자는 데만 이렇게 나무판자 이렇게 깔구 이래 그랬어.  
가운데는 이렇게 이 저거하고 사람 자는 거 인제 고 위에 나무판자 이렇게  
딱 하고.

면담자 : 양쪽으로 자구요?

구술자 : 그럼 양쪽으로 그냥 이렇게. 거기다 그냥.

면담자 : 그럼 꽤 여러 명 들어갔겠네요?

구술자 : 아이 그럼요. 그냥 쪽- 이렇게.

면담자 : 그 천막을 그러면 여러 개 쳐놨어요?

구술자 : 그럼요. 여러 개.

면담자 : 그 시미즈구미는 조병창에 몇 명쯤 있었어요?

구술자 : 모르겠어요. 개네들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면담자 : 그 사무실에는 일본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는데요?

구술자 : 일본 사람이 한 일곱 여덟 명 있었나? 그리고 한국 사람이 한 두어 사람이  
있었고. 두세너명 있었고.

면담자 : 그러면 그쪽 구미에서는 다 굴 파는 것만 작업을 했어요? 그 때?

구술자 : 응응. 굴 파는 것만 했어요.

면담자 : 어디쯤에 천막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구술자 : 글썄 그걸 기억을 못하겠네. 내가.

면담자 : 거기에서 이제 그래프를 매일 그리셨잖아요? 오늘은 몇 명이 왔다. 오늘은 어  
디까지 몇 미터 뚫었다. 이런 거를 적으신 거네요? 기록하신 거네요?

구술자 : 그렇죠. 그런 거. 고런 걸 맨날 기록했지.

면담자 : 그럼 이렇게 하루 매일매일 사람들이 보충이 됐나요?

구술자 : 그럼. 매일매일 그 해서 얼마 인제 봤다고, 거기서 이제 소위 인제 이 반장이  
나 요새 이제 십장 뭐 현장에서 뭐 십장이라고 뭐 그러는데 인제 그런 사람  
들이 와서 이제 보고하는 거죠. 요새 뭐 5메타 봤다. 3메타 봤다. 뭐 얼마 이  
렇게 응, 인제 그걸 이야기를 하면 인제 고대로. 또 현장 뭐 답사 해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그냥 듣고 그냥 거기다가 그래  
프에다 이렇게 저거 그리고 그런 거 써놓는 거.

면담자 : 그 십장이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있었어요? 보고하는 사람.

구술자 : 거기 인제 굴마다 인제 다르지. 굴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 몇 개  
가 있는가 가보진 않았으니까. 가보진 않았는데 인제 그 사람들이 와서 오늘  
인제 작업 현황을 인제 와서 얘길 해 주면은 인제 고거 일지에다 몇 명 인제  
들어가고 몇 명 인제 그 때 당시의 그 굴이 어디 있는지, 그때 당시엔 뭐 우  
리가 요새 애들 모양으로 어디 가고 어디 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지  
리를 잘 몰라요. 그때는, 참 어디 가기가 힘들어. 가기가 힘들어요.

면담자 : 시미즈구미에서는 사무직이었으니까 월급을 좀 받으셨을 거 같은데.  
구술자 : 근데 월급, 을 그때 인제 줬는데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면담자 : 조금이요?  
구술자 : 응. 받긴 받았어요.  
면담자 : 예. 다른 사람들 월급 주는 것도 계산하셨어요?  
구술자 : 아노. 그건 그거는 따로,  
면담자 : 그건 일본 사람들이 하고요?  
구술자 : 그건 일본 사람들이 하지. 그걸 왜 맡겨? 안맡겨요.  
면담자 : 그럼 월급 받아서 뭐하셨어요?  
구술자 : 그냥 못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몇 폰 되지도 않으니까.  
면담자 : 뭐 할만한 액수가 아니었구나.  
구술자 :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뭐, 이게 이틀테면 이제 요셋말로 인제 담배나 사먹고 뭐 그런 거죠.  
면담자 : 그때 담배 피우셨어요?  
구술자 : 고 때는 담배 폼쥬.  
면담자 : 그러면 담배 사는 걸로?  
구술자 : 그럼 그거 사 피고 그랬지.  
면담자 : 담배가 이렇게 나오는 건 없었구요? 음. 뭐 좀 사드시고 그러셨어요?  
구술자 : 그럼요. 인제 그랬지. 그러니깐 그거 주는 건 몇 폰 안돼요.  
면담자 : 모을만한 거는 아니었나보네요...

### 조병창에서의 업무에 관한 회상

면담자 : 그 조병창 안에 계셨어요, 밖에 계셨어요?  
구술자 : 조병창은 따로 있고, 이제 따로 고 있지. 조병창은 못 들어가죠. 거기는 군사 개네들 그 군사 그 비밀 그 인제 무기 저거 하는 텐데.  
면담자 : 무기 만들거나 그런 건 전혀 못 보신거고?  
구술자 : 그럼. 거기는 못 들어가죠.  
면담자 : 조병창 주변에,  
구술자 : 그럼. 주변에 거기서 인제 해놓고, 개네들 숙사 이렇게 지어놓고.  
면담자 : 예. 근데 거기에 굴을 그렇게 많이 파면, 조병창에 있는 무기를 거기다 숨긴다고 그랬어요?  
구술자 : 인제 그렇게 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팔 때 왜 파느냐, 인제 했더니 대개 인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이게 조병창 인제 그런 짓을 개네들이 많이 했어요. 땅굴을 파고.

면담자 : 땅굴을 많이 팠어요? 그 주변에두요? 그 어디까지 팠어요?

구술자 : 모르겠어요. 그게, 내가 뭐 거기를 가보질 않았으니 몰라.

촬영자 :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잖아요? 매일매일. 그럼 그때 기록에 몇 미터까지 파고 들어갔다고 하시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구술자 : 그 기억은 못하네. 그거 이 매일매일 이렇게 들어가는 거나 이렇게 저 그래프 고거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생각 안나.

촬영자 : 그럼 보통 하루에 몇 미터정도 팠는지는 기억하세요?

구술자 : 보통 한 3메타 뭐 이렇게 얼마 얼마,

촬영자 : 많이 팠네요.

구술자 : 응. 많이 판 거지.

면담자 : 예. 3미터,

구술자 : 그때 무슨 뭐 기구가 있어? 순전히 곡괭이로 이렇게 파는 건데. 순 삽, 곡괭이, 그러구 사람이 이렇게 밀구 이렇게 허는데. 개네들이 이제 일본 말로 도루꾸 인제 그 바퀴 달린 거, 레이루(레일) 깔구, 그냥 매-일 뭐 이력하구 뭐 이걸루 모두 했잖아.

면담자 : 거기 굴 파는 데 도루꾸 다?

구술자 : 그럼. 그런 거 그런 거 해야지, 운반 수단이란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루 인제 해가지고, 쪽- 밀구, 인제 그랬지.

촬영자 : 인원도 보충되는 인원을 써서 기록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혹시 그 보충된 인원 말구, 뭐 보충이 안 되고 사망하거나 사고가 난 인원 같은 것도 보고가 들어온 게 있었나요?

구술자 : 사망사고는 그 때 없는 거 같애. 응 별로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사무실에.

면담자 : 누구 다치거나 그렇지는,

구술자 : 그 사망사고가 나면은 사무실에서 금방 아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단순노동이니까. 그거는. 뭐 곡괭이질 하고 하는 거니까, 그, 그 그런 얘기는 내 사무실에서 못 들었어.

촬영자 : 인원 결손은 별로 기록한 기억이 없으시고, 인원 보충한 기억은 많이 나시겠네요?

구술자 : 인원 인제 매일매일 인제 작업인원, 인제 고거 파악하고, 진도 고거 이제 파악하고. 뭐 인제 그런 거 그랬지.

면담자 : 한 반이 일을 며칠정도씩 해요?

구술자 : 응?

면담자 : 한 반이. 하루에 3미터 팠다 그러면, 열흘 일하면 한 30미터 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 : 한 달간 작업 한다 이런 반도 있고 그랬나요?

구술자 :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인제 나는 거기 직접 그 현장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이렇게 하다가 뭐 조금 진도가 좀 느려질 때는 무슨 인제 바윗돌 뭐 이런거 나오면은 조금 늦고 뭐 그래서, 그게 뭐 일정하게 딱 뭐 2메타 3메타 이렇게 막 매일 똑같은 건 아니고. 그렇게 차이가 조금씩 나긴 났었지 인제. 그 쪼끔 인제 파기 좋은 쪽으로만 났을 땐 조금 진도가 빠르고, 인제 그 정도고.

면담자 : 주변에 그 계셨던 데 주변에, 숙소 주변에 어떤 건물이나 학교 그런 게,

구술자 : 그런 건 몰라. 그땐 허허벌판이야 거기. 옛날에는 요새같이 큰 건물이 없었어요.

면담자 : 예. 그러면 멀리 산,

구술자 : 응?

면담자 : 산 보였던 기억 있으세요? 산?

구술자 : 옛날에는 인제 자꾸만 인제, 인제, 요새 분들은, 인제 옛날에도 그렇게 뭐 높은 빌딩 뭐 있고 뭐 이런 거 자꾸만 저, 상상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이 시골에 이렇게 여기 서울 한강 다리만 건너가면은, 이 초가집에 모두 납작한 집, 뭐 이제 그런 게 짝- 여기 있었지, 요새 인천까지 이렇게 쪽-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마는, 건물이. 옛날엔 여기 노량진 딱 건너고, 오류동, 영등포, 오류동 이렇게 딱 지나면은 거기에 부림은 시골이에요. 거긴 시골이에요. 이렇게 막 초가집 짝- 있고, 맨 논밭 이런 것만 있었지, 건물 뭐 요새같이 무슨 빌딩 이런 거, (없었어) 그러니깐 옛날엔 무슨 이 지명 알기가 힘들어. 거기 지금 물어봐도, 거기가 어딘지 몰라. ...

## 전쟁시기 공습에 대한 기억과 징용 현장에서의 생활

면담자 : 예. 일하실 때 사무실에 있을 때는데요, 어 45년이니까 뭐 비행기 뜨거나 흑시 그랬던 적은 없나요?

구술자 : 그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그쪽으로 뭐 비행기 뜨고, 뭐 허면은 인제 공습이라고 개네들이 이제 떠들지. 그럼 인제 그냥 인제 조용-히 인제 쭉그리고 이렇게 눈치만 보는 거지.

면담자 : 사무실 안에서요? 다른 데에서 일한,

구술자 : 왜정 때는, 왜정 때는 내가 운수부 거기 교통부, 거기 있을 때는 비행기 뜨잖아? B-29<sup>7)</sup> 인제 왕- 이제 떠요. B-29가 제일 무서웠어요. 대동아전쟁 때

7) 미국의 전술폭격기로, 5천 km가 넘는 작전행동반경을 비롯해 2차대전에 투입된 중폭격기로서는 최고의 비행성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도쿄대공습 및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의 원폭 투하에도 투입되었다.

는. 그놈이 그냥 왁- 그냥, 비행 그 구름 이렇게 막- 허-영게 품고 이놈이  
탁- 날러. 그러면 그냥 일하다 말고 다 그냥 대피하라고. 그럼 방공호 속으  
로 모두 다 들어가.

면담자 : 거기서도 그랬어요?

구술자 : 어. 거기서도 그랬어. 여기 와서 다 방공호로 다. 근데, 미군이 폭격은 안했잖  
아. 이 한강 다리만 이제, 한강 다리는 인제 있다 저 뭐야 6.25때 했지, 개네  
들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일본 놈들이 뭐 요거 빵빵 쏘도 그 반도 못 올라가  
죠. 고사포, 일본 놈 고사포로 빵 쏘도 반도 못 올라가고 팡 터져. 그러니깐  
상대가 안 되는 거야.

면담자 : 직접 보신 적은 없고? 비행기를 보신 적은 없구요?

구술자 : 아 비행기 봤지. B-29 이렇게 날아가는 거 한 거야. 그러구 뭐야. 일본 애들  
은 도대체가 게임이 되질 않아요. 개네들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개네들 뭐  
발사대라고 그-냥 뭐 저거 하고 했는데, 역부족이야. 역부족. 개네들

보조면담자 : 비행기를 그럼 어디서 보셨던 건가요?

구술자 : 응?

보조면담자 : 학교 다닐 때 보신 건지 아니면은 그 징용 가서서 보신 건지.

구술자 : 징용 갈 때도 한 번 가서 봤어요. 어 공습이라고 해갖고. 그래 이거 왜 그러  
냐 하면은, 일제 때 그 해방, 그때는 한국 폭격 안했었잖아요. (미국) 애들.  
인제. 무섭게 시위만 하는 거지.

면담자 :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방공호로 숨거나 그러지는 않았나봐요?

구술자 : 응? 응.

면담자 : 방공호에. 굴 파러 간 사람들은 그런 장면은 못 봤겠네요?

구술자 : 그 뭐 굴속에 들어가면 몰라요.

## 전진수, 부평 야산에 진지를 구축하던 일본군을 보조하다

### 학생들의 농번기 근로동원

면담자 : 어르신 그러면 조병창은 언제쯤 가신 거예요?

구술자 : 조병창, 저희가 주둔할 때는.

면담자 : 아, 조병창 주변.

구술자 : 주변 간 것이 1945년.

면담자 : 1945년이요?

구술자 : 네. 1945년 그 7월인지 8월인지 기억이 제대로 안 나요.

면담자 : 방학하고 가셨나보네요?

구술자 : 그게 아주 애매합니다. 지금도 암만 기억을 되찾으려 봐도. 거기서 온 거는 15일 날, 점심 먹고 시간이 이쯤 돼서 출발했을 거예요. 부평역에 가서 기차를 타야 경성역까지 오니까 지금 서울역까지. 그때는 그게 유일한 인천 다니는 교통수단이니깐.

면담자 : 그러면 경신학교 다니실 때 중학교 시절에는 방학에 주로 뭘 하셨어요?

구술자 : 방학에? 방학하면서 부모님 농사짓는 거 많이 도와드렸죠.

면담자 : 그 시절에 45년, 44년 이러면 중학생들은 근로동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 : 혹시 농사를 같이 다른 친구들과하고 한꺼번에 지으러 간다든가. 아니면 어디 같이 일을 하러 간다든가 그랬던 경험은 없으세요?

구술자 : 그런 거 있죠. 우리 1학년 때 2개 학급이 모 심을 무렵에 김포 하석면, 김포 맨 아래 애기봉 있는 데가 하석면이에요. 거기 가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농가에 가서 사랑에 전부 입주하면서 그 지역의 모심고 왔어요. 그거 마치고 범선[뚝단배]으로 돌아오고 그랬어요.

면담자 : 그럼 보통 며칠 정도 가 계셨나요?

구술자 : 아마 그때 한 두어 주일 했을 거예요. 모 심는 거, 가서 모만 심으니깐.

면담자 : 학생들이 두 클래스면 몇 명 정도?

구술자 : 한 120명 된다고 봐야죠.

면담자 : 한 반에 60명씩이요?

구술자 : 네.

면담자 : 120명이 가서 2주일 정도 모를 심고.

구술자 : 담임선생님 지도하에. 2개 클래스가 갔어요.

면담자 : 모는 언제쯤 심죠?

구술자 : 그게 그때 6월 달일 거예요. 그때는 밭에 오이가 이렇게 꽃이 피어요, 노랑  
게. 오이가 열리려면 오이 조그만 꽃부터 수꽃이 있고 암꽃이 있어서 암꽃에,  
이미 오이가 생겨서 나와. 그때 우리가 거기 내렸을 때는 오이가 이제 꽃이  
피고 열리기 시작할 때 그 무렵에 갔다가 이제 그거 따는 거 보고.

면담자 : 아직 방학은 아니네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 : 그러니까 수업하는 도중에.

구술자 : 그렇죠. 한 두 주간.

면담자 : 농번기가 되면 학생들이 2주 정도 농사를 지으러 가고 그랬던 거네요?

구술자 : 저희가 한 번 그 경험이 있습니다.

면담자 : 그 방학 때는 또 다른 일을 했을 텐데, 혹시 그 부평역 주변에 가서 굴을 파  
신 게 그게 방학 때 근로동원이 됐던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런데요.

구술자 :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방학 때인지 수업을 하다가 우리가 그리 동원이 됐는지  
그것이 좀 생각이 제대로 안 나네요. 또 우리 (같이 강제동원 됐던) 동료들  
이 대부분이 가고 또 남은 사람들이 거동불편자, 그러다보니까 몇 사람을 억  
지로라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처지가 못 돼가지고. 아휴.

면담자 : 몇 분이 같이 가셨죠?

구술자 : 2개 클래스가.

면담자 : 부평에 가실 때도?

구술자 : 부평 갈 때도 역시 똑같이 간 거예요.

면담자 : 가실 때는 그러면 1반, 2반, 여기 간다. 그랬겠네요?

구술자 : 그럼요.

면담자 : 그럼 3반, 4반은.

구술자 : 우린 3반, 4반은 없고 갑, 을조니까. 갑조, 을조.

면담자 : 경신학교 자체가 한 학년이 갑조, 을조.

구술자 : 1학년, 2개 반 밖에 없어요.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면담자 : 그러면 2학년 전체가 다 부평역 주변으로 간 거네요?

구술자 : 전체가, 그렇죠, 그럼요.

면담자 : 갈 때는 그럼 미리 학교에서 일정을 가르쳐줬겠어요?

구술자 : 그 거기서 출발 날짜 정해주니까 전부 침구도 가져가야 하는 거고. 그건 각  
자.

면담자 : 침구. 그러니까 ‘침구를 가지고 와라.’, 언제 어디로 간다는 말도 했고요?

구술자 : 경성역, 경성역. 지금 서울역 있잖아.

면담자 : 경성역으로 모여라.

구술자 : 집결.

면담자 : 그 다음에 부평으로 간다는 말도 미리 해줬고요?

구술자 : 네. 그런 말씀은 있었겠죠.

면담자 : 그럼 학교에서는 누가 동행을 한 거예요?

구술자 : 우리 담임선생님이 인솔하고. 그때 뭐 동원령이 내렸겠죠. 학교로.

면담자 : 학생들 동원령이 내렸었죠. 그럼 거기 가지 않았을 때는 평소에는 수업을 하셨어요?

구술자 : 그렇죠. ...

### 조병창 동원과 해방 후 군복무 경험

면담자 : 그 조병창에 갈 때는 교복을 입고 가셨나요?

구술자 : 우리 학생복 그대로 입고 갔지요. 그때는 모자가 지금 같은 학생모가 아니고 군인들 모자하고 비슷하게 전투모라고 그랬어. 저 발에는 각반 차고 여기다 둘둘 마는 거 있어요. 아래에서부터. 그걸 매고.

면담자 : 그러면 교복 자체도 좀 군복 모양이었겠네요?

구술자 : 교복 그대로. 학교에서 지정한 대로 이 단추 달고, 학교 단추 달고, 모자는 군인들 쓰는 모자 그런 형식으로 만든 거. 그때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총동원 체제, 총동원, 그 모든 국민 총력전이니까. 전쟁은 국민 총력전. 모든 국민이 거기에 한 마음으로, 그게 중요한 정신교육이었지.

면담자 : 예. 어느 날 경성역 앞으로 다 모여라.

구술자 : 그렇죠. 그 시간 지정이 됐기 때문에 꼼짝 못하죠. 선생님이건 뭐건 감히 ‘못가요.’가 어디 있어. 병이나 들고 못가면 못 갔지.

면담자 : 그럼 아침에 경성역으로 다 침구를 가지고 간다니까 이거는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꽤 긴 시간 있겠구나 생각을 했겠네요.

구술자 : 일정 기간, 침구들을 전부 챙겨가지고.

면담자 : 일을 할 거다?

구술자 : 예.

면담자 : 아까 그 모 심으러 갔을 때도.

구술자 : 그때도 침구 가지고 갔었어요.

면담자 : 아. 항상 본인 침구를 챙겨가지고.

구술자 : 내가 덮을 거는 내가 가지고 갔어. 그 많은 것을 농가에서 대주기 어렵지.

면담자 : 예. 그러면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가셨나요?

구술자 : 부평역.

면담자 : 부평역으로.

구술자 : 바로 부평역 근처에 그 미쓰비시, 그 씨드려야 한다.

면담자 : 미쓰비시 제강이었죠?

구술자 : 이 미쓰비시 철공소는 지금으로 생각해보니까 제철소, 규모가 크니까.

면담자 : 이름이 미쓰비시 제강.

구술자 : 일본의 재벌이에요. 그 당시, 전쟁 수행은 재벌의 뒷바라지가 안 되면 전쟁 못하지요. 뒤에서 밀어줘야 되거든. 만들어야 되거든.

면담자 : 미쓰비시의 어디로 가셨어요?

구술자 : 바로 거기 그 사원들 막사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면담자 : 여기 사택에서요?

구술자 : 여기 미쓰비시, 거 경인선 바로 이렇게 접하고 있었어요. 얼마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전부 보이죠.

구술자 : 우리 거기 도착해서 점심 식사하고 바로 일본 군인들의 검열을 받았어요.

면담자 : 검열이요?

구술자 : 네.

면담자 : 환영식이 아니고 검열을 받았어요?

구술자 : 검열이죠. 우리가 뭐 우로 봐 이려고,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검열 중에 일사병에 걸려 쓰러졌어요. 그래서 의무실에 끌려갔어.

면담자 : 그러니까 검열이 분열, 행진 이런 거 하신 건가요? 열병식?

구술자 : 열병식.

면담자 : 제가 오해했어요.

구술자 : 맞아, 그런 거.

면담자 : 열병식을 하셨어요? 도착해서 바로. 그럼 그 전에 교련했던 거?

구술자 : 네. 열병식을 그렇죠. 우로 봐 하고 차렷하고.

면담자 : 우로 봐 이거 하셨다고요?

구술자 : 이런 거 전부 했어. 근데 그때 저는 쓰러지기 직전이어서 의무실에 가서 치료를 받은 걸로 기억해.

면담자 : 아, 의무실이 있었나요?

구술자 : 그 군인들이 있지요. 그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으니 의무실이 있지.

면담자 : 그 군인들이 있는?

구술자 : 현역, 현역 의무실에 가서. 우리 거기 배속됐으니까.

면담자 : 조병창 안에 있는 의무실이 아니고?

구술자 : 거기 22부대.

면담자 : 군인들이 있는. 그리고 그 열병식을 하고 그게 그러니까 환영식이었네요?

구술자 : 우리가 거기 왔다는 걸 확인하는 거지.

면담자 : 그러면 어느, 어느 학교 아까 경신학교와 다른.

구술자 : 우리는 중학교 2학년생이고 청주는 상업학교, 충주는 농업학교 4학년이에요.  
두 군데는 4학년생이 왔어, 상급생들이.

면담자 : 세 학교 학생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환영식을 한 거네요?

구술자 : 같이 열병식 했지.

면담자 : 같은 날?

구술자 : 같이 했지, 같은 시간에.

면담자 : 그러면.

구술자 : 우리는 하급생이니까 쪽도 못 쓴다고.

면담자 : 그날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전혀 기억을 못하시고?

구술자 : 하도 오래됐어요. 그리고 내가 더워가지고 의무실에 끌려간 거죠.

면담자 : 그러니까 그 장면은 전혀 기억을 못하시겠어요.(웃음) 그러면 그날 바로 의복을 다른 걸 제공받고 하셨나요?

구술자 : 아니에요. 우리 입고 다녔어요. 우리 옷.

면담자 : 교복 입고 그대로 일하셨어요?

구술자 : 그럼, 각반 매고. 우리 옷 입고 했지.

면담자 : 자, 지금부터 ‘어느 학교 누구는 무슨 일을 한다.’ 이런 걸 그날 다 나눴겠네요?

구술자 : 그 굴, 굴로 다 보네요. 여기도 가고, 여기고 가고 전부 분산한다고.

면담자 : 세 학교 학생들 전부 다?

구술자 : 굴을 전부 다 배정받는 거야.

면담자 : 그런데 굴이 여러 개고?

구술자 : 그렇죠. 여러 개 뚫으니까 그 인원들이 전부 배당이 되고 굴로. 작업장이 전부 굴 뚫는 그거. 군인들은 함마 가지고. 남포 구멍이라고 그래요. 긴 정으로 때리면 흙, 돌이 여기 자꾸 들어가요. 그러니까 길게. 그러면 거기다 물을 부어 가면서 물을 안 부으면 속에서 불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두들기면 가루가 되잖아요. 그걸 긁어내야 돼 이렇게. 물을 붓고 그러려면 돌가루가 찢어서 나오죠. 끌려 나오지. 그럼 이제 그걸.

면담자 : 거긴 착암기 동원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구술자 : 착암기 그때는 없었어. 그때 보면 참 원시적인 공사지. 지금은 뭐 잠깐이면 뚫잖아. 아까 자동차 기사님 말씀대로 원하는 대로 직경 얼마 하면 조립해서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건 여력도 없잖아요.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면담자 : 군인들이 굴을 뚫는 일을 했네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 : 이게 군인들은 굉장히 시급한 일이었던 거네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 : 아까 말씀하신 건 산을 양쪽으로 뚫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구술자 : 그렇죠. 관통.

면담자 : 그럼 그 산을 넘어가면 그 반대편은 혹시 바다였나요?

구술자 : 거기 바다는 아니에요. 우리 부평 쪽.

면담자 : 그 산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구술자 : 뭐가?

면담자 : 그 굴을 뚫었던 산.

구술자 : 그 산 이름을. 거기 산이 아주 높은 산이 아니고 야산.

면담자 : 그러면 그 야산을 밑을 이렇게 관통하게 뚫은 이유가 뭘까요?

구술자 : 그 방어진지라고 봐야죠. 방어진지.

면담자 : 사람도 거기 들어가 있고.

구술자 : 좀 물자도 넣을 수 있고.

면담자 : 창고로 쓰고 그러니까 공격에 대비해서 들어가 있을 곳을 확보한 거네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 : 그런데 그걸.

구술자 : 지하시설이에요. 지하시설.

면담자 : 굴을 지금 여러 개 뚫고 있는 거네요?

구술자 : 그 일대는 그냥 여러 군데 작업했으니까.

면담자 : 어르신이 확인한 굴이 몇 개 쯤 되세요?

구술자 : 예전에 김 팀장하고 간 것은 우리가 작업한 지역이 아니라 그 쪽에 갔더니 세 개인가 몇 개 봤는데 그런데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달라지고 전부 발전을 해서 주택가가 돼가지고 어떤 곳은 아마 집안에도 있을 거야. 그 뒷 뜰에.

면담자 : 예전에 그 당시에 친구들이나 다른 학교 학생들이 다른 굴로 갔잖아요?

구술자 : 그렇죠. 그건 모르지 우린, 우리는 지정된 작업장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면담자 : 그럼 그 지정받은 작업장에는 몇 명이 같이 갔어요?

구술자 : 그때 참 그것도 하도 오래돼서, 70년 가까이 되잖아요?

면담자 : 식당은 따로 있고요?

구술자 : 식당은 아마 따로 있었던 거로 기억해. 그 군인들이 취사하는 데도 밖에 이런 가마솥 걸어놓고 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물은 늘 끓여. 일본 사람들 보리차를 잘 먹거든요. 그럼 이런 나무통에다가 불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고 가는 게 아니고 현역 군인들, 아버지 같은 현역 군인들이 작업장의 산까지 그걸 매고 비탈을 올라가는 거야. 목도 한다 그러지? 이렇게 하고 장사들이 앞뒤

에 물건 달고 그거 목도한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거기에서 흙 지어 낼 때도 가마니 끈 여기다 매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다 돌 부스러기, 거기서 나온 바위 부스러진 흙 파 넣고 그거 지고 나와서는 이렇게 버리면. 물은 아주 그 들이 철저히 끓여줬어요. 위생적이었죠.

면담자 : 배탈 나지 않게 하려고 관리를 하고 그랬죠.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 : 산 밑이 아니라 산 위에.

구술자 : 산 중턱.

면담자 : 중턱이요?

구술자 : 그렇죠. 밑에 하면 안 되지. 그래야 앞이 보이잖아. 맨 밑에 하면 안 보이지.

면담자 : 아. 그곳에 그러면 물자를 다 넣어놓고 그곳에 사람을.

구술자 : 그 뒤에 뭐하는 건 우린 모르죠. 공사만 참가했으니까. 그 굴 뚫다가 전쟁이 끝났으니까. ...

면담자 : 그 얼마큼 계셨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일하실 때 아까 2교대 이런 말 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몇 시쯤 시작하고 저녁에 언제쯤 끝나고, 좀 바뀌면 저녁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고 이렇게 2교대를 하셨나요?

구술자 : 네. 2교대 한 거로 기억이 돼요.

면담자 : 밤에 일하신 것도 혹시 기억하세요?

구술자 : 저흰 밤에 안 했어요. 낮에 했어요.

면담자 : 그러면 밤에는 계속 들어간 다른 팀이 또 있겠네요?

구술자 : 그렇겠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한 거로 기억이 돼요. 한 쪽은 자고 한 쪽은 일하고.

면담자 : 그럼 숙소에서도 들어오면 자는 친구들이 있고.

구술자 : 빠지니까 또 자는 거지.

면담자 : 제가 아까 일본 학생이 있었느냐고 여쭙본 건 숙소를 일본 학생, 한국 학생 같이 쓰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구술자 : 일본 학생은 없었어요.

면담자 : 그러면 12시간 동안 일하고 나서 씻고 하는 거는 어디서 하셨어요?

구술자 : 그 기억이 잘 안돼요.

면담자 : 여기는 1년 동안 간다 이런 말을 듣고 간 건 아니었잖아요?

구술자 : 아니지. 거기서 간다 그거만 우리가 지시받고 선생님이 데리고 집결해서 갔으니까.

면담자 : 그러면 혹시 여기 가면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들으신 거 있으세요?

구술자 : 그런 건 없어요.

면담자 : 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구술자 : 그런 건 없어요. 금전문제는 들은 적이 없어요.

면담자 : 전혀 받으신 적도 없고.

구술자 : 전혀. 학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면담자 : 그러면 식사 하시는 건 어땠나요?

구술자 : 식사는 군인들 식사하고 똑같이.

면담자 : 아까 많이 먹으라고 했다고.

구술자 : 그럼.

면담자 : 그러면 먹는 것 때문에 보통 가장 힘들었다고 그랬는데.

구술자 : 그건 아니에요.

면담자 : 여기는 상대적으로 넉넉했네요.

구술자 : 우린 학생인데 군인들이 우리 무시했다가는 반란 나게. 안 되지.

면담자 : 군인들하고 같은 대우를 받았으니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은 거죠?

구술자 : 그렇죠. 그때 군인들이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우린 여기서 콩치를 구경도 못하는데 콩치 한 마리를 이렇게 해서 그걸 찌가지고 한 마리씩 줬는데 그것이 얼마나 단지, 지금 같으면.

면담자 : 1인당 한 마리씩 줬어요?

구술자 : 비려서 못 먹는데 거기서는 왜 그렇게 꿀맛 같았는지. 콩치 한 마리가. 그리고 하나 잊지 못할 것은 군인들은 영양 실조되면 각기병이 걸리거든요. 각기가 비타민 B가 결핍하면 각기병, 저는 옛날에 육군 소위 때 각기병도 앓았어요. 못 먹어가지고. 거기서는 주기적으로 팔죽을 끓여줘요. 팔죽을 끓이는데 꿀맛 같이 달게 해줘요. 일본 말로는 '젠사이(ぜんさい, 前菜)'라고 그래요.

면담자 : 젠사이?

구술자 : 단팔죽, 젠사이. 내 발음이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대로 참고하시고 그것도 그냥 이런 가마솥에다 끓여가지고 그 반합에다 상당한 양을 주는 거야. 많이 먹으라고.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거야. 아버지 같은 그 취사병 군인이.

촬영자 : 그 팔죽은 자주 드셨어요? 아니면 한 번?

구술자 : 그건 아마 한 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었을 거야. 그리고 콩치도 그렇게 공급 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잊지 못해 그거는. 아마 지금 집에서 해주면 잘 안 먹지, 비린내가 나서. 그런데 그때는 꿀맛이야. 어찌면 그렇게 잘 찌서 줬는지. 군인들은 하여튼 잘 먹었어요. 먹어야 전쟁하지요. 힘이 있어야.

면담자 : 제일 먼저 물자를 배당했겠죠.

구술자 : 그렇죠. 모든 거는 총력전, 그러니까 국민총력전이라고.

면담자 : 학생들 사이에 불만은 없었나요?

구술자 : 학생 때? 불만할 데가 어디 있어요. 학교 다니는 것만으로 대만족이죠. 학교 못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감사한데. 지금도 그건 잊지 못해요.

면담자 : 그때 다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굴 파는 게 학생들한테 익숙한 작업이 아니잖아요.

구술자 : 우리는 굴 팔 때 우리가 남포 구멍 뚫고 이런 건 안하고 우리는 그냥.

면담자 : 운반만?

구술자 : 우리는 흙, 깨진 바위 바스러진 거, 흙 부스러져 나온 거 처리만 해준 거야. 계속, 그거 나오는 대로.

촬영자 : 파는 거는 조선인 어른 남자가?

구술자 : 군인들이.

촬영자 : 군인들이 했어요?

구술자 : 현역 군인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파 들어가는 방향이 이쪽이면 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긴, 이렇게 하면 돌이 부스러져.

면담자 : 길게 구멍이 나면?

구술자 : 여기를 때리면 돌이 조금씩 부스러져 그럼 이걸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씩 들어가는 거야. 기계로 하면 폭 들어가는데 사람의 힘이 있으니까 조금만 부스러지지. 그 암벽이 바스러져요? 계속 때리면 여기 열이 받아서 쇠가 견디지를 못하니까 거기다 물을 부어, 물을. 그러면 가루가 콩죽같이 되지. 그러면 긁어내야 돼. 길면 길수록 끌어내는 것도. 그것도 그러드려야 알지, (말만 하면) 모르지. 지금 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이제 굴을 뚫고자 해요. 그럼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생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를 때려요. 그럼 끝이 여기에 부대깁니다. 이게 계속 부대껴. 그럼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물을 부어요. 그럼 이 가루 나오는 거를 밖으로 끌어내요.

면담자 : 끌어내고요.

구술자 : 네. 끌어내는데 끌어내는 건 그 구멍보다 조금 적은 데에 이렇게 국자 같이 손잡이가 있고 이걸로 또 긁어내야 돼, 거기에서. 물을 부으면 콩죽 같이 되지요.

면담자 : 네.

구술자 : 그럼 이제 긁어내.

면담자 : 돌가루를 긁어내는?

구술자 : 그렇지 돌가루, 돌. 여기 때리는 거는 여기 함마 가지고 이걸 때리죠. 여기 둥그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히 인력으로 하는 거야. 인력으로.

촬영자 : 혹시 그때 군인들 나이가 몇 살쯤이었는지는 기억나세요?

구술자 : 그 군인들, 거의 40대 됐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사장 내지는 임원들 마지막으로 동원한 거예요. 일본에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전사하고 뭐 다쳐서 돌아오고.

면담자 : 다 군대 가 있고.

구술자 : 그럼요. 마지막 45년 정도에는 종전 단계니까 젊은이들은 다 끌려갔다고 봐야지요. 남양군도, 오스트레일리아 가까이까지 갔다가 전부 두들겨 맞고.

면담자 : 그때 마지막이다 이런 느낌이 드셨어요?

구술자 : 그때.

면담자 : 일본이 전쟁하고 있는데 잘한다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면 지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구술자 :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중학교 다녔지만 언젠가는 저 망할 거다.

면담자 : 일본이?

구술자 : 일본이 망할 거다. 그런 우리 동창 몇 사람끼리는 얘기를 했어. 숲에 가서. 아무데서나 이야기하면 큰일 나지요. 비국민이 되지. 진다고 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못하죠. 우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

면담자 : 8월 15일에 지금 일본이 항복하고 있다 하는 걸 아까 선생님께 들으셨다고 하셨나요?

구술자 : 그건 그때는 ‘집으로 간다.’ 이 소리만 먼저 들었지요.

면담자 : 그럼 그날 아침부터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술자 : 아침에는 모르죠. 우리 점심 먹을 무렵에 그랬으니까.

면담자 : 그러면 가서 굴 파다가.

구술자 : 작업하다가 내려와서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서울역으로 갈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면담자 : 경성역으로 간다?

구술자 : 해방이니 뭐 전쟁이 끝났다니 이런 말도 아니고.

면담자 : 담임선생님께서요?

구술자 : 그럼요. 우리 인솔하는 담임선생님이.

면담자 : 점심 먹고 있는데요?

구술자 : 그럼요

면담자 : 점심을 드실 때 선생님이 이제 짐 싸라.

구술자 : 점심은 먹었어요. 뭐 전부 그냥 서울로 간다니까 울렁울렁하죠. 그래도 다행히 역에 나와 가지고 전부 차를 탔어요.

면담자 : 곧바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구술자 : 하여튼 우리가 승차는 전부 지장 없이 다 해가지고 경성역까지 왔으니까. 지금의 서울역. 이제 거기서부터 집까지는.

면담자 : 그 기차를 탈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겠어요?

구술자 : 그런데 뭐 우리 그때 경성역까지 올 때 차 탄 데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탄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오후, 시간은 이거보다는 좀 일찍 나왔을 거야. 점심을 먹고 바로 나왔으니까.

면담자 : 바로 탈 수 있었네요?

구술자 : 거기서 바로 역이 가까웠어요. 부평역이 아주 가까웠어요.

면담자 : 예. 역이 옆이니까. 그럼 같은 기차를 다 탔을 텐데 그때 그 분위기가 어땠어요? 친구들이.

구술자 : 뭐 신나죠. 집에 간다니까.

면담자 : 그럼 다 같이 노래라도 부르고 그랬나요?

구술자 : 그때 뭐, 생각이 나야지. 기억이 뭐,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옛날에는 수줍어서 별로 안했어요. 좀 까분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까불 줄 몰랐거든 암전하게.

면담자 : 그 분위기가 굉장히 궁금해요. 내가 조선 사람이고 수업은 계속 나는 일본사람이라고 배우고 있고 국어도 일본어고 국사도 일본 역사인데.

구술자 : 우리 일본말 다 했지요.

면담자 : 그런데 해방이 됐을 때 중학교 2학년 정도의 감성으로는 이 해방이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차를 타고 갈 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구술자 : 근데 그때는 해방이 됐더라도 독립이라는 이런 술어 자체를 별로야. 우리가 모르지. 독립을 어떻게 압니까? 그 식민지 생활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우리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그 성까지 바꾸고 모든 문화를 일본 문화로 이렇게.

면담자 : 아직 기차를 타고 갈 때는 실감이 안날 수가 있는데, 경성역에 내리면.

구술자 : 그때는 그냥 경성역 광장이 뭐 들떴죠. 얼마나 함성이.

면담자 : 함성이요?

구술자 : 그럼.

면담자 : 뭐라고 하는?

구술자 : 만세, 만세.

면담자 : 만세 외치는 함성이요.

구술자 : 응. 뭐 그때는 지금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뿔뿔한가요. 지금은 얼마나 개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술어도 많지만 그때는 해방, 만세.

면담자 : 해방 만세.

구술자 : 그럼, 만세 그리고 광복이라는 말도 모르고.

면담자 : 해방 만세 이렇게?

구술자 : 해방.

면담자 : 아직 그날은 태극기는 안 나왔겠네요?

구술자 : 태극기는 우리가 일장기 걸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그냥 밑에 검은 거 그리고 옆에 케 그리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지도 모르지.

면담자 : 그날은 태극기가 일장기를 바꾼?

구술자 : 기관차에 이렇게 십자로 했는데 그거 잘 한 거지요. 서툴르게 했어도.

면담자 : 태극기를 양쪽에 이렇게 걸쳤어요?

구술자 : 응. 이제 그걸 보고 케,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도 저런 우리 선배들이 계셨구나. 한 건 그건 우리가 존경스럽죠.

면담자 : 태극기를 바로 찾았고 그 열차 앞에 그걸 딱 게양을 했었네요.

구술자 : 그럼. 게양하고 목이 터져나가게 그냥 만세를 불러.

면담자 : 그러면 열차를 타고 서울시내 분위기를 쭉 보실 수 있었잖아요.

구술자 : 그때는 지금 같이 육속된 도심지가 아니고 별로야. 저 기차길 옆에는 없어. 그때는 없어. 지금은 전부 이렇게 변화하고 가까워서 전부 붙어있지만 그때는 기차길 옆에는 썰렁해.

면담자 : 경성역 주변은 그랬지만.

구술자 : 그럼요. 거기서는 이제 전차에 만세 부르고. 전차 뭐 막.